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표

- 기초분석보고서

책임연구원 김형주

공동연구원 임지연 유설희



연구보고 18-R06-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 기초분석보고서

책임연구원_ 김형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 임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유설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보고 18-R06-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 기초분석보고서

책임연구원_ 김형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 임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유설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문연구위원)

연구보조원_ 배진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사업운영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국문초록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조사 시점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전국 17개 시·도의 만15-39세 일반국민이다. 목표 표본규모는 전년 대비 300명 늘어난 3,000명으로 산정하여 보다 정확한 결과를 기하고자 하였고, 최종 조사결과 총 3,133표본이 수집되었다.

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앞서 조사도구, 조사방법, 실사 환경 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비하기 위해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예비조사를 진행 하였다. 본 조사는 조사원이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 대상자와 접촉, 대면하여 면접하는 1:1 가구방문 개별면접 기법으로 수행되었으며, 가구 방문 시 조사대상 연령대 가구원이 부재중일 경우에 한하여 일부 가구원 유치 조사를 병행하였다. 본 조사는 2018년 7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약 5주간 실시되었다.

본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에서는 2016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표본추출틀로 활용하여 300개의 표본조사구를 추출하였다. 표본추출은 층화2단추출법을 적용하였는데, 1차 추출단위는 조사구이고, 2차 추출단위는 가구 및 만 15-39세 청년이다. 각 층에서 배정된 표본 조사구 수만큼을 조사구 내의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에 따라 추출하였고, 이 조사의 표본가구로 선정된 경우에 적격 조사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본고는 이와 같이 수집된 데이터를 기초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Ⅲ

- 기초분석보고서

연구보고 18-R06-2

Ⅰ.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3
----------------	---

Ⅱ.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표

1.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응답자 분포	35
2.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36

부록

1.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항목	323
2.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표_청년용	328
3.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표_중·고등학생용	354
4.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지침서	370

표 목차

표 I-1 조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4
표 I-2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조사항목	5
표 I-3 조사 일정	10
표 I-4 항목 무응답	11
표 I-5 모집단 현황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19
표 I-6 만 15-39세 성인의 시도 및 연령대별 분포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19
표 I-7 서울시 권역별 해당 구 현황	20
표 I-8 경기도 권역별 해당 시군 현황	20
표 I-9 총화 방법	21
표 I-10 세부 층별 모집단 조사구 현황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1
표 I-11 세부 층별 모집단 가구 현황(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	22
표 I-12 주요 조사변수에 대한 설계효과(design effect) 현황	23
표 I-13 각 권역별 표본배분 현황	24
표 I-14 각 권역별 모비율 추정에 대한 95% 신뢰수준 오차의 한계 예상	24
표 I-15 시도별 표본 조사구 수	25
표 I-16 세부 층별 표본 조사구 현황	26
표 I-17 지역별 가구당 평균 조사대상자 수 현황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7
표 I-18 시도 및 연령별 모집단 분포 : 남자(장래인구추계, 2018년도) · 30	
표 I-19 시도 및 연령별 모집단 분포 : 여자(장래인구추계, 2018년도) · 30	
표 II-1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연도별 추이	36
표 II-1-1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37
표 II-2 원가정으로부터 독립 필요성 및 적정 독립시기 연도별 추이 ..	38
표 II-2-1 원가정으로부터 독립 필요성 및 적정 독립시기	39

표 II-3 결혼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시기 연도별 추이	40
표 II-3-1 결혼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시기	41
표 II-4 자녀를 가질 필요성 및 적정 자녀 계획 시기 연도별 추이 ..	42
표 II-4-1 자녀를 가질 필요성 및 적정 자녀 계획 시기	43
표 II-5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 연도별 추이	44
표 II-5-1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	45
표 II-6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육아 대책 연도별 추이	46
표 II-6-1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육아 대책	47
표 II-7 결혼 준비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48
표 II-7-1 결혼 준비 경험 여부	49
표 II-8 결혼 준비 시 망설임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50
표 II-8-1 결혼 준비 시 망설임 경험 여부	51
표 II-9 결혼을 망설임 이유 연도별 추이	52
표 II-9-1 결혼을 망설임 이유	53
표 II-10 맞벌이 여부 연도별 추이	54
표 II-10-1 맞벌이 여부	55
표 II-11 현재 자녀 존재 유무 연도별 추이	56
표 II-11-1 현재 자녀 존재 유무	57
표 II-12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 연도별 추이	58
표 II-12-1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	59
표 II-13 2025년 출산율 전망 연도별 추이	60
표 II-13-1 2025년 출산율 전망	61
표 II-14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 연도별 추이	62
표 II-14-1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	63
표 II-15 해외이주를 고려한 이유 연도별 추이	64
표 II-15-1 해외이주를 고려한 이유	65
표 II-16 2025년 입시경쟁 전망 연도별 추이	66
표 II-16-1 2025년 입시경쟁 전망	67
표 II-17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연도별 추이	68
표 II-17-1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69
표 II-18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2)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연도별 추이	70
표 II-18-1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2)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71
표 II-19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3) 한국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연도별 추이	72
표 II-19-1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3) 한국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73
표 II-20 대학(교) 진학 경험 여부	74
표 II-21 대학 전공 계열 연도별 추이	75
표 II-21-1 대학 전공 계열	76
표 II-21-2 대학 전공 계열 (한국표준교육분류 적용)	77
표 II-22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연도별 추이	78
표 II-22-1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79
표 II-23 졸업 유예 이유	80
표 II-24 대학교육 만족도_1) 나는 대학교육에 만족한다	81
표 II-25 대학교육 만족도_2) 나는 대학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82
표 II-26 대학교육 만족도_3) 나는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83
표 II-27 대학교육 만족도_4) 나는 내가 선택한 대학에서의 학과(전공)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84
표 II-28 고교교육 만족도_1) 나는 고교교육에 만족한다	85
표 II-29 고교교육 만족도_2) 나는 고교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86
표 II-30 고교교육 만족도_3) 나는 고교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87
표 II-31 고교교육 만족도_4) 나는 내가 선택한 문/이과 혹은 전공선택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88
표 II-32 대학 미진학 사유 연도별 추이	89
표 II-32-1 대학 미진학 사유	90
표 II-33 향후 대학 진학 의향 연도별 추이	91
표 II-33-1 향후 대학 진학 의향	92
표 II-34 취업준비 여부 연도별 추이	93
표 II-34-1 취업준비 여부	94
표 II-35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95

표 II-35-1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96
표 II-36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 연도별 추이	97
표 II-36-1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	98
표 II-37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연도별 추이	99
표 II-37-1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100
표 II-38 적정 최저 임금 연도별 추이	101
표 II-38-1 2020년 적정 최저 임금	102
표 II-39 2025년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 전망 연도별 추이	103
표 II-39-1 2025년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 전망	104
표 II-40 미취업 청년 대상 급여(수당, 배당) 지급에 대한 생각 연도별 추이	105
표 II-40-1 미취업 청년 대상 급여(수당, 배당) 지급에 대한 생각 ·	106
표 II-41 한 달 생활비 정도 및 한 달 생활비 중 부모님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 연도별 추이	107
표 II-41-1 한 달 생활비 정도 및 한 달 생활비 중 부모님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	108
표 II-42 갚아야 할 채무 여부 연도별 추이	109
표 II-42-1 갚아야 할 채무 여부	110
표 II-43 채무 발생 이유	111
표 II-44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연도별 추이	112
표 II-44-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113
표 II-45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연도별 추이	114
표 II-45-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115
표 II-46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연도별 추이 ·	116
표 II-46-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117
표 II-47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연도별 추이	118
표 II-47-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119
표 II -48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연도별 추이	120
표 II -48-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121
표 II -49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연도별 추이	122
표 II -49-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123
표 II -50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연도별 추이	124
표 II -50-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125
표 II -5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연도별 추이	126
표 II -51-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127
표 II -52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연도별 추이	128
표 II -52-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129
표 II -53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1) 우리사회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130
표 II -54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2) 우리사회는 대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131
표 II -55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3) 기성세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132
표 II -56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4) 기성세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133
표 II -57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5)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34
표 II -58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6)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35

표 II-59 중소기업 취업 의향 연도별 추이	136
표 II-59-1 중소기업 취업 의향	137
표 II-60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연도별 추이	138
표 II-60-1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139
표 II-61 창업 고려 또는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140
표 II-61-1 창업 고려 또는 경험 여부	141
표 II-62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더 중요한 정책 분야 연도별 추이 ·	142
표 II-62-1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더 중요한 정책 분야	143
표 II-63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연도별 추이	144
표 II-63-1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	145
표 II-64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연도별 추이	146
표 II-64-1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	147
표 II-65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연도별 추이 ·	148
표 II-65-1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149
표 II-66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150
표 II-66-1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여부	151
표 II-67 지난 주 정규교육기관(학교) 통학 여부 연도별 추이	152
표 II-67-1 지난 주 정규교육기관(학교) 통학 여부	153
표 II-68 지난 주 입시학원, 취업 관련 학원 통학 경험 연도별 추이 ·	154
표 II-68-1 지난 주 입시학원, 취업 관련 학원 통학 경험	155
표 II-69 니트 관련_1) 지난주에 주로 한 일 연도별 추이	156
표 II-69-1 니트 관련_1) 지난주에 주로 한 일	157
표 II-70 니트 관련_2)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 기간 연도별 추이	158
표 II-70-1 니트 관련_2)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 기간	159
표 II-71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1) 업무 경험의 부족	160
표 II-72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2) 요구되는 기술이나 자격의 부족	161
표 II-73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3) 자신감의 결여	162
표 II-74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4) 금전적인 이유(학원비, 생활비 부족 등)	163
표 II-75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5) 학습이나 훈련, 자격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름	164
표 II-76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6) 학습이나 일을 하는데 신체적인 어려움이나 장애가 있음	165
표 II-77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7) 정신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음	166
표 II-78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8) 사회의 편견이나 차별	167
표 II-79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9) 가족이나 친구들이 내가 일하는 것을 원치 않음 ·	168
표 II-80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10) 내가 사는 지역에 나에게 맞는 직장이 없음 ·	169
표 II-81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11)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유와 시간적 여유를 잃고 싶지 않음	170
표 II-82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12) 나의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 중 보육이나 육아를 맡아줄 수 없음	171
표 II-83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13) 나의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이 걱정됨	172
표 II-84 니트 관련_4) 니트 청년의 고민거리	174
표 II-85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 연도별 추이	175
표 II-85-1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	176
표 II-86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한 월 평균 소득 연도별 추이 ····	177
표 II-86-1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한 월 평균 소득	178
표 II-87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서의 지위 연도별 추이	179
표 II-87-1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서의 지위	180
표 II-88 근로 형태(임금근로자) 연도별 추이	181
표 II-88-1 근로 형태(임금근로자)	182
표 II-89 근로 형태(비임금근로자) 연도별 추이	183
표 II-89-1 근로 형태(비임금근로자)	184

표 II-90 일하는 곳 연도별 추이	185
표 II-90-1 일하는 곳	186
표 II-91 직장(사업체) 종사자 규모 연도별 추이	187
표 II-91-1 직장(사업체) 종사자 규모	188
표 II-92 현재 일자리 근속년수연도별 추이	189
표 II-92-1 현재 일자리 근속년수	190
표 II-93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 연도별 추이	191
표 II-93-1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	192
표 II-94 이직 의향 연도별 추이	193
표 II-94-1 이직 의향	194
표 II-95 이직 희망 사유 연도별 추이	195
표 II-95-1 이직 희망 사유	196
표 II-96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경험 여부	197
표 II-97 정부의 청년고용대책 사업 참여 경험 여부	198
표 II-98 지자체 청년지원 사업 참여 경험 여부	199
표 II-99 이전 취업 경험 여부	200
표 II-100 취업 후 퇴사 및 해고 경험 여부	201
표 II-101 실업급여 인지 여부	202
표 II-102 실업급여 수급 여부	203
표 II-103 실업급여 미수급 이유	204
표 II-104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 연도별 추이	205
표 II-104-1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	206
표 II-105 집에 대한 생각_1)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연도별 추이	207
표 II-105-1 집에 대한 생각_1)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208
표 II-106 집에 대한 생각_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연도별 추이	209
표 II-106-1 집에 대한 생각_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210
표 II-107 집에 대한 생각_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도별 추이	211
표 II-107-1 집에 대한 생각_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12
표 II-108 공동주거 경험 여부 및 향후 거주 의향 연도별 추이	213
표 II-108-1 공동주거 경험 여부 및 향후 거주 의향	214

표 II-109 부모 동거 여부 연도별 추이	215
표 II-109-1 부모 동거 여부	216
표 II-110 향후 부모님과과의 분가시기에 대한 생각 연도별 추이	217
표 II-110-1 향후 부모님과과의 분가시기에 대한 생각	218
표 II-111 미혼 독립 거주 여부 연도별 추이	219
표 II-111-1 미혼 독립 거주 여부	220
표 II-112 1인 가구 주거 형태 연도별 추이	221
표 II-112-1 1인 가구 주거 형태	222
표 II-113 주관적인 신체건강 인식	223
표 II-114 건강검진 수검 여부	224
표 II-115 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	225
표 II-116 질환 발생 후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226
표 II-117 정신과 치료 및 심리상담 경험 여부_1)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227
표 II-118 정신과 치료 및 심리상담 경험 여부_2) 심리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228
표 II-119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연도별 추이	229
표 II-119-1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230
표 II-120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 연도별 추이	231
표 II-120-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	232
표 II-12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연도별 추이	233
표 II-121-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234
표 II-122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연도별 추이	235
표 II-122-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236
표 II-123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연도별 추이	237
표 II-123-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238
표 II-124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연도별 추이	239
표 II-124-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240
표 II-125 규칙적인 운동 여부 연도별 추이	241
표 II-125-1 규칙적인 운동 여부	242
표 II-126 규칙적인 운동 빈도 연도별 추이	243
표 II-126-1 규칙적인 운동 빈도	244
표 II-127 인생에서 외모의 중요도 연도별 추이	245
표 II-127-1 인생에서 외모의 중요도	246
표 II-128 성형수술 경험 연도별 추이	247
표 II-128-1 성형수술 경험	248
표 II-129 성형수술 목적 연도별 추이	249
표 II-129-1 성형수술 목적	250
표 II-130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 연도별 추이	251
표 II-130-1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	252
표 II-131 선호하는 가치_1) 일 중시 VS 여가 중시 연도별 추이 ·	253
표 II-131-1 선호하는 가치_1) 일 중시 VS 여가 중시	254
표 II-132 선호하는 가치_2) 현실 중시 VS 이상 중시 연도별 추이 ·	255
표 II-132-1 선호하는 가치_2) 현실 중시 VS 이상 중시	256
표 II-133 선호하는 가치_3) 결과 중시 VS 과정 중시 연도별 추이 ·	257
표 II-133-1 선호하는 가치_3) 결과 중시 VS 과정 중시	258
표 II-134 선호하는 가치_4) 개인 중시 VS 집단 중시 연도별 추이 ·	259
표 II-134-1 선호하는 가치_4) 개인 중시 VS 집단 중시	260
표 II-135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연도별 추이	261
표 II-135-1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262
표 II-136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 연도별 추이	263
표 II-136-1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	264
표 II-137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 존재 여부 연도별 추이	265
표 II-137-1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 존재 여부	266
표 II-138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연도별 추이	267
표 II-138-1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268
표 II-139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연도별 추이	269
표 II-139-1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270
표 II-140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연도별 추이	271
표 II-140-1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	272
표 II-141 노인에 대한 생각_1)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연도별 추이	273
표 II-141-1 노인에 대한 생각_1)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274
표 II-142 노인에 대한 생각_2)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연도별 추이 ·	275
표 II-142-1 노인에 대한 생각_2)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276
표 II-143 노인에 대한 생각_3)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연도별 추이	277
표 II-143-1 노인에 대한 생각_3)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278
표 II-144 노인에 대한 생각_4)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연도별 추이	279
표 II-144-1 노인에 대한 생각_4)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	280
표 II-145 의견 표명 행동_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연도별 추이	281
표 II-145-1 의견 표명 행동_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282
표 II-146 의견 표명 행동_2)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 팔찌, 리본 등을 착용/부착 연도별 추이	283
표 II-146-1 의견 표명 행동_2)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 팔찌, 리본 등을 착용/부착	284
표 II-147 의견 표명 행동_3)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연도별 추이	285
표 II-147-1 의견 표명 행동_3)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	286
표 II-148 의견 표명 행동_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연도별 추이	287
표 II-148-1 의견 표명 행동_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288
표 II-149 의견 표명 행동_5) 항의 전화하기 연도별 추이	289
표 II-149-1 의견 표명 행동_5) 항의 전화하기	290

표 II-150 정치적 효능감_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연도별 추이	291
표 II-150-1 정치적 효능감_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292
표 II-151 정치적 효능감_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연도별 추이	293
표 II-151-1 정치적 효능감_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294
표 II-152 정치적 효능감_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도별 추이	295
표 II-152-1 정치적 효능감_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96
표 II-153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경험 여부	297
표 II-154 평소 외출 정도 연도별 추이	298
표 II-154-1 평소 외출 정도	299
표 II-155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의 지속 기간 정도 연도별 추이 ·	300
표 II-155-1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의 지속 기간 정도	301
표 II-156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 연도별 추이	302
표 II-156-1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	303
표 II-157 지난 주 혼자 밥을 먹은 경험 여부(점심기준) 연도별 추이	304
표 II-157-1 지난 주 혼자 밥을 먹은 경험 여부(점심기준)	305
표 II-158 지난 주 혼자 술을 마신 경험 여부(저녁기준) 연도별 추이	306
표 II-158-1 지난 주 혼자 술을 마신 경험 여부(저녁기준)	307
표 II-159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 여부	308
표 II-160 학교 또는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경험 여부 및 도움이 되는 정도_1) 학교에서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적이 있다	309
표 II-161 학교 또는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경험 여부 및 도움이 되는 정도_2) 학교에서 진로에 대한 상담을 제공 받은 적이 있다	310
표 II-162 학교 또는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경험 여부 및 도움이 되는 정도_3)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적이 있다	311

표 II-163	학교 또는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경험 여부 및 도움이 되는 정도_4)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진로에 대한 상담을 제공 받은 적이 있다	312
표 II-164	졸업 후 계획	313
표 II-165	신규졸업(예정)자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	314
표 II-166	졸업 후 학교소재지(지역) 이탈 예정 여부	315
표 II-167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후 현실에 대한 인식_1) 졸업 이후 취업을 할 때, 성별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316
표 II-168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후 현실에 대한 인식_2) 졸업 이후 취업을 할 때, 학벌(어느 학교를 졸업하였는지)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317
표 II-169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후 현실에 대한 인식_3) 졸업 이후 취업을 할 때, 학력(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318
표 II-170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후 현실에 대한 인식_4) 나는 졸업을 한 후에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319
표 부록-1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항목	323

○———— 제1장 조사 개요

—— 1.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조사 시점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전국 17개 시·도의 만15-39세 일반국민이다. 표본 규모는 전년 대비 300명 늘어난 3,000명으로 산정하여 보다 정확한 결과를 기하고자 하였다. 최종 조사 결과 총 3,133표본이 수집 되었으며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I-1>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가 1,613명(52.6%), 여자가 1,520명(47.4%)이었고 연령별로는 만15-18세가 503명(14.2%), 만19-29세가 1,199명(38.8%), 만30-39세가 1,431명(47.0%)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거주자가 560명(20.4%), 인천, 경기 거주자가 685명(31.7%), 대전, 충청, 세종, 강원 거주자가 477명(13.6%), 광주, 전라, 제주 거주자가 449명(10.3%), 부산, 울산, 경남 거주자가 495명(14.8%)이었으며 마지막으로 대구, 경북 거주자가 467명(9.3%)이었다. 학력별로는 중·고등학생이 492명(13.9%),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447명(16.2%)이었고 성인 중 최종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가 623명(20.5%), 대졸 이상인 경우가 1,571명(49.3%)이었다. 마지막으로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가 1,898명(59.5%)이었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지 않았지만 함께 거주하지 않는

응답자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응답자가 1,235명(40.5%)으로 조사 되었다.

표 1 -1 조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
전 체		3,133	100.0
성별	남 자	1,613	52.6
	여 자	1,520	47.4
연령	만 1 5 ~ 1 8 세	503	14.2
	만 1 9 ~ 2 9 세	1,199	38.8
	만 3 0 ~ 3 9 세	1,431	47.0
지역	서 울	560	20.4
	인 천 / 경 기	685	31.7
	대 전 / 충 청 / 세 종 / 강 원	477	13.6
	광 주 / 전 라 / 제 주	449	10.3
	부 산 / 울 산 / 경 남	495	14.8
	대 구 / 경 북	467	9.3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13.9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447	16.2
	고 졸 이 하	623	20.5
	대 졸 이 상	1,571	49.3
주거 형태	동 거	1,898	59.5
	비 동 거 / 독 립	1,235	40.5

2) 조사 내용

표 1-2 2018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조사항목

조사내용 (*는 2018년 신규문항)		문항번호	
		만15-18세용	만19-39세용
1. 인구와 가족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문1	문1
	원가정으로부터 독립 필요성 및 적정 독립 시기	문2	문2
	결혼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시기	문3	문3
	자녀 필요성 및 적정 자녀 계획 시기	문4	문4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	-	문5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육아 대책	-	문6
	결혼 준비 경험 여부	-	문7
	결혼 준비 시 망설임 경험	-	문7-1
	결혼을 망설임 이유	-	문7-2
	맞벌이 유무	-	문8
	현재 자녀 존재 유무	-	문9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	-	문10
	2025년 출산을 전망	-	문11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	문5	문12
	해외이주를 고려한 이유	문5-1	문12-1
2. 교육과 훈련	2025년 입시경쟁 전망	문6	문13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	문7(1)~(3)	문14(1)~(3)
	대학(교) 진학 경험 여부*	-	문15
	졸업 요건 이수 후 유예 경험	-	문16
	졸업 유예 위해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	문17
	졸업 유예 사유*	-	문18
	고교교육 및 대학교육 만족도*	문11	문19
	대학 미진학 사유	-	문20
	향후 대학 진학 의향	문8	문21
	취업 준비 여부	문9	문22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문10	문23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	-	문24
3. 경제와 고용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문12	문25
	2020년 적정 최저 임금	문13	문26
	2025년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 전망	문14	문27
	미취업 청년 대상 급여(수당, 배당) 지급에 대한 생각	문15	문28
	한달 본인 생활비(용돈) 정도	문16	문29

	조사내용 (*는 2018년 신규문항)	문항번호	
		만15-18세용	만19-39세용
	한달 본인 생활비(용돈)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	문16-1	문29-1
	값아야 할 채무 여부	-	문30
	채무 발생 사유*	-	문30-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	문17	문31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인식*	문18	문32
	중소기업 취업 의향	문19	문33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문19-1	문33-1
	창업 고려 또는 경험 여부	-	문34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더 중요한 정책 분야	-	문35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	문35-1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	문35-2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	문36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여부	-	문37
	지난 주 정규교육기관(학교) 재학 여부	-	문38
	지난 주 입시학원, 취업 관련 학원 재학 경험	-	문39
	니트 관련_지난주에 주로 한 일	-	문40
	니트 관련_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상태 기간	-	문41(1)~(3)
	니트 관련_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	-	문42(1)~(13)
	니트 관련_니트 청년의 고민거리*	-	문43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	-	문44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한 월 평균 소득	-	문45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	-	문46
	이직 의향	-	문47
	이직 희망 사유	-	문47-1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경험 여부*	-	문48
	정부의 청년고용대책 사업 참여 경험 여부*	-	문49
	지방자치단체 청년지원 사업 참여 경험 여부*	-	문50
	이전 취업 여부	-	문51
	취업 후 퇴사 및 해고 경험 여부*	-	문52
	실업급여 인지 여부*	-	문53
	실업급여 수급 여부*	-	문54
	실업급여 미수급 이유*	-	문54-1
4. 주거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	문20	문55
	집에 대한 생각	문21(1)~(3)	문56(1)~(3)
	공동주거 경험 여부	문22	문57
	공동주거 거주 의향	문23	문58
	부모 동거 여부	문24	문59

조사내용 (*는 2018년 신규문항)		문항번호	
		만15~18세용	만19~39세용
5. 건강	향후 부모 동거 계획	문25	-
	미혼 혼자 거주 여부	-	문60
	현재 주거 형태	-	문60-1
	주관적인 신체건강에 대한 인식*	문26	문61
	건강검진 수검 여부*	문27	문62
	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	문28	문63
	질환 발생 후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문29	문64
	정신과 치료 및 심리상담 경험 여부*	문30	문65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문31	문66
	주관적인 정신적 건강수준	문32(1)~(5)	문67(1)~(5)
	규칙적인 운동 여부	문33	문68
	규칙적인 운동 빈도	문33-1	문68-1
	인생에서 외모의 중요도	문34	문69
	성형수술 경험	문35	문70
6. 문화와 가치관	성형수술 목적	문35-1	문70-1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	문35-2	문70-2
	가치 항목별 선호도	문36(1)~(4)	문71(1)~(4)
7. 관계와 참여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문37	문72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	문38	문73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 수	문39	문74
	기성세대 및 노인에 대한 생각	문40(1)~(7)	문75(1)~(7)
	의견 표명 행동	문41(1)~(4)	문76(1)~(4)
	정치적 효능감	문42(1)~(3)	문77(1)~(3)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경험 여부*	문43	문78
	평소 외출 정도	문44	문79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의 지속 기간 정도	문44-1	문79-1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	문44-2	문79-2
	지난 주 혼자 밥을 먹은 경험 여부(점심기준)	-	문80
	지난 주 혼자 술을 마신 경험 여부(저녁 기준)	-	문81
8. 신규 졸업 (예정)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 여부*	문45	문82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연월*	문45-1	문82-1
	학교 또는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취·창업이나 진로 등의 서비스를 받은 경험 여부*	문46(1)~(4)	문83(1)~(4)
	학교 또는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취·창업이나 진로 등의 서비스의 도움 정도*	문46-1 (1)~(4)	문83-1 (1)~(4)
	졸업 후 계획*	문47	문84
	신규졸업(예정)자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	문48	문85
	졸업 후 학교소재지(지역) 이탈 여부*	문49	문86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후 현실에 대한 인식*	문50(1)~(4)	문87(1)~(4)

3) 조사 절차

(1) 예비조사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조사 설계 및 실사는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 되었다. 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앞서 조사도구, 조사방법, 실사 환경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비하기 위해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예비조사를 진행 하였다. 예비조사는 먼저 본 조사 방법으로 결정된 1:1 개별면접법(Face to Face Interview)으로 진행한 후 이어서 조사도구와 조사 과정에 대해 간단한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 되었는데 이는 본 조사와 동일한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 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만15-18세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용 설문 30부와 만19-39세에 해당하는 청년용 설문 124부 등 총 154부¹⁾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조사표의 구조나 내용이 이해하고 응답하기에 어렵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결혼여부 질문(설문 후반부 배경문항에서 질문)보다 결혼 준비여부, 맞벌이 여부 질문을 먼저 질문(설문 중반부에 위치)하는데서 기인하는 논리구조 확인 어려움 문제, 경제적 박탈감 질문 시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대한 문구상의 모호함 문제 등이 지적되어 조사지침서에 응답 방법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이는 차년도 조사 시 조사표 수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예비조사를 통해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조사표의 신뢰도와 타당도, 조사 문항과 사용된 용어의 난이도와 편집 가독성, 대략적인 조사 응답 시간과 그 외 조사 진행 관련 전반에 걸친 예상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본 조사에 반영하였다.

1) 본 연구의 조사표는 만15-18세용, 만19-39세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중 만15-18세용 예비조사 30부는 남자 17명과 여자 13명으로 구성되어 진행 하였다. 만19-39세용 124부는 성별 남자 54명, 여자 70명, 연령별 20대 55명, 30대 69명, 결혼 여부별 기혼 33명 미혼 91명, 경제활동별로 경찰자 96명과 미경찰자 28명으로 각각 구성되어 진행 하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조사원이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 대상자와 접촉, 대면하여 면접하는 1:1 가구방문 개별면접 기법으로 수행되었으며, 가구 방문 시 조사대상 연령대 가구원이 부재중일 경우에 한하여 일부 가구원 유치 조사를 병행하였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조사원칙, 조사표 내용 및 응답 방법, 조사 진행 방식 등 조사원에 의한 비표본 오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 투입 예정 조사원 전원에 대한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2018년 7월 30일과 31일 양일에 걸쳐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진행하였고, 최초 집체교육 외에 중도 포기 인원을 대체할 조사원이나 진행이 미흡한 지역에 투입할 추가 조사원 대상의 수시교육이 실시 기간 동안 추가로 실시되었다. 교육은 사전에 준비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조사지침서>에 준해 전반적인 조사개요, 가구방문 요령 등을 포함한 조사방법론, 조사표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조사표 작성방법 등 3개 파트에 걸쳐 약 1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실제 조사가 수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에 방문하여 조사 취지와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조사 수락을 요청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도심 지역의 경우 아파트 관리소, 읍면 지역의 경우 동·반장, 이장 등에게 협조를 구하기도 하였다. 이후 해당 가구 내에 본 조사대상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는지, 있다면 성별과 연령대별로 몇 명이 거주하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재택 중인 가구원에 대해 다시 각각 조사 협조를 구한 후 개별면접 조사를 진행 하였다. 만약 적격 연령대 가구원 중 방문 당시에 부재중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재방문 일정을 정하고 다시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유치를 희망할 경우 조사표를 유치한 후 다음 회수 일정을 정하도록 하였다. 개별면접을 마친 후, 또는 유치한 조사표를 회수한 후 조사원은 빠진 문항은 없는지, 논리구조 상 잘못된 응답이 없는지 등을 현장에서 육안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그 자리에서 직접 수정을 요청 하였다. 모든 조사 대상 가구원에 대해 조사표가 이상 없이 완결되면 조사대

상 가구 및 가구원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답례품을 제공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4) 조사 일정

본 조사를 수행하기까지의 상세한 일정은 다음 <표 I -3>과 같다. 본 조사는 2018년 7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약 5주간 실시되었다.

표 I -3 조사 일정

추진 업무 내용	일시	비고
조사표 수정	2018. 6. 26. ~ 2018. 7. 11.	
표본설계	~ 2018. 7. 17.	
변경승인 진행	2018. 7. 4. ~ 2018. 7. 25.	
변경승인 완료	2018. 7. 26.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제402004호
조사표 최종 확정	2018. 7. 26.	2종 (중·고등학생용(만15~18세), 청년용(만19~39세))
실사 준비	~ 2018. 7. 27.	교육자료 준비, 조사원 선발, 조사표 인쇄, 명부 수령, 조사물품 배포
예비 조사	2018. 7. 24. ~ 2018. 7. 27.	총 154부 (중·고등학생용 30부, 청년용 124부)
조사원 교육	2018. 7. 30. ~ 2018. 7. 31.	총 5개 지점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본조사 진행	2018. 7. 30. ~ 2018. 9. 5.	
자료입력 및 데이터 검수	2018. 8. 13. ~ 2018. 9. 11.	2018. 9. 11. 데이터 검수 실시

5) 무응답 현황

조사항목 중 일부 항목에 응답하지 않은 항목 무응답 현황은 <표 I -4>와 같다. 항목 무응답은 문20, 문33-1, 문40 등 3개 항목에서만 각각 1 케이스씩 발생하였으며 해당 문항별 전체 응답자 대비 무응답 비율은 최저 0.1%, 최대 0.4% 이내의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의 무응답 비율을 보여 별도의 무응답 대체 없이 분석하였다.

표 I -4 항목 무응답

(단위: 명, %)

문 항 내 용 (응답자 기준)	응답자	무응답자(%)
문1.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3,133	0 (0.0)
문2. 원 가정으로부터 독립 필요성 및 적정 독립시기	3,133	0 (0.0)
문3. 결혼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시기	3,133	0 (0.0)
문4. 자녀를 가질 필요성 및 적정 자녀 계획 시기	3,133	0 (0.0)
문5.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	2,641	0 (0.0)
문6.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육아 대책	2,641	0 (0.0)
문7. 결혼 준비 경험 여부	2,641	0 (0.0)
문7-1. 결혼 준비 시 망설임 경험 여부	1,020	0 (0.0)
문7-2. 결혼을 망설임 이유	353	0 (0.0)
문8. 맞벌이 여부	1,046	0 (0.0)
문9. 현재 자녀 존재 유무	2,641	0 (0.0)
문10.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	2,641	0 (0.0)
문11. 2025년 출산율 전망	2,641	0 (0.0)
문12.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	3,133	0 (0.0)
문12-1. 해외이주를 고려한 이유	411	0 (0.0)
문13. 2025년 입시경쟁 전망	3,133	0 (0.0)
문14.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3,133	0 (0.0)
문14.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2)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3,133	0 (0.0)
문14.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3) 한국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3,133	0 (0.0)
문15. 대학(교) 진학 경험 여부	2,641	0 (0.0)
문21 대학 전공 계열	2,017	0 (0.0)

문 항 내 용 (응답자 기준)	응답자	무응답자(%)
문16. 졸업 유예 경험	2,017	0 (0.0)
문17.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2,017	0 (0.0)
문18. 졸업 유예 이유	274	0 (0.0)
문19. 대학교육 만족도_1) 나는 대학교육에 만족한다	2,017	0 (0.0)
문19. 대학교육 만족도_2) 나는 대학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7	0 (0.0)
문19. 대학교육 만족도_3) 나는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7	0 (0.0)
문19. 대학교육 만족도_4) 나는 내가 선택한 대학에서의 학과(전공)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2,017	0 (0.0)
(중고등학생용) 문11. 고교교육 만족도_1) 나는 고교교육에 만족한다	492	0 (0.0)
(중고등학생용) 문11. 고교교육 만족도_2) 나는 고교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492	0 (0.0)
(중고등학생용) 문11. 고교교육 만족도_3) 나는 고교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492	0 (0.0)
(중고등학생용) 문11. 고교교육 만족도_4) 나는 내가 선택한 문/이과 혹은 전공선택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492	0 (0.0)
문20. 대학 미진학 사유	623	1 (0.2)
문21. 향후 대학 진학 의향	1,116	0 (0.0)
문22. 취업준비 여부	3,133	0 (0.0)
문23.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3,133	0 (0.0)
문24.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	2,641	0 (0.0)
문25.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3,133	0 (0.0)
문26. 2020년 걱정 최저 임금	3,133	0 (0.0)
문27. 2025년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 전망	3,133	0 (0.0)
문28. 미취업 청년 대상 급여(수당, 배당) 지급에 대한 생각	3,133	0 (0.0)
문29. 한 달 생활비 정도	3,133	0 (0.0)
문29-1. 한 달 생활비 중 부모님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	3,133	0 (0.0)
문30. 갚아야 할 채무 여부	2,641	0 (0.0)
문30-1. 채무 발생 이유	665	0 (0.0)
문3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3,133	0 (0.0)
문3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3,133	0 (0.0)

문항내용 (응답자 기준)	응답자	무응답자(%)
문3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3,133	0 (0.0)
문3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3,133	0 (0.0)
문3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3,133	0 (0.0)
문3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3,133	0 (0.0)
문3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3,133	0 (0.0)
문3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3,133	0 (0.0)
문3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3,133	0 (0.0)
문32.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1) 우리사회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3,133	0 (0.0)
문32.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2) 우리사회는 대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3,133	0 (0.0)
문32.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3) 기성세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3,133	0 (0.0)
문32.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4) 기성세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3,133	0 (0.0)
문32.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5)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133	0 (0.0)
문32.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6)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133	0 (0.0)
문33. 중소기업 취업 의향	3,133	0 (0.0)
문33-1.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1,162	1 (0.1)
문34. 창업 고려 또는 경험 여부	2,641	0 (0.0)
문35.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더 중요한 정책 분야	2,641	0 (0.0)
문35-1.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2,641	0 (0.0)
문35-2.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2,641	0 (0.0)
문36.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2,641	0 (0.0)
문37.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여부	651	0 (0.0)
문38. 지난 주 정규교육기관(학교) 통학 여부	651	0 (0.0)
문39. 지난 주 입시학원, 취업 관련 학원 통학 경험	307	0 (0.0)

문 항 내 용 (응답자 기준)	응답자	무응답자(%)
문40. 니트 관련_1) 지난주에 주로 한 일	279	1 (0.4)
문41. 니트 관련_2)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 기간	307	0 (0.0)
문42.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1) 업무 경험의 부족	307	0 (0.0)
문42.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2) 요구되는 기술이나 자격의 부족	307	0 (0.0)
문42.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3) 자신감의 결여	307	0 (0.0)
문42.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4) 금전적인 이유(학원비, 생활비 부족 등)	307	0 (0.0)
문42.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5) 학습이나 훈련, 자격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름	307	0 (0.0)
문42.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6) 학습이나 일을 하는데 신체적인 어려움이나 장애가 있음	307	0 (0.0)
문42.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7) 정신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음	307	0 (0.0)
문42.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8) 사회의 편견이나 차별	307	0 (0.0)
문42.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9) 가족이나 친구들이 내가 일하는 것을 원치 않음	307	0 (0.0)
문42.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10) 내가 사는 지역에 나에게 맞는 직장이 없음	307	0 (0.0)
문42.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11)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유와 시간적 여유를 잃고 싶지 않음	307	0 (0.0)
문42.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12) 나의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 중 보육이나 육아를 맡아줄 수 없음	307	0 (0.0)
문42.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13) 나의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이 걱정됨	307	0 (0.0)
문43. 니트 관련_4) 니트 청년의 고민거리	307	0 (0.0)
문44.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	1,990	0 (0.0)
문45.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한 월 평균 소득	1,990	0 (0.0)
문46.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	1,990	0 (0.0)
문47. 이직 의향	1,990	0 (0.0)
문47-1. 이직 희망 사유	498	0 (0.0)
문48.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경험 여부	2,641	0 (0.0)
문49. 정부의 청년고용대책 사업 참여 경험 여부	2,641	0 (0.0)
문50. 지자체 청년지원 사업 참여 경험 여부	2,641	0 (0.0)

문항내용 (응답자 기준)	응답자	무응답자(%)
문51. 이전 취업 경험 여부	2,641	0 (0.0)
문52. 취업 후 퇴사 및 해고 경험 여부	1,187	0 (0.0)
문53. 실업급여 인지 여부	1,093	0 (0.0)
문54. 실업급여 수급 여부	1,093	0 (0.0)
문54-1. 실업급여 미수급 이유	594	0 (0.0)
문55.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	3,133	0 (0.0)
문56. 집에 대한 생각_1)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3,133	0 (0.0)
문56. 집에 대한 생각_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3,133	0 (0.0)
문56. 집에 대한 생각_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133	0 (0.0)
문57. 공동주거 경험 여부	3,133	0 (0.0)
문58. 향후 공동주거 거주 의향	3,133	0 (0.0)
문59. 부모 동거 여부	3,133	0 (0.0)
(중고등학생용) 문25. 향후 부모님과의 분가시기에 대한 생각	489	0 (0.0)
문60. 미혼 독립 거주 여부	1,232	0 (0.0)
문60-1. 1인 가구 주거 형태	212	0 (0.0)
문61. 주관적인 신체건강 인식	3,133	0 (0.0)
문62. 건강검진 수검 여부	3,133	0 (0.0)
문63. 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	3,133	0 (0.0)
문64. 질환 발생 후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602	0 (0.0)
문65. 정신과 치료 및 심리상담 경험 여부_1)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3,133	0 (0.0)
문65. 정신과 치료 및 심리상담 경험 여부_2) 심리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3,133	0 (0.0)
문66.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3,133	0 (0.0)
문67.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3,133	0 (0.0)
문67.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3,133	0 (0.0)
문67.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3,133	0 (0.0)
문67.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3,133	0 (0.0)
문67.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3,133	0 (0.0)
문68. 규칙적인 운동 여부	3,133	0 (0.0)
문68-1. 규칙적인 운동 빈도	918	0 (0.0)

문 항 내 용 (응답자 기준)	응답자	무응답자(%)
문69. 인생에서 외모의 중요도	3,133	0 (0.0)
문70. 성형수술 경험	3,133	0 (0.0)
문70-1. 성형수술 목적	352	0 (0.0)
문70-2.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	345	0 (0.0)
문71. 선호하는 가치_1) 일 중시 VS 여가 중시	3,133	0 (0.0)
문71. 선호하는 가치_2) 현실 중시 VS 이상 중시	3,133	0 (0.0)
문71. 선호하는 가치_3) 결과 중시 VS 과정 중시	3,133	0 (0.0)
문71. 선호하는 가치_4) 개인 중시 VS 집단 중시	3,133	0 (0.0)
문72.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3,133	0 (0.0)
문73.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	3,133	0 (0.0)
문74.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 존재 여부	3,133	0 (0.0)
문75.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3,133	0 (0.0)
문75.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3,133	0 (0.0)
문75.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3,133	0 (0.0)
문75. 노인에 대한 생각_1)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3,133	0 (0.0)
문75. 노인에 대한 생각_2)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3,133	0 (0.0)
문75. 노인에 대한 생각_3)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3,133	0 (0.0)
문75. 노인에 대한 생각_4)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3,133	0 (0.0)
문76. 의견 표명 행동_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3,133	0 (0.0)
문76. 의견 표명 행동_2)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 팔찌, 리본 등을 착용/부착	3,133	0 (0.0)
문76. 의견 표명 행동_3)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3,133	0 (0.0)
문76. 의견 표명 행동_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3,133	0 (0.0)
문76. 의견 표명 행동_5) 항의 전화하기	3,133	0 (0.0)
문77. 정치적 효능감_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3,133	0 (0.0)
문77. 정치적 효능감_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3,133	0 (0.0)
문77. 정치적 효능감_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133	0 (0.0)
문78.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경험 여부	3,133	0 (0.0)
문79. 평소 외출 정도	3,133	0 (0.0)

문 항 내 용 (응답자 기준)	응답자	무응답자(%)
문79-1.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의 지속 기간 정도	41	0 (0.0)
문79-2.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	41	0 (0.0)
문80. 지난 주 혼자 밥을 먹은 경험 여부(점심기준)	2,641	0 (0.0)
문81. 지난 주 혼자 술을 마신 경험 여부(저녁기준)	2,641	0 (0.0)
문82.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 여부	3,133	0 (0.0)
문82-1.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 시기	380	0 (0.0)
문83. 1) 학교에서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적이 있다	380	0 (0.0)
문83. 2) 학교에서 진로에 대한 상담을 제공 받은 적이 있다	380	0 (0.0)
문83. 3)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적이 있다	380	0 (0.0)
문83. 4)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진로에 대한 상담을 제공 받은 적이 있다	380	0 (0.0)
문83-1. 1) 학교에서 받은 취업에 대한 정보 만족도	380	0 (0.0)
문83-1. 2) 학교에서 받은 진로에 대한 상담 만족도	380	0 (0.0)
문83-1. 3)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받은 취업에 대한 정보 만족도	380	0 (0.0)
문83-1. 4)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받은 진로에 대한 상담 만족도	380	0 (0.0)
문84. 졸업 후 계획	380	0 (0.0)
문85. 신규졸업(예정)자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	380	0 (0.0)
문86. 졸업 후 학교소재지(지역) 이탈 예정 여부	380	0 (0.0)
문87.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후 현실에 대한 인식_1) 졸업 이후 취업을 할 때, 성별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380	0 (0.0)
문87.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후 현실에 대한 인식_2) 졸업 이후 취업을 할 때, 학벌(어느 학교를 졸업하였는지)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380	0 (0.0)
문87.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후 현실에 대한 인식_3) 졸업 이후 취업을 할 때, 학력(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380	0 (0.0)
문87.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후 현실에 대한 인식_4) 나는 졸업을 한 후에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380	0 (0.0)

6) 표본설계 및 가중치²⁾

(1) 모집단 분석

이 조사의 개념상 규정된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은 조사시점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의 만 15세부터 39세 이하 가구원이다. 조사모집단(survey population)은 조사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인구주택총조사 상의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아파트 조사구 및 일반조사구 내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만 15세부터 39세 이하의 가구원이다.

〈표 I -5〉는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모집단 현황이다. 모집단 내 전체 일반가구는 19,367,696호³⁾이며,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와 서울시는 각각 전체 일반가구의 23.2%와 19.5%를 차지하고, 전체 조사대상(만 15세부터 39세 이하의 가구원) 16,793,938명 중 경기와 서울이 각각 25.1%, 20.6%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고, 부산, 경남 순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6〉은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중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 만 15세부터 39세 이하의 성인의 시도 및 연령대별 분포이다.

2018년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를 위한 표본설계는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리스트를 표본추출에 활용하였다.

2) 이 절은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 본 조사의 표본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집필하였다. 본 조사는 통계청 조사구 방식의 가구조사로 설계 되었으므로 표본설계 내용의 전문성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전문을 게재하였다.

3)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중 가구형태가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가구형태가 ‘집단가구(비혈연)’, ‘집단시설가구’, ‘외국인가구’ 등의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I -5 모집단 현황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가구 수	열%	만15-39세 성인	열%
전국	19,367,696	100.0%	16,793,938	100.0%
서울	3,784,705	19.5%	3,457,176	20.6%
부산	1,344,170	6.9%	1,099,980	6.5%
대구	935,753	4.8%	800,885	4.8%
인천	1,062,828	5.5%	986,472	5.9%
광주	569,372	2.9%	526,263	3.1%
대전	590,698	3.0%	552,727	3.3%
울산	426,027	2.2%	394,334	2.3%
세종	90,413	0.5%	88,057	0.5%
경기	4,484,424	23.2%	4,221,791	25.1%
강원	616,346	3.2%	456,302	2.7%
충북	617,914	3.2%	510,294	3.0%
충남	813,730	4.2%	672,181	4.0%
전북	724,678	3.7%	551,198	3.3%
전남	727,197	3.8%	483,104	2.9%
경북	1,076,581	5.6%	785,834	4.7%
경남	1,273,523	6.6%	1,018,625	6.1%
제주	229,337	1.2%	188,715	1.1%

표 I -6 만 15-39세 성인의 시도 및 연령대별 분포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단위: 명)

구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합계	
전국	3,056,728	3,400,634	3,068,970	3,415,599	3,852,007	16,793,938	
서울	516,892	673,957	720,334	772,614	773,379	3,457,176	
광역시	부산	192,942	237,733	204,407	216,764	248,134	1,099,980
	대구	157,226	174,130	143,280	150,002	176,247	800,885
	인천	170,796	194,664	184,813	203,756	232,443	986,472
	광주	107,517	114,951	88,844	99,729	115,222	526,263
	대전	106,199	125,729	101,112	103,764	115,923	552,727
	울산	72,705	75,870	71,351	81,222	93,186	394,334
	세종	13,955	16,686	13,914	19,155	24,347	88,057
광역시 소계	821,340	939,763	807,721	874,392	1,005,502	4,448,718	
도 지역	경기	768,556	813,226	756,646	863,963	1,019,400	4,221,791
	강원	93,835	105,907	78,496	81,620	96,444	456,302
	충북	102,312	113,189	88,270	98,108	108,415	510,294
	충남	132,137	139,392	114,044	134,323	152,285	672,181
	전북	120,269	123,315	91,187	98,994	117,433	551,198
	전남	107,285	95,427	76,435	93,402	110,555	483,104
	경북	156,872	164,667	135,395	153,786	175,114	785,834
	경남	198,603	195,198	169,649	207,206	247,969	1,018,625
	제주	38,627	36,593	30,793	37,191	45,511	188,715

(2) 층화

2018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표본설계에서는 7개 특별·광역시와 9개 도 지역으로 1차로 층화하고, 9개 도 지역에 대해서는 동부와 읍·면부로 세부 층화하였다. 이 조사의 1차 추출단위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이고, 2차 추출단위는 가구와 가구 내 15세-39세 가구원이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는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대단히 크고, 지역적으로 넓어 표본의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각각 4개 권역(북동, 남동, 남서, 북서)과 3개 권역(북부, 중부, 남부)으로 세부 층화하였다. <표 I-7>과 <표 I-8>은 각각 서울시와 경기도의 권역별 구분 현황을 정리한 자료이다.

표 I-7 서울시 권역별 해당 구 현황

권역	해당 지역
북서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북동부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남서부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동작구
남동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표 I-8 경기도 권역별 해당 시군 현황

권역	해당 지역
북서부	하남시, 광주시, 가평군, 여주군, 남양주시, 양평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북동부	부천시, 고양시, 성남시, 광명시, 의왕시, 안양시, 과천시, 구리시, 군포시, 의정부시
남서부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시흥시, 안산시, 평택시, 화성시

이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에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대상으로 하는 층화는 행정구역에 따라 구성한 33개 1차 층을 구성하였다. 이후 서울, 광역시 및 11개

도 지역(동) 층에 대해서는 아파트 조사구와 일반 조사구로 나누어 세부 층화하였고, 읍·면 지역에서 세부 층화는 따로 없었다. <표 I-9>는 표본설계의 층화 방법을 정리한 것이고 <표 I-10>과 <표 I-11>은 각각 층별 조사구 수와 가구 수를 정리한 결과이다.

표 I-9 층화 방법

구분	지역	1차 층화	2차 층화	총 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서울, 7대 광역시	서울(4), 광역시(7)	아파트, 일반조사구	22
	도 지역	11개 지역(동부)	아파트, 일반조사구	22
		11개 도 지역(읍·면부)	-	11

표 I-10 세부 층별 모집단 조사구 현황(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단위: 개)

행정구역	동 지역		읍면 지역	합계
	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		
전 국	138,104	135,436	66,763	340,303
서울-북서	4,261	7,834	0	12,095
서울-북동	8,173	11,636	0	19,809
서울-남서	8,315	13,174	0	21,489
서울-남동	7,221	6,669	0	13,890
부산	12,454	11,326	0	23,780
대구	7,586	8,079	0	15,665
인천	9,254	8,638	0	17,892
광주	5,550	3,585	0	9,135
대전	4,870	4,927	0	9,797
울산	4,283	3,411	0	7,694
세종	969	566	0	1,535
경기-북부	4,840	2,549	7,972	15,361
경기-중부	14,800	13,279	0	28,079
경기-남부	12,979	11,961	5,101	30,041
강원	3,459	2,803	5,667	11,929
충북	3,382	2,875	5,278	11,535
충남	3,334	2,801	8,365	14,500
전북	4,832	3,590	4,643	13,065
전남	3,140	2,003	8,112	13,255
경북	5,179	5,123	11,251	21,553
경남	7,857	6,676	9,276	23,809
제주	1,366	1,931	1,098	4,395

표 I-11 세부 층별 모집단 가구 현황(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단위: 개)

행정구역	동 지역		읍면 지역	합계
	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		
전 국	8,396,823	7,878,782	3,464,582	19,740,187
서울-북서	224,529	460,539	0	685,068
서울-북동	514,251	708,928	0	1,223,179
서울-남서	465,370	767,330	0	1,232,700
서울-남동	393,537	371,926	0	765,463
부산	701,497	651,349	0	1,352,846
대구	498,391	445,982	0	944,373
인천	566,445	508,550	0	1,074,995
광주	356,255	218,656	0	574,911
대전	321,084	274,272	0	595,356
울산	239,774	194,827	0	434,601
세종	55,647	35,742	0	91,389
경기-북부	323,092	174,966	487,079	985,137
경기-중부	971,323	801,072	0	1,772,395
경기-남부	862,584	695,507	315,769	1,873,860
강원	209,661	159,908	249,734	619,303
충북	204,700	160,359	264,297	629,356
충남	207,286	159,522	465,863	832,671
전북	297,130	206,717	227,523	731,370
전남	187,477	117,296	404,466	709,239
경북	290,663	275,835	523,530	1,090,028
경남	450,167	375,808	463,755	1,289,730
제주	55,960	113,691	62,566	232,217

(3) 표본크기 결정 및 표본배분

본 조사의 목표 표본크기는 만 15~39세의 청년층 3,000명을 전국에서 표집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반가구 한 가구당 해당 연령대의 가구원 수는 0.89 명으로 약 3,370가구를 표본 추출하여 해당 연령대 가구원을 모두 조사할 경우 3,000명의 목표 표본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본설계에서는 각 표본 조사구에서 약 10명의 청년층 대상자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표본설계에 의해서 추출되는 1차 추출단위인 표본 조사구 수는 300개이다. 단, 해당 연령대의 경우 낮은 재택률로 인해 조사대상 면접이 어렵고, 특히 읍·면지역의 해당 연령대 가구원 수가 가구원 당 0.70명으로 동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표집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본설계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6개 권역⁴⁾ 단위로 청년층의 사회·경제실태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정도(precision)를 갖는 통계를 생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권역에 대해서 일정 크기 이상의 표본이 배분되어야 한다.

통계작성 단위인 6개 권역별 표본 조사구의 배분은 층별 조사대상자 수에 비례 배분법, 제곱비례배분법, 우선할당비례배분법 등을 비교하여 결정하였다. 표본설계에 사용된 최종 배분법은 각 통계작성 단위별 가구 수에 대한 제곱근비례배분법을 최종방안으로 하였다. 이 배분법을 적용하면 권역별 추정결과의 통계적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표 I-12〉는 2016년도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얻은 주요 조사항목 추정에 대한 설계효과 현황이다. 이 조사의 설계효과 값은 약 1.37~3.85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한 본 조사의 목표 허용오차 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설계효과 2.76를 적용한 결과임)이다.

표 I-12 주요 조사변수에 대한 설계효과(design effect) 현황

행정구역	표본배분 현황		
	추정값	95% 오차의 한계	설계효과
결혼을 준비해 본 경험(q10)	42.0%	2.4%	1.37
중소기업 취업 의향(q47)	68.9%	3.1%	3.04
친한 친구가 있는지 여부(q95)	91.3%	2.2%	3.85
평균	-	-	2.76
중위수	-	-	3.04

4) 서울·경기·인천, 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표 I -13 각 권역별 표본배분 현황

시도	모집단	표본배분 현황		
		비례배분	제공근 비례배분	권역별 우선할당(20) 후 비례배분
전국	19,367,696	300	300	300
서울	3,784,705	59	55	55
경기·인천	5,547,252	86	67	72
대전·세종·충청·강원	2,729,101	42	47	45
광주·전라·제주	2,250,584	35	42	41
부산·울산·경남	3,043,720	47	49	48
대구·경북	2,012,334	31	40	39

표 I -14 각 권역별 모비율 추정에 대한 95% 신뢰수준 오차의 한계⁵⁾ 예상

시도	모집단 가구 수	새로운 표본설계	
		표본크기	오차의 한계
전국	19,367,696	3,000	3.0%p
서울	3,784,705	550	6.9%p
경기·인천	5,547,252	670	6.3%p
대전·세종·충청·강원	2,729,101	470	7.5%p
광주·전라·제주	2,250,584	420	7.9%p
부산·울산·경남	3,043,720	490	7.4%p
대구·경북	2,012,334	400	8.1%p

각 권역에서 시도별 표본배분은 조사대상자 수(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비례하는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다.

5) 오차의 한계는 복합표본설계(complex sample design)를 반영하여 산출한 것으로 단순임의추출법을 가정하여 산출한 경우와 비교하여 큰 값을 갖게 된다.

표 I -15 시도별 표본 조사구 수

시도	만 15-39세 성인	열%	표본 조사구 수
전국	16,793,938	100.0%	300
서울	3,457,176	20.6%	55
부산	1,099,980	6.5%	22
대구	800,885	4.8%	19
인천	986,472	5.9%	13
광주	526,263	3.1%	11
대전	552,727	3.3%	10
울산	394,334	2.3%	7
세종	88,057	0.5%	2
경기	4,221,791	25.1%	54
강원	456,302	2.7%	10
충북	510,294	3.0%	11
충남	672,181	4.0%	14
전북	551,198	3.3%	13
전남	483,104	2.9%	14
경북	785,834	4.7%	21
경남	1,018,625	6.1%	20
제주	188,715	1.1%	4

표 I -16 세부 층별 표본 조사구 현황

행정구역	동 지역		읍면 지역	합계
	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		
전 국	121	118	61	300
서울-북서	3	6	0	9
서울-북동	7	10	0	17
서울-남서	7	11	0	18
서울-남동	6	5	0	11
부산	12	10	0	22
대구	9	10	0	19
인천	7	6	0	13
광주	7	4	0	11
대전	5	5	0	10
울산	4	3	0	7
세종	1	1	0	2
경기-북부	3	2	6	11
경기-중부	11	10	0	21
경기_남부	9	9	4	22
강원	3	2	5	10
충북	3	3	5	11
충남	3	3	8	14
전북	5	3	5	13
전남	3	2	9	14
경북	5	5	11	21
경남	6	6	8	20
제주	1	2	1	4

(4) 표본 조사구 및 표본 가구 추출

본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에서는 2016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표본추출틀로 활용하여 300개의 표본조사구를 추출하였다. 표본추출은 층화2단추출법을 적용하였는데, 1차 추출단위는 조사구이고, 2차 추출단위는 가구 및 만 15-39세 청년이다. 각 층에서 배정된 표본 조사구 수만큼을 조사구 내의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에 따라 추출하였고, 이 조사의 표본가구로 선정된 경우에 적격 조사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지역별 표본가구당 조사대상자 수의 평균을 고려하여 표본조사구에서 추출되는 가구수를 결정하였다. 2016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동 지역에서 가구당 평균 조사대상자는 0.91명이고, 읍면 지역에서는 0.68명이다. 이에 따라 표본조사구에서 목표표본크기인 10명의 청년층을 조사하기 위해서 각 동부의 표본조사구에서는 11가구, 읍면부의 표본조사구에서는 15가구의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표 I -17 지역별 가구당 평균 조사대상자 수 현황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지역 구분	만 15-39세 인구	일반 가구 수	가구당 평균 조사 대상자 수
전국	16,793,938	19,367,696	0.87
동 지역	14,263,987	15,662,058	0.91
읍면 지역	2,529,951	3,705,638	0.68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의 조사구를 활용할 때 조사구 전체가 철거, 재건축 등의 사유로 조사불능인 경우에는 예비표본에서 대체하도록 하였다.

(5) 가중치 산정

통계조사에서 가중치 부여는 표본추출에 따른 추출률의 차이와 응답률 및 모집단에 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 구조를 맞춤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만약 통계분석 과정에서 가중치를 무시하고 분석한 추정치는 심각한 편향(bias)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본조사의 가중치는 ㉠ 설계가중치 산정, ㉡ 무응답에 대한 조정, ㉢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조정 등의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산정된다. 이 조사의 최종 개인별 가중치는 지역, 조사구별 추출률과 무응답율의 차이를 반영한 후 모집단 정보에 대한 사후층화를 통해서 얻어졌다. 가중치 조정단계에서 이용하는 모집단 정보는 2016년 기준의 「인구주택총조사」결과이고, 각 표본조사구의 추출 확률은 표본조사구의 크기 척도(measure of size)인 조사구 내 가구 수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p_{1hi} = n_h \frac{S_{hi}}{S_h}$$

여기서, n_h : 층 h 의 표본 조사구 수

S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에 대한 크기의 척도(조사구 내 가구 수)

$S_h = \sum_{i=1}^{N_h} S_{hi}$: 층 h 의 모집단 총 가구 수(크기의 척도 총합)

원칙적으로 각 표본 조사구에서는 11가구 또는 15가구씩을 표본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m_{hi} = 11$ (또는 15)이다. $S_{hi} \approx M_{hi}$ 를 가정할 수 있는 경우(표본추출률 상의 조사구 내 가구 수와 실제 가구 수에 차이가 작은 경우)에 각 층에서 설계가중치는 해당 층 내에서 일정한 값이 되어 설계가중치 = $\frac{S_h}{n_h \times m_{hi}}$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각 지역 내 층에서 표본 가구들은 모두 동일한 설계가중치를 갖게 된다.

실제 조사과정에서는 표본추출틀의 조사구 내 가구 수와 실제 가구 수에 차이가 있어 각 층 내에서 설계가중치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값을 갖게 된다.

무응답 조정은 표본 조사구별로 진행되며, 무응답 조정계수는 다음 식에 따라 구하였다.

$$\text{무응답 조정계수1} = \frac{m_{hi}}{r_{hi}}$$

가구 내 무응답 조정은 각 표본 가구에서 전체 조사대상 가구원 수와 응답 가구원 수의 비(比)로 계산한다.

$$\text{무응답 조정계수2} = \frac{\text{해당 표본 가구의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가구원 수}}{\text{응답 가구원 수}}$$

벤치마킹 조정은 최신 모집단 정보인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중 시도별 성 및 연령대별 추계인구를 이용하였다. 벤치마킹 조정은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 구조를 유사하게 맞추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권역별(6)×연령대(5)×성별(2) 정보를 이용한 사후층화 조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권역별, 성별, 연령별 사후층화 조정계수를 계산하여 모집단과 조사 표본간의 분포 차이를 보정하였으며, <표 I-18>과 <표 I-19>는 각 시도별 성 및 연령대별 추계인구 결과이다.

종합적으로 최종 가중치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하였다.

$$\text{최종 가중치} = \text{가구 가중치} \times \text{무응답 조정1} \times \text{무응답 조정2} \times \text{벤치마킹 조정계수}$$

표 1-18 시도 및 연령별 모집단 분포 : 남자(장래인구추계, 2018년도)

시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합계
전국	1,464,762	1,836,699	1,865,847	1,760,951	2,114,604	9,042,863
서울	240,101	328,211	399,601	376,708	407,281	1,751,902
부산	87,921	124,502	122,413	105,202	131,264	571,302
대구	75,213	95,198	88,705	75,060	90,639	424,815
인천	82,522	103,717	108,227	103,801	128,738	527,005
광주	50,521	60,871	53,232	48,047	60,010	272,681
대전	46,743	66,183	65,238	51,951	58,735	288,850
울산	36,229	44,557	43,908	42,692	52,274	219,660
세종	8,147	10,244	11,290	12,063	17,133	58,877
경기	379,116	445,549	471,325	465,012	573,508	2,334,510
강원	44,808	59,481	52,112	41,514	50,270	248,185
충북	47,066	61,967	57,861	52,432	61,391	280,717
충남	60,987	77,194	77,921	76,015	91,890	384,007
전북	56,425	69,095	56,944	49,018	61,860	293,342
전남	53,420	58,435	44,675	46,483	61,990	265,003
경북	74,837	94,626	85,684	82,046	99,110	436,303
경남	100,393	115,012	107,591	113,420	142,334	578,750
제주	20,313	21,857	19,120	19,487	26,177	106,954

표 1-19 시도 및 연령별 모집단 분포 : 여자(장래인구추계, 2018년도)

시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합계
전국	1,343,382	1,628,187	1,620,820	1,591,796	1,976,940	8,161,125
서울	227,233	342,299	407,935	374,546	399,868	1,751,881
부산	79,994	113,588	106,687	97,520	124,661	522,450
대구	66,610	81,603	71,268	66,197	90,049	375,727
인천	76,939	92,082	97,769	94,272	118,184	479,246
광주	46,663	56,748	48,219	44,757	58,827	255,214
대전	42,872	61,328	52,208	46,983	57,715	261,106
울산	31,647	30,493	32,654	35,135	46,286	176,215
세종	7,978	9,672	9,787	12,635	18,056	58,128
경기	352,678	397,158	410,635	417,041	535,615	2,113,127
강원	40,308	44,634	36,708	35,688	47,883	205,221
충북	42,610	53,443	44,065	44,170	55,113	239,401
충남	55,344	68,600	58,915	61,132	76,710	320,701
전북	51,492	56,926	45,695	44,634	57,519	256,266
전남	48,260	42,075	36,391	41,086	54,662	222,474
경북	65,143	74,659	63,272	67,408	87,185	357,667
경남	89,189	84,853	81,287	90,645	123,909	469,883
제주	18,422	18,026	17,325	17,947	24,698	96,418

(6) 모수 추정 및 추정량의 분산

① 용어 정의

○ y_{hijk} : 관찰값 (각 문항에 대한 응답)

h : 층 번호, i : 조사구 번호, j : 가구 번호, k : 가구 내 개인 번호

○ w_{hijk} : 표본 가중치로 설계가중치, 무응답 조정, 사후층화 조정 등을 통해서 산출

② 모평균에 대한 추정

전체 및 지역 특성별 구분에서 모평균과 모비율은 가중치를 이용한 추정량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관찰값 y_{hijk} 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으로 계산된다.

$$\bar{y} = \frac{(\sum_{h=1}^L \sum_{i=1}^{n_h} \sum_{j=1}^{m_{hi}} \sum_{k=1}^{l_{hij}} w_{hijk} y_{hijk})}{w_{...}} : \text{모평균 추정치}$$

- L : 층 수, n_h : 조사구 수, m_{hi} : 조사구 내 표본가구 수, l_{hij} : 조사 가구 내 응답자 수

- $w_{...}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sum_{k=1}^{l_{hij}} w_{hijk}$: 표본 가중치의 합계

③ 모비율에 대한 추정

관찰값 y_{hijk} 가 0 또는 1의 값을 갖는 변수인 경우,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 형태로 계산된다.

$$\hat{p} = \frac{(\sum_{h=1}^L \sum_{i=1}^{n_h} \sum_{j=1}^{m_{hi}} \sum_{k=1}^{l_{hij}} w_{hijk} y_{hijk})}{w_{...}} : \text{모비율 추정치}$$

- L : 층 수, n_h : 조사구 수, m_{hi} : 조사구 내 표본가구 수, l_{hij} : 조사 가구 내 응답자 수

$$- w_{...}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sum_{k=1}^{l_{hij}} w_{hijk} : \text{표본 가중치의 합계}$$

④ 추정량의 분산

모평균(또는 모비율) 추정량에 대해서 층화와 2단 집락추출 등의 표본설계를 반영한 추정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var(\bar{y}) = \sum_{h=1}^L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여기서, L 은 층의 수, n_h 는 층 h 에서의 1차추출단위(PSU)인 조사구 수, m_{hi} 는 층 h 내 i 번째 표본조사구의 가구 수,

$$f_h = n_h/N_h, e_{hi.} = \left(\sum_{j=1}^{m_{hi}} \sum_{k=1}^{l_{hij}} w_{hijk} (y_{hijk} - \bar{y}) \right) / w_{...}, \bar{e}_{h..} = \left(\sum_{i=1}^{n_h} e_{hi.} \right) / n_h \text{이다.}$$

모평균 및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준오차(standard error),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95% 신뢰수준 오차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 표준오차: $s.e(\bar{y}) = \sqrt{var(\bar{y})}$,
- 상대표준오차: $rse(\bar{y}) = \frac{s.e(\bar{y})}{\bar{y}} \times 100(\%)$,
- 오차의 한계: $1.96 \times \sqrt{var(\bar{y})}$

○ — 제2장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표

- 1.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응답자 분포
- 2.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1.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응답자 분포

구분			가중 전		가중 후	
			사례 수	%	사례 수	%
전	성별	체	3,133	100.0	17,203,988	100.0
		남 자	1,613	52.6	9,042,863	52.6
		여 자	1,520	47.4	8,161,125	47.4
연령		만 15 ~ 18 세	503	14.2	2,437,383	14.2
		만 19 ~ 29 세	1,199	38.8	6,678,454	38.8
		만 30 ~ 39 세	1,431	47.0	8,088,152	47.0
지역		서울	560	20.4	3,503,783	20.4
		인천 / 경기	685	31.7	5,453,888	31.7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13.6	2,345,193	13.6
		광주/전라/제주	449	10.3	1,768,352	10.3
		부산/울산/경남	495	14.8	2,538,260	14.8
		대구 / 경북	467	9.3	1,594,512	9.3
		중 · 고 등 학 생	492	13.9	2,389,827	13.9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7	16.2	2,792,955	16.2
		고 졸 이 하	623	20.5	3,533,544	20.5
		대 졸 이 상	1,571	49.3	8,487,662	49.3
주거 형태		동 거	1,898	59.5	10,241,898	59.5
		비 동 거 / 독 립	1,235	40.5	6,962,090	40.5

2.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1)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 청년들은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에 대해 아동은 상한 11.3세, 하한 4.8세, 청소년은 상한 18.8세, 하한 12.8세, 청년은 상한 31.4세, 하한 19.8세로 규정하였으며, 전년 대비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규정 모두 상승함
- 연령별로 만15-18세에서 청년 상한 연령이 31.1세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보다 낮게 나타남
- 지역별로 인천/경기 지역에서 ‘청년’(30.3세)의 상한 연령이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 중·고등학생에서 ‘청년’(31.1세)의 상한 연령이 낮게 나타남

표 II-1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연도별 추이

(단위: 명, 세)

구분	사례수	아동 연령		청소년 연령		청년 연령	
		하한(평균)	상한(평균)	하한(평균)	상한(평균)	하한(평균)	상한(평균)
2016	2,534	5.2	11.5	12.6	18.4	19.3	29.5
2017	2,714	4.5	11.2	12.2	18.4	19.4	31.2
2018	3,133	4.8	11.3	12.8	18.8	19.8	31.4

표 II-1-1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단위: 명, 세)

구분		사례수	아동 연령		청소년 연령		청년 연령	
			하한(평균)	상한(평균)	하한(평균)	상한(평균)	하한(평균)	상한(평균)
전	체	3,133	4.8	11.3	12.8	18.8	19.8	31.4
성별	남	자 1,613	4.8	11.3	12.8	18.8	19.9	31.5
	여	자 1,520	4.8	11.4	12.8	18.8	19.8	31.4
연령	만 1 5 ~ 1 8 세	503	4.9	11.4	12.9	18.7	19.8	31.1
	만 1 9 ~ 2 9 세	1,199	4.8	11.5	12.9	18.9	20.0	31.5
	만 3 0 ~ 3 9 세	1,431	4.7	11.2	12.7	18.7	19.8	31.5
지역	서 울	560	5.3	11.2	12.9	18.8	19.9	31.8
	인 천 / 경 기	685	5.3	11.2	12.9	18.5	19.6	30.3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5.0	12.3	13.5	20.1	21.2	32.8
	광주/전라/제주	449	4.0	10.8	11.9	18.3	19.4	30.8
	부산/울산/경남	495	2.8	11.0	12.2	18.6	19.7	31.2
	대 구 / 경 북	467	5.6	11.9	13.0	18.5	19.5	33.7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4.9	11.4	12.9	18.7	19.8	31.1
	대학생/대학원생	447	4.7	11.6	12.9	19.0	20.0	31.7
	고 졸 이 하	623	4.4	11.1	12.9	19.2	20.3	31.5
	대 졸 이 상	1,571	4.9	11.3	12.7	18.5	19.6	31.4
주거 형태	동 거	1,898	4.7	11.4	12.8	18.8	19.9	31.5
	비 동 거 / 독 립	1,235	4.9	11.2	12.7	18.7	19.8	31.4

2) 원 가정으로부터 분가 독립

- 청년들에게 원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독립해야 함’ 의견이 46.9%로 나타나 전년(58.9%) 대비 12.0%p 하락한 반면 적정 독립 연령은 27.9세로 전년(25.4세) 대비 2.5세 상승함
- 성별로는 남자의 ‘독립해야 함’ 의견이 50.1%로 여자(43.4%)보다 높음
-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독립해야 함’ 의견이 55.5%로 가장 높고, 서울 지역의 적정 독립 연령이 29.6세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대졸이상에서 ‘독립해야 함’ 의견(48.3%)과 적정 독립 연령(28.4세)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2 원가정으로부터 독립 필요성 및 적정 독립시기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독립해야 함		독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음	독립할 필요 없음
		%	평균(세)		
2016	2,534	52.4	26.2	44.2	3.5
2017	2,714	58.9	25.4	36.4	4.7
2018	3,133	46.9	27.9	47.1	6.0

표 II-2-1 원가정으로부터 독립 필요성 및 적정 독립시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독립해야 함		독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음	독립할 필요 없음	
				%	평균(세)			
전			체	3,133	46.9	27.9	47.1	6.0
성별	남	자	1,613	50.1	28.0	44.3	5.6	
	여	자	1,520	43.4	27.8	50.2	6.4	
연령	만 1 5 ~ 1 8 세		503	44.1	26.6	47.7	8.3	
	만 1 9 ~ 2 9 세		1,199	44.4	28.0	49.3	6.2	
	만 3 0 ~ 3 9 세		1,431	49.8	28.3	45.1	5.1	
지역	서		울	560	49.0	29.6	45.8	5.2
	인 천 / 경 기		685	45.2	28.7	46.6	8.2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45.2	27.3	46.7	8.1	
	광주/전라/제주		449	41.7	26.1	50.9	7.3	
	부산/울산/경남		495	55.5	26.8	42.6	1.9	
	대 구 / 경 북		467	42.5	26.2	55.3	2.1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44.1	26.6	48.2	7.7	
	대학생/대학원생		447	45.5	27.9	49.2	5.3	
	고 졸 이 하		623	46.5	27.7	45.1	8.4	
	대 졸 이 상		1,571	48.3	28.4	46.9	4.8	
주거 형태	동		거	1,898	42.9	28.0	50.9	6.2
	비 동 거 / 독 립		1,235	52.8	27.9	41.5	5.7	

3) 결혼의 필요성

- 청년들에게 결혼의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시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결혼해야 한다’는 의견이 42.9%로 나타나 전년(53.9%) 대비 11.0%p 하락한 반면 결혼을 해야하는 평균 연령은 30.9세로 전년(30.2세) 대비 0.7세 상승함
- 성별로는 남자의 ‘결혼해야 한다’는 의견이 45.4%로 여자(40.2%)보다 높음
-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결혼해야 한다’는 의견이 54.9%로 가장 높고, 서울 지역에서는 적정 결혼 연령이 31.5세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중·고등학생에서 ‘결혼해야 한다’는 의견이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이상에서는 적정 결혼 평균 연령이 31.1세로 가장 높음

표 II-3 결혼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시기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결혼해야 함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음	결혼할 필요 없음
		%	평균(세)		
2016	2,534	56.0	30.1	40.1	4.0
2017	2,714	53.9	30.2	40.7	5.3
2018	3,133	42.9	30.9	49.3	7.8

표 II-3-1 결혼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시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결혼해야 함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음	결혼할 필요 없음	
				%	평균(세)			
전			체	3,133	42.9	30.9	49.3	7.8
성별	남	자	1,613	45.4	31.2	48.1	6.5	
	여	자	1,520	40.2	30.5	50.6	9.2	
연령	만 1 5 ~ 1 8 세		503	45.0	30.9	44.7	10.3	
	만 1 9 ~ 2 9 세		1,199	38.9	30.9	53.8	7.4	
	만 3 0 ~ 3 9 세		1,431	45.6	30.9	46.9	7.4	
지역	서 울		560	42.5	31.5	50.4	7.0	
	인 천 / 경 기		685	43.7	31.3	45.2	11.0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44.8	30.5	46.2	9.0	
	광주/전라/제주		449	29.6	30.0	65.1	5.3	
	부산/울산/경남		495	54.9	30.5	41.6	3.4	
	대 구 / 경 북		467	33.9	30.3	59.7	6.4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45.7	30.9	44.2	10.1	
	대학생/대학원생		447	39.6	31.0	52.8	7.6	
	고 졸 이 하		623	45.4	30.5	45.7	8.9	
	대 졸 이 상		1,571	42.2	31.1	51.0	6.8	
주거 형태	동 거		1,898	39.2	31.1	52.8	8.1	
	비 동 거 / 독 립		1,235	48.5	30.7	44.2	7.4	

4) 자녀를 가질 필요성

-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44.0%가 동의했고, 전년(54.1%) 대비 10.1%p 하락한 반면, 적정 자녀 계획 시기에 대한 평균 연령은 32.0세로 전년(31.3세) 대비 0.7세 상승함
- 성별로 보면 남자가 45.1%로 여자(42.7%)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55.0%로 가장 높고, 서울 지역의 적정 자녀 계획 시기에 대한 평균 연령이 32.5세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고졸이하에서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평균 연령은 31.3세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II-4 자녀를 가질 필요성 및 적정 자녀 계획 시기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자녀를 가져야 함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음	자녀를 가질 필요 없음
		%	평균(세)		
2016	2,534	54.0	31.2	42.4	3.6
2017	2,714	54.1	31.3	41.4	4.5
2018	3,133	44.0	32.0	48.5	7.6

표 II-4-1 자녀를 가질 필요성 및 적정 자녀 계획 시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자녀를 가져야 함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음	자녀를 가질 필요 없음	
				%	평균(세)			
전			체	3,133	44.0	32.0	48.5	7.6
성별	남	자	1,613	45.1	32.4	47.9	7.0	
	여	자	1,520	42.7	31.5	49.1	8.2	
연령	만 1 5 ~ 1 8 세		503	45.1	32.2	45.0	9.8	
	만 1 9 ~ 2 9 세		1,199	38.9	32.0	52.7	8.4	
	만 3 0 ~ 3 9 세		1,431	47.8	31.9	46.0	6.2	
지역	서 울		560	47.8	32.5	47.8	4.5	
	인 천 / 경 기		685	45.8	32.1	44.5	9.7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42.1	31.5	50.4	7.5	
	광주/전라/제주		449	26.7	31.1	64.3	9.0	
	부산/울산/경남		495	55.0	31.8	38.3	6.7	
	대 구 / 경 북		467	33.7	31.9	59.7	6.7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45.1	32.2	45.1	9.8	
	대학생/대학원생		447	37.1	32.2	53.3	9.6	
	고 졸 이 하		623	48.1	31.3	43.5	8.4	
	대 졸 이 상		1,571	44.2	32.2	49.9	5.9	
주거 형태	동 거		1,898	39.5	32.2	51.9	8.7	
	비 동 거 / 독 립		1,235	50.6	31.7	43.5	5.9	

5)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

-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에 대한 의견으로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가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는 전년(24.3%) 대비 1.9%p 하락한 결과임
- 성별로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자녀의 교육비 부담완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만15-18세에서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가 37.6%로 상대적으로 높으나 응답 사례수가 과소하여 통계적 의미를 가지기 어려우므로 참고적으로만 확인할 것을 권장함
-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출산 휴가 장려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가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고졸이하에서 ‘가구의 소득 증대’가 20.2%로 가장 높음

표 II-5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출산 장려금 확대	출산 휴가 장려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가구의 소득 증대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여성의 경력 단절 부담 완화	기타
2015	1,000	14.3	25.5	8.6	28.7	12.1	6.5	4.3	-
2016	2,192	16.4	17.4	10.9	22.1	16.5	12.0	4.7	0.2
2017	2,321	13.5	21.2	9.6	24.3	14.4	9.8	6.8	0.5
2018	2,641	9.9	19.2	11.6	22.4	16.7	14.3	5.9	0.1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표 II-5-1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출산 장려금 확대	출산 휴가 장려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가구의 소득 증대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여성의 경력 단절 부담 완화	기타	
전			체	2,641	9.9	19.2	11.6	22.4	16.7	14.3	5.9	0.1
성별	남	자	1,315	9.7	20.7	12.0	22.6	17.3	14.6	3.1	0.0	
	여	자	1,326	10.1	17.6	11.0	22.1	16.1	14.0	8.9	0.2	
연령	만 15 ~ 18 세		12	0.0	8.7	23.3	37.6	30.5	0.0	0.0	0.0	
	만 19 ~ 29 세		1,198	8.7	20.1	10.7	24.3	15.9	14.6	5.8	0.0	
	만 30 ~ 39 세		1,431	11.0	18.5	12.2	20.7	17.3	14.1	6.0	0.1	
지역	서울		475	10.1	20.5	12.6	18.3	16.6	15.1	6.9	0.0	
	인천 / 경기		577	8.4	16.0	9.8	23.0	19.0	17.4	6.3	0.0	
	대전/충청/세종/강원		397	9.2	20.8	9.9	27.5	12.4	10.1	9.9	0.0	
	광주/전라/제주		383	5.9	22.4	18.2	18.3	16.4	13.9	4.9	0.0	
	부산/울산/경남		414	14.9	13.9	10.3	22.2	21.6	14.7	2.3	0.2	
	대구 / 경북		395	12.1	29.9	12.3	26.9	8.0	7.5	2.8	0.5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7	10.9	16.7	10.5	22.5	17.2	17.6	4.6	0.0	
	고 졸 이 하		623	11.3	17.9	9.3	19.9	20.2	13.1	8.3	0.1	
	대 졸 이 상		1,571	9.0	20.6	12.9	23.4	15.1	13.7	5.3	0.1	
주거 형태	동 거		1,409	9.4	18.0	10.3	23.5	17.0	16.2	5.5	0.0	
	비 동 거 / 독 립		1,232	10.5	20.5	13.0	21.1	16.4	12.1	6.3	0.2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6)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육아 대책

-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육아 정책에 대한 의견으로 ‘육아 휴직 장려 및 급여 확대’가 2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24.7%) 대비 1.2%p 하락한 결과임
- 성별로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육아 휴직 장려 및 급여 확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만15-18세에서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가 25.8%로 상대적으로 높으나 응답 사례수가 과소하여 통계적 의미를 가지기 어려우므로 참고적으로만 확인할 것을 권장함
-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무상 보육 교육비 확대’ 의견이 29.6%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6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육아 대책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무상 보육 교육비 확대	육아 휴직 장려 및 급여 확대	방과후 서비스 확대	아동 수당 대상자 확대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가구의 소득 증대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여성의 경력 단절 부담 완화	기타
2016	2,192	20.3	21.6	5.0	2.2	23.8	14.6	8.8	3.2	0.4
2017	2,321	18.1	24.7	5.9	4.1	24.9	10.3	7.7	4.1	0.2
2018	2,641	17.3	23.5	5.5	6.4	18.3	14.5	7.8	6.7	0.1

* 주 1)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 아동수당 대상자 확대는 2016, 2017년에는 ‘아동수당 신설’로 질문하여 응답 받은 결과임

3) 2016년 응답결과에는 ‘모름/무응답’이 0.1% 있었음(본 표에 미제시함)

표 II-6-1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육아 대책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무상 보육 교육비 확대	육아 휴직 장려 및 급여 확대	방과후 서비스 확대	아동 수당 대상자 확대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가구의 소득 증대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여성의 경력 단절 부담 완화	기타	
전		체	2,641	17.3	23.5	5.5	6.4	18.3	14.5	7.8	6.7	0.1
성별	남	자	1,315	18.3	24.3	4.6	6.5	18.5	14.7	8.3	4.7	0.1
	여	자	1,326	16.1	22.7	6.4	6.2	18.1	14.3	7.3	8.9	0.0
연령	만 1 5 ~ 1 8 세	12	24.1	19.7	0.0	0.0	25.8	12.8	8.4	9.1	0.0	
	만 1 9 ~ 2 9 세	1,198	15.6	24.2	5.5	7.3	19.1	14.1	8.5	5.7	0.1	
	만 3 0 ~ 3 9 세	1,431	18.7	23.0	5.5	5.6	17.7	14.9	7.2	7.5	0.0	
지역	서 울	475	15.1	25.8	6.1	6.4	10.9	18.5	9.0	8.0	0.3	
	인 천 / 경 기	577	16.5	19.7	5.0	4.1	20.0	14.9	9.2	10.6	0.0	
	대전/충청/세종/강원	397	17.7	23.6	4.9	9.6	23.1	8.2	6.5	6.5	0.0	
	광 주 / 전 라 / 제 주	383	14.6	28.2	9.0	8.3	20.2	12.7	4.7	2.4	0.0	
	부 산 / 울 산 / 경 남	414	15.8	21.3	4.6	6.7	21.4	19.7	8.8	1.7	0.0	
	대 구 / 경 북	395	29.6	30.3	4.3	6.4	15.3	7.2	3.9	2.8	0.0	
학력	대 학생 / 대 학 원 생	447	14.4	23.7	4.8	6.7	18.7	16.0	10.3	5.2	0.3	
	고 졸 이 하	623	16.5	23.8	4.9	6.1	15.6	16.7	8.3	8.1	0.0	
	대 졸 이 상	1,571	18.5	23.4	6.0	6.3	19.3	13.1	6.7	6.6	0.0	
주거 형태	동 거	1,409	16.0	23.8	5.2	6.9	18.8	15.8	8.2	5.1	0.0	
	비 동 거 / 독 립	1,232	18.7	23.2	5.8	5.7	17.8	13.0	7.3	8.4	0.1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7) 결혼 준비 경험

- 청년들에게 결혼 준비 경험을 조사한 결과, 60.6%가 준비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전년(55.7%) 대비 4.9%p 상승한 결과임
- 성별로는 여자(43.0%)가 남자(36.0%)보다 결혼 준비 경험이 ‘있다’는 응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 준비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높음
- 지역별로 인천/경기 지역에서 ‘있다’는 응답이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대졸이상에서 결혼 준비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48.0%로 가장 높음

표 II-7 결혼 준비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있다	없다
2016	2,192	42.0	58.0
2017	2,321	44.3	55.7
2018	2,641	39.4	60.6

표 II-7-1 결혼 준비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2,641	39.4	60.6
성별	남 자	1,315	36.0	64.0
	여 자	1,326	43.0	57.0
연령	만 15 ~ 18 세	12	0.0	100.0
	만 19 ~ 29 세	1,198	7.2	92.8
	만 30 ~ 39 세	1,431	66.1	33.9
지역	서 울	475	39.4	60.6
	인 천 / 경 기	577	42.0	58.0
	대전/충청/세종/강원	397	41.1	58.9
	광주/전라/제주	383	38.2	61.8
	부산/울산/경남	414	32.7	67.3
	대 구 / 경 북	395	39.3	60.7
	대학생/대학원생	447	3.0	97.0
학력	고 졸 이 하	623	47.4	52.6
	대 졸 이 상	1,571	48.0	52.0
주거 형태	동 거	1,409	5.2	94.8
	비 동 거 / 독 립	1,232	78.1	21.9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8) 결혼 준비 시 망설임 경험

- 결혼 준비 경험이 있는 청년들에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망설임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니오’라는 응답이 67.1%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68.8%) 대비 1.7%p 하락한 결과임
- 성별로 보면 여자(35.8%)가 남자(29.6%)보다 망설임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예’라는 응답이 5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8 결혼 준비 시 망설임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6	920	41.4	52.3
2017	1,011	31.2	68.8
2018	1,020	32.9	67.1

* 주 1) 결혼을 준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응답
2) 2016년에는 ‘결혼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임 경험 유무’로 질문하여 응답 받은 결과이며 2017년부터는 망설임 이유를 포괄하여 ‘결혼을 망설임 경험 유무’로 응답 받은 결과임
(2016년 조사에는 ‘결혼비용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가 보기문항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응답 비율은 6.8%였음(본 표에 미제시함))

표 II-8-1 결혼 준비 시 망설임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1,020	32.9	67.1
성별	남 자	459	29.6	70.4
	여 자	561	35.8	64.2
연령	만 1 9 ~ 2 9 세	99	35.2	64.8
	만 3 0 ~ 3 9 세	921	32.6	67.4
지역	서 울	193	24.4	75.6
	인 천 / 경 기	233	31.3	68.7
	대전/충청/세종/강원	162	26.7	73.3
	광주/전라/제주	141	31.5	68.5
	부산/울산/경남	142	42.1	57.9
	대 구 / 경 북	149	56.7	43.3
	대학생/대학원생	15	34.0	66.0
학력	고 졸 이 하	279	32.5	67.5
	대 졸 이 상	726	33.0	67.0
주거 형태	동 거	78	64.1	35.9
	비 동 거 / 독 립	942	30.5	69.5

* 주: 결혼을 준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응답

9) 결혼을 망설인 이유

- 결혼 준비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인 이유로는 ‘결혼비용 때문에’라는 응답이 6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46.4%) 대비 19.4%p 상승한 결과임
- 성별로는 남자(71.7%)가 여자(61.3%)보다 ‘결혼비용 때문에’ 결혼을 망설였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만19-29세에서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때문에’(15.2%)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30.7%) 결혼을 망설였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9 결혼을 망설인 이유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결혼비용 때문에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때문에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기타
2017	308	46.4	12.5	7.5	13.7	18.8	1.1
2018	353	65.8	9.1	6.3	9.1	9.2	0.6

* 주: 결혼을 준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응답

표 II-9-1 결혼을 망설인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결혼비용 때문에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때문에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자유로운 삶을 포기 할 수 없어서	결혼생활 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기타	
전		체	353	65.8	9.1	6.3	9.1	9.2	0.6
성별	남	자	146	71.7	3.4	10.0	6.5	8.4	0.0
	여	자	207	61.3	13.3	3.4	11.1	9.8	1.0
연령	만 1 9 ~ 2 9 세		33	57.9	15.2	0.0	15.9	7.3	3.7
	만 3 0 ~ 3 9 세		320	66.5	8.5	6.9	8.5	9.4	0.3
지역	서	울	49	78.4	11.7	7.0	0.0	2.9	0.0
	인 천 / 경 기		74	75.8	5.2	3.7	5.4	9.9	0.0
	대전/충청/세종/강원		43	49.4	8.9	9.7	10.2	16.9	4.8
	광주/전라/제주		44	43.5	17.6	6.1	30.7	2.2	0.0
	부산/울산/경남		58	63.6	8.5	5.5	14.3	8.1	0.0
	대 구 / 경 북		85	60.4	10.1	9.0	7.0	13.5	0.0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	61.4	0.0	0.0	24.7	13.9	0.0
	고 졸 이 하		94	61.9	12.1	9.1	7.4	9.5	0.0
	대 졸 이 상		254	67.4	8.1	5.2	9.5	9.0	0.8
주거 형태	동	거	53	51.6	9.3	6.2	8.0	24.9	0.0
	비 동 거 / 독 립		300	68.0	9.0	6.3	9.3	6.7	0.7

* 주: 결혼을 준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응답

10) 맞벌이 여부

- 맞벌이 여부에서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 61.6%가 맞벌이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년(49.9%) 대비 11.7%p 상승한 결과임
- 성별로 보면 남자(64.1%)가 여자(59.3%)보다 맞벌이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맞벌이라는 응답이 높음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63.7%로 맞벌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 대졸이상(66.2%)에서 맞벌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10 맞벌이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맞벌이)	아니오(외벌이)
2016	853	47.7	52.3
2017	969	49.9	49.5
2018	1,046	61.6	38.4

* 주 1)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응답

2) 2017년 응답 결과에 모름/무응답 0.6%가 있음(본 표에 미제시함)

표 II-10-1 맞벌이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맞벌이)	아니오(외벌이)
전	체	1,046	61.6	38.4
	자			
성별	남	465	64.1	35.9
	여	581	59.3	40.7
연령	만 15 ~ 18 세	1	0.0	100.0
	만 19 ~ 29 세	124	52.5	47.5
	만 30 ~ 39 세	921	62.7	37.3
지역	서울	206	62.9	37.1
	인천 / 경기	237	62.6	37.4
	대전/충청/세종/강원	161	58.3	41.7
	광주/전라/제주	149	63.7	36.3
	부산/울산/경남	125	62.6	37.4
	대구 / 경북	168	56.2	43.8
	대학생/대학원생	27	51.3	48.7
학력	고졸 이하	279	51.1	48.9
	대졸 이상	740	66.2	33.8
주거 형태	동거	67	55.4	44.6
	비동거 / 독립	979	62.0	38.0

* 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응답

11) 현재 자녀 존재 여부

- 현재 자녀 존재 여부에서 28.3%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전년 (35.6%) 대비 7.3%p 하락한 결과임
- 평균 자녀의 수는 1.5명으로 전년(1.7명) 대비 0.2명 상승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임
- 성별로는 여자(32.6%)가 남자(24.4%)보다 자녀가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가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35.2%로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 고졸이하(36.1%)에서 자녀가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11 현재 자녀 존재 유무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	평균(명)	
2016	2,192	31.7	1.6	68.3
2017	2,321	35.6	1.7	64.4
2018	2,641	28.3	1.5	71.7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표 II-11-1 현재 자녀 존재 유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	평균(명)	
전 체			2,641	28.3	1.5	71.7
성별	남	자	1,315	24.4	1.5	75.6
	여	자	1,326	32.6	1.5	67.4
연령	만 15 ~ 18 세		12	0.0	-	100.0
	만 19 ~ 29 세		1,198	3.1	1.3	96.9
	만 30 ~ 39 세		1,431	49.3	1.5	50.7
지역	서울		475	24.6	1.4	75.4
	인천 / 경기		577	28.6	1.4	71.4
	대전/충청/세종/강원		397	34.0	1.7	66.0
	광주/전라/제주		383	29.8	1.6	70.2
	부산/울산/경남		414	22.5	1.5	77.5
	대구 / 경북		395	35.2	1.5	64.8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7	0.7	1.3	99.3
	고졸 이하		623	36.1	1.6	63.9
	대졸 이상		1,571	34.2	1.5	65.8
주거 형태	동거		1,409	0.9	1.4	99.1
	비동거 / 독립		1,232	59.4	1.5	40.6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12)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

-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에서 56.2%가 가질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년 (55.8%) 대비 0.4%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남자(61.2%)가 여자(50.7%)보다 자녀를 가질 의향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서울 지역에서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이 66.1%로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 대학생/대학원생(65.5%)에서 자녀를 가질 의향이 높게 나타남
- 주거형태별로 동거(66.6%)가 비동거/독립(44.4%)보다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2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6	2,192	59.5	40.5
2017	2,321	55.8	44.2
2018	2,641	56.2	43.8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표 II-12-1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641	56.2	43.8
성별	남 자	1,315	61.2	38.8
	여 자	1,326	50.7	49.3
연령	만 1 5 ~ 1 8 세	12	76.0	24.0
	만 1 9 ~ 2 9 세	1,198	68.1	31.9
	만 3 0 ~ 3 9 세	1,431	46.2	53.8
지역	서 울	475	66.1	33.9
	인 천 / 경 기	577	54.8	45.2
	대전/충청/세종/강원	397	49.4	50.6
	광주/전라/제주	383	59.6	40.4
	부산/울산/경남	414	54.3	45.7
	대 구 / 경 북	395	47.8	52.2
	대학생/대학원생	447	65.5	34.5
학력	고 졸 이 하	623	42.9	57.1
	대 졸 이 상	1,571	58.6	41.4
주거 형태	동 거	1,409	66.6	33.4
	비 동 거 / 독 립	1,232	44.4	55.6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13) 2025년 출산율 전망

- 2025년 출산율 전망에서 ‘출산율이 내려갈 것이다’는 응답이 6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77.1%) 대비 8.9%p 하락한 결과임
- 성별로 보면 남자(68.5%)의 ‘출산율이 내려갈 것이다’라는 응답이 여자(67.9%)보다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인천/경기 지역에서 ‘출산율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36.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고졸이하(33.5%)에서 ‘출산율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3 2025년 출산율 전망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다	출산율이 유지될 것이다	출산율이 내려갈 것이다
2016	2,534	5.9	21.2	72.9
2017	2,321	4.6	18.3	77.1
2018	2,641	3.1	28.7	68.2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표 II-13-1 2025년 출산율 전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다	출산율이 유지될 것이다	출산율이 내려갈 것이다
전 체		2,641	3.1	28.7	68.2
성별	남 자	1,315	3.0	28.5	68.5
	여 자	1,326	3.1	29.0	67.9
연령	만 1 9 ~ 2 9 세	12	8.4	25.1	66.5
	만 3 0 ~ 3 9 세	1,198	2.6	30.3	67.1
지역	서 울	1,431	3.4	27.4	69.2
	인 천 / 경 기	475	8.4	36.2	55.4
	대전/충청/세종/강원	577	1.5	27.2	71.3
	광주/전라/제주	397	2.9	25.8	71.3
	부산/울산/경남	383	1.7	21.2	77.2
	대 구 / 경 북	414	1.1	29.4	69.6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395	1.1	28.7	70.1
	고 졸 이 하	447	2.4	33.5	64.1
	대 졸 이 상	623	1.0	30.8	68.2
주거 형태	동 거	1,571	4.1	26.3	69.6
	비 동 거 / 독 립	1,409	2.4	29.6	68.0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14) 해외 이주 고려 경험

- 해외 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에 대해서 ‘없다’는 응답이 85.9%로 전년(64.0%) 대비 21.9%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해외 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만15~18세(91.9%)에서 해외 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해외 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4.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대학생/대학원생(17.1%)에서 해외 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이 높게 나타남

표 II-14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있다	없다
2016	2,534	22.2	77.7
2017	2,714	36.0	64.0
2018	3,133	14.1	85.9

표 II-14-1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3,133	14.1	85.9	
성별	남	자 1,613	14.4	85.6	
	여	자 1,520	13.7	86.3	
연령	만 1 5 ~ 1 8 세		503	8.1	91.9
	만 1 9 ~ 2 9 세		1,199	15.8	84.2
	만 3 0 ~ 3 9 세		1,431	14.5	85.5
지역	서울		560	16.5	83.5
	인천 / 경기		685	16.7	83.3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9.2	90.8
	광주/전라/제주		449	15.0	85.0
	부산/울산/경남		495	14.1	85.9
	대구 / 경북		467	6.0	94.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8.3
대학생/대학원생		447	17.1	82.9	
고 졸 이 하		623	10.4	89.6	
대 졸 이 상		1,571	16.3	83.7	
주거 형태	동 거		1,898	14.5	85.5
	비 동 거 / 독 립		1,235	13.5	86.5

15) 해외 이주 고려 이유

- 해외 이주를 고려한 이유로,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 보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2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18.7%) 대비 7.5%p 상승한 결과임
- 성별로 보면 남자(28.8%)가 여자(23.2%)보다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 보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만15-18세에서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 보고 싶어서’(51.2%), 만 19-29세에서 ‘취업이 어려워’(13.1%), 만30-39에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14.5%)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중·고등학생에서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 보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15 해외이주를 고려한 이유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자기 계발을 위해서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 보고 싶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취업이 어려워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빈부 격차가 커서	집값이 너무 비싸서	안보가 불안해서	기타
2016	564	12.8	18.5	27.8	12.6	6.8	8.4	7.8	2.5	1.7	1.2
2017	943	11.2	18.7	34.3	13.4	5.5	7.9	3.7	2.1	2.0	1.0
2018	411	15.5	26.2	23.0	10.5	8.7	8.4	4.1	1.1	2.3	0.2

* 주: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표 II-15-1 해외이주를 고려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자기 계발을 위해서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 보고 싶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취업이 어려워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빈부 격차가 커서	집값이 너무 비싸서	안보가 불안해서	기타
전	체	411	15.5	26.2	23.0	10.5	8.7	8.4	4.1	1.1	2.3	0.2
	남	209	14.4	28.8	23.1	8.4	7.3	6.7	6.4	1.6	3.1	0.3
	여	202	16.6	23.2	22.9	12.9	10.4	10.5	1.4	0.6	1.4	0.0
연령	만 15 ~ 18세	44	18.8	51.2	14.8	3.0	4.1	0.0	3.4	0.0	4.6	0.0
	만 19 ~ 29세	178	18.8	31.2	22.7	7.7	13.1	3.2	0.9	0.5	1.6	0.4
	만 30 ~ 39세	189	11.9	17.6	24.7	14.2	5.5	14.5	7.1	1.9	2.5	0.0
지역	서울	98	22.1	19.0	25.7	7.1	11.2	5.8	7.2	1.3	0.5	0.0
	인천 / 경기	109	15.2	22.5	16.1	15.5	11.8	12.9	3.8	0.5	1.5	0.0
	대전/충청/세종/강원	45	8.8	23.6	37.0	13.4	2.5	6.1	4.3	1.8	2.3	0.0
	광주/전라/제주	64	17.8	44.9	17.7	11.8	2.1	4.2	0.0	0.0	0.0	1.4
	부산/울산/경남	70	10.8	34.3	25.9	1.7	7.8	4.4	3.3	3.2	8.6	0.0
	대구 / 경북	25	3.0	28.1	45.2	4.5	0.0	12.8	2.2	0.0	4.3	0.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4	18.8	51.2	14.8	3.0	4.1	0.0	3.4	0.0	4.6	0.0
	대학생/대학원생	72	12.1	34.0	30.2	5.4	12.8	1.7	0.0	1.5	2.3	0.0
	고 졸 이 하	60	6.5	19.9	10.5	22.4	9.0	19.5	8.2	0.0	4.1	0.0
	대 졸 이 상	235	18.5	21.7	25.0	10.1	7.9	9.0	4.5	1.5	1.5	0.3
주거 형태	동거	256	19.6	34.0	21.0	8.1	10.2	2.3	1.3	0.3	2.9	0.3
	비 동 거 / 독 립	155	9.0	14.0	26.1	14.1	6.4	18.0	8.5	2.4	1.4	0.0

* 주: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16) 2025년 입시경쟁 전망

- 2025년 입시경쟁 전망에서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47.7%) 대비 6.5%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여자(42.1%)가 남자(40.5%)보다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52.1%),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27.6%)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중·고등학생에서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44.3%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6 2025년 입시경쟁 전망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2016	2,534	28.3	36.2	35.5
2017	2,714	25.3	27.1	47.7
2018	3,133	20.0	38.8	41.2

표 II-16-1 2025년 입시경쟁 전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경쟁이 악화될 것이다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전	체		3,133	20.0	38.8	41.2
	성별	남 자	1,613	20.7	38.8	40.5
		여 자	1,520	19.1	38.8	42.1
연령	만 15 ~ 18 세		503	21.1	34.3	44.5
	만 19 ~ 29 세		1,199	17.8	42.5	39.7
	만 30 ~ 39 세		1,431	21.4	37.2	41.5
지역	서울		560	26.0	39.8	34.3
	인천 / 경기		685	20.3	41.1	38.7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14.5	39.5	46.0
	광주/전라/제주		449	10.3	38.8	50.9
	부산/울산/경남		495	27.6	34.2	38.2
	대구 / 경북		467	12.3	35.5	52.1
	중 / 고 등 학 생		492	21.2	34.5	44.3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7	17.1	41.7	41.2
	고 졸 이 하		623	18.0	43.6	38.5
	대 졸 이 상		1,571	21.4	37.1	41.5
주거 형태	동 거		1,898	20.6	38.3	41.1
	비 동 거 / 독 립		1,235	19.0	39.5	41.4

17)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그렇다’는 응답이 61.2%(매우 그렇다 7.7% + 그렇다 53.5%)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35.8%) 대비 25.4%p 상승한 결과임
- 성별로 보면 여자(62.5%=매우 그렇다 7.3% + 그렇다 55.2%)가 남자(60.1%=매우 그렇다 8.1% + 그렇다 52.0%)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만15-18세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63.5%(매우 그렇다 9.0% + 그렇다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72.9%(매우 그렇다 6.8% + 그렇다 66.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대학생/대학원생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68.2%(매우 그렇다 11.0% + 그렇다 57.2%)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17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3.8	22.4	31.1	36.9	5.8
2017	2,714	10.7	33.0	20.5	25.7	10.1
2018	3,133	1.3	12.7	24.7	53.5	7.7

표 II-17-1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133	1.3	12.7	24.7	53.5	7.7
	남 자	1,613	1.6	13.4	24.8	52.0	8.1
	여 자	1,520	1.0	11.9	24.6	55.2	7.3
연령	만 15 ~ 18 세	503	1.1	13.7	21.7	54.5	9.0
	만 19 ~ 29 세	1,199	1.9	13.4	25.8	50.1	8.9
	만 30 ~ 39 세	1,431	0.9	11.9	24.7	56.1	6.4
지역	서울	560	0.5	7.8	23.1	60.6	7.9
	인천 / 경기	685	0.6	13.9	24.3	52.4	8.8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2.5	15.5	26.8	49.9	5.3
	광주/전라/제주	449	0.0	12.6	14.5	66.1	6.8
	부산/울산/경남	495	2.3	15.7	31.3	40.1	10.5
	대구 / 경북	467	4.0	10.6	27.3	54.5	3.6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1.1	13.4	22.0	54.5	9.0
	대학생/대학원생	447	1.5	8.9	21.4	57.2	11.0
	고 졸 이 하	623	1.6	22.0	34.5	38.6	3.2
	대 졸 이 상	1,571	1.2	9.9	22.5	58.3	8.1
주거 형태	동 거	1,898	1.4	13.4	24.2	52.4	8.5
	비 동 거 / 독 립	1,235	1.3	11.6	25.5	55.1	6.5

18)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2)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 한국사회에서 학력은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73.5%(매우 그렇다 18.8% + 그렇다 54.7%)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66.8%) 대비 6.7%p 상승한 결과임
- 성별로 보면 여자(74.9%=매우 그렇다 19.0% + 그렇다 55.9%)가 남자 (72.3%=매우 그렇다 18.7% + 그렇다 53.6%)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만15-18세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73.7%(매우 그렇다 21.6% + 그렇다 52.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서울 지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79.2%(매우 그렇다 21.1% + 그렇다 58.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대학생/대학원생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79.2%(매우 그렇다 21.3% + 그렇다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18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2)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1.0	8.1	22.9	49.9	18.0
2017	2,714	3.0	11.3	18.9	44.1	22.7
2018	3,133	0.4	4.1	22.0	54.7	18.8

표 II-18-1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2)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
력)는 중요하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 다
전	체	3,133	0.4	4.1	22.0	54.7	18.8
성별	남 자	1,613	0.5	4.1	23.1	53.6	18.7
	여 자	1,520	0.3	4.1	20.7	55.9	19.0
연령	만 1 5 ~ 1 8 세	503	0.2	5.6	20.5	52.1	21.6
	만 1 9 ~ 2 9 세	1,199	0.4	4.7	21.4	54.4	19.1
	만 3 0 ~ 3 9 세	1,431	0.5	3.2	22.8	55.7	17.8
지역	서 울	560	0.1	2.6	18.1	58.1	21.1
	인 천 / 경 기	685	0.4	3.0	19.9	55.0	21.6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0.0	4.2	28.6	50.6	16.7
	광주/전라/제주	449	0.0	0.9	23.9	58.4	16.8
	부산/울산/경남	495	0.6	8.4	23.8	52.7	14.5
	대 구 / 경 북	467	1.8	7.9	22.6	51.0	16.7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0.2	5.7	19.9	52.1	22.0
	대학생/대학원생	447	0.5	2.9	17.4	57.9	21.3
	고 졸 이 하	623	0.5	7.2	31.8	47.9	12.5
	대 졸 이 상	1,571	0.4	2.8	19.9	57.1	19.7
주거 형태	동 거	1,898	0.6	4.8	20.0	55.7	18.9
	비 동 거 / 독 립	1,235	0.2	3.2	24.8	53.1	18.7

19)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3) 한국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 한국사회에서 학벌은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그렇다’는 응답이 74.8%(매우 그렇다 19.9% + 그렇다 54.9%)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67.0%) 대비 7.8%p 상승한 결과임
- 성별로 보면 여자(76.1%=매우 그렇다 20.4% + 그렇다 55.7%)가 남자(73.7%=매우 그렇다 19.5% + 그렇다 54.2%)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만15-18세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79.7%(매우 그렇다 24.2% + 그렇다 55.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서울 지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79.1%(매우 그렇다 26.9% + 그렇다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중·고등학생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80.5%(매우 그렇다 24.5% + 그렇다 56.0%)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19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3) 한국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1.3	7.6	22.6	47.5	21.0
2017	2,714	3.7	12.1	17.3	42.8	24.2
2018	3,133	0.4	4.0	20.9	54.9	19.9

표 II-19-1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3) 한국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133	0.4	4.0	20.9	54.9	19.9
	자	1,613	0.4	4.9	21.0	54.2	19.5
성별	여	1,520	0.3	3.0	20.7	55.7	20.4
	자						
연령	만 15 ~ 18 세	503	0.3	4.0	16.1	55.5	24.2
	만 19 ~ 29 세	1,199	0.3	3.8	21.9	53.3	20.7
	만 30 ~ 39 세	1,431	0.4	4.0	21.4	56.1	18.0
지역	서울	560	0.0	2.3	18.6	52.2	26.9
	인천 / 경기	685	0.0	4.0	17.6	59.0	19.4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0.0	3.1	26.4	53.6	16.9
	광주/전라/제주	449	0.0	2.5	20.8	62.1	14.5
	부산/울산/경남	495	1.3	6.7	25.4	50.8	15.9
	대구 / 경북	467	1.8	5.9	21.7	47.7	22.9
	충 · 고 등 학 생	492	0.3	4.1	15.2	56.0	24.5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7	0.5	1.9	19.6	52.9	25.2
	고 졸 이 하	623	0.7	7.2	29.6	48.2	14.4
	대 졸 이 상	1,571	0.2	3.3	19.2	58.1	19.2
주거 형태	동 거	1,898	0.5	4.1	20.2	53.3	21.9
	비 동 거 / 독 립	1,235	0.1	3.7	21.8	57.4	17.0

20) 대학(교) 진학 경험 여부

- 대학(교) 진학 경험 여부에 대해서 ‘있다’는 응답이 76.1%로 ‘없다’ (23.9%)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자(78.5%)가 여자(73.6%)보다 대학(교) 진학 경험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만19-29세에서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2.4%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대학(교) 진학을 경험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8.2%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20 대학(교) 진학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2,641	76.1	23.9
	남	1,315	78.5	21.5
	여	1,326	73.6	26.4
연령	만 15 ~ 18 세	12	71.7	28.3
	만 19 ~ 29 세	1,198	82.4	17.6
	만 30 ~ 39 세	1,431	71.0	29.0
지역	서 울	475	79.5	20.5
	인 천 / 경 기	577	73.6	26.4
	대전/충청/세종/강원	397	74.7	25.3
	광주/전라/제주	383	88.2	11.8
	부산/울산/경남	414	72.5	27.5
	대 구 / 경 북	395	72.3	27.7
	대학생/대학원생	447	100.0	0.0
학력	고 졸 이 하	623	0.0	100.0
	대 졸 이 상	1,571	100.0	0.0
주거	동 거	1,409	81.6	18.4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232	70.0	30.0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1) 대학 전공 계열

- 대학 전공 계열에서 ‘인문계열’이 28.3%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학 계열’(19.6%), ‘사회계열’(17.2%) 등의 순이고, ‘인문계열’의 경우, 전년 (19.4%) 대비 8.9%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여자는 ‘인문계열’(36.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는 ‘공학계열’(31.6%)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에서 ‘공학계열’이 24.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21 대학 전공 계열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인문 계열	사회 계열 (경상 계열 제외)	경상 계열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의/ 약학 계열	교육 계열	예체능 계열	사관 학교, 경찰대	기타
2016	1,455	27.8	12.5	9.5	12.4	21.5	3.9	4.9	7.2	0.0	0.3
2017	1,772	19.4	13.0	8.1	9.4	22.3	6.7	4.4	11.2	0.5	3.2
2018	2,018	28.3	17.2	9.4	14.4	19.6	2.1	3.0	4.7	0.0	1.2

* 주 1)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2) 2017년 응답결과에 모름/무응답 1.8%가 있음 (본 표에 미제시함)

표 II-21-1 대학 전공 계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인문 계열	사회 계열 (경상 계열 제외)	경상 계열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의/ 약학 계열	교육 계열	예체 능계 열	사관 학교, 경찰 대	기타
전체		2,018	28.3	17.2	9.4	14.4	19.6	2.1	3.0	4.7	0.0	1.2
성별	남자	1,028	21.2	16.8	10.4	13.5	31.6	0.9	1.5	3.7	0.0	0.5
	여자	990	36.4	17.8	8.3	15.5	5.7	3.5	4.8	5.8	0.0	2.1
연령	만15~18세	10	64.3	7.2	0.0	0.0	8.2	20.4	0.0	0.0	0.0	0.0
	만19~29세	970	28.9	16.8	8.0	14.9	20.4	2.3	3.1	4.4	0.0	1.0
	만30~39세	1,038	27.4	17.7	10.9	14.0	18.9	1.7	2.9	4.9	0.0	1.4
지역	서울	375	27.9	14.9	13.2	11.6	21.4	0.8	5.3	4.8	0.0	0.2
	인천/경기	430	32.2	21.7	7.3	12.5	17.1	1.3	2.3	4.8	0.0	0.8
	대전/충청/세종/강원	293	23.5	10.7	7.8	19.0	24.5	2.9	3.2	4.3	0.0	4.1
	광주/전라/제주	325	33.2	15.8	8.1	16.9	13.6	4.0	3.2	4.8	0.2	0.2
	부산/울산/경남	303	23.6	19.4	11.9	14.6	22.4	2.3	2.6	2.8	0.0	0.3
	대구/경북	292	23.6	15.7	8.0	17.5	19.9	4.1	0.0	7.1	0.3	3.9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7	27.3	16.0	8.1	14.5	24.6	2.5	3.0	3.3	0.0	0.7
	대졸이상	1,571	28.6	17.6	9.9	14.4	18.0	1.9	3.0	5.1	0.1	1.4
주거 형태	동거	1,140	28.6	16.7	8.7	15.0	20.9	2.2	2.6	4.5	0.1	0.8
	비동거/독립	878	27.8	18.0	10.4	13.6	17.9	1.9	3.6	4.9	0.0	1.8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표 II-21-2 대학 전공 계열 (한국표준교육분류 적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반 프로 그램 및 자격/ 서비스	교육	예술 및 인문학	사회 과학, 언론 및 정보학	경영, 행정 및 법	자연 과학, 수학 및 통계학 /농림 어업 및 수의학	정보 통신 기술/ 공학, 제조 및 건설	보건 및 복지
전	체	2,018	1.2	3.0	32.9	17.2	9.5	14.4	19.6	2.1
성별	남 자	1,028	0.5	1.5	24.9	16.8	10.4	13.5	31.6	0.9
	여 자	990	2.1	4.8	42.3	17.8	8.4	15.5	5.7	3.5
연령	만 1 5 ~ 1 8 세	10	0.0	0.0	64.3	7.2	0.0	0.0	8.2	20.4
	만 1 9 ~ 2 9 세	970	1.0	3.1	33.3	16.8	8.0	14.9	20.4	2.3
	만 3 0 ~ 3 9 세	1,038	1.4	2.9	32.4	17.7	11.0	14.0	18.9	1.7
지역	서 울	375	0.2	5.3	32.7	14.9	13.2	11.6	21.4	0.8
	인 천 / 경 기	430	0.8	2.3	37.0	21.7	7.3	12.5	17.1	1.3
	대전/충청/세종/강원	293	4.1	3.2	27.8	10.7	7.8	19.0	24.5	2.9
	광 주 / 전 라 / 제 주	325	0.2	3.2	38.1	15.8	8.3	16.9	13.6	4.0
	부 산 / 울 산 / 경 남	303	0.3	2.6	26.4	19.4	11.9	14.6	22.4	2.3
	대 구 / 경 북	292	3.9	0.0	30.7	15.7	8.2	17.5	19.9	4.1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7	0.7	3.0	30.6	16.0	8.1	14.5	24.6	2.5
	대 졸 이 상	1,571	1.4	3.0	33.7	17.6	9.9	14.4	18.0	1.9
주거 형태	동 거	1,140	0.8	2.6	33.1	16.7	8.8	15.0	20.9	2.2
	비 동 거 / 독 립	878	1.8	3.6	32.7	18.0	10.4	13.6	17.9	1.9

* 주 1)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2) 한국표준교육분류(교육영역)를 고려하여 응답 결과를 재구성함

22)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 대학 진학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86.7%가 졸업 유예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전년(83.0%) 대비 3.7%p 상승한 결과임
-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유예 경험에서는 92.0%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전년(93.9%) 대비 1.9%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인천/경기 지역에서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22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졸업 유예 경험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예	아니오	예	아니오
2016	1,455	5.3	93.2	2.2	97.7
2017	1,772	14.5	83.0	6.1	93.9
2018	2018	13.3	86.7	8.0	92.0

* 주 1)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2) 2016, 2017년 조사에는 졸업 유예 경험 보기문항으로 '졸업유예 제도가 없었음' 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응답 비율은 2016년 2.2%, 2017년 2.5%였음 (본 표에 미제시함)

표 II-22-1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졸업 유예 경험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 체			2018	13.3	86.7	8.0	92.0
성별	남	자	1028	17.0	83.0	11.0	89.0
	여	자	990	8.9	91.1	4.5	95.5
연령	만 1 5 ~ 1 8 세		10	0.0	100.0	0.0	100.0
	만 1 9 ~ 2 9 세		970	11.8	88.2	6.4	93.6
	만 3 0 ~ 3 9 세		1038	14.7	85.3	9.6	90.4
지역	서 울		375	15.8	84.2	7.8	92.2
	인 천 / 경 기		430	18.3	81.7	12.8	87.2
	대전/충청/세종/강원		293	6.0	94.0	2.5	97.5
	광주/전라/제주		325	10.8	89.2	3.6	96.4
	부산/울산/경남		303	8.3	91.7	6.7	93.3
	대 구 / 경 북		292	11.9	88.1	8.1	91.9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7	9.7	90.3	6.4	93.6
	대 졸 이 상		1571	14.4	85.6	8.5	91.5
주거 형태	동 거		1140	13.3	86.7	8.4	91.6
	비 동 거 / 독 립		878	13.2	86.8	7.4	92.6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23) 졸업 유예 이유

- 졸업 유예 이유로는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9.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서’(63.7%), 여자는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24.9%)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서울 지역에서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서’(74.7%),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39.5%)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23 졸업 유예 이유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	경제적으로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문화 및 여가생활을 누리기 위해	기타
전	체	274	59.1	11.6	20.7	6.7	1.1	0.9
성별	남	170	63.7	10.3	18.8	4.7	1.3	1.2
	여	104	49.1	14.5	24.9	10.9	0.5	0.0
연령	만 19 ~ 29 세	128	62.7	9.4	24.2	2.0	1.1	0.7
	만 30 ~ 39 세	146	56.4	13.2	18.1	10.3	1.0	1.0
지역	서울	68	74.7	7.8	10.7	6.1	0.7	0.0
	인천 / 경기	78	55.6	12.7	23.1	7.1	1.5	0.0
	대전/충청/세종/강원	20	42.3	20.5	22.4	9.7	5.1	0.0
	광주/전라/제주	33	58.5	10.3	14.5	8.0	0.0	8.7
	부산/울산/경남	31	53.3	5.4	39.5	1.8	0.0	0.0
	대구 / 경북	44	49.0	19.6	23.2	8.2	0.0	0.0
	대학생/대학원생	45	58.5	7.1	27.2	3.9	1.7	1.6
	대졸 이상	229	59.3	12.6	19.2	7.3	0.9	0.7
주거 형태	공동거	167	63.6	9.6	21.7	2.8	1.8	0.5
	비동거 / 독립	107	53.0	14.3	19.3	12.1	0.0	1.3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에 있는 경우 중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고도 졸업을 늦추거나 졸업을 늦추기 위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만 응답

24) 대학 교육 만족도_1) 나는 대학 교육에 만족한다

- 대학 교육에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그렇다’는 응답이 46.1%(매우 그렇다 1.4% + 그렇다 44.7%)로 ‘그렇지 않다’(14.8%) 대비 높게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자(48.4%=매우 그렇다 1.7% + 그렇다 46.7%)가 남자(44.1%=매우 그렇다 1.1% + 그렇다 43.0%)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65.8%(매우 그렇다 3.6% + 그렇다 62.2%)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24 대학교육 만족도_1) 나는 대학교육에 만족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전체	2,018	1.7	13.1	39.1	44.7	1.4
	남자	1,028	1.5	14.5	39.9	43.0	1.1
	여자	990	2.0	11.4	38.1	46.7	1.7
연령	만 15 ~ 18 세	10	0.0	17.8	29.5	52.6	0.0
	만 19 ~ 29 세	970	2.2	12.0	38.2	46.4	1.2
	만 30 ~ 39 세	1,038	1.3	14.1	40.0	43.1	1.6
지역	서울	375	0.0	7.5	39.2	52.5	0.8
	인천 / 경기	430	1.7	13.9	41.0	42.5	0.9
	대전/충청/세종/강원	293	4.2	20.8	38.1	35.6	1.3
	광주/전라/제주	325	0.3	5.4	28.5	62.2	3.6
	부산/울산/경남	303	2.9	20.3	39.5	35.6	1.8
	대구 / 경북	292	2.4	10.7	47.1	39.0	0.8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7	1.6	13.1	37.5	46.9	0.9
	대졸 이상	1,571	1.8	13.1	39.6	44.0	1.5
주거 형태	동거	1,140	2.4	12.7	38.1	45.7	1.1
	비동거 / 독립	878	0.9	13.6	40.4	43.4	1.7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25) 대학 교육 만족도_2) 나는 대학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대학 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다’는 응답이 55.0%(매우 그렇다 9.5% + 그렇다 45.5%)로 ‘그렇지 않다’(10.9%) 대비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여자가 57.2%(매우 그렇다 9.2% + 그렇다 48.0%)로 남자(53.0%)보다 높고,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서울 지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66.7%(매우 그렇다 8.2% + 그렇다 58.5%)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25 대학교육 만족도_2) 나는 대학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018	1.5	9.4	34.0	45.5	9.5	
성별	남	1,028	1.7	10.2	35.1	43.3	9.7	
	여	990	1.4	8.6	32.8	48.0	9.2	
연령	만 15 ~ 18 세	10	0.0	0.0	35.3	53.1	11.6	
	만 19 ~ 29 세	970	1.7	9.5	32.8	45.4	10.7	
	만 30 ~ 39 세	1,038	1.4	9.4	35.2	45.6	8.4	
지역	서울	375	0.4	4.6	28.3	58.5	8.2	
	인천 / 경기	430	1.7	7.9	31.5	47.2	11.7	
	대전/충청/세종/강원	293	3.3	17.2	38.3	32.9	8.2	
	광주 / 전라 / 제주	325	0.3	5.1	36.1	47.2	11.3	
	부산 / 울산 / 경남	303	1.8	14.3	41.5	34.3	8.2	
	대구 / 경북	292	2.6	12.5	35.6	42.6	6.6	
	대학생/대학원생	447	1.5	8.1	36.4	41.6	12.4	
학력	대졸 이상	1,571	1.6	9.9	33.2	46.8	8.5	
주거	동거	1,140	2.2	9.2	32.5	45.0	11.1	
형태	비동거 / 독립	878	0.7	9.7	36.1	46.1	7.4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26) 대학 교육 만족도_3) 나는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대학 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다’는 응답이 56.6%(매우 그렇다 7.7% + 그렇다 48.9%)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만19-29세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57.4%(매우 그렇다 8.2% + 그렇다 49.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서울 지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66.1%(매우 그렇다 9.9% + 그렇다 56.2%)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26 대학교육 만족도_3) 나는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018	1.3	9.3	32.8	48.9	7.7
	남	1,028	1.1	9.4	34.0	48.1	7.4
	여	990	1.6	9.2	31.4	49.8	8.1
연령	만 15 ~ 18 세	10	0.0	0.0	43.3	56.7	0.0
	만 19 ~ 29 세	970	1.6	7.2	33.3	49.6	8.2
	만 30 ~ 39 세	1,038	1.1	11.4	32.2	48.1	7.3
지역	서울	375	0.0	5.1	28.7	56.2	9.9
	인천 / 경기	430	1.6	8.3	30.7	51.4	7.9
	대전/충청/세종/강원	293	4.0	12.2	32.5	47.1	4.1
	광주 / 전라 / 제주	325	0.0	3.2	33.2	54.9	8.7
	부산 / 울산 / 경남	303	1.5	18.3	40.4	33.1	6.8
	대구 / 경북	292	1.0	11.9	38.2	41.5	7.4
	대학생/대학원생	447	1.3	7.2	31.9	52.7	6.9
학력	대졸 이상	1,571	1.3	10.0	33.1	47.6	8.0
주거	동거	1,140	2.0	8.3	32.5	48.3	8.9
형태	비동거 / 독립	878	0.5	10.5	33.2	49.6	6.1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27) 대학 교육 만족도_4) 나는 내가 선택한 대학에서의 학과(전공)가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 내가 선택한 대학의 학과(전공)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그렇다’는 응답이 49.8%(매우 그렇다 4.0% + 그렇다 45.8%)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그렇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64.4%(매우 그렇다 5.6% + 그렇다 58.8%)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27 대학교육 만족도_4) 나는 내가 선택한 대학에서의 학과(전공)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전체	2,018	0.9	9.8	39.5	45.8	4.0
	남자	1,028	0.8	9.6	42.2	43.6	3.8
	여자	990	0.9	10.1	36.4	48.4	4.2
연령	만 15 ~ 18 세	10	0.0	25.8	8.2	66.0	0.0
	만 19 ~ 29 세	970	1.0	9.2	37.2	48.4	4.2
	만 30 ~ 39 세	1,038	0.8	10.4	41.8	43.2	3.8
지역	서울	375	0.0	7.5	36.0	52.5	4.0
	인천 / 경기	430	0.6	8.9	39.8	47.2	3.5
	대전/충청/세종/강원	293	3.0	15.0	37.1	41.0	4.0
	광주/전라/제주	325	0.0	2.0	33.6	58.8	5.6
	부산/울산/경남	303	1.7	16.5	45.4	32.7	3.7
	대구 / 경북	292	0.7	10.6	49.2	35.6	3.9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7	0.6	10.0	38.3	46.0	5.1
	대졸 이상	1,571	1.0	9.8	39.9	45.8	3.6
주거 형태	동거	1,140	1.0	9.2	38.8	46.8	4.2
	비동거 / 독립	878	0.7	10.7	40.4	44.5	3.7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28) 고교 교육 만족도_1) 나는 고교 교육에 만족한다

- 고교 교육에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그렇다’는 응답이 37.9%(매우 그렇다 1.1% + 그렇다 36.8%)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자가 38.1%(매우 그렇다 0.1% + 그렇다 38.0%)로 여자 (37.9%)보다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46.1%(매우 그렇다 1.8% + 그렇다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28 고교교육 만족도_1) 나는 고교교육에 만족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492	1.0	20.5	40.5	36.8	1.1
	성별	남 자	298	1.4	18.7	41.8	38.0	0.1
		여 자	194	0.6	22.7	38.8	35.5	2.4
연령	만 1 5 ~ 1 8 세		491	1.0	20.6	40.4	36.9	1.1
	만 1 9 ~ 2 9 세		1	0.0	0.0	100.0	0.0	0.0
지역	서 울		85	0.0	20.9	46.1	33.1	0.0
	인 천 / 경 기		108	0.9	22.4	41.0	34.4	1.4
	대전/충청/세종/강원		80	1.5	19.8	32.6	44.3	1.8
	광주/전라/제주		66	0.0	16.4	39.4	43.7	0.6
	부산/울산/경남		81	2.1	23.2	40.9	32.6	1.2
	대 구 / 경 북		72	2.6	16.2	38.9	40.0	2.4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1.0	20.5	40.5	36.8	1.1
주거	동 거		489	1.0	20.6	40.8	36.4	1.2
형태	비 동 거 / 독 립		3	0.0	13.3	0.0	86.7	0.0

* 주: 중·고등학생만 응답

29) 고교 교육 만족도_2) 나는 고교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고교 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다’는 응답이 54.4%(매우 그렇다 6.8% + 그렇다 47.6%)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자가 56.9%(매우 그렇다 6.4% + 그렇다 50.5%)로 남자 (52.3%)보다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66.5%(매우 그렇다 10.2% + 그렇다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29 고교교육 만족도_2) 나는 고교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492	1.1	9.3	35.2	47.6	6.8
	성별	남 자	298	1.0	8.4	38.3	45.2	7.1
		여 자	194	1.2	10.5	31.5	50.5	6.4
연령	만 15 ~ 18 세		491	1.1	9.4	35.1	47.7	6.8
	만 19 ~ 29 세		1	0.0	0.0	100.0	0.0	0.0
지역	서울		85	1.4	9.2	41.9	44.8	2.7
	인천 / 경기		108	1.3	12.6	27.6	54.3	4.2
	대전/충청/세종/강원		80	1.5	10.3	37.1	38.0	13.1
	광주/전라/제주		66	0.0	1.5	32.0	56.3	10.2
	부산/울산/경남		81	0.0	11.1	45.5	31.8	11.6
	대구 / 경북		72	2.0	5.3	33.3	56.1	3.4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1.1	9.3	35.2	47.6	6.8
주거 형태	동 거		489	1.1	9.4	35.4	47.3	6.8
	비 동 거 / 독 립		3	0.0	0.0	13.3	86.7	0.0

* 주: 중·고등학생만 응답

30) 고교 교육 만족도_3) 나는 고교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고교 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다’는 응답이 45.1%(매우 그렇다 5.6% + 그렇다 39.5%)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자가 47.9%(매우 그렇다 5.7% + 그렇다 42.2%)로 여자 (41.6%)보다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서울 지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58.3%(매우 그렇다 3.9% + 그렇다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30 고교교육 만족도_3) 나는 고교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성별	체		492	2.0	11.7	41.2	39.5	5.6
	남 자		298	2.0	11.6	38.4	42.2	5.7
	여 자		194	1.9	11.8	44.6	36.2	5.4
연령	만 1 5 ~ 1 8 세		491	2.0	11.7	41.1	39.6	5.6
	만 1 9 ~ 2 9 세		1	0.0	0.0	100.0	0.0	0.0
지역	서 울		85	0.0	11.7	30.0	54.4	3.9
	인 천 / 경 기		108	4.9	11.7	39.2	38.3	5.9
	대전/충청/세종/강원		80	1.5	15.4	38.9	38.3	5.9
	광주/전라/제주		66	0.0	1.5	43.1	51.9	3.5
	부산/울산/경남		81	0.8	21.0	41.7	27.0	9.4
	대 구 / 경 북		72	1.3	6.1	67.1	21.4	4.1
	학 력 중 · 고 등 학 생		492	2.0	11.7	41.2	39.5	5.6
주거	동 거		489	2.0	11.8	41.5	39.1	5.6
형태	비 동 거 / 독 립		3	0.0	0.0	13.3	86.7	0.0

* 주: 중·고등학생만 응답

31) 고교 교육 만족도_4) 나는 내가 선택한 문/이과 혹은 전공선택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 내가 선택한 문/이과 혹은 전공선택이 나에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그렇다’는 응답이 52.4%(매우 그렇다 2.9% + 그렇다 49.5%)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자가 56.0%(매우 그렇다 3.3% + 그렇다 52.7%)로 여자 (48.2%)보다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64.3%(매우 그렇다 0.6% + 그렇다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31 고교교육 만족도_4) 나는 내가 선택한 문/이과 혹은 전공선택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492	0.2	6.2	41.2	49.5	2.9
	자	298	0.3	6.7	37.0	52.7	3.3
성별	여	194	0.0	5.6	46.2	45.6	2.6
	자						
연령	만 15 ~ 18 세	491	0.2	6.1	41.2	49.6	2.9
	만 19 ~ 29 세	1	0.0	100.0	0.0	0.0	0.0
지역	서울	85	0.0	2.1	46.2	48.7	3.0
	인천 / 경기	108	0.0	2.8	38.4	57.5	1.3
	대전/충청/세종/강원	80	1.5	12.3	37.5	42.8	6.0
	광주/전라/제주	66	0.0	2.5	33.3	63.7	0.6
	부산/울산/경남	81	0.0	12.1	52.4	29.7	5.8
	대구 / 경북	72	0.0	12.5	38.3	46.2	3.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0.2	6.2	41.2	49.5	2.9
주거	동 거	489	0.2	5.7	41.2	49.9	3.0
형태	비 동 거 / 독 립	3	0.0	60.1	39.9	0.0	0.0

* 주: 중·고등학생만 응답

32) 대학 미진학 사유

- 대학 미진학 사유에 대해서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가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40.2%) 대비 4.4%p 하락한 결과임
- 성별로 보면 남자는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28.9%), 여자는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38.3%)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서울 지역에서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49.3%),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36.1%)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32 대학 미진학 사유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기타	모름/무응답
2016	737	0.6	31.3	22.6	17.4	24.4	2.8	1.0	-
2017	549	0.7	40.2	9.5	13.0	32.0	3.8	0.8	-
2018	623	1.7	35.8	15.8	18.0	25.9	2.5	0.1	0.1

* 주 1) 대학(교) 진학 경험이 없는 경우만 응답
 2) 현재 중·고등학생은 응답하지 않음

표 II-32-1 대학 미진학 사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고졸 학력을 취득 하지 못해서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 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기타	모름/ 무응답
전	체	623	1.7	35.8	15.8	18.0	25.9	2.5	0.1	0.1
	남	자	287	1.5	33.0	15.7	19.6	28.9	1.3	0.0
	여	자	336	1.8	38.3	16.0	16.6	23.2	3.7	0.3
연령	만 15 ~ 18 세	2	0.0	30.8	0.0	69.2	0.0	0.0	0.0	0.0
	만 19 ~ 29 세	228	1.6	38.2	9.3	20.6	28.3	1.4	0.0	0.4
	만 30 ~ 39 세	393	1.7	34.6	19.2	16.4	24.8	3.1	0.2	0.0
지역	서울	100	1.0	49.3	13.2	18.6	11.8	5.4	0.0	0.8
	인천 / 경기	147	2.3	34.3	17.8	22.8	22.4	0.4	0.0	0.0
	대전/충청/세종/강원	104	0.6	28.6	18.1	11.7	35.8	4.4	0.9	0.0
	광주/전라/제주	58	4.0	31.1	28.4	5.8	30.7	0.0	0.0	0.0
	부산/울산/경남	111	1.0	32.0	8.5	18.7	36.1	3.7	0.0	0.0
	대구 / 경북	103	2.1	36.4	16.7	14.6	28.6	1.5	0.0	0.0
학력	고졸 이하	623	1.7	35.8	15.8	18.0	25.9	2.5	0.1	0.1
주거 형태	동거	269	1.5	42.9	9.6	20.0	24.9	0.8	0.0	0.3
	비동거 / 독립	354	1.7	30.9	20.2	16.6	26.6	3.7	0.2	0.0

* 주 1) 대학(교) 진학 경험이 없는 경우만 응답

2) 현재 중·고등학생은 응답하지 않음

33) 향후 대학 진학 의향

- 향후 대학 진학 의향에서 ‘진학 하겠다’는 의견이 41.3%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38.4%) 대비 2.9%p 상승한 결과임
- 성별로 보면 여자(39.0%)보다는 남자(43.5%)의 대학 진학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현재 학생(만15-18세)에서 90.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이 56.0%로 가장 높은 대학 진학 의향을 보임

표 II-33 향후 대학 진학 의향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6	1,079	36.6	63.4
2017	942	38.4	61.6
2018	1,115	41.3	58.7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없는 경우만 응답

표 II-33-1 향후 대학 진학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1,115	41.3	58.7
성별	남 자	585	43.5	56.5
	여 자	530	39.0	61.0
연령	만 15 ~ 18 세	493	90.5	9.5
	만 19 ~ 29 세	229	14.1	85.9
	만 30 ~ 39 세	393	4.4	95.6
지역	서 울	185	43.8	56.2
	인 천 / 경 기	255	40.7	59.3
	대전/충청/세종/강원	184	38.8	61.2
	광주/전라/제주	124	56.0	44.0
	부산/울산/경남	192	35.7	64.3
	대 구 / 경 북	175	39.2	60.8
	중 · 고 등 학 생	492	91.1	8.9
학력	고 졸 이 하	623	7.5	92.5
주거 형태	동 거	758	61.0	39.0
	비 동 거 / 독 립	357	5.4	94.6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없는 경우만 응답

34) 취업 준비 여부

- 취업 준비 여부에서 92.3%가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전년 (90.7%) 대비 1.6%p 상승한 결과임
- 성별로 보면 남자(8.9%)의 취업 준비 비율이 여자(6.3%) 대비 높음
- 연령별로 만19-29세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비율이 10.8%로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비율이 10.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34 취업준비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7	2,714	9.3	90.7
2018	3,133	7.7	92.3

표 II-34-1 취업준비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3,133	7.7	92.3
성별	남 자	1,613	8.9	91.1
	여 자	1,520	6.3	93.7
연령	만 1 5 ~ 1 8 세	503	4.7	95.3
	만 1 9 ~ 2 9 세	1,199	10.8	89.2
	만 3 0 ~ 3 9 세	1,431	6.0	94.0
지역	서 울	560	8.1	91.9
	인 천 / 경 기	685	8.7	91.3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6.0	94.0
	광주/전라/제주	449	2.4	97.6
	부산/울산/경남	495	10.4	89.6
	대 구 / 경 북	467	7.1	92.9
	중 · 고 등 학 생	492	4.3	95.7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7	6.9	93.1
	고 졸 이 하	623	8.1	91.9
	대 졸 이 상	1,571	8.7	91.3
주거 형태	동 거	1,898	9.1	90.9
	비 동 거 / 독 립	1,235	5.5	94.5

35)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87.5%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82.2%) 대비 5.3%p 상승한 결과임
- 연령별로 만19~29세에서 준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5.7%로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준비 경험이 25.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대졸이상(18.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35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있다	없다
2016	2,534	15.2	84.8
2017	2,714	17.8	82.2
2018	3,133	12.5	87.5

표 II-35-1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3,133	12.5	87.5
	자			
성별	남	1,613	12.4	87.6
	여	1,520	12.7	87.3
연령	만 15 ~ 18 세	503	1.3	98.7
	만 19 ~ 29 세	1,199	15.7	84.3
	만 30 ~ 39 세	1,431	13.3	86.7
지역	서울	560	8.0	92.0
	인천 / 경기	685	9.2	90.8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14.3	85.7
	광주/전라/제주	449	25.8	74.2
	부산/울산/경남	495	16.5	83.5
	대구 / 경북	467	10.3	89.7
	충·고 등 학 생	492	1.4	98.6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7	13.3	86.7
	고 졸 이 하	623	5.6	94.4
	대 졸 이 상	1,571	18.3	81.7
주거 형태	동 거	1,898	11.9	88.1
	비 동 거 / 독 립	1,235	13.5	86.5

36) 향후 직업훈련 계획 여부

-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에서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9.5%로, 이는 전년 (18.6%) 대비 9.1%p 하락한 결과임
- 연령별로 만19-29세에서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15.5%로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13.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대학생/대학원생(20.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36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6	693	23.1	76.9
2017	2,321	18.6	79.6
2018	2,641	9.5	90.0

* 주 1)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는 경우만 응답
2) 2017년 조사에는 ‘이미 받고 있다’가 보기문항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응답 비율은 1.8%였음
(본 표에 미제시함)

표 II-36-1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641	9.5	90.0
	자			
성별	남	1,315	10.5	88.8
	여	1,326	8.4	91.3
연령	만 15 ~ 18 세	12	0.0	100.0
	만 19 ~ 29 세	1,198	15.5	84.1
	만 30 ~ 39 세	1,431	4.6	94.8
지역	서울	475	8.8	91.1
	인천 / 경기	577	8.2	91.3
	대전/충청/세종/강원	397	12.6	87.0
	광주/전라/제주	383	6.4	91.5
	부산/울산/경남	414	13.9	86.1
	대구 / 경북	395	7.2	92.5
	대학생/대학원생	447	20.5	79.1
학력	고졸 이하	623	5.3	94.1
	대졸 이상	1,571	7.6	91.9
주거 형태	동거	1,409	13.8	85.8
	비동거 / 독립	1,232	4.6	94.8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는 경우만 응답

37)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에서 ‘안정적인 회사’가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31.4%) 대비 0.6%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여자(32.7%)가 남자(29.1%)보다 ‘안정적인 회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회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급여가 높은 회사’(35.3%)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고졸이하에서 ‘안정적인 회사’라는 응답이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37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분위기 좋은 회사	급여가 높은 회사	유명한 회사	안정 적인 회사	퇴근이 빠른 회사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
2016	2,534	8.8	18.3	2.9	31.0	2.7	10.5	25.6	-
2017	2,714	9.0	19.5	1.6	31.4	6.9	8.8	22.3	0.3
2018	3,133	5.5	22.2	3.9	30.8	2.4	13.2	11.7	10.3

* 주 1) 2017년 응답결과에는 ‘기타’가 0.1% 있었음 (본 표에 미제시함)
2) 보기문항 중 ‘복지수준이 좋은 회사’는 2017년도부터 추가된 보기문항임

표 II-37-1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분위기 좋은 회사	급여가 높은 회사	유명한 회사	안정 적인 회사	퇴근이 빠른 회사	발전 가능성 이 높은 회사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
전	체	3,133	5.5	22.2	3.9	30.8	2.4	13.2	11.7	10.3
성별	남 자	1,613	6.6	23.6	4.3	29.1	1.8	14.2	13.1	7.3
	여 자	1,520	4.2	20.8	3.5	32.7	3.1	12.0	10.1	13.6
연령	만 15 ~ 18 세	503	6.0	24.3	6.6	22.4	2.3	13.4	13.8	11.2
	만 19 ~ 29 세	1,199	5.4	20.1	4.5	31.3	1.8	14.8	11.8	10.2
	만 30 ~ 39 세	1,431	5.3	23.4	2.6	33.0	3.0	11.8	10.9	10.0
지역	서울	560	4.9	27.3	3.6	29.6	1.8	16.3	7.1	9.3
	인천 / 경기	685	5.1	21.7	5.7	27.4	1.9	13.7	12.8	11.6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4.4	8.8	2.4	41.4	1.4	12.1	18.5	11.0
	광주/전라/제주	449	9.0	23.5	3.6	28.5	1.4	13.6	14.2	6.2
	부산/울산/경남	495	7.0	19.8	4.1	34.6	6.9	8.5	11.5	7.6
	대구 / 경북	467	3.1	35.3	0.7	26.1	1.0	13.1	5.2	15.5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6.0	24.5	6.7	21.8	2.4	13.7	13.7	11.3
	대학생/대학원생	447	5.2	17.6	4.2	30.0	2.0	16.1	14.8	10.0
	고 졸 이 하	623	7.0	27.7	3.5	36.0	1.8	7.1	8.9	8.0
	대 졸 이 상	1,571	4.7	20.8	3.2	31.5	2.9	14.6	11.2	11.0
주거 형태	동 거	1,898	5.0	22.8	4.7	29.1	2.2	14.1	12.4	9.8
	비 동 거 / 독 립	1,235	6.2	21.5	2.8	33.5	2.8	11.8	10.7	10.9

38) 2020년 적정 최저 임금

- 2020년 적정 최저 임금에 대한 의견은 평균 9,235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8,786원) 대비 449원 상승한 결과임
- 성별로 보면 남자(9,248원)가 여자(9,221원)보다 높은 최저 임금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만19~29세(9,268원)가 타 연령에 비해 높음
-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이 9,753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대학생/대학원생(9,352원)에서 가장 높은 최저 임금 인식을 보임

표 II-38 적정 최저 임금 연도별 추이

(단위: 명, 원)

연도	사례수	적정 최저 임금 평균(원)
2016(2017년 임금)	2,534	7,585
2017(2019년 임금)	2,714	8,786
2018(2020년 임금)	3,133	9,235

표 II-38-1 2020년 적정 최저 임금

(단위: 명, 원)

구분		사례수	2020년 적정 최저 임금 평균(원)
전	체	3,133	9,235
성별	남 자	1,613	9,248
	여 자	1,520	9,221
연령	만 1 5 ~ 1 8 세	503	9,156
	만 1 9 ~ 2 9 세	1,199	9,268
	만 3 0 ~ 3 9 세	1,431	9,232
지역	서 울	560	9,171
	인 천 / 경 기	685	9,028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9,753
	광주/전라/제주	449	9,584
	부산/울산/경남	495	9,088
	대 구 / 경 북	467	9,169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9,149
	대학생/대학원생	447	9,352
	고 졸 이 하	623	9,193
	대 졸 이 상	1,571	9,239
주거 형태	동 거	1,898	9,226
	비 동 거 / 독 립	1,235	9,249

39) 2025년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 전망

- 2025년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 전망에 대해서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5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58.9%) 대비 2.7%p 하락한 결과임
- 성별로 보면 여자(55.2%)보다 남자(57.1%)에서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높음
- 연령별로 만19~29세에서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에서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62.0%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39 2025년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 전망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경쟁이 악화될 것이다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2016	2,534	18.3	39.1	42.6
2017	2,714	14.1	26.9	58.9
2018	3,133	5.9	37.9	56.2

* 주: 2016년 응답결과에는 '모름/무응답'이 0.1% 있었음 (본 표에 미제시함)

표 II-39-1 2025년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 전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경쟁이 악화될 것이다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전	체	3,133	5.9	37.9	56.2
성별	남 자	1,613	5.6	37.3	57.1
	여 자	1,520	6.3	38.5	55.2
연령	만 1 5 ~ 1 8 세	503	5.8	41.7	52.4
	만 1 9 ~ 2 9 세	1,199	5.5	36.3	58.2
	만 3 0 ~ 3 9 세	1,431	6.3	38.0	55.7
지역	서 울	560	7.5	44.9	47.7
	인 천 / 경 기	685	3.6	37.5	58.9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6.6	31.4	62.0
	광주/전라/제주	449	7.3	38.4	54.3
	부산/울산/경남	495	8.9	32.8	58.3
	대 구 / 경 북	467	3.1	40.8	56.0
	중 / 고 등 학 생	492	5.8	42.1	52.1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7	6.2	33.7	60.1
	고 졸 이 하	623	6.8	42.0	51.2
	대 졸 이 상	1,571	5.6	36.3	58.1
	대 졸 이 상	1,571	5.6	36.3	58.1
주거 형태	동 거	1,898	6.4	38.0	55.6
	비 동 거 / 독 립	1,235	5.3	37.6	57.1

40) 미취업 청년 대상 급여(수당, 배당) 지급에 대한 생각

- 미취업 청년 대상 급여 지급에 대한 생각으로 ‘반대한다’(51.5%)는 의견이 ‘찬성한다’(32.5%)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은 동일한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2.6%p 상승함
-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53.7%로 타 지역 대비 높은 반면 대구/경북 지역은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65.0%로 높게 나타남

표 II-40 미취업 청년 대상 급여(수당, 배당) 지급에 대한 생각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2016	2,534	27.9	53.5	18.7
2017	2,714	29.9	51.5	18.5
2018	3,133	32.5	51.5	16.0

표 II-40-1 미취업 청년 대상 급여(수당, 배당) 지급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전	체	3,133	32.5	51.5	16.0
성별	남 자	1,613	33.0	51.1	15.9
	여 자	1,520	32.0	51.8	16.2
연령	만 15 ~ 18 세	503	41.4	37.1	21.6
	만 19 ~ 29 세	1,199	39.6	45.0	15.3
	만 30 ~ 39 세	1,431	24.0	61.1	14.9
지역	서울	560	31.9	54.8	13.3
	인천 / 경기	685	31.4	54.7	13.8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34.1	37.8	28.1
	광주/전라/제주	449	53.7	37.6	8.7
	부산/울산/경남	495	26.5	53.5	20.0
	대구 / 경북	467	21.6	65.0	13.4
	중 / 고 등 학 생	492	41.3	37.0	21.7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7	47.6	32.3	20.1
	고 졸 이 하	623	21.2	62.4	16.4
	대 졸 이 상	1,571	29.8	57.3	12.9
주거 형태	동 거	1,898	37.2	46.1	16.8
	비 동 거 / 독 립	1,235	25.7	59.4	14.9

41) 한달 생활비 정도 및 부모님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

- 청년들의 한달 생활비는 평균 637,873원으로 조사 되었으며 이는 전년 (747,148원) 대비 약 11만원 가량 감소한 금액이고, 한 달 생활비 중 부모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 받는 비율은 전년(26.3%) 대비 4.9%p 상승한 31.2%로 조사됨
- 성별로 남자(652,600원)가 여자(621,556원)보다 높고 부모님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도 높게 나타남
- 중·고등학생은 한 달에 지출하는 용돈으로 응답한 결과이므로 만15-18세의 한 달 생활비(268,534원)가 타 연령대 대비 낮은 편이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한 달 생활비 평균 역시 높아지는 반면 지원받는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부산/울산/경남 지역 거주자의 한 달 생활비 평균이 750,118원으로 타 지역 대비 높고 지원 받는 비율 역시 36.5%로 가장 높음
- 학력별 결과는 연령별 결과와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성인 중 고졸이하와 대졸이상 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41 한 달 생활비 정도 및 한 달 생활비 중 부모님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 연도별 추이

(단위: 명, 원, %)

연도	사례수	한 달 생활비 평균(원)	한 달 생활비 지원 비율(%)
2017	2,714	747,148	26.3
2018	3,133	637,873	31.2

* 주: 중·고등학생은 한 달에 지출하는 용돈으로 응답

표 II-41-1 한 달 생활비 정도 및 한 달 생활비 중 부모님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

(단위: 명, 원, %)

구분		사례수	한 달 생활비 평균(원)	한 달 생활비 지원 비율(%)
전	체	3,133	637,873	31.2
성별	남 자	1,613	652,600	32.9
	여 자	1,520	621,556	29.2
연령	만 1 5 ~ 1 8 세	503	268,534	96.0
	만 1 9 ~ 2 9 세	1,199	647,570	41.9
	만 3 0 ~ 3 9 세	1,431	741,168	2.8
지역	서 울	560	674,012	29.5
	인 천 / 경 기	685	591,855	27.5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550,781	34.7
	광 주 / 전 라 / 제 주	449	663,053	35.8
	부 산 / 울 산 / 경 남	495	750,118	36.5
	대 구 / 경 북	467	637,356	28.4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262,808	96.2
	대학생/대학원생	447	611,649	76.5
	고 졸 이 하	623	719,386	7.5
	대 졸 이 상	1,571	718,173	7.8
주거 형태	동 거	1,898	586,926	49.4
	비 동 거 / 독 립	1,235	712,822	4.3

* 주: 중·고등학생은 한 달에 지출하는 용돈으로 응답

42) 갚아야 할 채무 여부

-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는 비율은 25.1%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27.1%) 대비 2.0%p 하락한 결과임
- 남자의 채무 보유 비율(27.0%)이 여자(23.0%) 대비 높게 나타남
-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채무 보유 비율 또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부산/울산/경남 지역 거주자의 경우 18.7%의 채무 보유 비율을 보여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임
- 학력별로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채무 보유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II-42 갚아야 할 채무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있다	없다
2016	2,192	20.2	79.8
2017	2,321	27.1	72.9
2018	2,641	25.1	74.9

* 주 1)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 학자금 대출 포함
3) 2016년 응답결과에는 ‘모름/무응답’이 0.1% 있었음 (본 표에 미제시함)

표 II-42-1 갚아야 할 채무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2,641	25.1	74.9
성별	남 자	1,315	27.0	73.0
	여 자	1,326	23.0	77.0
연령	만 15 ~ 18 세	12	0.0	100.0
	만 19 ~ 29 세	1,198	18.2	81.8
	만 30 ~ 39 세	1,431	31.0	69.0
지역	서 울	475	23.1	76.9
	인 천 / 경 기	577	28.7	71.3
	대전/충청/세종/강원	397	27.8	72.2
	광 주 / 전 라 / 제 주	383	23.0	77.0
	부 산 / 울 산 / 경 남	414	18.7	81.3
	대 구 / 경 북	395	25.5	74.5
학력	대 학생 / 대 학 원 생	447	15.6	84.4
	고 졸 이 하	623	20.6	79.4
	대 졸 이 상	1,571	30.1	69.9
주거 형태	동 거	1,409	14.7	85.3
	비 동 거 / 독 립	1,232	37.0	63.0

* 주 1)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 학자금 대출 포함

43) 채무 발생 이유

- 채무 발생 이유는 ‘주거비 마련’이 6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학자금 마련’(30.8%), ‘생활비 마련’(3.9%), ‘창업자금 마련’(3.1%)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남자는 ‘학자금 마련’(33.9%), 여자는 ‘주거비 마련’(67.6%) 비율이 각각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 만19-29세의 72.2%는 ‘학자금 마련’ 사유로 채무가 발생한 반면 만 30-39세는 81.1%가 ‘주거비 마련’을 위해 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별 상이한 차이가 발견됨

표 II-43 채무 발생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학자금 마련	주거비 마련	생활비 마련	창업 자금 마련	기타
전	체		665	30.8	61.7	3.9	3.1	0.4
성별	남	자	351	33.9	57.2	5.0	3.5	0.3
	여	자	314	26.9	67.6	2.5	2.6	0.5
연령	만 19 ~ 29 세		218	72.2	21.7	3.5	1.7	0.9
	만 30 ~ 39 세		447	10.9	81.1	4.1	3.8	0.2
지역	서울		111	37.3	61.0	0.6	0.4	0.7
	인천 / 경기		171	33.5	64.1	1.3	1.1	0.0
	대전/충청/세종/강원		116	29.8	60.7	3.0	6.5	0.0
	광주/전라/제주		87	13.2	79.2	5.1	2.5	0.0
	부산/울산/경남		82	24.8	54.3	8.0	11.3	1.6
	대구 / 경북		98	33.5	47.3	16.4	1.8	1.0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72	89.0	7.4	0.9	2.0	0.8
	고졸 이하		136	1.5	79.7	12.5	5.6	0.7
	대졸 이상		457	29.3	65.9	2.0	2.6	0.3
주거 형태	동거		206	82.8	7.7	4.7	4.2	0.5
	비동거 / 독립		459	7.5	86.0	3.6	2.6	0.3

* 주 1)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 채무가 있는 경우에만 응답

44)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1) 돈이 없어서 임대료,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는 비율은 0.8%로 나타나 전년(2.7%) 대비 1.9%p 하락함
- 성별에 따른 특징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연령별 만30-39세의 주거 관련 박탈감 경험 비율(1.2%)이 타 연령대 대비 비교적 높음
- 지역별 대구/경북 지역의 박탈감 경험 비율이 3.5%로 나타나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비동거/독립 주거형태자들의 박탈감 경험 비율(1.2%)이 동거자(0.6%) 대비 높게 나타남

표 II-44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잘 모름
2017	2,714	2.7	86.8	10.5
2018	3,133	0.8	82.9	16.3

표 II-44-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잘 모름
전	체	3,133	0.8	82.9	16.3
	자				
성별	남	1,613	0.8	81.8	17.4
	여	1,520	0.8	84.1	15.1
연령	만 15 ~ 18 세	503	0.0	58.6	41.4
	만 19 ~ 29 세	1,199	0.6	78.8	20.5
	만 30 ~ 39 세	1,431	1.2	93.6	5.3
지역	서울	560	0.7	89.9	9.5
	인천 / 경기	685	0.2	87.1	12.7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0.6	81.1	18.2
	광주/전라/제주	449	0.0	67.4	32.6
	부산/울산/경남	495	1.4	76.4	22.2
	대구 / 경북	467	3.5	83.1	13.4
	충·고 등 학 생	492	0.0	58.1	41.9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7	0.8	69.3	29.9
	고 졸 이 하	623	1.3	94.1	4.6
	대 졸 이 상	1,571	0.8	89.7	9.5
주거 형태	동 거	1,898	0.6	74.0	25.5
	비 동 거 / 독 립	1,235	1.2	96.0	2.8

45)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
했다

-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비율은 0.6%로 나타나 전년 (0.8%) 대비 0.2%p 하락함
- 성별, 연령별 특징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지역별 대구/경북 지역의 냉/난방 관련 박탈감 경험 비율이 1.4%로 나타나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II-45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잘 모름
2017	2,714	0.8	90.2	8.9
2018	3,133	0.6	85.1	14.4

표 II-45-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잘 모름
전	체	3,133	0.6	85.1	14.4
	자	1,613	0.6	84.4	15.0
성별	여	1,520	0.5	85.8	13.6
	자	1,520	0.5	85.8	13.6
연령	만 1 5 ~ 1 8 세	503	0.9	65.0	34.1
	만 1 9 ~ 2 9 세	1,199	0.3	80.6	19.1
	만 3 0 ~ 3 9 세	1,431	0.7	94.8	4.5
지역	서 울	560	0.3	92.0	7.8
	인 천 / 경 기	685	1.0	90.0	9.0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0.2	82.9	16.9
	광주/전라/제주	449	0.3	67.8	31.9
	부산/울산/경남	495	0.0	79.2	20.8
	대 구 / 경 북	467	1.4	84.7	13.9
	중 · 고 등 학 생	492	0.9	64.6	34.5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7	0.3	72.9	26.8
	고 졸 이 하	623	0.9	93.9	5.2
	대 졸 이 상	1,571	0.4	91.1	8.4
	대 졸 이 상	1,571	0.4	91.1	8.4
주거 형태	동 거	1,898	0.4	76.9	22.6
	비 동 거 / 독 립	1,235	0.8	97.0	2.2

46)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는 비율은 10.3%로 나타나 전년(7.9%) 대비 2.4%p 상승함
- 성별로 남자의 지출 관련 박탈감 경험율이 10.6%로 여자(9.9%)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남
- 연령별 만19-29세의 박탈감 경험 비율(11.1%)이 타 연령대 대비 비교적 높음
- 지역별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의 박탈감 경험 비율이 18.5%로 나타나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학력별 현재 대학생/대학원생의 박탈감 경험 비율(13.4%)이 비교적 높음

표 II-46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7	2,714	7.9	92.1
2018	3,133	10.3	89.7

표 II-46-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3,133	10.3	89.7
	자	1,613	10.6	89.4
성별	여	1,520	9.9	90.1
	만 15 ~ 18 세	503	10.7	89.3
연령	만 19 ~ 29 세	1,199	11.1	88.9
	만 30 ~ 39 세	1,431	9.5	90.5
지역	서울	560	15.9	84.1
	인천 / 경기	685	5.9	94.1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18.5	81.5
	광주/전라/제주	449	4.9	95.1
	부산/울산/경남	495	6.9	93.1
	대구 / 경북	467	12.2	87.8
	중 · 고 등 학 생	492	10.8	89.2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7	13.4	86.6
	고 졸 이 하	623	9.8	90.2
	대 졸 이 상	1,571	9.3	90.7
주거 형태	동 거	1,898	10.0	90.0
	비 동 거 / 독 립	1,235	10.8	89.2

47)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비율은 1.1%로 나타나 전년 (2.2%) 대비 1.1%p 하락함
- 성별, 연령별 특징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지역별 부산/울산/경남(1.8%), 대전/충청/세종/강원(1.7%)의 식사 관련 박탈감 경험 비율이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부모와 동거중인 응답자들의 박탈감 경험 비율(1.2%)이 비동거/독립 주거 형태자들의 박탈감 경험 비율(0.8%) 대비 높게 나타남

표 II-47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7	2,714	2.2	97.8
2018	3,133	1.1	98.9

표 II-47-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3,133	1.1	98.9
성별	남 자	1,613	1.1	98.9
	여 자	1,520	1.0	99.0
연령	만 1 5 ~ 1 8 세	503	1.0	99.0
	만 1 9 ~ 2 9 세	1,199	1.1	98.9
	만 3 0 ~ 3 9 세	1,431	1.0	99.0
지역	서 울	560	0.9	99.1
	인 천 / 경 기	685	0.9	99.1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1.7	98.3
	광주/전라/제주	449	0.1	99.9
	부 산/울 산/경 남	495	1.8	98.2
	대 구 / 경 북	467	0.9	99.1
	중 · 고 등 학 생	492	1.0	99.0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7	1.3	98.7
	고 졸 이 하	623	0.5	99.5
	대 졸 이 상	1,571	1.2	98.8
주거 형태	동 거	1,898	1.2	98.8
	비 동 거 / 독 립	1,235	0.8	99.2

48)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는 비율은 18.7%로 나타나 전년(13.9%) 대비 4.8%p 상승함
- 성별로 여자의 여가/소비 관련 박탈감 경험율이 19.2%로 남자(18.3%)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남
- 연령대가 낮을수록 박탈감 경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대구/경북 지역 거주자들의 박탈감 경험 비율이 37.4%로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 결과는 연령대별 결과에 수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

표 II-48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7	2,714	13.9	86.1
2018	3,133	18.7	81.3

표 II-48-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3,133	18.7	81.3
	남 자	1,613	18.3	81.7
	여 자	1,520	19.2	80.8
연령	만 1 5 ~ 1 8 세	503	23.4	76.6
	만 1 9 ~ 2 9 세	1,199	19.7	80.3
	만 3 0 ~ 3 9 세	1,431	16.5	83.5
지역	서 울	560	16.1	83.9
	인 천 / 경 기	685	18.1	81.9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16.4	83.6
	광주/전라/제주	449	15.8	84.2
	부산/울산/경남	495	16.2	83.8
	대 구 / 경 북	467	37.4	62.6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23.3	76.7
	대학생/대학원생	447	18.9	81.1
	고 졸 이 하	623	19.3	80.7
	대 졸 이 상	1,571	17.2	82.8
주거 형태	동 거	1,898	19.3	80.7
	비 동 거 / 독 립	1,235	18.0	82.0

49)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비율은 0.5%로 나타나 전년(2.7%) 대비 2.2%p 하락함
- 성별로 여자의 TV 비보유율이 0.7%로 남자(0.2%)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남
- 연령별 특징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서울 지역 거주자들의 TV 비보유율이 1.0%로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49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7	2,714	2.7	97.3
2018	3,133	0.5	99.5

표 II-49-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3,133	0.5	99.5
성별	남 자	1,613	0.2	99.8
	여 자	1,520	0.7	99.3
연령	만 1 5 ~ 1 8 세	503	0.4	99.6
	만 1 9 ~ 2 9 세	1,199	0.5	99.5
	만 3 0 ~ 3 9 세	1,431	0.5	99.5
지역	서 울	560	1.0	99.0
	인 천 / 경 기	685	0.3	99.7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0.3	99.7
	광주/전라/제주	449	0.4	99.6
	부 산/울 산/경 남	495	0.5	99.5
	대 구 / 경 북	467	0.2	99.8
	중 · 고 등 학 생	492	0.5	99.5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7	0.5	99.5
	고 졸 이 하	623	0.0	100.0
	대 졸 이 상	1,571	0.7	99.3
주거 형태	동 거	1,898	0.5	99.5
	비 동 거 / 독 립	1,235	0.5	99.5

50)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비율은 0.3%로 나타나 전년(0.7%) 대비 0.4%p 하락함
- 성별로 여자의 냉장고 비보유율이 0.4%로 남자(0.1%)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남
- 연령별 특징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서울 지역 거주자들의 냉장고 비보유율이 0.9%로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50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7	2,714	0.7	99.3
2018	3,133	0.3	99.7

표 II-50-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3,133	0.3	99.7
성별	남 자	1,613	0.1	99.9
	여 자	1,520	0.4	99.6
연령	만 1 5 ~ 1 8 세	503	0.4	99.6
	만 1 9 ~ 2 9 세	1,199	0.2	99.8
	만 3 0 ~ 3 9 세	1,431	0.3	99.7
지역	서 울	560	0.9	99.1
	인 천 / 경 기	685	0.2	99.8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0.0	100.0
	광주/전라/제주	449	0.0	100.0
	부산/울산/경남	495	0.2	99.8
	대 구 / 경 북	467	0.2	99.8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0.4	99.6
	대학생/대학원생	447	0.5	99.5
	고 졸 이 하	623	0.0	100.0
	대 졸 이 상	1,571	0.3	99.7
주거 형태	동 거	1,898	0.3	99.7
	비 동 거 / 독 립	1,235	0.2	99.8

5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비율은 22.4%로 나타나 전년(24.6%) 대비 2.2%p 하락함
- 성별로 여자의 자동차 비보유율이 24.5%로 남자(20.6%)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남
- 연령별 만30-39세의 자동차 비보유율이 14.1%로 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임
- 광주/전라/제주 지역 거주자들의 자동차 비보유율이 33.4%로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 중·고등학생(29.3%)과 대학생/대학원생(30.9%)의 비보유율이 비교적 높고 이미 학교를 졸업한 성인 중에서는 고졸이하(23.9%)의 자동차 비보유율이 대졸이상(17.1%) 대비 높게 나타남

표 II-5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7	2,714	24.6	75.4
2018	3,133	22.4	77.6

표 II-51-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3,133	22.4	77.6
성별	남 자	1,613	20.6	79.4
	여 자	1,520	24.5	75.5
연령	만 1 5 ~ 1 8 세	503	29.3	70.7
	만 1 9 ~ 2 9 세	1,199	30.0	70.0
	만 3 0 ~ 3 9 세	1,431	14.1	85.9
지역	서 울	560	22.0	78.0
	인 천 / 경 기	685	21.8	78.2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19.8	80.2
	광 주/전라/제주	449	33.4	66.6
	부 산/울 산/경남	495	24.0	76.0
	대 구 / 경 북	467	14.9	85.1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29.3	70.7
	대학생/대학원생	447	30.9	69.1
	고 졸 이 하	623	23.9	76.1
	대 졸 이 상	1,571	17.1	82.9
주거 형태	동 거	1,898	27.3	72.7
	비 동 거 / 독 립	1,235	15.3	84.7

52)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비율은 0.4%로 나타나 전년(0.3%) 대비 0.1%p 상승함
- 성별로 여자의 통신수단 비보유율이 0.6%로 남자(0.2%)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남
- 연령별 만15-18세의 비보유율(1.1%)이 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서울 지역 거주자들의 통신수단 비보유율이 1.2%로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52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7	2,714	0.3	99.7
2018	3,133	0.4	99.6

표 II-52-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3,133	0.4	99.6
	자			
성별	남	1,613	0.2	99.8
	여	1,520	0.6	99.4
연령	만 15 ~ 18 세	503	1.1	98.9
	만 19 ~ 29 세	1,199	0.1	99.9
	만 30 ~ 39 세	1,431	0.5	99.5
지역	서울	560	1.2	98.8
	인천 / 경기	685	0.4	99.6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0.2	99.8
	광주/전라/제주	449	0.0	100.0
	부산/울산/경남	495	0.0	100.0
	대구 / 경북	467	0.0	100.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1.1	98.9
	대학생/대학원생	447	0.1	99.9
	고 졸 이 하	623	0.0	100.0
	대 졸 이 상	1,571	0.4	99.6
주거 형태	동 거	1,898	0.4	99.6
	비 동 거 / 독 립	1,235	0.4	99.6

53)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인식_1) 우리사회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 우리 사회가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15.9%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47.9%) 대비 낮게 나타남
- 성별 부정적인 의견은 남자(49.6%)가 여자(46.0%) 대비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만15-18세의 부정 의견 비율이 41.3%로 만19-29세(49.7%), 만30-39세(48.3%) 대비 낮은 특징을 보임
- 지역별 인천/경기 거주자(53.5%), 광주/전라/제주 거주자(52.9%)의 부정 의견 비율이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53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인식_1) 우리사회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133	6.2	41.7	36.2	15.4	0.5
성별	남	1,613	5.0	44.6	35.1	14.9	0.4
	여	1,520	7.6	38.4	37.4	16.0	0.6
연령	만 15 ~ 18 세	503	5.1	36.2	42.2	15.8	0.8
	만 19 ~ 29 세	1,199	6.4	43.3	35.5	14.2	0.6
	만 30 ~ 39 세	1,431	6.4	41.9	35.0	16.3	0.4
지역	서울	560	6.0	39.3	38.0	16.3	0.5
	인천 / 경기	685	8.8	44.7	30.7	15.5	0.3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8.3	29.7	43.2	18.1	0.7
	광주 / 전라 / 제주	449	4.0	48.9	32.5	14.7	0.0
	부산 / 울산 / 경남	495	2.9	42.0	41.9	12.4	0.9
	대구 / 경북	467	2.4	45.5	36.1	14.9	1.1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5.2	36.3	42.0	15.7	0.8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447	3.5	45.0	36.4	14.3	0.7
	고 졸 이 하	623	9.8	37.9	37.7	14.3	0.2
주거 형태	대 졸 이 상	1,571	5.9	43.6	33.9	16.1	0.5
	동거	1,898	6.5	42.4	36.5	14.1	0.6
	비 동 거 / 독 립	1,235	5.8	40.6	35.8	17.4	0.4

54)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2) 우리사회는 대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 우리 사회가 대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33.3%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18.3%) 대비 높게 나타남
- 성별에 따른 특징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연령대별 만30~39세의 경우 긍정 의견 비율(31.8%)이 타 연령대 대비 낮은 반면 부정 의견 비율(19.2%)이 높은 특징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정 의견 비율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긍정 의견 비율이 43.4%로 비교적 높은 반면 광주/전라/제주 지역은 부정 의견 비율(21.4%)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54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2) 우리사회는 대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133	1.9	16.4	48.5	31.0	2.3
	자	1,613	1.9	16.3	48.5	30.5	2.8
성별	남	1,520	1.9	16.4	48.5	31.5	1.7
	여	503	0.9	14.0	49.4	32.6	3.1
연령	만 15 ~ 18 세	1,199	2.1	16.2	47.5	32.1	2.1
	만 19 ~ 29 세	1,431	2.0	17.2	49.0	29.6	2.2
	만 30 ~ 39 세	560	0.5	15.0	48.7	34.3	1.6
	서울	685	0.9	17.4	50.7	29.5	1.5
지역	인천 / 경기	477	2.8	15.9	45.1	31.7	4.5
	대전/충청/세종/강원	449	5.6	15.8	50.0	26.0	2.5
	광주 / 전라 / 제주	495	2.5	16.6	52.0	26.9	2.0
	부산 / 울산 / 경남	467	1.9	16.6	38.1	39.9	3.5
	대구 / 경북	492	0.9	14.0	49.0	32.9	3.1
	중 · 고 등 학 생	447	2.8	19.7	46.7	28.1	2.7
학력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623	1.1	13.5	50.6	32.8	2.1
	고 졸 이 하	1,571	2.2	17.1	48.0	30.7	2.0
주거 형태	대 졸 이 상	1,898	1.7	16.1	47.8	31.7	2.6
	동	1,235	2.1	16.7	49.4	30.0	1.8

55)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3) 기성세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 기성세대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20.9%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36.2%) 대비 낮음
- 성별에 따른 특징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연령대별 만15-18세의 긍정 의견 비율이 27.5%로 타 연령대 대비 높음
- 지역별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의 긍정 의견 비율(27.3%)이 타 지역 대비 높은 반면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각각 부정 의견 비율 41.1%), 광주/전라/제주(40.4%) 지역은 부정적 의견 비율이 비교적 높음

표 II-55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3) 기성세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133	4.2	32.0	42.9	19.2	1.7
	자	1,613	4.4	30.6	43.7	19.5	1.7
성별	남	1,520	4.0	33.5	42.1	18.8	1.7
	여	503	3.0	30.4	39.1	24.2	3.3
연령	만 15 ~ 18 세	1,199	4.6	31.9	43.9	18.2	1.4
	만 19 ~ 29 세	1,431	4.3	32.5	43.3	18.4	1.5
	만 30 ~ 39 세	560	3.2	26.1	48.1	21.1	1.5
지역	서 울	685	6.1	35.0	39.4	18.4	1.2
	인 천 / 경 기	477	3.9	27.2	41.6	24.3	3.0
	대 전 / 충 청 / 세 종 / 강 원	449	2.6	37.8	41.5	16.7	1.4
	광 주 / 전 라 / 제 주	495	4.3	36.8	40.8	17.6	0.5
	부 산 / 울 산 / 경 남	467	2.3	27.4	50.7	15.6	4.0
	대 구 / 경 북	492	3.1	30.3	39.5	23.8	3.4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47	5.1	27.7	42.7	22.3	2.2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623	5.5	34.8	44.5	14.9	0.3
	대 졸 이 하	1,571	3.7	32.7	43.3	18.6	1.6
주거 형태	동 거	1,898	4.7	32.2	42.2	18.9	2.0
	비 동 거 / 독 립	1,235	3.5	31.7	44.0	19.5	1.2

56)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4) 기성세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 기성세대가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26.8%가 ‘그렇다’ (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26.9%)과 유사함
- 성별에 따른 특징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연령별로 만15-18세의 긍정 의견 비율이 30.2%로 나타나 타 연령대 대비 비교적 높고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은 긍정 의견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강원(34.8%), 대구/경북(34.5%) 지역의 긍정 의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 학력별 결과는 전반적으로 연령대별 결과에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56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4) 기성세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133	2.3	24.6	46.3	25.2	1.6
	자	1,613	2.5	23.6	47.0	25.1	1.9
성별	남	1,520	2.1	25.7	45.5	25.3	1.4
	여	503	2.5	17.2	50.1	28.7	1.5
연령	만 15 ~ 18 세	1,199	2.2	24.8	45.3	26.3	1.4
	만 19 ~ 29 세	1,431	2.4	26.7	45.9	23.2	1.9
	만 30 ~ 39 세	560	1.3	24.4	49.0	24.2	1.0
	서 울	685	1.0	23.5	48.9	25.8	0.8
지역	인 천 / 경 기	477	2.6	21.3	41.4	30.5	4.3
	대전/충청/세종/강원	449	2.2	22.1	50.1	24.4	1.2
	광 주 / 전 라 / 제 주	495	5.7	35.3	41.0	17.2	0.8
	부 산 / 울 산 / 경 남	467	3.4	19.4	42.7	31.1	3.4
	대 구 / 경 북	492	2.4	17.1	50.2	29.0	1.4
	충 · 고 등 학 생	447	3.5	26.2	41.9	26.7	1.7
학력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623	1.2	25.1	46.4	26.1	1.3
	고 졸 이 하	1,571	2.4	26.0	46.6	23.2	1.8
주거	대 졸 이 상	1,898	2.7	23.7	45.8	26.3	1.6
	동 거	1,235	1.9	25.9	47.0	23.6	1.6
형태	비 동 거 / 독 립						

57)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5)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18.8%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38.5%) 대비 낮게 나타남
- 성별로 여자의 긍정 의견 비율이 19.8%로 남자(17.8%) 대비 높음
- 연령별로 만15-18세의 긍정 의견 비율이 23.6%로 나타나 타 연령대 대비 비교적 높고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은 긍정 의견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강원(25.5%) 지역의 긍정 의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 학력별 결과는 전반적으로 연령대별 결과에 수렴하고 있음

표 II-57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5)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133	4.2	34.3	42.8	18.0	0.8
	자	1,613	3.6	35.6	43.1	17.0	0.8
성별	남	1,520	4.8	32.9	42.5	19.1	0.7
	여	503	2.8	32.7	40.9	22.5	1.1
연령	만 15 ~ 18 세	1,199	4.8	32.0	43.8	18.5	0.9
	만 19 ~ 29 세	1,431	4.0	36.7	42.6	16.3	0.5
	만 30 ~ 39 세	560	2.2	34.3	44.0	19.4	0.0
	서 울	685	5.3	39.0	39.5	15.9	0.3
지역	인 천 / 경 기	477	3.5	26.2	44.8	23.5	2.0
	대전/충청/세종/강원	449	4.2	30.1	48.7	17.0	0.0
	광 주 / 전 라 / 제 주	495	5.2	41.3	36.2	15.9	1.3
	부 산 / 울 산 / 경 남	467	3.7	23.6	52.3	18.3	2.0
학력	대 구 / 경 북	492	2.9	32.3	41.0	22.7	1.1
	중 · 고 등 학 생	447	5.5	33.5	41.5	18.0	1.5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623	4.8	35.0	42.8	17.0	0.3
	고 졸 이 하	1,571	3.8	34.8	43.7	17.1	0.6
주거	동 거	1,898	4.4	33.5	42.6	18.4	1.0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235	3.8	35.5	43.0	17.3	0.3

58)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6)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정부 또는 지자체가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22.7%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25.6%) 대비 낮게 나타남
- 성별로 여자의 긍정 의견 비율이 24.1%로 남자(21.5%) 대비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만15-18세의 긍정 의견 비율이 25.1%로 나타나 타 연령대 대비 비교적 높고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은 긍정 의견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강원(35.4%) 지역의 긍정 의견 비율이 비교적 높음
- 학력별로는 전반적으로 연령대별 결과에 수렴하고 있고 이미 학교를 졸업한 성인 중 고졸이하(23.5%)의 긍정 비율이 대졸이상(21.3%) 대비 높게 나타남

표 II-58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6)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133	2.6	23.0	51.8	21.8	0.9
	자	1,613	2.5	24.1	51.9	20.4	1.1
성별	남	1,520	2.7	21.7	51.6	23.4	0.7
	여	503	1.5	20.8	52.6	24.3	0.8
연령	만 15 ~ 18 세	1,199	3.3	21.2	51.3	23.5	0.7
	만 19 ~ 29 세	1,431	2.3	25.0	52.0	19.7	1.0
	만 30 ~ 39 세	560	0.6	23.9	53.9	20.9	0.6
	서 울	685	1.4	21.3	56.9	20.0	0.3
지역	인 천 / 경 기	477	3.5	18.2	42.9	32.9	2.5
	대전/충청/세종/강원	449	1.7	22.2	53.1	22.4	0.7
	광 주 / 전 라 / 제 주	495	6.1	32.7	46.8	13.7	0.6
	부 산 / 울 산 / 경 남	467	4.7	18.8	48.9	25.7	1.9
	대 구 / 경 북	492	1.5	20.5	52.4	24.8	0.9
	중 · 고 등 학 생	447	4.4	23.1	49.4	22.7	0.5
학력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623	2.4	19.7	54.4	22.2	1.3
	고 졸 이 하	1,571	2.3	25.0	51.3	20.5	0.8
주거 형태	대 졸 이 상	1,898	3.0	21.9	52.2	22.1	0.8
	동 거	1,235	2.0	24.5	51.2	21.3	0.9

59) 중소기업 취업 의향

- 중소기업 취업 의향 비율은 63.9%로 전년(59.4%) 대비 4.5%p 상승함
- 성별에 따른 특징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연령별 만19-29세의 중소기업 취업의향 비율이 69.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 대구/경북 거주자의 중소기업 취업의향 비율이 73.5%로 가장 높고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 역시 70.0%로 비교적 높게 조사됨
- 학력별 고졸이하(68.2%), 대학원/대학원생(66.7%)의 중소기업 취업의향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59 중소기업 취업 의향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6	2,534	68.9	31.1
2017	2,714	59.4	40.6
2018	3,133	63.9	36.1

표 II-59-1 중소기업 취업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3,133	63.9	36.1
성별	남	자	1,613	64.6	35.4
	여	자	1,520	63.0	37.0
연령	만 15 ~ 18 세		503	57.2	42.8
	만 19 ~ 29 세		1,199	69.9	30.1
	만 30 ~ 39 세		1,431	60.9	39.1
지역	서 울		560	61.8	38.2
	인 천 / 경 기		685	65.5	34.5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70.0	30.0
	광주/전라/제주		449	53.6	46.4
	부 산/울 산/경 남		495	58.8	41.2
	대 구 / 경 북		467	73.5	26.5
	중 · 고 등 학 생		492	56.9	43.1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7	66.7	33.3
	고 졸 이 하		623	68.2	31.8
	대 졸 이 상		1,571	63.1	36.9
주거 형태	동 거		1,898	64.9	35.1
	비 동 거 / 독 립		1,235	62.4	37.6

60)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 ‘고용 불안정’이 24.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낮은 급여 수준’(20.7%), ‘대기업보다 낮은 복지수준’(11.7%),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1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고용 불안정’ 응답이 4.1%p 상승한 반면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없음’(5.4%p), ‘대기업보다 낮은 복지수준’(2.2%p)은 전년 대비 하락함
- 성별로 남자는 ‘고용 불안정’ 응답 비율(26.1%)이 여자 대비 비교적 높은 반면 여자는 ‘관련된 여러 업무 경험의 부재’(10.9%)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대별 만15-18세는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18.0%), 만19-29세는 ‘고용 불안정’(26.4%), 만30-39세는 ‘낮은 급여 수준’(22.5%)에 대한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I-60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대기업 보다 낮은 성취감	관련된 여러 업무 경험이 부재	고용 불안정	사회적 으로 낮은 인지도	낮은 급여 수준	대기업 으로의 이직이 불가능	개인의 발전 가능성 이 없음	대기업 보다 낮은 복지 수준	기타
2016	789	10.1	4.2	28.2	11.1	22.6	1.8	15.8	-	5.7
2017	1,114	11.5	8.0	20.6	8.4	19.8	2.8	13.3	13.9	1.7
2018	1,163	11.4	8.7	24.7	10.9	20.7	3.5	7.9	11.7	0.5

* 주 1)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응답

2) 보기문항 ‘대기업보다 낮은 복지수준’은 2017년도부터 추가된 문항임

3) 2016년 응답결과에는 ‘모름/무응답’이 0.6% 있었음 (본 표에 미제시함)

표 II-60-1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대기업 보다 낮은 성취감	관련된 여러 업무 경험이 부재	고용 불안정	사회적 으로 낮은 인지도	낮은 급여 수준	대기업 으로의 이직이 불가능	개인의 발전 가능 성이 없음	대기업 보다 낮은 복지 수준	기타	
전			체	1,163	11.4	8.7	24.7	10.9	20.7	3.5	7.9	11.7	0.5
성별	남	자	596	10.9	6.7	26.1	10.4	20.4	3.5	9.5	12.0	0.4	
	여	자	567	11.9	10.9	23.2	11.4	21.0	3.5	6.1	11.4	0.6	
연령	만 1 5 ~ 1 8 세		224	18.0	5.3	22.7	11.4	21.2	2.3	6.3	12.7	0.0	
	만 1 9 ~ 2 9 세		391	13.9	9.2	26.4	10.6	17.6	3.9	7.5	10.7	0.2	
	만 3 0 ~ 3 9 세		548	7.7	9.5	24.2	10.9	22.5	3.6	8.6	12.0	0.8	
지역	서 울		221	10.0	4.6	30.0	11.7	27.2	2.7	4.6	9.1	0.0	
	인 천 / 경 기		238	13.5	12.1	21.7	9.7	21.2	5.2	4.2	11.9	0.7	
	대전/충청/세종/강원		153	11.9	6.4	21.2	12.4	11.8	0.6	13.1	22.1	0.5	
	광주/전라/제주		218	17.4	14.2	21.7	16.1	11.3	5.2	7.4	6.7	0.0	
	부산/울산/경남		210	4.9	7.1	25.1	5.7	24.8	3.0	15.5	12.2	1.3	
	대 구 / 경 북		123	10.3	4.1	31.2	13.8	21.4	0.8	8.1	10.3	0.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220	18.2	5.1	23.0	11.6	21.2	2.3	6.0	12.6	0.0	
	대학생/대학원생		162	12.4	5.7	25.0	9.1	22.7	3.1	9.7	11.9	0.4	
	고 졸 이 하		188	7.2	19.4	21.1	10.9	15.0	2.1	11.0	10.9	2.3	
	대 졸 이 상		593	10.4	7.0	26.4	11.2	22.0	4.4	6.8	11.6	0.0	
주거 형태	동 거		706	12.6	6.8	26.0	10.3	22.8	3.3	6.9	11.2	0.1	
	비 동 거 / 독 립		457	9.8	11.3	22.8	11.7	17.9	3.7	9.2	12.4	1.0	

주)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응답

61) 창업 고려 또는 경험 여부

- 창업을 생각해보았고 실제 창업까지 경험한 비율은 5.7%, 창업을 생각해보았으나 실제로 창업을 해본 적은 없다는 비율은 22.7%로 나타나 각각 전년(12.7%, 35.8%) 대비 7.0%p, 13.1%p 하락함
- 반면 창업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71.6%로 나타나 전년(51.5%) 대비 20.1%p 상승함
- 성별로 남자는 실제 창업을 했거나(6.2%) 창업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26.3%) 비율이 여자 대비 높은 반면 여자는 창업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76.1%)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이 특징임
- 연령별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창업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창업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비율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 대구/경북 지역에서 창업을 생각해보았으나 실제로 창업을 해본 적은 없다(26.1%)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61 창업 고려 또는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창업을 생각해 보았고 실제로 창업을 했다	창업을 생각해 보았으나 실제로 창업을 해본 적은 없다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2017	2,321	12.7	35.8	51.5
2018	2,641	5.7	22.7	71.6

* 주 1)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 2016년 이전에는 창업 고려 여부에 '예/아니오' 형태의 보기로 진행되어 직접적인 시계열 비교가 어려움

표 II-61-1 창업 고려 또는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창업을 생각해 보았고 실제로 창업을 했다	창업을 생각해 보았으나 실제로 창업을 해 본 적은 없다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전	체		2,641	5.7	22.7	71.6
	자					
성별	남	자	1,315	6.2	26.3	67.5
	여	자	1,326	5.2	18.7	76.1
연령	만 15 ~ 18 세		12	9.1	6.3	84.7
	만 19 ~ 29 세		1,198	1.8	21.1	77.1
	만 30 ~ 39 세		1,431	9.0	24.0	67.0
지역	서울		475	3.6	21.4	75.0
	인천 / 경기		577	4.3	22.3	73.4
	대전/충청/세종/강원		397	7.2	24.2	68.6
	광주/전라/제주		383	7.2	18.9	73.8
	부산/울산/경남		414	8.7	24.1	67.2
	대구 / 경북		395	6.9	26.1	67.0
	대학생/대학원생		447	1.0	19.9	79.1
학력	고졸 이하		623	8.3	25.0	66.7
	대졸 이상		1,571	6.3	22.6	71.2
주거 형태	동거		1,409	3.1	20.0	76.9
	비동거 / 독립		1,232	8.8	25.6	65.6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62)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더 중요한 정책 분야

- 청년들의 78.6%는 ‘노동 수요(일자리, 경제)’ 분야를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전년(82.2%) 대비 3.6%p 하락한 결과임
- 성별에 따른 특징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연령별 만19-29세는 ‘노동 공급’ 분야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고 만30-39세는 ‘노동 수요’ 분야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는 ‘노동 공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타 지역 대비 높고 대전/충청/세종/강원(83.5%)과 부산/울산/경남(80.8%) 지역은 ‘노동 수요’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음
- 학력별 현재 대학생/대학원생들은 ‘노동 공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노동 수요’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비율 또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II-62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더 중요한 정책 분야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노동 공급(개인, 교육)	노동 수요(일자리, 경제)
2016	2,192	16.9	83.1
2017	2,321	17.8	82.2
2018	2,641	21.4	78.6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표 II-62-1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더 중요한 정책 분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노동 공급(개인, 교육)	노동 수요(일자리, 경제)
전	체	2,641	21.4	78.6
성별	남 자	1,315	21.0	79.0
	여 자	1,326	21.7	78.3
연령	만 15 ~ 18 세	12	16.8	83.2
	만 19 ~ 29 세	1,198	24.7	75.3
	만 30 ~ 39 세	1,431	18.7	81.3
지역	서울	475	22.4	77.6
	인천 / 경기	577	22.8	77.2
	대전/충청/세종/강원	397	16.5	83.5
	광주/전라/제주	383	24.6	75.4
	부산/울산/경남	414	19.2	80.8
	대구 / 경북	395	21.2	78.8
	대학생/대학원생	447	27.9	72.1
학력	고졸 이하	623	22.4	77.6
	대졸 이상	1,571	18.8	81.2
주거 형태	동거	1,409	23.3	76.7
	비동거 / 독립	1,232	19.2	80.8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63)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에 대한 응답은 ‘청년들의 고용 가능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가 25.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지도 활성화’(18.8%), ‘고학력화로 인한 대졸자 과다 배출 억제’(14.4%), ‘독일이나 스위스식의 일과 학습 병행제도 활성화’와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높은 선호도’(각각 1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청년들의 고용 가능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 응답이 2.4%p 상승했고 ‘청년들의 능력 향상과 핵심역량 수준 제고’가 3.1%p 하락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전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성별에 따른 특징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연령별 만19-29세는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지도 활성화’(20.1%)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63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지도 활성화	독일이나 스위스식 의 일과 학습 병행 제도 활성화	고학력화 로 인한 대졸자 과다 배출 억제	청년들의 고용 가능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	대기업과 공공부문 에 대한 높은 선호 도(청년 눈높이 제고)	청년들의 능력 향상과 핵심역량 수준 제고	미취업 청소년 및 청년 대상 수당, 배당, 급여 지급	기타
2016	2,192	17.9	12.8	15.5	24.6	12.8	14.5	1.7	0.1
2017	2,321	18.0	13.0	14.8	23.4	14.3	14.7	1.8	0.0
2018	2,641	18.8	14.0	14.4	25.8	14.0	11.6	1.4	0.1

* 주 1)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 2016년 응답결과에는 ‘모름/무응답’이 0.2% 있었음 (본 표에 미제시함)

표 II-63-1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 체			2,641	18.8	14.0	14.4	25.8	14.0	11.6	1.4	0.1
성별	남	자	1,315	19.2	12.9	14.2	27.9	13.0	11.4	1.2	0.2
	여	자	1,326	18.4	15.3	14.5	23.5	15.1	11.8	1.6	0.0
연령	만 1 5 ~ 1 8 세		12	25.4	0.0	9.1	53.1	4.1	8.3	0.0	0.0
	만 1 9 ~ 2 9 세		1,198	20.1	15.2	13.8	24.7	13.9	10.6	1.5	0.1
	만 3 0 ~ 3 9 세		1,431	17.6	13.2	14.8	26.5	14.1	12.4	1.3	0.0
지역	서 울		475	22.5	14.4	11.3	20.8	15.6	12.8	2.3	0.3
	인 천 / 경 기		577	19.3	15.1	15.1	22.5	14.0	13.2	0.6	0.0
	대전/충청/세종/강원		397	13.5	8.1	15.2	34.4	19.6	8.5	0.7	0.0
	광주/전라/제주		383	28.1	16.1	17.8	21.9	7.9	7.8	0.4	0.0
	부산/울산/경남		414	12.3	9.1	13.6	33.2	12.9	15.7	3.0	0.2
	대 구 / 경 북		395	16.7	24.3	14.8	27.7	9.8	5.1	1.6	0.0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7	22.7	16.7	14.4	23.2	10.7	9.3	2.6	0.3
	고 졸 이 하		623	17.7	13.9	15.5	26.4	10.9	13.5	2.1	0.0
	대 졸 이 상		1,571	18.0	13.3	13.8	26.4	16.3	11.5	0.7	0.0
주거 형태	동 거		1,409	20.2	14.6	13.5	24.5	13.8	12.0	1.4	0.0
	비 동 거 / 독 립		1,232	17.1	13.4	15.3	27.3	14.2	11.1	1.3	0.2

* 주 1)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 보기: ①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지도 활성화, ② 독일이나 스위스식의 일과 학습 병행제도 활성화, ③ 고학력화로 인한 대졸자 과다 배출 억제, ④ 청년들의 고용 가능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 ⑤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높은 선호도(청년 눈높이 제고), ⑥ 청년들의 능력 향상과 핵심역량 수준 제고, ⑦ 미취업 청소년 및 청년 대상 배당, 급여 지급, ⑧ 기타

64)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에 대한 응답은 ‘청년 창업/창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가 2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18.5%) 대비 4.2%p 상승하였음
- 다음으로 ‘경제 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22.2%), ‘대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2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남자는 ‘대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21.7%)에 대한 응답이 비교적 높음
- 연령별 만30-39세는 ‘경제 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23.3%)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64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대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채용 확대	청년 창업/ 창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경제 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확대	임금 피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해외 취업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기타
2016	2,192	14.6	16.9	26.6	27.3	6.5	5.3	2.4	0.2
2017	2,321	14.5	14.7	18.5	32.1	11.6	5.2	3.0	0.3
2018	2,641	20.5	16.2	22.7	22.2	8.9	5.8	3.5	0.1

* 주 1)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 2016년 응답결과에는 ‘모름/무응답’이 0.2% 있었음 (본 표에 미제시함)

표 II-64-1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			체	2,641	20.5	16.2	22.7	22.2	8.9	5.8	3.5	0.1
성별	남	자	1,315	21.7	15.5	22.6	22.8	9.3	4.9	2.9	0.2	
	여	자	1,326	19.2	17.1	22.7	21.6	8.4	6.9	4.1	0.0	
연령	만 1 5 ~ 1 8 세		12	5.9	15.3	39.9	38.9	0.0	0.0	0.0	0.0	
	만 1 9 ~ 2 9 세		1,198	20.4	15.8	23.0	20.8	8.8	6.2	4.7	0.3	
	만 3 0 ~ 3 9 세		1,431	20.8	16.6	22.2	23.3	9.0	5.6	2.5	0.0	
지역	서울		475	25.3	21.1	16.5	16.8	10.1	6.4	3.9	0.0	
	인천 / 경기		577	20.7	14.4	22.4	24.3	7.4	5.3	5.4	0.0	
	대전/충청/세종/강원		397	20.7	11.9	29.2	22.1	8.0	7.1	1.0	0.0	
	광주/전라/제주		383	16.8	15.9	28.4	23.1	10.4	4.9	0.4	0.0	
	부산/울산/경남		414	19.3	14.8	19.1	23.0	12.0	6.8	4.3	0.6	
	대구 / 경북		395	14.9	20.7	27.2	25.2	5.9	4.0	1.8	0.3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7	22.6	14.9	25.0	21.5	6.4	4.9	4.1	0.6	
	고 졸 이 하		623	18.7	15.9	27.2	20.3	8.0	6.0	3.9	0.0	
	대 졸 이 상		1,571	20.6	16.8	20.0	23.3	10.1	6.1	3.1	0.0	
주거 형태	동 거		1,409	20.3	17.6	22.5	21.7	8.5	5.9	3.4	0.2	
	비 동 거 / 독 립		1,232	20.9	14.6	22.9	22.9	9.4	5.8	3.6	0.0	

* 주 1)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 보기: ① 대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 ② 공공 부문 채용 확대, ③ 청년 창업/창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④ 경제 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관철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확대, ⑥ 임금 피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⑦ 해외 취업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⑧ 기타

65)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 청년들의 경제활동 상태를 확인한 결과 71.9%는 일을 했다고 응답하였고 1.1%는 휴가 및 일시휴직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합산한 경제활동 비율은 73.0%였으며 이는 전년(72.9%: 71.1%+1.8%)과 거의 유사한 수준임
- 일을 하였다는 응답 결과를 기준으로, 성별 남자(79.2%)가 여자(64.0%) 대비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일을 하였다는 비율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대전/충청/세종/강원(68.6%), 부산/울산/경남(68.5%) 지역은 타 지역 대비 다소 낮게 나타남
- 학력이 높을수록 일을 하였다는 비율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II-65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일을 하였음	휴가 및 일시휴직	일을 하지 않았음
2016	2,192	67.7	-	32.3
2017	2,321	71.1	1.8	27.1
2018	2,641	71.9	1.1	27.0

* 주 1)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2) 2016년 조사는 보기문항이 '예(일을 하였음) / 아니오(일을 하지 않았음)' 형태로 제시되었음

표 II-65-1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을 하였음	휴가 및 일시휴직	일을 하지 않았음
전	체	2,641	71.9	1.1	27.0
성별	남 자	1,315	79.2	0.6	20.3
	여 자	1,326	64.0	1.6	34.4
연령	만 1 5 ~ 1 8 세	12	14.7	4.1	81.2
	만 1 9 ~ 2 9 세	1,198	58.2	0.7	41.1
	만 3 0 ~ 3 9 세	1,431	83.6	1.3	15.1
지역	서 울	475	72.2	1.7	26.1
	인 천 / 경 기	577	74.3	1.2	24.5
	대전/충청/세종/강원	397	68.6	0.8	30.6
	광주/전라/제주	383	71.6	0.7	27.7
	부산/울산/경남	414	68.5	0.3	31.2
	대 구 / 경 북	395	73.8	1.4	24.8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7	23.6	0.4	76.1
	고 졸 이 하	623	78.7	1.2	20.1
	대 졸 이 상	1,571	85.0	1.2	13.7
주거 형태	동 거	1,409	65.6	0.7	33.6
	비 동 거 / 독 립	1,232	79.1	1.4	19.5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66)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여부

- 현재 일자리가 없는 청년의 88.5%는 지난 4주 내 직장을 구해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85.7%) 대비 2.8%p 상승한 결과임
- 다음으로 ‘직장을 구해 보았고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비율은 8.5%, ‘직장을 구해 보았지만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는 비율이 3.0%로 나타남
- 성별 남자의 구직 비율(12.0%)이 여자(6.2%) 대비 높음
- 연령별 만19-29세의 구직 비율(9.5%)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만30-39세는 직장을 구해보지 않은 비율(92.5%)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 부산/울산/경남의 구직 비율이 17.0%로 타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난 반면 광주/전라/제주 지역은 직장을 구해보지 않은 비율(95.6%)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대졸이상 청년의 구직 비율(17.4%)이 타 학력 대비 높게 조사됨
- 주거 형태별 부모와 동거중인 청년의 구직 비율(12.1%)이 비동거/독립 청년(1.5%) 대비 높음

표 II-66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직장을 구해 보았고,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직장을 구해 보았지만,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
2017	654	10.7	3.6	85.7
2018	651	8.5	3.0	88.5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는 경우만 응답

표 II-66-1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직장을 구해 보았고,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직장을 구해 보았지만,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
전	체	651	8.5	3.0	88.5
	자	250	12.0	5.0	83.0
성별	여	401	6.2	1.7	92.1
연령	만 15 ~ 18 세	9	24.1	0.0	75.9
	만 19 ~ 29 세	437	9.5	3.5	86.9
	만 30 ~ 39 세	205	5.6	1.9	92.5
지역	서울	102	6.6	2.9	90.5
	인천 / 경기	119	10.3	2.3	87.4
	대전/충청/세종/강원	121	3.5	4.8	91.6
	광주/전라/제주	100	2.2	2.3	95.6
	부산/울산/경남	116	17.0	3.6	79.4
	대구 / 경북	93	6.5	1.7	91.8
	대학생/대학원생	335	3.7	3.1	93.2
학력	고졸 이하	118	8.3	0.5	91.1
	대졸 이상	198	17.4	4.3	78.3
주거 형태	동거	422	12.1	2.8	85.1
	비동거 / 독립	229	1.5	3.3	95.1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는 경우만 응답

67) 지난 주 정규교육기관(학교) 통학 여부

- 현재 일자리가 없는 청년 중 정규교육기관(학교)에 통학했다는 비율은 55.1%였으며 이는 전년(38.5%) 대비 16.6%p 상승한 결과임
- 성별 남자의 통학 비율(78.6%)이 여자(39.9%) 대비 높게 나타남
- 연령별 만19-29세의 78.0%는 정규교육기관(학교)에 통학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만30-39세의 97.2%는 통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 광주/전라/제주(69.4%), 대전/충청/세종/강원(65.2%)은 타 지역 대비 정규교육기관(학교) 통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 형태별 부모와 동거중인 청년의 통학 비율(78.2%)이 비동거/독립 청년 대비 높음

표 II-67 지난 주 정규교육기관(학교) 통학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6	693	40.6	59.4
2017	654	38.5	61.5
2018	651	55.1	44.9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는 경우만 응답

표 II-67-1 지난 주 정규교육기관(학교) 통학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651	55.1	44.9
	남 자	250	78.6	21.4
	여 자	401	39.9	60.1
연령	만 1 5 ~ 1 8 세	9	75.9	24.1
	만 1 9 ~ 2 9 세	437	78.0	22.0
	만 3 0 ~ 3 9 세	205	2.8	97.2
지역	서 울	102	46.4	53.6
	인 천 / 경 기	119	53.4	46.6
	대전/충청/세종/강원	121	65.2	34.8
	광주/전라/제주	100	69.4	30.6
	부산/울산/경남	116	54.4	45.6
	대 구 / 경 북	93	47.0	53.0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335	95.1	4.9
	고 졸 이 하	118	1.2	98.8
	대 졸 이 상	198	15.1	84.9
주거 형태	동 거	422	78.2	21.8
	비 동 거 / 독 립	229	10.0	90.0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는 경우만 응답

68) 지난 주 입시학원, 취업 관련 학원 통학 경험

- 현재 일자리가 없고 정규교육기관(학교)에 통학도 하지 않은 청년 중 입시학원, 취업 관련 학원에 통학했다는 비율은 8.2%였으며 이는 전년(8.0%) 대비 0.2%p 상승하였으나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결과임
- 성별 남자의 입시학원, 취업 관련 학원 통학 비율(20.0%)이 여자(5.5%) 대비 높게 나타남
- 연령별 만19-29세의 21.5%는 입시학원, 취업 관련 학원에 통학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만30-39세의 98.5%는 통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 부산/울산/경남(19.0%)은 타 지역 대비 입시학원, 취업 관련 학원 통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 형태별 부모와 동거중인 청년의 통학 비율(24.8%)이 비동거/독립 청년 대비 높음

표 II-68 지난 주 입시학원, 취업 관련 학원 통학 경험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6	411	6.1	93.9
2017	392	8.0	92.0
2018	307	8.2	91.8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으며, 정규교육기관을 다니지 않는 경우만 응답

표 II-68-1 지난 주 입시학원, 취업 관련 학원 통학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307	8.2	91.8
	자			
성별	남	56	20.0	80.0
	여	251	5.5	94.5
연령	만 15 ~ 18 세	1	0.0	100.0
	만 19 ~ 29 세	104	21.5	78.5
	만 30 ~ 39 세	202	1.5	98.5
지역	서울	58	8.7	91.3
	인천 / 경기	61	4.8	95.2
	대전/충청/세종/강원	45	4.1	95.9
	광주/전라/제주	36	4.5	95.5
	부산/울산/경남	57	19.0	81.0
	대구 / 경북	50	5.9	94.1
	대학생/대학원생	17	21.6	78.4
학력	고졸 이하	116	3.4	96.6
	대졸 이상	174	10.1	89.9
주거 형태	동거	99	24.8	75.2
	비동거 / 독립	208	0.3	99.7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으며, 정규교육기관을 다니지 않는 경우만 응답

69) 니트 관련_1) 지난주에 주로 한 일

- 현재 일자리가 없고 정규교육기관(학교)과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에도 통학 하지 않은 청년들의 63.1%는 주로 ‘육아나 돌봄, 가사활동으로 시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64.1%) 대비 1.0%p 하락한 수치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결과임
-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18.0%), ‘여행이나 문화 예술 및 취미활동을 했다’(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남자는 주로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는 응답이 62.1%로 높고 여자는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응답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됨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은 ‘여행이나 문화예술 및 취미 활동을 했다’(21.2%), 대전/충청/세종/강원은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냈다’(76.0%), 부산/울산/경남은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36.5%)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 -69 니트 관련_1) 지난주에 주로 한 일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여행이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했다	육아나 돌봄, 가사활동으로 시간을 보냈다	질병이나 지병때문에 휴식을 취하였다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그냥 쉬었다	직장을 구하거나 학교, 훈련 기관을 찾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져 그냥 쉬었다	기타
2017	359	7.5	64.1	2.1	14.8	6.3	2.8	2.3
2018	279	8.3	63.1	2.7	18.0	3.5	3.7	0.7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으며, 정규교육기관 및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는 경우만 응답

표 II-69-1 니트 관련_1) 지난주에 주로 한 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	체	279	8.3	63.1	2.7	18.0	3.5	3.7	0.7
	남 자	43	16.1	1.0	4.5	62.1	6.5	8.3	1.5
	여 자	236	6.8	75.1	2.4	9.4	2.9	2.8	0.5
연령	만 15 ~ 18 세	1	0.0	0.0	0.0	100.0	0.0	0.0	0.0
	만 19 ~ 29 세	80	16.9	19.8	3.5	42.6	7.6	7.8	1.8
	만 30 ~ 39 세	198	4.9	81.1	2.5	7.3	1.9	2.1	0.2
지역	서울	53	5.4	71.7	1.0	14.5	0.0	6.3	1.2
	인천 / 경기	57	8.6	66.3	2.7	15.7	6.6	0.0	0.0
	대전/충청/세종/강원	43	6.6	76.0	0.0	13.2	2.6	1.6	0.0
	광주/전라/제주	33	21.2	59.6	0.0	14.2	0.0	3.0	2.0
	부산/울산/경남	46	8.9	41.3	0.0	36.5	1.4	11.9	0.0
	대구 / 경북	47	6.2	52.3	16.4	13.9	8.7	0.0	2.5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13	28.8	12.4	4.9	53.8	0.0	0.0	0.0
	고졸 이하	111	5.3	69.8	5.3	10.0	5.4	2.9	1.3
	대졸 이상	155	8.8	62.6	0.6	20.8	2.3	4.7	0.3
주거 형태	동거	72	13.1	1.1	3.4	57.3	9.8	13.4	2.0
	비동거 / 독립	207	6.6	85.3	2.5	3.9	1.2	0.3	0.2

* 주 1)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으며, 정규교육기관 및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는 경우만 응답

2) 보기: ① 여행이나 문화예술 및 취미 활동을 했다, ② 육아나 돌봄, 가사활동으로 시간을 보냈다, ③ 질병이나 지병 때문에 휴식을 취하였다, ④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⑤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그냥 쉬었다, ⑥ 직장을 구하거나 학교, 훈련 기관을 찾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져 그냥 쉬었다, ⑦ 기타

70) 니트 관련_2)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 기간

- 현재 일자리가 없고 정규교육기관(학교)과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에도 통학 하지 않은 청년들의 73.9%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1개월 이상'(22.8%), '1개월 미만'(3.3%)의 순으로 나타남
- 지난 2017년 대비 '1년 이상'의 기간은 3.5%p 하락한 반면, '1개월 이상'은 3.5%p 상승함
- 성별로 여자는 '1년 이상'의 응답이 84.8%로 높고, 남자는 '1개월 이상'의 응답이 67.5%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됨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은 '1년 이상'(85.8%) 응답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1개월 이상'(45.7%)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70 니트 관련_2)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 기간 연도별 추이

(단위: %, 개월)

연도	사례수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이상	평균 (개월)
2017	359	3.3	19.3	77.4	40.8
2018	307	3.3	22.8	73.9	73.9

표 II-70-1 니트 관련_2)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 기간

(단위: %, 개월)

구분		사례수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이상	평균 (개월)
전	체	307	3.3	22.8	73.9	73.9
성별	남 자	56	6.0	67.5	26.5	26.5
	여 자	251	2.7	12.6	84.8	84.8
연령	만 1 5 ~ 1 8 세	1	0.0	100.0	0.0	0.0
	만 1 9 ~ 2 9 세	104	7.4	57.2	35.4	35.4
	만 3 0 ~ 3 9 세	202	1.2	4.7	94.0	94.0
지역	서 울	58	7.0	17.7	75.2	75.2
	인 천 / 경 기	61	0.0	21.8	78.2	78.2
	대전/충청/세종/강원	45	2.4	18.3	79.3	79.3
	광주/전라/제주	36	6.0	8.2	85.8	85.8
	부 산 / 울 산 / 경남	57	1.6	45.7	52.7	52.7
	대 구 / 경 북	50	6.4	14.3	79.4	79.4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17	7.8	71.5	20.6	20.6
	고 졸 이 하	116	1.6	14.4	84.0	84.0
	대 졸 이 상	174	4.0	23.7	72.3	72.3
주거 형태	동 거	99	5.9	65.1	29.0	29.0
	비 동 거 / 독 립	208	2.0	2.8	95.2	95.2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으며, 정규교육기관 및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는 경우만 응답

71)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1) 업무 경험의 부족

- 학업, 취업,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서 업무 경험의 부족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6.0%(전혀 그렇지 않다 3.8% + 그렇지 않다 32.2%)로 ‘그렇다’는 응답(32.2%) 대비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여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9.9%로 높고, 남자는 ‘그렇다’는 응답이 49.6%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됨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그렇지 않다’(52.8%) 응답이,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그렇다’(42.0%)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대학생/대학원생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48.1%로 가장 높음

표 II-71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1) 업무 경험의 부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성별	체	307	3.8	32.2	31.8	25.9	6.3
	남 자	56	0.5	18.4	31.5	42.7	6.9
	여 자	251	4.6	35.3	31.9	22.0	6.2
연령	만 1 5 ~ 1 8 세	1	0.0	0.0	0.0	0.0	100.0
	만 1 9 ~ 2 9 세	104	4.0	28.0	34.5	29.7	3.9
	만 3 0 ~ 3 9 세	202	3.8	34.5	30.7	24.1	6.8
지역	서 울	58	3.5	29.0	39.8	27.8	0.0
	인 천 / 경 기	61	0.0	32.9	28.9	24.6	13.6
	대전/충청/세종/강원	45	12.7	27.2	32.0	17.1	11.0
	광 주 / 전 라 / 제 주	36	6.1	46.7	13.7	21.4	12.0
	부 산 / 울 산 / 경 남	57	5.4	36.4	33.4	24.8	0.0
	대 구 / 경 북	50	1.2	26.0	30.9	40.8	1.2
학력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17	6.8	15.5	29.5	34.4	13.7
	고 졸 이 하	116	2.3	33.8	32.3	23.9	7.7
	대 졸 이 상	174	4.6	32.8	31.7	26.4	4.6
주거 형태	동 거	99	2.7	26.8	33.8	32.5	4.2
	비 동 거 / 독 립	208	4.4	34.7	30.8	22.7	7.4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으며, 정규교육기관 및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는 경우만 응답

72)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2) 요구되는
기술이나 자격의 부족

- 학업, 취업,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자격의
부족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40.4%(매우 그렇다 9.8% + 그렇다 30.6%)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26.1%) 대비 높게 나타남
- 성별로 남자(56.9%)의 ‘그렇다’는 응답이 여자(36.6%)보다 높음
- 지역별로 인천/경기(46.7%) 지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전라/제주(47.1%), 대전/충청/세종/강원(37.4%)과 부산/
울산/경남(34.9%) 지역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음
- 학력별로 대학생/대학원생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55.7%로 가장 높음

표 II-72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2) 요구되는 기술이나
자격의 부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	307	5.9	20.2	33.5	30.6	9.8
	여	251	0.6	11.8	30.7	45.6	11.3
연령	만 15 ~ 18 세	1	7.1	22.1	34.2	27.1	9.5
	만 19 ~ 29 세	104	0.0	0.0	0.0	0.0	100.0
	만 30 ~ 39 세	202	3.5	17.7	37.8	31.1	9.9
지역	서 울	58	7.2	21.6	31.6	30.6	9.0
	인 천 / 경 기	61	6.9	12.6	41.3	29.3	9.8
	대 전 / 충 청 / 세 중 / 강 원	45	5.1	14.4	33.8	28.2	18.5
	광 주 / 전 라 / 제 주	36	11.9	25.5	24.2	34.0	4.4
	부 산 / 울 산 / 경 남	57	5.4	41.7	15.8	33.0	4.2
	대 구 / 경 북	50	4.6	30.3	32.7	30.8	1.6
학력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17	1.2	16.7	39.5	34.1	8.5
	고 졸 이 하	116	3.6	2.1	38.6	29.6	26.1
	대 졸 이 상	174	3.1	19.6	36.6	28.8	11.9
주거 형태	대 졸 이 상	99	8.1	22.5	30.8	32.0	6.6
	동	99	2.6	13.0	38.2	35.6	10.6
비 동 거 / 독 립		208	7.5	23.6	31.3	28.2	9.4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으며, 정규교육기관 및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는 경우만 응답

73)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3) 자신감의 결여

- 학업, 취업,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서 자신감의 결여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39.2%(매우 그렇다 6.5% + 그렇다 32.7%)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31.3%) 대비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여자(40.0%)의 ‘그렇다’ 응답이 남자(35.4%)보다 높음
- 지역별로 인천/경기(48.3%)와 서울(47.1%) 지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전라/제주(45.6%)와 대전/충청/세종/강원(40.9%) 지역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대학생/대학원생에서 ‘그렇다’는 응답(59.3%)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73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3) 자신감의 결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07	6.2	25.1	29.5	32.7	6.5
성별	남	56	2.8	14.7	47.1	34.3	1.1
	여	251	7.0	27.5	25.5	32.3	7.7
연령	만 15 ~ 18세	1	0.0	0.0	0.0	100.0	0.0
	만 19 ~ 29세	104	7.5	21.2	34.8	32.4	4.1
	만 30 ~ 39세	202	5.6	27.3	27.1	32.2	7.7
지역	서울	58	0.8	21.8	30.4	32.6	14.5
	인천 / 경기	61	6.2	25.3	20.2	44.1	4.2
	대전/충청/세종/강원	45	17.5	23.4	25.1	32.0	2.0
	광주 / 전라 / 제주	36	7.1	38.5	28.7	16.0	9.6
	부산 / 울산 / 경남	57	8.3	24.4	48.7	16.2	2.4
	대구 / 경북	50	1.2	26.3	28.2	39.6	4.7
학력	대학생 / 대학원생	17	5.7	9.6	25.4	56.4	2.9
	고졸 이하	116	5.0	26.1	25.9	32.1	10.9
	대졸 이상	174	7.1	26.0	32.6	30.6	3.7
주거	동거	99	6.0	18.2	41.4	32.8	1.6
형태	비동거 / 독립	208	6.3	28.4	23.9	32.6	8.8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으며, 정규교육기관 및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는 경우만 응답

74)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4) 금전적인
이유(학원비, 생활비 부족 등)

- 학업, 취업,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서 금전적인 이유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1.4%(전혀 그렇지 않다 4.4% + 그렇지 않다 37.0%)로 ‘그렇다’는 응답(25.0%) 대비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여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4.5%로 높고, 남자는 ‘그렇다’는 응답이 30.7%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됨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강원(33.0%), 대구/경북(31.7%)과 서울(31.1%) 지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대졸이상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74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4) 금전적인 이유(학원비, 생활비 부족 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07	4.4	37.0	33.5	21.6	3.4
	자	56	1.1	27.0	41.3	23.3	7.4
성별	여	251	5.2	39.3	31.7	21.2	2.5
	만 15 ~ 18 세	1	0.0	100.0	0.0	0.0	0.0
연령	만 19 ~ 29 세	104	3.1	34.2	40.4	17.5	4.7
	만 30 ~ 39 세	202	5.1	37.9	30.3	23.9	2.8
	서울	58	4.5	28.8	35.5	27.6	3.5
	인천 / 경기	61	0.0	57.2	21.6	17.4	3.8
지역	대전/충청/세종/강원	45	2.3	27.5	37.2	33.0	0.0
	광주 / 전라 / 제주	36	15.7	30.8	33.6	8.2	11.6
	부산 / 울산 / 경남	57	10.1	37.7	36.1	13.7	2.4
	대구 / 경북	50	2.4	10.5	55.5	29.4	2.3
학력	대 학생 / 대 학원생	17	5.7	11.6	53.7	9.3	19.7
	고 졸 이 하	116	1.9	36.5	33.7	26.8	1.1
주거	대 졸 이 상	174	6.1	40.0	31.2	19.2	3.4
	중	99	3.6	28.4	44.2	18.2	5.6
형태	비 동 거 / 독 립	208	4.8	41.1	28.4	23.2	2.4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으며, 정규교육기관 및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는 경우만 응답

75)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5) 학습이나
훈련, 자격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름

- 학업, 취업,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학습이나 훈련, 자격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이유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3.0%(전혀 그렇지 않다 5.4% + 그렇지 않다 27.6%)로 ‘그렇다’는 응답(23.7%) 대비 높음
- 성별로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그렇지 않다’(34.5%)와 ‘그렇다’(24.4%)는 응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31.3%로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대학생/대학원생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36.4%로 가장 높음

표 II-75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5) 학습이나 훈련, 자격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성별	체	307	5.4	27.6	43.4	21.8	1.9
	자	56	5.6	20.5	53.2	18.5	2.1
성별	여	251	5.3	29.2	41.1	22.5	1.9
연령	만 1 5 ~ 1 8 세	1	0.0	100.0	0.0	0.0	0.0
	만 1 9 ~ 2 9 세	104	7.0	24.5	49.2	16.1	3.2
	만 3 0 ~ 3 9 세	202	4.6	28.5	40.8	24.8	1.3
지역	서 울	58	2.3	17.1	55.2	25.4	0.0
	인 천 / 경 기	61	5.5	33.2	39.2	19.5	2.5
	대전/충청/세종/강원	45	12.1	21.5	35.1	27.9	3.4
	광 주 / 전 라 / 제 주	36	4.5	45.6	21.6	26.0	2.4
	부 산 / 울 산 / 경 남	57	5.8	28.4	46.0	19.0	0.8
	대 구 / 경 북	50	3.9	29.0	48.3	14.2	4.5
학력	대 학생 / 대 학 원 생	17	8.9	13.9	40.8	33.5	2.9
	고 졸 이 하	116	2.7	25.7	43.3	26.8	1.5
	대 졸 이 상	174	6.9	30.3	43.7	17.0	2.1
주거 형태	중 거	99	6.5	26.0	47.8	16.1	3.6
	비 동 거 / 독 립	208	4.8	28.3	41.3	24.5	1.1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으며, 정규교육기관 및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는 경우만 응답

76)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6) 학습이나 일을 하는데 신체적인 어려움이나 장애가 있음

- 학업, 취업,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서 학습이나 일을 하는데 신체적인 어려움이나 장애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6.6%(전혀 그렇지 않다 31.6% + 그렇지 않다 35.0%)로 ‘그렇다’(11.8%) 대비 높음
- 성별로 여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9.2%로 높고, 남자는 ‘그렇다’는 응답이 13.7%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됨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19.8%로 비교적 높고, 인천/경기(76.6%)와 서울(72.8%) 지역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높음
- 학력별로 고졸이하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18.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I-76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6) 학습이나 일을 하는데 신체적인 어려움이나 장애가 있음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체	307	31.6	35.0	21.5	8.6	3.2
	자	56	22.3	32.9	31.2	10.5	3.2
성별	남	251	33.7	35.5	19.3	8.1	3.3
	여						
연령	만 15 ~ 18 세	1	100.0	0.0	0.0	0.0	0.0
	만 19 ~ 29 세	104	32.3	34.7	21.9	8.4	2.8
	만 30 ~ 39 세	202	30.7	35.5	21.5	8.8	3.5
지역	서울	58	27.5	45.3	12.6	6.6	8.0
	인천 / 경기	61	40.6	36.0	9.7	11.7	1.9
	대전/충청/세종/강원	45	21.9	23.2	48.1	6.8	0.0
	광주 / 전라 / 제주	36	30.0	36.1	14.1	15.0	4.8
	부산 / 울산 / 경남	57	40.9	29.6	24.4	5.1	0.0
	대구 / 경북	50	11.0	30.3	46.6	7.6	4.5
	대학생 / 대학원생	17	15.2	37.8	32.4	12.1	2.5
학력	고졸 이하	116	28.7	29.3	23.8	10.3	7.9
	대졸 이상	174	35.4	38.8	18.7	7.0	0.0
주거 형태	공동	99	32.1	37.6	21.2	7.4	1.8
	비동거 / 독립	208	31.4	33.8	21.7	9.2	3.9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으며, 정규교육기관 및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는 경우만 응답

77)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7) 정신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음

- 학업, 취업,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서 정신건강 상태의 문제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2.3%(전혀 그렇지 않다 41.7% + 그렇지 않다 30.6%)로 ‘그렇다’(10.2%) 대비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여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4.1%로 높고, 남자는 ‘그렇다’는 응답이 13.3%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됨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강원(20.3%)과 광주/전라/제주(20.0%) 지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타 지역에 비해 높고, 부산/울산/경남(85.2%)과 인천/경기(79.6%) 지역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77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7) 정신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음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07	41.7	30.6	17.6	9.6	0.6
	남	56	39.4	24.9	22.5	11.7	1.6
성별	여	251	42.2	31.9	16.5	9.1	0.3
연령	만 15 ~ 18 세	1	100.0	0.0	0.0	0.0	0.0
	만 19 ~ 29 세	104	42.9	29.4	19.9	7.0	0.9
	만 30 ~ 39 세	202	40.6	31.4	16.6	10.9	0.4
지역	서 울	58	47.5	23.7	21.4	7.4	0.0
	인 천 / 경 기	61	45.7	33.9	10.3	10.2	0.0
	대전/충청/세종/강원	45	30.9	19.5	29.4	18.0	2.3
	광 주 / 전 라 / 제 주	36	40.9	25.5	13.6	15.8	4.2
	부 산 / 울 산 / 경 남	57	44.7	40.5	14.8	0.0	0.0
	대 구 / 경 북	50	24.0	37.0	24.3	14.7	0.0
	대 학생 / 대 학 원 생	17	34.9	23.9	23.6	15.2	2.5
학력	고 졸 이 하	116	38.5	32.0	18.5	10.9	0.0
	대 졸 이 상	174	44.6	30.3	16.4	8.0	0.8
주거	동 거	99	41.7	31.2	19.2	7.9	0.0
형태	비 동 거 / 독 립	208	41.7	30.3	16.9	10.3	0.8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으며, 정규교육기관 및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는 경우만 응답

78)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8) 사회의 편견이나 차별

- 학업, 취업,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서 사회의 편견이나 차별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4.3%(전혀 그렇지 않다 14.3% + 그렇지 않다 40.0%)로 ‘그렇다’(14.3%) 대비 높게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그렇지 않다’(55.9%)는 응답이 비교적 높음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22.0%로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울산/경남(67.8%)과 광주/전라/제주(65.3%) 지역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대졸이상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2.5%로 비교적 높음

표 II-78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8) 사회의 편견이나 차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07	14.3	40.0	31.4	13.9	0.4
	자	56	7.4	40.2	39.6	11.9	0.9
성별	여	251	15.9	40.0	29.6	14.3	0.2
	자						
연령	만 15 ~ 18 세	1	0.0	100.0	0.0	0.0	0.0
	만 19 ~ 29 세	104	11.7	43.1	31.2	13.5	0.5
	만 30 ~ 39 세	202	15.8	37.9	31.8	14.2	0.3
지역	서 울	58	13.9	30.0	43.8	12.3	0.0
	인 천 / 경 기	61	16.0	42.4	24.6	17.0	0.0
	대전/충청/세종/강원	45	21.5	28.5	33.9	14.7	1.3
	광 주 / 전 라 / 제 주	36	11.1	54.2	21.2	10.8	2.7
	부 산 / 울 산 / 경 남	57	11.2	56.6	25.7	6.5	0.0
	대 구 / 경 북	50	9.6	31.9	36.6	22.0	0.0
	대 학생 / 대 학 원 생	17	5.7	33.1	58.3	2.9	0.0
학력	고 졸 이 하	116	9.3	35.8	36.4	18.1	0.5
	대 졸 이 상	174	18.8	43.7	25.1	12.0	0.3
주거 형태	동 거	99	8.8	44.5	33.0	13.2	0.5
	비 동 거 / 독 립	208	17.0	37.9	30.7	14.2	0.3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으며, 정규교육기관 및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는 경우만 응답

79)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9) 가족이나 친구들이 내가 일하는 것을 원치 않음

- 학업, 취업,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내가 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3.9%(전혀 그렇지 않다 12.6% + 그렇지 않다 31.3%)로 ‘그렇다’(24.6%) 대비 높음
- 성별로 남자의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7.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46.4%로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울산/경남(58.6%)과 서울(50.8%) 지역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대졸이상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9.5%로 비교적 높음

표 II-79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9) 가족이나 친구들이 내가 일하는 것을 원치 않음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남	307	12.6	31.3	31.5	23.0	1.6
	여	251	7.1	33.7	31.4	26.5	1.4
연령	만 15 ~ 18 세	1	100.0	0.0	0.0	0.0	0.0
	만 19 ~ 29 세	104	24.6	32.8	26.5	14.7	1.6
	만 30 ~ 39 세	202	5.9	30.8	34.3	27.4	1.7
지역	서울	58	7.7	43.1	25.4	22.0	1.7
	인천 / 경기	61	10.9	29.4	30.0	29.1	0.7
	대전/충청/세종/강원	45	6.5	24.1	47.3	22.0	0.0
	광주 / 전라 / 제주	36	11.7	26.3	15.6	46.4	0.0
	부산 / 울산 / 경남	57	28.2	30.4	29.5	6.9	5.1
	대구 / 경북	50	10.9	22.6	45.6	19.5	1.4
학력	대학생 / 대학원생	17	27.5	20.3	26.0	26.3	0.0
	고졸 이하	116	7.6	28.0	41.1	22.9	0.5
	대졸 이상	174	14.7	34.8	25.2	22.7	2.6
주거 형태	공동	99	33.0	29.0	26.4	10.1	1.6
	비동거 / 독립	208	3.0	32.4	33.9	29.1	1.6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으며, 정규교육기관 및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는 경우만 응답

80)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10) 내가 사는 지역에 나에게 맞는 직장이 없음

- 학업, 취업,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서 내가 사는 지역에 나에게 맞는 직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8.4%(전혀 그렇지 않다 8.5% + 그렇지 않다 29.9%)로 ‘그렇다’(23.1%) 대비 높음
- 성별로 보면 여자의 ‘그렇지 않다’(39.1%) 비율이 남자(35.6%)보다 높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제주(35.1%)와 대구/경북(30.3%) 지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대학생/대학원생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47.6%, 대졸이상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6.7%로 학력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

표 II-80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10) 내가 사는 지역에 나에게 맞는 직장이 없음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07	8.5	29.9	38.6	22.0	1.1
	자	56	4.3	31.3	42.0	21.0	1.5
성별	여	251	9.5	29.6	37.8	22.2	1.0
	만 15 ~ 18 세	1	0.0	100.0	0.0	0.0	0.0
연령	만 19 ~ 29 세	104	5.8	33.7	33.5	26.3	0.7
	만 30 ~ 39 세	202	10.0	27.4	41.4	19.9	1.3
	서 울	58	7.6	27.7	42.7	22.0	0.0
	인 천 / 경 기	61	5.8	33.7	33.3	27.3	0.0
지역	대전/충청/세종/강원	45	10.3	25.4	45.4	16.9	1.9
	광 주 / 전 라 / 제 주	36	10.8	22.0	32.1	30.0	5.1
	부 산 / 울 산 / 경 남	57	13.2	38.1	37.6	9.5	1.6
	대 구 / 경 북	50	6.8	20.6	42.4	28.1	2.2
학력	대 학생 / 대 학 원 생	17	5.7	14.9	31.8	44.7	2.9
	고 졸 이 하	116	4.7	24.6	45.1	24.6	1.0
주거	대 졸 이 상	174	11.5	35.2	34.6	17.7	0.9
	중	99	5.8	37.0	37.6	18.7	0.9
형태	비 동 거 / 독 립	208	9.8	26.5	39.0	23.5	1.2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으며, 정규교육기관 및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는 경우만 응답

81)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11)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유와 시간적 여유를 잃고 싶지 않음

-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유와 시간적 여유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2.6%(전혀 그렇지 않다 7.0% + 그렇지 않다 35.6%)로 ‘그렇다’(19.3%)보다 높음
- 성별로 남자의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8.2%로 여자(41.3%) 대비 높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42.0%로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대학생/대학원생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25.4%, 대졸이상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7.5%로 학력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

표 II-81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11)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유와 시간적 여유를 잃고 싶지 않음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남	307	7.0	35.6	38.1	18.6	0.7
	여	251	13.3	34.9	33.8	18.1	0.0
성별	남	56	5.5	35.8	39.1	18.7	0.9
	여	251	13.3	34.9	33.8	18.1	0.0
연령	만 15 ~ 18 세	1	0.0	100.0	0.0	0.0	0.0
	만 19 ~ 29 세	104	10.1	35.9	35.4	18.2	0.4
	만 30 ~ 39 세	202	5.5	34.9	39.8	18.9	0.9
지역	서울	58	5.9	27.4	42.6	22.3	1.7
	인천 / 경기	61	3.8	44.9	37.4	13.9	0.0
	대전/충청/세종/강원	45	14.2	22.1	46.6	17.0	0.0
	광주 / 전라 / 제주	36	7.6	27.0	23.4	39.7	2.3
	부산 / 울산 / 경남	57	7.7	48.3	31.7	11.5	0.8
	대구 / 경북	50	8.4	27.9	40.4	23.3	0.0
	대학생 / 대학원생	17	25.4	8.1	41.1	25.4	0.0
학력	고졸 이하	116	5.5	31.5	43.7	17.4	1.8
	대졸 이상	174	6.1	41.4	33.8	18.7	0.0
주거 형태	공동거	99	10.5	41.7	36.0	11.8	0.0
형태	비동거 / 독립	208	5.3	32.7	39.1	21.8	1.1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으며, 정규교육기관 및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는 경우만 응답

82)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12) 나의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 중 보육이나 육아를 맡아줄 수 없음

- 나의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 중 보육이나 육아를 맡아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43.9%(매우 그렇다 19.3% + 그렇다 24.6%)로 ‘그렇지 않다’(16.8%) 대비 높음
- 성별로 남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2.8%로 높고, 여자는 ‘그렇다’는 응답이 52.8%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됨
- 연령별로 만30-38세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56.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강원(55.2%), 인천/경기(54.4%)와 서울(51.4%) 지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82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12) 나의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 중 보육이나 육아를 맡아줄 수 없음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사항 없음
전 성별	체	307	5.4	11.4	16.1	24.6	19.3	23.2
	자	56	18.2	4.6	14.1	5.0	0.8	57.3
성별	자	251	2.5	12.9	16.5	29.2	23.6	15.3
연령	만 1 5 ~ 1 8 세	1	0.0	0.0	0.0	0.0	0.0	100.0
	만 1 9 ~ 2 9 세	104	8.9	5.7	15.6	13.4	6.0	50.4
	만 3 0 ~ 3 9 세	202	3.7	14.3	16.5	30.6	26.3	8.7
지역	서 울	58	3.4	7.6	19.3	26.0	25.4	18.2
	인 천 / 경 기	61	4.9	14.2	8.8	28.6	25.8	17.6
	대전/충청/세종/강원	45	2.5	12.7	24.8	39.2	16.0	4.8
	광 주 / 전 라 / 제 주	36	4.5	7.8	30.4	22.6	11.3	23.5
	부 산 / 울 산 / 경 남	57	12.5	14.1	11.9	9.9	7.4	44.2
	대 구 / 경 북	50	3.4	8.0	16.7	18.7	15.7	37.4
학력	대 학생 / 대 학 원 생	17	19.7	0.0	22.4	33.7	0.0	24.2
	고 졸 이 하	116	1.3	14.6	17.3	26.5	21.0	19.3
	대 졸 이 상	174	6.8	10.3	14.6	22.4	20.1	25.8
주거 형태	동 거	99	11.6	5.9	14.2	4.6	0.8	62.8
	비 동 거 / 독 립	208	2.5	14.0	17.0	34.1	28.1	4.3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없으며, 정규교육기관 및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는 경우만 응답

83)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13) 나의 아
이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이 걱정됨

- 학업, 취업,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서 나의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이 걱정된다는 이유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37.5%(매우
그렇다 8.6% + 그렇다 28.9%)로 ‘그렇지 않다’(18.3%) 대비 높음
- 성별로 남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1.1%로 높고, 여자는 ‘그렇다’는 응
답이 44.0%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됨
- 연령별로 만30-39세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인천/경기(48.5%)와 서울(41.2%) 지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83 니트 관련_3) 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_(13) 나의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이 걱정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사항 없음
전	체	307	4.2	14.1	21.1	28.9	8.6	23.2
	자	56	10.4	10.7	12.5	8.2	0.9	57.3
성별	여	251	2.8	14.8	23.1	33.6	10.4	15.3
연령	만 1 5 ~ 1 8 세	1	0.0	0.0	0.0	0.0	0.0	100.0
	만 1 9 ~ 2 9 세	104	7.4	14.2	9.5	16.6	1.9	50.4
	만 3 0 ~ 3 9 세	202	2.6	14.1	27.2	35.4	12.1	8.7
지역	서 울	58	6.2	16.0	18.3	29.8	11.4	18.2
	인 천 / 경 기	61	3.8	11.3	18.7	40.7	7.8	17.6
	대전/충청/세종/강원	45	0.0	16.6	42.3	28.8	7.4	4.8
	광 주 / 전 라 / 제 주	36	4.5	25.4	8.3	23.5	14.9	23.5
	부 산 / 울 산 / 경 남	57	6.0	16.0	17.3	13.5	3.0	44.2
	대 구 / 경 북	50	2.2	2.9	24.9	21.7	10.9	37.4
	대 학생 / 대 학 원 생	17	19.7	0.0	21.3	34.8	0.0	24.2
학력	고 졸 이 하	116	0.5	11.3	32.8	31.7	4.3	19.3
	대 졸 이 상	174	5.1	17.5	12.8	26.3	12.5	25.8
주거	중 거	99	7.1	13.7	10.1	5.7	0.5	62.8
형태	비 동 거 / 독 립	208	2.8	14.2	26.3	39.9	12.4	4.3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84) 니트 관련_4) 니트 청년의 고민거리

- 현재 일자리가 없고 정규교육기관(학교)과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에도 통학 하지 않은 청년들의 27.9%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장 큰 고민거리로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취업문제’(20.9%), ‘심리, 정신건강 문제’(3.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남자는 ‘취업문제’ 고민거리 응답이 59.5%로 높고, 여자는 ‘특별한 고민거리 없음’ 응답이 49.0%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됨
- 연령별로 만19-29세에서 ‘취업문제’ 고민거리 응답이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취업문제’ 고민거리가 54.8%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충청/세종/강원(39.1%)과 인천/경기(38.2%) 지역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고민거리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 고졸이하에서 ‘특별한 고민거리 없음’(45.7%) 응답, 대학생/대학원생에서 ‘경제적인 어려움’(36.8%)과 ‘취업문제’(26.5%)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현재 부모와 동거중인 청년들은 ‘취업 문제’(54.7%)가 가장 큰 고민거리인 반면 원 가정과 동거중이지 않거나 독립한 청년들은 ‘특별한 고민거리가 없음’(53.7%)이 과반 이상이었고 고민거리가 있는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33.5%)이 가장 큰 고민인 것으로 조사됨

표 II-84 니트 관련_4) 니트 청년의 고민거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심리, 정신 건강 문제	신체 건강 문제	가족 관계의 어려움	결혼 문제	대인 관계의 어려움	학업 이나 진학 문제	취업 문제	경제 적인 어려움	특별한 고민 거리 없음	기타
전		체 307	3.4	1.8	2.7	0.4	1.4	1.0	20.9	27.9	40.1	0.4
성별	남	자 56	8.2	3.9	0.8	0.0	2.9	1.5	59.5	21.9	1.2	0.0
	여	자 251	2.3	1.4	3.1	0.5	1.1	0.9	12.1	29.2	49.0	0.4
연령	만 1 5 ~ 1 8 세	1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만 1 9 ~ 2 9 세	104	7.8	2.5	1.5	0.0	2.1	3.1	45.3	20.4	17.0	0.4
	만 3 0 ~ 3 9 세	202	1.2	1.5	3.3	0.6	1.1	0.0	8.7	31.1	52.2	0.3
지역	서 울	58	1.1	0.6	0.0	0.0	0.9	0.0	21.2	28.2	47.9	0.0
	인 천 / 경 기	61	5.4	0.0	0.4	0.0	0.0	2.6	11.2	38.2	42.2	0.0
	대전/충청/세종/강원	45	6.7	0.0	7.4	0.0	5.1	0.0	12.4	39.1	29.4	0.0
	광 주/전라/제주	36	2.4	4.5	6.5	1.9	2.4	1.2	10.3	10.8	59.9	0.0
	부 산/울 산/경남	57	3.2	1.2	0.0	1.6	1.4	0.0	54.8	16.4	19.3	2.1
	대 구 / 경 북	50	0.0	11.9	12.0	0.0	1.6	1.8	8.2	14.1	50.4	0.0
	대학생/대학원생	17	23.8	2.9	2.5	0.0	3.9	0.0	26.5	36.8	3.6	0.0
학력	고 졸 이 하	116	3.9	3.0	1.4	0.3	3.1	2.6	8.1	31.8	45.7	0.0
	대 졸 이 상	174	0.9	0.9	3.6	0.5	0.0	0.0	29.4	24.1	39.9	0.7
주거 형태	동 거	99	8.1	2.3	0.7	0.8	2.2	3.2	54.7	16.0	11.3	0.7
	비 동 거 / 독 립	208	1.2	1.6	3.6	0.2	1.1	0.0	4.9	33.5	53.7	0.2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85)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

-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에서 ‘사무종사자’가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25.7%) 대비 19.8%p 상승한 결과임
- 다음으로 ‘서비스 종사자’(20.9%), ‘판매 종사자’(18.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남자의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직업이 10.2%로 상대적으로 높고, 여자는 ‘사무 종사자’ 직업이 47.7%로 높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됨
-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사무 종사자’ 직업의 비율이 높아지고, 연령이 낮을수록 ‘서비스 종사자’ 직업의 비율이 높아짐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사무 종사자’ 직업이 59.8%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서비스 종사자’ 직업이 30.4%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학력이 높을수록 ‘사무 종사자’ 직업 비율이 높아지고, 학력이 낮을수록 ‘서비스 종사자’와 ‘판매 종사자’ 직업 비율이 높아짐

표 II-85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 사자	장차·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직업 군인	기타
2016	1,499	2.4	8.2	30.5	27.3	17.4	0.7	8.3	3.4	1.7	0.1	-
2017	1,667	1.8	12.8	25.7	30.5	16.8	0.4	6.2	3.0	2.6	0.2	-
2018	1,990	0.8	3.3	45.5	20.9	18.4	0.8	6.3	2.4	0.9	0.4	0.2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표 II-85-1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직업 군인	기타
전	체	1,990	0.8	3.3	45.5	20.9	18.4	0.8	6.3	2.4	0.9	0.4	0.2
	남	1,065	1.1	2.9	43.9	18.1	16.8	1.1	10.2	4.0	1.2	0.7	0.1
	여	925	0.4	3.9	47.7	24.7	20.6	0.3	1.3	0.2	0.6	0.0	0.3
연령	만 15 ~ 18세	3	0.0	0.0	21.6	46.4	0.0	0.0	0.0	0.0	32.0	0.0	0.0
	만 19 ~ 29세	761	0.8	2.2	37.7	27.4	24.9	0.1	4.1	1.5	0.8	0.6	0.1
	만 30 ~ 39세	1,226	0.8	4.0	50.0	17.2	14.7	1.2	7.6	2.9	1.0	0.3	0.3
지역	서울	373	0.5	2.0	59.8	18.9	14.2	0.0	2.9	0.6	1.0	0.0	0.0
	인천 / 경기	458	0.4	2.0	50.6	19.8	19.1	0.0	4.7	2.4	0.9	0.0	0.0
	대전/충청/세종/강원	276	0.0	4.2	36.1	25.1	16.3	2.9	7.2	4.3	1.6	2.0	0.2
	광주 / 전라 / 제주	283	1.4	8.0	41.8	20.4	20.8	1.2	5.2	0.9	0.0	0.3	0.0
	부산 / 울산 / 경남	298	2.8	4.3	36.3	16.7	21.3	1.5	11.5	3.3	0.6	0.5	1.2
	대구 / 경북	302	0.2	3.5	26.4	30.4	21.3	0.7	12.2	3.7	1.2	0.3	0.0
	대학생/대학원생	112	0.7	1.6	9.1	40.3	43.1	2.0	1.7	0.5	1.0	0.0	0.0
학력	고졸이하	505	0.5	1.0	15.3	27.3	30.9	1.5	15.7	5.3	1.6	0.7	0.3
	대졸이상	1,373	0.9	4.4	60.5	16.7	11.3	0.4	3.1	1.5	0.7	0.3	0.2
주거 형태	동거	987	0.7	3.1	44.4	22.0	21.7	0.7	4.4	1.4	1.3	0.3	0.1
	비동거 / 독립	1,003	0.9	3.6	46.6	20.0	15.3	0.8	8.2	3.3	0.6	0.4	0.3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86)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한 월 평균 소득

-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한 월 평균 소득은 242.3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전년(234.5만원) 대비 7.8만원 상승한 결과임
- 성별로 보면 남자(263.1만원)가 여자(214.7만원)보다 월 평균 소득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월 평균 소득이 높음
-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지역에서 월 평균 소득 258.6만원으로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학력이 높을수록 월 평균 소득이 높아짐

표 II-86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한 월 평균 소득 연도별 추이

(단위: 명, 만원)

연도	사례수	세후 기준 월 평균 소득(만원)
2016	1,499	223.7
2017	1,667	234.5
2018	1,990	242.3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표 II-86-1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한 월 평균 소득

(단위: 명, 만원)

구분		사례수	세후 기준 월 평균 소득(만원)
전	체	1,990	242.3
성별	남 자	1,065	263.1
	여 자	925	214.7
연령	만 1 5 ~ 1 8 세	3	133.1
	만 1 9 ~ 2 9 세	761	193.8
	만 3 0 ~ 3 9 세	1,226	270.3
지역	서 울	373	253.5
	인 천 / 경 기	458	258.6
	대전/충청/세종/강원	276	212.1
	광주/전라/제주	283	239.5
	부 산 / 울 산 / 경남	298	228.4
	대 구 / 경 북	302	226.3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112	108.7
	고 졸 이 하	505	224.2
	대 졸 이 상	1,373	261.5
주거 형태	동 거	987	212.2
	비 동 거 / 독 립	1,003	270.5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87)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서의 지위

-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서의 지위에 대해 ‘임금 근로자’가 92.9%로 ‘비임금 근로자’ 7.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85.2%) 대비 ‘임금 근로자’가 7.7%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여자(93.8%)가 남자(92.1%)보다 ‘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만19-29세에서 ‘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96.3%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96.1%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 대졸이상에서 ‘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94.3%로 높게 나타남

표 II-87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서의 지위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2016	1,499	89.5	10.5
2017	1,667	85.2	14.8
2018	1,990	92.9	7.1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표 II-87-1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서의 지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전	체	1,990	92.9	7.1
	남 자	1,065	92.1	7.9
	여 자	925	93.8	6.2
연령	만 1 5 ~ 1 8 세	3	78.4	21.6
	만 1 9 ~ 2 9 세	761	96.3	3.7
	만 3 0 ~ 3 9 세	1,226	90.9	9.1
지역	서 울	373	96.1	3.9
	인 천 / 경 기	458	94.1	5.9
	대전/충청/세종/강원	276	90.3	9.7
	광주/전라/제주	283	91.2	8.8
	부산/울산/경남	298	90.0	10.0
	대 구 / 경 북	302	90.6	9.4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112	90.5	9.5
	고 졸 이 하	505	89.6	10.4
	대 졸 이 상	1,373	94.3	5.7
주거 형태	동 거	987	95.3	4.7
	비 동 거 / 독 립	1,003	90.6	9.4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88) 근로 형태(임금 근로자)

- 임금 근로자인 청년의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85.5%로 ‘비정규직’(14.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정규직’(73.8%)이 11.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근로시간 유형에서 ‘전일제’가 92.1%로 ‘시간제’ 7.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전일제’(83.2%)의 비율이 8.9%p 상승함
- 성별로 남자의 ‘정규직’ 비율과 ‘전일제’ 근무형태 근무 비율이 여자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정규직’ 비율이 높고, ‘전일제’ 근무형태 근무 비율 또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정규직’ 비율이 91.0%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에서는 ‘시간제’ 근무형태 비율이 13.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학력이 높을수록 ‘정규직’비율이 높고, ‘전일제’ 근무형태 근무 비율 또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II-88 근로 형태(임금근로자)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고용 형태		근로시간 유형	
		정규직	비정규직	전일제	시간제
2016	1,341	75.0	25.0	83.9	16.1
2017	1,432	73.8	26.2	83.2	16.8
2018	1,845	85.5	14.5	92.1	7.9

* 주: 임금근로자인 경우에만 응답

표 II-88-1 근로 형태(임금근로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고용 형태		근로시간 유형	
				정규직	비정규직	전일제	시간제
전 체			1,845	85.5	14.5	92.1	7.9
성별	남 자		978	86.8	13.2	93.4	6.6
	여 자		867	83.8	16.2	90.3	9.7
연령	만 15 ~ 18 세		2	59.1	40.9	59.1	40.9
	만 19 ~ 29 세		733	73.8	26.2	83.8	16.2
	만 30 ~ 39 세		1,110	92.6	7.4	97.2	2.8
지역	서 울		362	86.4	13.6	93.2	6.8
	인 천 / 경 기		433	84.7	15.3	92.8	7.2
	대전/충청/세종/강원		250	82.1	17.9	86.5	13.5
	광주/전라/제주		259	85.5	14.5	93.0	7.0
	부산/울산/경남		268	91.0	9.0	94.2	5.8
	대 구 / 경 북		273	82.6	17.4	90.7	9.3
	대학생/대학원생		100	18.4	81.6	29.7	70.3
학력	고 졸 이 하		452	85.3	14.7	95.9	4.1
	대 졸 이 상		1,293	91.4	8.6	96.2	3.8
주거 형태	동 거		936	79.6	20.4	87.9	12.1
	비 동 거 / 독 립		909	91.3	8.7	96.2	3.8

* 주: 임금근로자인 경우에만 응답

89) 근로 형태(비임금근로자)

- 비임금 근로자인 청년의 근로 형태를 파악한 결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5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59.2%) 대비 1.5%p 하락한 결과임
- 다음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26.0%), ‘무급가족 종사자’(16.3%)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남자(32.3%)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근로 형태 비율이 여자(15.3%)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만19-29세에서 ‘무급가족 종사자’비율이 48.2%로 비교적 높음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70.6%)과 인천/경기(62.7%) 지역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대구/경북(36.2%)과 광주/전라/제주(32.0%) 지역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근로 형태가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고졸이하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69.1%), 대졸이상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34.7%)의 근로 형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89 근로 형태(비임금근로자)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2016	158	28.9	66.3	4.8
2017	235	32.5	59.2	8.3
2018	145	26.0	57.7	16.3

* 주: 비임금근로자인 경우에만 응답

표 II-89-1 근로 형태(비임금근로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	체	145	26.0	57.7	16.3
성별	남 자	87	32.3	57.1	10.6
	여 자	58	15.3	58.7	26.0
연령	만 15 ~ 18 세	1	0.0	0.0	100.0
	만 19 ~ 29 세	28	16.0	35.8	48.2
	만 30 ~ 39 세	116	28.4	63.0	8.6
지역	서 울	11	17.3	40.6	42.0
	인 천 / 경 기	25	26.4	62.7	10.9
	대전/충청/세종/강원	26	22.7	51.7	25.6
	광주/전라/제주	24	32.0	61.8	6.2
	부산/울산/경남	30	23.1	70.6	6.2
	대 구 / 경 북	29	36.2	46.7	17.0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12	10.5	31.1	58.3
	고 졸 이 하	53	17.0	69.1	13.9
	대 졸 이 상	80	34.7	53.7	11.7
주거 형태	동 거	51	22.1	53.3	24.6
	비 동 거 / 독 립	94	27.8	59.8	12.4

* 주: 비임금근로자인 경우에만 응답

90) 일하는 곳

- 현재 일하는 곳에 대해서 86.5%가 ‘민간회사 또는 개인 사업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았고, 이는 전년(82.9%) 대비 3.6%p 상승한 결과임
- 다음으로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기업’(4.6%), ‘외국인 회사’(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응답자 특성 간의 차이가 없음
- 연령별로 만19-29세에서 ‘민간회사 또는 개인 사업체’에 근무한다는 응답이 90.0%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민간회사 또는 개인 사업체’의 응답비율이 93.3%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대학생/대학원생에서 ‘민간회사 또는 개인 사업체’(96.0%)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II-90 일하는 곳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민간회사 또는 개인 사업체	외국인 회사	정부투자 기관/정부 출연기관/ 공기업	(재단, 사단) 법인 단체	정부 기관 (공무원, 군인 등)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기타
2016	1,499	86.1	1.1	2.3	3.4	4.2	2.9	0.1
2017	1,667	82.9	1.6	3.6	3.8	5.2	2.2	0.4
2018	1,990	86.5	3.3	4.6	1.2	3.0	1.4	0.1

* 주 1)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2) 2017년 응답결과에는 모름/무응답이 0.4% 있었음 (본 표에 미제시함)

표 II-90-1 일하는 곳

(단위: 명, %)

구분		사선수	민간회사 또는 개인 사업체	외국인 회사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기업	(재단, 사단) 법인 단체	정부기관 (공무원, 군인 등)	특정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기타
전	체	1,990	86.5	3.3	4.6	1.2	3.0	1.4	0.1
성별	남 자	1,065	86.7	3.6	4.0	1.1	3.4	1.1	0.1
	여 자	925	86.2	2.9	5.3	1.5	2.4	1.7	0.1
연령	만 15 ~ 18 세	3	100.0	0.0	0.0	0.0	0.0	0.0	0.0
	만 19 ~ 29 세	761	90.0	2.6	3.0	0.9	2.1	1.3	0.1
	만 30 ~ 39 세	1,226	84.5	3.8	5.5	1.4	3.5	1.4	0.0
지역	서울	373	85.1	5.1	6.4	0.9	1.6	0.7	0.2
	인천 / 경기	458	87.7	4.9	3.8	0.8	1.3	1.5	0.0
	대전/충청/세종/강원	276	82.5	2.0	2.0	2.4	8.6	2.5	0.0
	광주/전라/제주	283	77.1	3.0	8.5	1.1	7.2	2.9	0.2
	부산/울산/경남	298	93.3	0.3	4.4	0.9	0.7	0.4	0.0
	대구 / 경북	302	90.5	0.6	3.1	2.7	2.5	0.6	0.0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112	96.0	0.0	0.0	0.7	0.3	2.4	0.6
	고졸 이하	505	93.5	1.8	0.5	0.7	1.1	2.4	0.0
	대졸 이상	1,373	82.9	4.2	6.6	1.5	3.9	0.9	0.0
주거 형태	동거	987	88.4	3.4	3.7	1.3	2.0	1.1	0.1
	비동거 / 독립	1,003	84.7	3.3	5.4	1.2	3.8	1.6	0.0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91) 직장(사업체) 종사자 규모

- 직장(사업체) 종사자 규모에서 ‘30-90인’ 규모가 2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12.0%) 대비 14.0%p 상승함
- 다음으로 ‘10-29인’(22.1%), ‘1-4인’(19.7%) 등의 순임
- 성별로 보면 남자(26.8%)가 여자(25.0%)보다 ‘30-90인’ 규모의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에 따른 응답 특성 간에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음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1-4인’(34.4%) 규모와 ‘5-9인’(21.8%) 규모의 직장(사업체)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91 직장(사업체) 종사자 규모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2016	1,393	27.8	15.9	21.7	16.9	10.7	2.8	4.2
2017	1,667	36.4	14.8	17.1	12.0	8.7	2.8	8.1
2018	1,990	19.7	15.4	22.1	26.0	11.7	2.7	2.3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표 II-91-1 직장(사업체) 종사자 규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전 체		1,990	19.7	15.4	22.1	26.0	11.7	2.7	2.3
성별	남 자	1,065	18.6	14.4	21.5	26.8	13.4	2.6	2.6
	여 자	925	21.0	16.8	23.0	25.0	9.5	2.8	1.9
연령	만 15 ~ 18 세	3	78.4	21.6	0.0	0.0	0.0	0.0	0.0
	만 19 ~ 29 세	761	24.2	18.0	23.9	21.3	8.7	1.8	2.0
	만 30 ~ 39 세	1,226	17.0	13.9	21.1	28.8	13.5	3.2	2.4
지역	서 울	373	10.7	11.0	22.1	29.7	19.2	3.5	3.5
	인 천 / 경 기	458	20.4	14.0	21.5	25.9	13.4	2.6	2.0
	대전/충청/세종/강원	276	21.1	15.1	22.0	29.2	10.1	0.8	1.7
	광주/전라/제주	283	17.5	16.6	25.9	25.4	7.9	5.0	1.5
	부산/울산/경남	298	21.6	20.4	26.8	23.0	4.8	1.2	2.2
	대 구 / 경 북	302	34.4	21.8	13.8	19.1	5.7	3.1	2.2
	대학생/대학원생	112	57.9	24.3	8.6	5.5	2.4	0.0	0.7
학력	고 졸 이 하	505	28.7	23.6	23.3	17.7	4.3	1.4	1.0
	대 졸 이 상	1,373	12.7	11.4	22.9	31.1	15.5	3.4	2.9
주거 형태	동 거	987	22.1	16.5	23.4	24.1	10.1	1.7	2.2
	비 동 거 / 독 립	1,003	17.4	14.4	21.0	27.9	13.3	3.6	2.4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92) 현재 일자리 근속년수

- 현재 일자리 근속년수를 조사한 결과, '3년 미만'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전년(54.8%) 대비해서는 19.0%p 하락함
- 반면, '3-5년 미만'(24.2%, 전년 대비 7.3%p 상승), '5-7년 미만'(18.5%, 전년 대비 5.6%p 상승), '7-10년 미만'(12.9%, 전년 대비 4.8%p 상승) 등 '3년 미만'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전년 대비 구성 비율이 상승함
- 같은 흐름으로, 현재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년수는 60.1개월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19.5개월 상승한 결과임
- 성별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 근속년수가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 근속년수가 높음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제주(83.2개월)와 서울(73.3개월) 지역에서 평균 근속년수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92 현재 일자리 근속년수 연도별 추이

(단위: 명, 년, 개월)

연도	사례수	3년 미만	3-5년 미만	5-7년 미만	7-10년 미만	10년 이상	평균 근속년수 (개월)
2016	1,499	47.7	20.6	15.2	8.4	7.9	3.7
2017	1,667	54.8	16.9	12.9	8.1	7.3	40.6
2018	1,988	35.8	24.2	18.5	12.9	8.6	60.1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표 II-92-1 현재 일자리 근속년수

(단위: 명, 년, 개월)

구분		사례수	3년 미만	3-5년 미만	5-7년 미만	7-10년 미만	10년 이상	평균 근속년수 (개월)
전	체	1,988	35.8	24.2	18.5	12.9	8.6	60.1
성별	남 자	1,064	34.6	22.2	19.1	15.0	9.1	62.6
	여 자	924	37.5	26.9	17.8	10.1	7.8	56.8
연령	만 1 5 ~ 1 8 세	3	100.0	0.0	0.0	0.0	0.0	4.5
	만 1 9 ~ 2 9 세	760	69.9	24.2	4.4	1.4	0.0	35.8
	만 3 0 ~ 3 9 세	1,225	16.2	24.2	26.6	19.4	13.5	74.1
지역	서 울	372	36.3	26.0	14.7	13.0	10.0	73.3
	인 천 / 경 기	458	33.6	26.3	18.8	13.0	8.2	54.5
	대전/충청/세종/강원	276	41.9	19.0	20.5	10.7	7.9	51.2
	광주/전라/제주	282	27.1	25.2	19.1	17.0	11.6	83.2
	부산/울산/경남	298	34.2	22.9	23.0	13.5	6.4	54.0
	대 구 / 경 북	302	45.3	21.2	16.2	9.6	7.7	47.1
	대학생/대학원생	111	88.4	7.8	2.7	0.4	0.7	74.6
학력	고 졸 이 하	505	27.6	25.8	26.0	8.4	12.1	61.1
	대 졸 이 상	1,372	34.2	25.1	17.1	15.7	7.9	58.4
주거 형태	동 거	986	53.7	24.8	12.1	5.8	3.6	47.0
	비 동 거 / 독 립	1,002	19.1	23.7	24.5	19.4	13.2	72.4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93)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

-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를 받는지에 대해 ‘받고 있다’는 긍정 응답이 31.7%(충분히 받고 있다 1.7% + 받고 있는 편이다 30.0%)로 ‘받고 있지 못하다’는 부정 응답 17.9%(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0.7% + 받고 있지 못하는 편이다 17.2%)보다 높게 나타남
- 지난 2017년 대비 ‘받고 있다’(36.7%)는 긍정 응답이 5.0%p 하락함
- 지역별로 서울 지역에서 ‘받고 있다’는 긍정 응답이 38.4%로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받고 있지 못하다’(24.2%)는 부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대학생/대학원생에서 ‘받고 있지 못하다’는 부정 응답이 27.2%로 나타나 다른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93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받고 있지 못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받고 있는 편이다	충분히 받고 있다
2016	1,499	1.2	14.4	50.9	28.0	5.5
2017	1,667	2.3	14.3	46.8	30.4	6.3
2018	1,990	0.7	17.2	50.3	30.0	1.7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표 II-93-1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받고 있지 못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받고 있는 편이다	충분히 받고 있다
전 체		1,990	0.7	17.2	50.3	30.0	1.7
성별	남 자	1,065	0.7	16.7	50.5	30.2	2.0
	여 자	925	0.8	18.0	50.2	29.8	1.3
연령	만 1 5 ~ 1 8 세	3	0.0	0.0	32.0	21.6	46.4
	만 1 9 ~ 2 9 세	761	0.9	19.4	52.0	26.0	1.8
	만 3 0 ~ 3 9 세	1,226	0.7	16.0	49.4	32.3	1.5
지역	서 울	373	0.4	16.4	44.9	37.5	0.9
	인 천 / 경 기	458	0.2	16.3	49.3	33.2	1.0
	대전/충청/세종/강원	276	1.4	15.0	55.0	25.8	2.7
	광주/전라/제주	283	1.5	14.4	48.1	33.9	2.2
	부산/울산/경남	298	1.4	22.8	54.3	18.2	3.3
	대 구 / 경 북	302	0.8	20.4	56.0	21.5	1.3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112	2.5	24.7	42.2	29.1	1.5
	고 졸 이 하	505	0.3	19.6	55.0	24.0	1.1
	대 졸 이 상	1,373	0.7	15.7	49.3	32.4	1.9
주거 형태	동 거	987	1.0	18.9	50.7	27.4	2.0
	비 동 거 / 독 립	1,003	0.5	15.7	50.0	32.5	1.3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94) 이직 의향

- 이직 의향에 대해서 이직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75.0%로 이직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25.0%)보다 높게 나타남
- 지난 2017년 대비 이직할 의향이 ‘없다’(69.8%)는 응답이 5.2%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남자(75.5%)가 여자(74.5%)보다 이직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이직할 의향이 ‘없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이직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80.0%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94 이직 의향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있다	없다
2016	1,499	29.4	70.6
2017	1,667	30.2	69.8
2018	1,990	25.0	75.0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표 II-94-1 이직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1,990	25.0	75.0
성별	남 자	1,065	24.5	75.5
	여 자	925	25.5	74.5
연령	만 15 ~ 18 세	3	32.0	68.0
	만 19 ~ 29 세	761	35.1	64.9
	만 30 ~ 39 세	1,226	19.2	80.8
지역	서 울	373	22.9	77.1
	인 천 / 경 기	458	28.2	71.8
	대전/충청/세종/강원	276	24.5	75.5
	광주/전라/제주	283	20.0	80.0
	부산/울산/경남	298	21.3	78.7
	대 구 / 경 북	302	29.6	70.4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112	54.1	45.9
	고 졸 이 하	505	27.3	72.7
	대 졸 이 상	1,373	21.4	78.6
주거 형태	동 거	987	30.1	69.9
	비 동 거 / 독 립	1,003	20.2	79.8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95) 이직 희망 사유

- 이직 희망 사유로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서’라는 이직 사유가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52.1%) 대비 3.7%p 상승한 결과임
- 다음으로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15.0%), ‘더 나은 근무 환경’(1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자(57.6%)가 여자(53.4%)보다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서’라는 이직 사유가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30대에서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58.4%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지역에서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이직하려고 한다는 응답이 63.6%,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더 나은 근무 환경’ 때문에 이직하려고 한다는 이유가 23.7%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95 이직 희망 사유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개인 발전/승진	더 나은 근무 환경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개인 사업을 위해서	건강 상의 이유로	집안 사정 때문에	기타
2016	441	47.6	10.1	17.4	4.4	13.2	1.8	3.7	0.0	0.8	0.0
2017	503	52.1	10.8	16.5	3.0	9.9	0.7	4.0	0.5	2.4	0.0
2018	498	55.8	8.7	14.1	2.7	15.0	1.2	1.1	0.1	0.4	1.0

* 주: 이직 의향이 있는 경우만 응답

표 II-95-1 이직 희망 사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개인 발전/승진	더 나은 근무 환경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기술 또는 가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개인 사업을 위해서	건강 상의 이유로	집안 사정 때문에	기타
전	체	498	55.8	8.7	14.1	2.7	15.0	1.2	1.1	0.1	0.4	1.0
성별	남	자	260	57.6	7.1	11.5	3.7	16.7	1.9	1.1	0.0	0.3
	여	자	238	53.4	10.7	17.4	1.3	12.9	0.4	1.0	0.3	1.9
연령	만 15 ~ 18 세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만 19 ~ 29 세	261	53.1	10.1	12.7	2.3	16.1	1.6	1.8	0.2	0.0	1.9
	만 30 ~ 39 세	236	58.4	7.2	15.5	3.0	14.0	0.8	0.3	0.0	0.7	0.0
지역	서울	96	57.4	8.3	9.8	2.3	19.8	0.0	0.8	0.0	0.0	1.7
	인천 / 경기	131	63.6	8.6	8.9	2.6	12.5	1.7	2.1	0.0	0.0	0.0
	대전/충청/세종/강원	65	39.4	14.8	20.4	1.2	19.1	2.3	0.0	0.0	2.8	0.0
	광주/전라/제주	48	49.2	4.8	16.8	6.9	11.1	1.5	0.0	1.5	0.0	8.3
	부산/울산/경남	67	50.9	11.4	19.7	0.0	15.8	0.9	1.3	0.0	0.0	0.0
	대구 / 경북	91	55.7	2.5	23.7	4.9	12.5	0.8	0.0	0.0	0.0	0.0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63	36.4	15.5	12.1	5.2	21.2	0.0	2.1	0.0	0.0	7.4
	고졸 이하	136	60.8	6.9	15.6	0.3	14.3	0.4	1.7	0.0	0.0	0.0
	대졸 이상	299	57.8	8.0	13.8	3.2	13.9	1.9	0.5	0.2	0.6	0.0
주거 형태	동거	305	54.8	8.8	12.8	3.5	15.6	1.5	1.0	0.2	0.0	1.7
	비동거 / 독립	193	57.1	8.6	15.9	1.5	14.2	0.8	1.1	0.0	0.9	0.0

* 주: 이직 의향이 있는 경우만 응답

96)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경험 여부

-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서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97.6%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자(98.4%)가 남자(96.9%)보다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99.2%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96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하고 있다	참여한 적이 있다	참여한 적이 없다
전	체	2,641	0.9	1.5	97.6
	남	1,315	1.2	1.9	96.9
	여	1,326	0.5	1.1	98.4
연령	만 15 ~ 18 세	12	0.0	0.0	100.0
	만 19 ~ 29 세	1,198	0.9	1.4	97.7
	만 30 ~ 39 세	1,431	0.8	1.6	97.6
지역	서울	475	0.5	2.1	97.4
	인천 / 경기	577	1.0	2.3	96.7
	대전/충청/세종/강원	397	2.3	0.5	97.2
	광주/전라/제주	383	0.4	0.5	99.0
	부산/울산/경남	414	0.4	0.4	99.2
	대구 / 경북	395	0.2	1.8	98.0
	대학생/대학원생	447	0.7	1.1	98.3
학력	고졸 이하	623	0.7	0.9	98.4
	대졸 이상	1,571	1.0	1.9	97.1
주거	동거	1,409	1.0	1.8	97.2
형태	비동거 / 독립	1,232	0.7	1.2	98.1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97) 정부의 청년고용대책 사업 참여 경험 여부

- 정부의 청년고용대책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서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99.7%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 간의 차이 없이 모든 특성에서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97 정부의 청년고용대책 사업 참여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하고 있다	참여한 적이 있다	참여한 적이 없다
전	체	2,641	0.0	0.3	99.7
	남 자	1,315	0.0	0.4	99.6
	여 자	1,326	0.0	0.1	99.9
연령	만 1 5 ~ 1 8 세	12	0.0	0.0	100.0
	만 1 9 ~ 2 9 세	1,198	0.1	0.3	99.6
	만 3 0 ~ 3 9 세	1,431	0.0	0.2	99.8
지역	서 울	475	0.0	0.8	99.2
	인 천 / 경 기	577	0.1	0.1	99.8
	대전/충청/세종/강원	397	0.0	0.3	99.7
	광주/전라/제주	383	0.0	0.0	100.0
	부산/울산/경남	414	0.0	0.2	99.8
	대 구 / 경 북	395	0.0	0.0	100.0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7	0.0	0.2	99.8
	고 졸 이 하	623	0.0	0.2	99.8
	대 졸 이 상	1,571	0.0	0.3	99.6
주거	동 거	1,409	0.0	0.3	99.7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232	0.0	0.3	99.7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98) 지자체 청년지원 사업 참여 경험 여부

- 지자체의 청년지원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서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99.7%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 간의 차이 없이 모든 특성에서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98 지자체 청년지원 사업 참여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하고 있다	참여한 적이 있다	참여한 적이 없다
전	체	2,641	0.1	0.2	99.7
	남	1,315	0.0	0.3	99.7
	여	1,326	0.2	0.1	99.8
연령	만 15 ~ 18 세	12	0.0	0.0	100.0
	만 19 ~ 29 세	1,198	0.1	0.3	99.6
	만 30 ~ 39 세	1,431	0.0	0.1	99.9
지역	서울	475	0.0	0.4	99.6
	인천 / 경기	577	0.2	0.1	99.7
	대전/충청/세종/강원	397	0.1	0.4	99.4
	광주/전라/제주	383	0.0	0.0	100.0
	부산/울산/경남	414	0.0	0.0	100.0
	대구 / 경북	395	0.0	0.0	100.0
	대학생/대학원생	447	0.3	0.0	99.7
학력	고졸 이하	623	0.0	0.0	100.0
	대졸 이상	1,571	0.0	0.3	99.7
주거	동거	1,409	0.1	0.2	99.7
형태	비동거 / 독립	1,232	0.0	0.1	99.8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99) 이전 취업 경험 여부

- 이전에 취업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취업한 적이 있다(44.7%)는 응답보다 취업한 적이 없다(55.3%)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자(59.9%)가 여자(50.3%)보다 취업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취업 경험 비율 역시 낮게 나타남
- 지역별로 대구/경북(54.4%)과 인천/경기(49.6%) 지역에서의 취업 경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 고졸이하에서 취업 경험 비율이 68.3%로 높게 나타남

표 II-99 이전 취업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641	44.7	55.3
	성별	남 자	1,315	40.1	59.9
		여 자	1,326	49.7	50.3
연령	만 15 ~ 18 세		12	19.6	80.4
	만 19 ~ 29 세		1,198	27.0	73.0
	만 30 ~ 39 세		1,431	59.4	40.6
지역	서울		475	40.9	59.1
	인천 / 경기		577	49.6	50.4
	대전/충청/세종/강원		397	40.7	59.3
	광주/전라/제주		383	35.2	64.8
	부산/울산/경남		414	43.7	56.3
	대구 / 경북		395	54.4	45.6
	대학생/대학원생		447	11.9	88.1
학력	고 졸 이 하		623	68.3	31.7
	대 졸 이 상		1,571	45.6	54.4
주거	동 거		1,409	32.8	67.2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232	58.2	41.8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100) 취업 후 퇴사 및 해고 경험 여부

- 취업 후 퇴사 및 해고 경험 여부에 대해서 ‘스스로 그만둔 적이 있다’는 응답이 83.8%로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 3.7%보다 높게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자(84.8%)가 여자(82.8%)보다 ‘스스로 그만둔 적이 있다’는 응답이 높음
- 연령별로 만30-39세(84.5%)가 만19-29세(81.7%)보다 ‘스스로 그만둔 적이 있다’는 응답이 높음
-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스스로 그만둔 적이 있다’는 응답이 92.8%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00 취업 후 퇴사 및 해고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스스로 그만 둔 적이 있다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	둘 다 경험한 적이 있다	둘 다 경험한 적이 없다
전	체		1,187	83.8	3.7	4.0	8.5
	남	자	530	84.8	3.0	4.5	7.7
	여	자	657	82.8	4.3	3.5	9.3
연령	만 1 5 ~ 1 8 세		1	100.0	0.0	0.0	0.0
	만 1 9 ~ 2 9 세		343	81.7	3.3	4.2	10.8
	만 3 0 ~ 3 9 세		843	84.5	3.8	3.9	7.7
지역	서 울		203	86.5	3.7	2.4	7.4
	인 천 / 경 기		282	78.7	5.4	5.3	10.5
	대전/충청/세종/강원		156	87.7	1.9	1.2	9.2
	광 주 / 전 라 / 제 주		141	71.2	1.8	13.2	13.8
	부 산 / 울 산 / 경 남		186	92.8	1.5	2.5	3.2
	대 구 / 경 북		219	88.0	4.5	1.0	6.5
	대학생/대학원생		48	79.7	1.4	7.7	11.3
학력	고 졸 이 하		413	84.7	5.1	6.1	4.1
	대 졸 이 상		726	83.6	3.0	2.3	11.1
주거	동 거		479	83.5	4.5	3.8	8.2
형태	비 동 거 / 독 립		708	83.9	3.2	4.1	8.7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이전에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101) 실업급여 인지 여부

- 실업급여 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업급여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이 87.9%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응답(12.1%)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실업급여에 대한 인지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인천/경기 지역에서 실업급여의 인지 비율이 91.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대학생/대학원생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비인지 비율이 36.4%로 다른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01 실업급여 인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1,093	87.9	12.1
	성별	남 자	492	88.0	12.0
		여 자	601	87.8	12.2
연령	만 15 ~ 18 세		1	100.0	0.0
	만 19 ~ 29 세		309	82.7	17.3
	만 30 ~ 39 세		783	89.8	10.2
지역	서울		189	90.4	9.6
	인천 / 경기		252	91.3	8.7
	대전/충청/세종/강원		144	84.3	15.7
	광주/전라/제주		125	89.3	10.7
	부산/울산/경남		180	82.4	17.6
	대구 / 경북		203	83.9	16.1
	대학생/대학원생		44	63.6	36.4
학력	고졸 이하		401	88.2	11.8
	대졸 이상		648	89.8	10.2
주거	동거		441	85.6	14.4
형태	비동거 / 독립		652	89.4	10.6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이전에 취업 경험이 있으며 퇴사 및 해고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102) 실업급여 수급 여부

-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는 응답이 52.7%로 수급한 적이 있는 응답(47.3%)보다 높게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자(53.1%)가 남자(40.9%)보다 실업급여를 수급 받은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높을수록 실업급여 수급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실업급여 수급 비율이 61.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대학생/대학원생에서 실업급여를 수급 받지 않은 비율이 78.6%로 다른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02 실업급여 수급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1,093	47.3	52.7
	자	492	40.9	59.1
성별	여	601	53.1	46.9
연령	만 15 ~ 18 세	1	0.0	100.0
	만 19 ~ 29 세	309	31.9	68.1
	만 30 ~ 39 세	783	53.0	47.0
지역	서울	189	50.2	49.8
	인천 / 경기	252	48.4	51.6
	대전/충청/세종/강원	144	49.8	50.2
	광주/전라/제주	125	61.7	38.3
	부산/울산/경남	180	47.4	52.6
	대구 / 경북	203	26.9	73.1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	21.4	78.6
	고졸 이하	401	49.1	50.9
	대졸 이상	648	48.3	51.7
주거	동거	441	41.4	58.6
형태	비동거 / 독립	652	51.1	48.9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이전에 취업 경험이 있으며 퇴사 및 해고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103) 실업급여 미수급 이유

-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라는 응답이 71.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신청 도중에 취업이 되어서’(13.6%),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신청 도중에 취업이 되어서’(19.8%), 여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76.6%)라는 응답이 각각 높음
- 연령별로 만19-29세에서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78.1%) 비율이 비교적 높음
-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17.0%), 대구/경북 지역에서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84.2%)라는 응답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03 실업급여 미수급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잘못 작성해서 요구사항이 많 아서	급여 혜택이 크지 않아서	신청 도중에 취업이 되어서
전	체	594	7.0	71.9	4.6	2.9	13.6
성별	남	302	6.1	67.7	4.2	2.2	19.8
	여	292	8.1	76.6	5.0	3.7	6.7
연령	만 15 ~ 18 세	1	0.0	100.0	0.0	0.0	0.0
	만 19 ~ 29 세	207	6.4	78.1	2.3	4.1	9.1
	만 30 ~ 39 세	386	7.4	68.4	5.8	2.2	16.1
	40 세 이상	103	3.3	70.8	4.8	5.2	16.0
지역	인 천 / 경 기	125	2.4	78.7	2.0	1.5	15.3
	대전/충청/세종/강원	74	11.9	53.4	5.4	1.2	27.9
	광 주 / 전 라 / 제 주	47	13.3	63.4	8.2	3.9	11.2
	부 산 / 울 산 / 경 남	98	17.0	62.9	7.8	2.0	10.3
	대 구 / 경 북	147	5.6	84.2	4.9	4.8	0.5
학력	대 학생 / 대 학 원 생	34	9.4	87.1	0.0	0.0	3.5
	고 졸 이 하	218	8.1	72.1	5.1	3.4	11.3
주거 형태	대 졸 이 상	342	6.0	69.8	4.8	2.9	16.5
	동 거	265	4.9	78.1	3.2	3.7	10.1
형태	비 동 거 / 독 립	329	8.6	67.1	5.7	2.2	16.4

* 주: 중·고등학생이 아닌 응답자 중, 이전에 취업 경험이 있으며 퇴사 및 해고 경험이 있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만 응답

104)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

-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에 대한 응답 결과 ‘향후 10-20년 이내’가 32.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향후 20년 이후’(25.2%), ‘향후 7-10년 이내’(1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향후 10-20년 이내’(2017년 27.3% 대비 5.3%p 상승), ‘향후 20년 이후’(2017년 14.9% 대비 10.3%p 상승) 응답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함
- 성별에 따라서는 응답 경향 상 큰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음
- 연령별로 30대의 ‘이미 소유하고 있다’ 응답이 16.7%로 타 연령대 대비 높고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어릴수록 ‘향후 20년 이후’,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의 ‘이미 소유하고 있다’ 비율이 각각 12.4%, 13.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과 인천/경기 지역의 ‘향후 20년 이후’ 응답이 각각 31.4%, 28.9%로 높게 나타남

표 II-104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이미 소유 하고 있다	향후 1년 이내	향후 1년 이상 -3년 미만	향후 3년 이상 -5년 미만	향후 5년 이상 -7년 미만	향후 7년 이상 -10년 미만	향후 10년 이상 -20년 미만	향후 20년 이후	마련 할 수 없을 것 같다
2016	2,534	13.6	0.4	0.9	5.4	8.2	12.5	34.8	17.8	6.3
2017	2,714	17.2	0.7	3.8	5.6	9.4	14.5	27.3	14.9	6.6
2018	3,133	8.4	0.1	0.7	4.4	5.8	12.5	32.6	25.2	10.3

표 II-104-1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이미 소유 하고 있다	향후 1년 이내	향후 1년 이상 -3년 미만	향후 3년 이상 -5년 미만	향후 5년 이상 -7년 미만	향후 7년 이상 -10 년 미만	향후 10년 이상 -20 년 미만	향후 20년 이후	마련 할 수 없을 것 같 다	
전			체	3,133	8.4	0.1	0.7	4.4	5.8	12.5	32.6	25.2	10.3
성별	남	자	1,613	7.3	0.1	0.9	4.8	5.9	13.5	32.2	24.8	10.6	
	여	자	1,520	9.5	0.2	0.5	3.9	5.7	11.4	33.1	25.7	9.9	
연령	만 1 5 ~ 1 8 세		503	0.3	0.1	0.6	0.0	2.4	4.7	31.4	47.0	13.4	
	만 1 9 ~ 2 9 세		1,199	1.1	0.1	0.2	2.2	3.6	9.3	37.3	33.5	12.6	
	만 3 0 ~ 3 9 세		1,431	16.7	0.2	1.1	7.5	8.7	17.5	29.1	11.8	7.4	
지역	서울		560	6.3	0.0	0.2	6.9	5.1	14.3	37.9	20.7	8.7	
	인 천 / 경 기		685	7.0	0.1	0.4	4.4	4.7	9.2	33.0	28.9	12.2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7.9	0.4	1.2	2.3	8.4	14.0	31.0	31.4	3.4	
	광주/전라/제주		449	12.4	0.0	1.4	3.0	5.9	19.2	31.0	23.0	4.0	
	부산/울산/경남		495	8.3	0.4	0.7	2.8	4.3	8.7	31.5	25.3	17.9	
	대 구 / 경 북		467	13.4	0.0	1.2	5.9	9.8	16.4	25.6	15.7	12.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0.4	0.1	0.6	0.0	2.4	4.8	31.6	46.7	13.4	
	대학생/대학원생		447	0.4	0.0	0.0	1.0	2.1	8.3	38.6	36.0	13.6	
	고 졸 이 하		623	11.5	0.0	0.7	3.0	7.0	15.2	29.5	22.6	10.5	
	대 졸 이 상		1,571	11.9	0.2	0.9	7.3	7.5	14.9	32.2	16.7	8.2	
주거 형태	동 거		1,898	0.5	0.0	0.3	2.1	3.2	8.9	36.4	35.1	13.4	
	비 동 거 / 독 립		1,235	19.9	0.3	1.2	7.7	9.7	17.8	27.0	10.7	5.6	

105) 집에 대한 생각_1)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 집에 대한 생각 중 내 명의의 집은 꼭 있어야 한다는 응답에 대해 청년들의 61.5%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 14.9%(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대비 높게 나타남
- 내 명의의 집은 꼭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61.5%는 2017년(63.9%) 대비 2.4%p 하락한 결과임
- 성별에 따라서는 응답 경향 상 큰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음
- 연령별로 만30-39세의 긍정 응답 비율이 70.0%(57.5%+12.5%)로 타 연령층 대비 매우 높고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집의 자가 소유 필요성을 보다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서울(73.9%)과 광주/전라/제주(66.1%)의 긍정 응답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음
- 학력별로 고졸이하(67.9%), 대졸이상(65.3%)의 긍정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05 집에 대한 생각_1)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1.0	12.1	25.2	48.5	13.3
2017	2,714	2.3	14.8	19.0	47.7	16.2
2018	3,133	1.1	13.8	23.6	51.0	10.5

표 II-105-1 집에 대한 생각_1)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133	1.1	13.8	23.6	51.0	10.5
성별	남 자	1,613	1.3	14.7	23.5	50.6	9.9
	여 자	1,520	0.9	12.8	23.7	51.4	11.2
연령	만 1 5 ~ 1 8 세	503	0.3	16.7	30.5	46.7	5.8
	만 1 9 ~ 2 9 세	1,199	1.7	16.8	27.1	44.6	9.9
	만 3 0 ~ 3 9 세	1,431	0.8	10.5	18.6	57.5	12.5
지역	서 울	560	0.2	4.9	21.0	61.4	12.5
	인 천 / 경 기	685	1.3	17.4	23.2	47.9	10.2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1.4	11.7	27.4	53.5	6.1
	광주/전라/제주	449	0.0	17.0	16.9	51.2	14.9
	부산/울산/경남	495	2.4	17.4	28.0	42.3	9.8
	대 구 / 경 북	467	0.9	15.4	25.7	47.9	10.0
	충 · 고 등 학 생	492	0.4	16.6	30.7	46.7	5.6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7	3.0	19.2	28.3	41.5	8.1
	고 졸 이 하	623	0.5	11.6	19.9	56.2	11.7
	대 졸 이 상	1,571	0.9	12.2	21.6	53.1	12.2
주거 형태	동 거	1,898	1.5	17.3	27.0	44.4	9.9
	비 동 거 / 독 립	1,235	0.5	8.7	18.7	60.7	11.4

106) 집에 대한 생각_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 집에 대한 생각 중 지금의 집 값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에 대해 청년들의 65.0%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그렇다는 응답 13.7%(그렇다+매우 그렇다) 대비 높게 나타남
- 지금의 집 값 수준이 적정하다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 65.0%는 전년(49.4%) 대비 4.4%p 하락한 결과임
- 성별에 따라서는 응답 경향 상 큰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음
- 연령별로 만19-29세(66.8%), 만30-39세(64.8%)의 부정 응답 비율이 만 15-18세 대비 높음
- 지역별로 인천/경기(73.0%)의 부정 응답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대학생/대학원생(69.5%)의 부정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06 집에 대한 생각_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27.4	42.0	21.6	8.0	1.0
2017	2,714	29.1	40.3	22.0	8.0	0.7
2018	3,133	27.2	37.8	21.2	12.1	1.6

표 II-106-1 집에 대한 생각_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133	27.2	37.8	21.2	12.1	1.6
성별	남 자		1,613	27.2	38.9	21.7	10.7	1.4
	여 자		1,520	27.3	36.6	20.6	13.7	1.8
연령	만 1 5 ~ 1 8 세		503	21.8	39.6	24.7	12.1	1.8
	만 1 9 ~ 2 9 세		1,199	28.5	38.3	19.7	11.9	1.5
	만 3 0 ~ 3 9 세		1,431	27.8	37.0	21.4	12.3	1.6
지역	서 울		560	28.1	33.8	22.0	15.4	0.8
	인 천 / 경 기		685	34.5	38.5	15.8	10.1	1.0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17.9	43.2	28.0	9.8	1.0
	광주/전라/제주		449	18.3	36.2	21.6	17.6	6.3
	부산/울산/경남		495	27.1	35.8	24.2	11.2	1.7
	대 구 / 경 북		467	24.4	41.7	22.5	10.5	0.8
	중 · 고 등 학 생		492	21.3	39.9	24.9	12.1	1.8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7	30.6	38.9	19.8	9.8	1.0
	고 졸 이 하		623	25.9	36.0	24.5	13.1	0.6
	대 졸 이 상		1,571	28.4	37.7	19.2	12.5	2.2
	주거 형태							
동 거		1,898	26.7	38.4	21.0	12.3	1.6	
비 동 거 / 독 립		1,235	28.1	37.0	21.4	11.9	1.6	

107) 집에 대한 생각_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집에 대한 생각 중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응답에 대해 청년들의 47.1%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 17.0%(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대비 높게 나타남
-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47.1%는 전년(32.9%) 대비 14.2%p 상승한 결과임
- 성별로 여자의 그렇다는 긍정 응답 비율이 48.9%로 남자(45.4%) 대비 높음
- 연령별로 만15-18세(52.4%)의 긍정 응답 비율이 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 서울(54.9%)과 인천/경기(57.5%) 등 수도권의 긍정 응답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중·고등학생(52.5%)의 긍정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07 집에 대한 생각_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5.6	22.8	39.9	27.8	3.9
2017	2,714	7.0	25.6	34.5	25.1	7.8
2018	3,133	2.6	14.4	36.0	37.6	9.5

표 II-107-1 집에 대한 생각_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체		3,133	2.6	14.4	36.0	37.6	9.5
성별	남	자	1,613	2.5	14.1	38.1	36.2	9.2
	여	자	1,520	2.8	14.7	33.7	39.1	9.8
연령	만 15 ~ 18 세		503	1.7	12.7	33.3	42.0	10.4
	만 19 ~ 29 세		1,199	3.4	13.8	34.9	38.1	9.8
	만 30 ~ 39 세		1,431	2.3	15.3	37.8	35.8	8.9
지역	서울		560	1.0	9.4	34.8	40.6	14.3
	인천 / 경기		685	1.0	10.1	31.4	45.7	11.8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3.3	20.8	45.4	27.2	3.3
	광주/전라/제주		449	3.6	13.0	40.1	38.3	5.0
	부산/울산/경남		495	8.0	27.3	32.7	25.9	6.1
	대구 / 경북		467	1.0	11.2	41.4	36.1	10.4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1.7	12.4	33.4	42.1	10.4
	대학생/대학원생		447	4.2	13.3	38.9	36.8	6.9
	고 졸 이 하		623	1.7	16.8	31.5	38.0	12.0
	대 졸 이 상		1,571	2.7	14.2	37.7	36.4	9.0
주거 형태	동거		1,898	2.9	14.4	34.3	38.0	10.5
	비 동 거 / 독 립		1,235	2.2	14.4	38.6	36.8	8.0

108) 공동주거 경험 여부 및 향후 거주 의향

- 공동주거 경험 비율은 2.5%, 향후 공동주거 의향 비율은 2.8%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전년(경험비율 7.1%, 의향비율 8.0%) 대비 하락한 결과이고, 최근 3년의 경향으로 보아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성별에 따라서는 공동주거 경험비율, 향후 의향비율 모두에서 큰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음
- 연령별로 공동주거 경험비율은 만19-29세(3.4%)에서, 향후 의향 비율은 만 15-18세(6.2%)에서 타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공동주거 경험비율은 대구/경북(3.4%), 서울(3.0%) 지역에서, 향후 의향 비율은 인천/경기(4.6%), 대전/충청/세종/강원(3.2%)과 부산/울산/경남(3.2%) 지역에서 비교적 높음
- 학력별로 공동주거 경험비율은 고졸이하(3.3%)에서, 향후 의향 비율은 중·고등 학생(6.3%), 대학생/대학원생(6.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08 공동주거 경험 여부 및 향후 거주 의향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공동주거 경험 여부		향후 공동주거 거주 의향	
		예	아니오	예	아니오
2016	2,534	9.1	90.9	7.6	92.4
2017	2,714	7.1	92.9	8.0	92.0
2018	3,133	2.5	97.5	2.8	97.2

표 II-108-1 공동주거 경험 여부 및 향후 거주 의향

(단위: 명, %)

구분			공동주거 경험 여부		향후 공동주거 거주 의향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	체	3,133	2.5	97.5	2.8	97.2
성별	남	자 1,613	2.8	97.2	2.9	97.1
	여	자 1,520	2.1	97.9	2.7	97.3
연령	만 15 ~ 18 세	503	1.1	98.9	6.2	93.8
	만 19 ~ 29 세	1,199	3.4	96.6	4.2	95.8
	만 30 ~ 39 세	1,431	2.1	97.9	0.7	99.3
지역	서울	560	3.0	97.0	1.9	98.1
	인천 / 경기	685	2.8	97.2	4.6	95.4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2.0	98.0	3.2	96.8
	광주/전라/제주	449	1.3	98.7	0.4	99.6
	부산/울산/경남	495	1.7	98.3	3.2	96.8
	대구 / 경북	467	3.4	96.6	0.6	99.4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1.1	98.9	6.3	93.7
	대학생/대학원생	447	1.5	98.5	6.1	93.9
	고 졸 이 하	623	3.3	96.7	1.0	99.0
	대 졸 이 상	1,571	2.8	97.2	1.5	98.5
주거 형태	동	거 1,898	2.0	98.0	4.1	95.9
	비 동 거 / 독 립	1,235	3.2	96.8	0.9	99.1

109) 부모 동거 여부

- 부모 동거 여부 조사 결과 ‘현재 같이 살고 있다’는 동거 비율은 59.5%이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는 일시 별거 비율이 2.1%, 마지막으로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라는 독립 비율이 38.4%로 조사됨
- 2017년 대비 동거 비율이 51.0%에서 59.5%로 8.5%p 상승한 반면 독립 비율은 44.6%에서 38.4%로 6.2%p 하락함
- 성별로 남자의 동거 비율이 61.4%로 여자(57.5%) 대비 높은 반면 독립 비율은 여자(40.6%)가 남자(36.4%) 대비 높은 것이 특징임
- 연령별로 만15-18세의 대부분(99.1%)은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독립 비율도 비례하여 상승하고 있음
-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동거 비율(69.7%)이 비교적 높고 독립 비율은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43.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중·고등학생(99.1%)과 대학생/대학원생(91.4%)의 대부분은 부모와 동거하고 있음

표 II-109 부모 동거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현재 같이 살고 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이다
2017	2,714	51.0	4.4	44.6
2018	3,133	59.5	2.1	38.4

표 II-109-1 부모 동거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현재 같이 살고 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이다
전	체	3,133	59.5	2.1	38.4
성별	남 자	1,613	61.4	2.2	36.4
	여 자	1,520	57.5	2.0	40.6
연령	만 15 ~ 18 세	503	99.1	0.9	0.0
	만 19 ~ 29 세	1,199	84.0	3.2	12.8
	만 30 ~ 39 세	1,431	27.4	1.5	71.1
지역	서울	560	61.2	2.6	36.3
	인천 / 경기	685	57.2	1.0	41.8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50.7	6.2	43.1
	광주/전라/제주	449	60.0	2.2	37.7
	부산/울산/경남	495	69.7	0.2	30.1
	대구 / 경북	467	60.2	1.6	38.1
	중 · 고 등 학 생	492	99.1	0.9	0.0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7	91.4	5.3	3.4
	고 졸 이 하	623	41.0	1.8	57.1
	대 졸 이 상	1,571	45.6	1.5	52.9
	대 졸 이 상	1,571	45.6	1.5	52.9
주거 형태	동 거	1,898	100.0	0.0	0.0
	비 동 거 / 독 립	1,235	0.0	5.2	94.8

110) 향후 부모님과과의 분가시기에 대한 생각

- 향후 부모님과과의 분가시기에 대해 청년들의 59.0%가 ‘결혼 전까지 동거’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취업 전까지 동거’(30.0%), ‘대학교 진학 전까지 동거’(9.2%)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지난 2017년 대비 ‘결혼 전까지 동거’ 응답 비율이 18.9%p로 큰 폭의 상승을 보인 반면 ‘대학교 진학 전까지 동거’(2017년 대비 7.6%p), ‘취업 전까지 동거’(2017년 대비 8.1%p) 응답은 하락함
- 성별로 남자는 ‘취업 전까지 동거’하겠다는 응답이 31.6%로 여자(28.2%) 대비 높은 반면 여자는 ‘결혼 전까지 동거’하겠다는 응답(60.9%)이 남자(57.5%) 대비 높은 것이 특징임
- 인천/경기(79.3%), 대전/충청/세종/강원(65.2%) 거주자의 ‘결혼 전까지 동거’ 응답 비율이 타 지역 대비 높고 부산/울산/경남(44.1%), 대구/경북(41.0%) 지역은 ‘취업 전까지 동거’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10 향후 부모님과과의 분가시기에 대한 생각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대학교 진학 전까지 동거	취업 전까지 동거	결혼 전까지 동거	결혼 후에도 동거	출산 후에도 동거	내 집 마련 전까지 동거	기타
2016	1,525	3.3	17.6	69.7	2.7	1.1	3.9	1.4
2017	390	16.8	38.1	40.1	0.8	0.0	2.2	2.0
2018	489	9.2	30.0	59.0	1.3	-	0.2	0.3

* 주 1) 중·고등학생 중 부모님과 동거중인 경우에만 응답

2) 2016년 응답결과에는 ‘모름/무응답’이 0.3% 있었음 (본 표에 미제시함)

표 II-110-1 향후 부모님과과의 분가시기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대학교 진학 전까지 동거	취업 전까지 동거	결혼 전까지 동거	결혼 후에도 동거	출산 후에도 동거	내 집 마련 전까지 동거	기타
전		체 489	9.2	30.0	59.0	1.3	0.0	0.2	0.3
성별	남	자 297	9.4	31.6	57.5	0.7	0.0	0.3	0.5
	여	자 192	8.9	28.2	60.9	2.1	0.0	0.0	0.0
연령	만 15 ~ 18 세	488	9.0	30.1	59.1	1.3	0.0	0.2	0.3
지역	서울	1	100.0	0.0	0.0	0.0	0.0	0.0	0.0
	인천 / 경기	85	2.7	18.0	79.3	0.0	0.0	0.0	0.0
	대전/충청/세종/강원	107	5.2	24.5	65.2	4.2	0.0	0.0	0.9
	광주/전라/제주	80	19.6	30.8	49.7	0.0	0.0	0.0	0.0
	부산/울산/경남	64	17.6	44.1	36.7	0.0	0.0	1.6	0.0
	대구 / 경북	81	11.4	41.0	47.5	0.0	0.0	0.0	0.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72	7.4	36.0	56.6	0.0	0.0	0.0	0.0
주거 형태	동 거	489	9.2	30.0	59.0	1.3	0.0	0.2	0.3

* 주: 중·고등학생 중 부모님과 동거중인 경우에만 응답

111) 미혼 독립 거주 여부

- 미혼 독립 거주 여부에 대해 15.7%가 ‘예’라고 응답한 반면,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은 84.3%로 조사됨
- 지난 2017년 대비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9.6%p 하락함
- 성별로 남자(20.2%)가 여자(11.2%)보다 미혼 독립 거주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강원(23.3%) 거주자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11 미혼 독립 거주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6	1,007	14.9	85.1
2017	1,285	25.3	74.7
2018	1,232	15.7	84.3

* 주: 부모님과 비동거/독립인 경우에만 응답(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표 II-111-1 미혼 독립 거주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1,232	15.7	84.3
성별	남 자	589	20.2	79.8
	여 자	643	11.2	88.8
연령	만 1 9 ~ 2 9 세	210	43.7	56.3
	만 3 0 ~ 3 9 세	1,022	10.6	89.4
지역	서 울	227	11.1	88.9
	인 천 / 경 기	277	13.3	86.7
	대전/충청/세종/강원	219	23.3	76.7
	광주/전라/제주	180	17.6	82.4
	부산/울산/경남	149	18.1	81.9
	대 구 / 경 북	180	15.6	84.4
	대학생/대학원생	43	52.0	48.0
학력	고 졸 이 하	354	20.0	80.0
	대 졸 이 상	835	11.9	88.1
주거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232	15.7	84.3

* 주: 부모님과 비동거/독립인 경우에만 응답(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112) 1인 가구 주거 형태

- 1인 가구 주거 형태에 대해서 ‘다세대/빌라’가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22.2%) 대비 10.3%p 상승함
- 다음으로 ‘아파트’(26.9%), ‘원룸(다가구)’(1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남자(34.8%)가 여자(28.3%)보다 ‘다세대/빌라’의 주거 형태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만19-29세에서 ‘다세대/빌라’의 주거 형태가 41.1%, 만30-39세에서는 ‘아파트’(30.6%)의 주거 형태가 타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인천/경기(44.7%) 거주자의 ‘아파트’ 응답 비율이 타 지역 대비 높고, 대전/충청/세종/강원(49.0%) 지역은 ‘다세대/빌라’ 주거 형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112 1인 가구 주거 형태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다세대/ 빌라	원룸 (다가구)	오피스텔	하숙	기숙사	고시원	아파트	기타
2016	150	23.7	35.2	4.7	0.6	0.0	0.0	33.6	2.2
2017	330	22.2	37.1	6.5	0.2	2.8	0.0	27.7	3.5
2018	212	32.5	19.4	12.4	0.2	0.4	0.0	26.9	8.3

* 주: 미혼 1인 가구인 경우에만 응답

표 II-112-1 1인 가구 주거 형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다세대/ 빌라	원룸 (다가구)	오피스텔	하숙	기숙사	고시원	아파트	기타
전	체	212	32.5	19.4	12.4	0.2	0.4	0.0	26.9	8.3
성별	남 자	131	34.8	19.1	9.2	0.3	0.6	0.0	29.1	7.1
	여 자	81	28.3	19.9	18.2	0.0	0.0	0.0	23.0	10.6
연령	만 19 ~ 29 세	90	41.1	18.9	10.0	0.4	0.9	0.0	22.1	6.6
	만 30 ~ 39 세	122	26.0	19.7	14.1	0.0	0.0	0.0	30.6	9.6
지역	서울	33	22.3	5.9	58.7	0.0	0.0	0.0	13.1	0.0
	인천 / 경기	39	34.8	9.9	0.0	0.0	0.0	0.0	44.7	10.6
	대전/충청/세종/강원	50	49.0	26.0	2.4	0.0	0.0	0.0	21.3	1.4
	광주/전라/제주	36	15.6	30.0	0.0	1.6	0.0	0.0	28.2	24.6
	부산/울산/경남	25	11.7	29.5	28.4	0.0	0.0	0.0	16.8	13.6
	대구 / 경북	29	45.9	24.4	0.0	0.0	4.2	0.0	20.4	5.1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25	47.0	12.7	10.7	0.0	0.0	0.0	19.2	10.4
	고졸 이하	75	31.1	21.0	6.9	0.0	1.0	0.0	31.7	8.2
	대졸 이상	112	30.2	19.6	16.9	0.4	0.0	0.0	25.1	7.9
주거 형태	비동거 / 독립	212	32.5	19.4	12.4	0.2	0.4	0.0	26.9	8.3

* 주: 미혼 1인 가구인 경우에만 응답

113) 주관적인 신체건강 인식

- 본인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인 ‘그렇다’ 응답이 90.7%(매우 그렇다 28.7% + 그렇다 62.0%)로 ‘그렇지 않다’(1.5%)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 성별로 남자의 ‘그렇다’는 긍정 응답 비율이 92.8%로 여자(88.4%)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만15-18세(93.6%)의 긍정 응답 비율이 타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광주/전라/제주(95.1%) 거주자의 긍정 응답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II-113 주관적인 신체건강 인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133	0.2	1.3	7.7	62.0	28.7
성별	남 자	1,613	0.2	1.1	5.8	60.2	32.6
	여 자	1,520	0.3	1.6	9.8	64.0	24.4
연령	만 1 5 ~ 1 8 세	503	0.1	1.1	5.1	55.8	37.8
	만 1 9 ~ 2 9 세	1,199	0.5	1.6	7.0	58.5	32.4
	만 3 0 ~ 3 9 세	1,431	0.1	1.2	9.1	66.7	22.9
지역	서 울	560	0.0	0.7	5.2	70.6	23.6
	인 천 / 경 기	685	0.0	1.8	6.2	60.9	31.1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0.2	0.9	14.4	60.3	24.1
	광주/전라/제주	449	0.4	0.7	3.8	55.4	39.7
	부산/울산/경남	495	0.0	2.1	11.6	55.4	31.0
	대 구 / 경 북	467	1.9	1.2	6.9	67.0	22.9
	중 · 고 등 학 생	492	0.1	1.0	5.2	55.9	37.8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7	0.7	1.7	6.1	56.5	35.1
	고 졸 이 하	623	0.5	0.8	14.6	60.1	23.9
	대 졸 이 상	1,571	0.0	1.6	6.1	66.3	26.0
주거	동 거	1,898	0.3	1.8	6.5	57.6	33.9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235	0.2	0.7	9.5	68.4	21.1

114) 건강검진 수검 여부

- 건강검진 수검 여부에 대해 38.1%가 '예'라고 응답한 반면,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은 61.9%로 조사됨
- 성별에 따른 응답 경향 상 큰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음
- 연령별로 만30-39세의 건강검진 수검 비율이 53.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제주(50.4%)와 대구/경북(43.9%) 지역의 건강검진 수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학력별로 대졸이상(50.1%)에서 건강검진 수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14 건강검진 수검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3,133	38.1	61.9
	남 자	1,613	37.7	62.3
	여 자	1,520	38.6	61.4
연령	만 1 5 ~ 1 8 세	503	17.7	82.3
	만 1 9 ~ 2 9 세	1,199	27.3	72.7
	만 3 0 ~ 3 9 세	1,431	53.2	46.8
지역	서 울	560	29.6	70.4
	인 천 / 경 기	685	40.2	59.8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34.8	65.2
	광주/전라/제주	449	50.4	49.6
	부산/울산/경남	495	36.5	63.5
	대 구 / 경 북	467	43.9	56.1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18.1	81.9
	대학생/대학원생	447	16.6	83.4
	고 졸 이 하	623	40.0	60.0
	대 졸 이 상	1,571	50.1	49.9
주거	동 거	1,898	28.4	71.6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235	52.5	47.5

115) 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

- 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으로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 응답이 8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13.6%),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 은 여자(84.1%)가 남자(77.6%)보다 높음
- 연령별로 만15-18세에서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 응답이 84.2%로 높음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거주자에서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25.5%)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14.5%) 응답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중·고등학생에서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83.9%)이 가장 높음

표 II-115 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기타
전	체	3,133	80.7	13.6	5.7	0.0
성별	남	1,613	77.6	15.7	6.8	0.0
	여	1,520	84.1	11.3	4.5	0.0
연령	만 15 ~ 18 세	503	84.2	10.9	4.8	0.0
	만 19 ~ 29 세	1,199	78.5	15.3	6.3	0.0
	만 30 ~ 39 세	1,431	81.5	13.0	5.5	0.0
지역	서 울	560	81.3	14.5	4.2	0.0
	인 천 / 경 기	685	82.7	12.3	5.0	0.0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84.8	10.9	4.3	0.0
	광 주 / 전 라 / 제 주	449	94.7	3.9	1.4	0.0
	부 산 / 울 산 / 경 남	495	60.0	25.5	14.5	0.0
	대 구 / 경 북	467	83.8	11.9	4.3	0.0
	중 · 고 등 학 생	492	83.9	11.3	4.8	0.0
학력	대 학생 / 대 학 원 생	447	80.1	13.8	6.2	0.0
	고 졸 이 하	623	77.3	14.6	8.2	0.0
	대 졸 이 상	1,571	81.4	13.8	4.8	0.0
주거	동 거	1,898	79.3	14.2	6.5	0.0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235	82.7	12.7	4.6	0.0

116) 질환 발생 후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 질환 발생 후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7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19.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남자는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82.1%), 여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26.9%)라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병원을 가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85.5%), 대구/경북 지역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29.2%)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16 질환 발생 후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기타
전	체	602	1.4	19.9	1.5	77.2	0.1
성별	남	359	1.2	15.4	1.0	82.1	0.2
	여	243	1.5	26.9	2.2	69.4	0.0
연령	만 15 ~ 18 세	84	0.0	11.4	4.2	84.5	0.0
	만 19 ~ 29 세	258	1.6	16.8	1.1	80.5	0.0
	만 30 ~ 39 세	260	1.4	25.0	1.1	72.2	0.3
지역	서울	113	0.0	16.1	2.3	81.6	0.0
	인천 / 경기	118	2.6	26.5	1.5	69.5	0.0
	대전/충청/세종/강원	75	0.0	20.9	1.6	77.6	0.0
	광주 / 전라 / 제주	19	3.4	28.0	0.0	68.6	0.0
	부산 / 울산 / 경남	196	0.0	12.7	1.4	85.5	0.4
	대구 / 경북	81	6.7	29.2	0.0	64.0	0.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84	0.0	12.3	4.2	83.5	0.0
	대 학 생 / 대 학 원 생	85	0.0	15.6	0.8	82.8	0.8
	고 졸 이 하	138	1.4	21.8	2.3	74.5	0.0
	대 졸 이 상	295	2.2	22.2	0.6	75.0	0.0
주거 형태	동거	392	1.5	16.6	1.9	79.8	0.2
	비 동 거 / 독 립	210	1.0	25.7	0.7	72.6	0.0

117) 정신과 치료 및 심리상담 경험 여부_1)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 정신과 치료 여부에 대해서 청년의 대부분인 99.7%가 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 응답자 특성 간 큰 차이 없이 모든 특성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비율이 100%에 수렴하고 있음

표 II-117 정신과 치료 및 심리상담 경험 여부_1)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3,133	0.3	99.7
	자	1,613	0.3	99.7
성별	여	1,520	0.3	99.7
	자	1,520	0.3	99.7
연령	만 15 ~ 18 세	503	0.2	99.8
	만 19 ~ 29 세	1,199	0.3	99.7
	만 30 ~ 39 세	1,431	0.4	99.6
지역	서울	560	0.3	99.7
	인천 / 경기	685	0.1	99.9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0.8	99.2
	광주/전라/제주	449	0.0	100.0
	부산/울산/경남	495	0.5	99.5
	대구 / 경북	467	0.6	99.4
	충 · 고 등 학 생	492	0.2	99.8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7	0.4	99.6
	고 졸 이 하	623	0.1	99.9
	대 졸 이 상	1,571	0.4	99.6
주거 형태	동 거	1,898	0.3	99.7
	비 동 거 / 독 립	1,235	0.4	99.6

118) 정신과 치료 및 심리상담 경험 여부_2) 심리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 심리상담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청년의 대부분인 99.2%가 심리상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조사됨
- 응답자 특성 간 큰 차이 없이 모든 특성에서 심리 상담을 받은 적이 없다는 비율이 100%에 수렴하고 있음

표 II-118 정신과 치료 및 심리상담 경험 여부_2) 심리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3,133	0.8	99.2
	자	1,613	1.0	99.0
성별	남	1,520	0.6	99.4
	여	1,520	0.6	99.4
연령	만 1 5 ~ 1 8 세	503	0.5	99.5
	만 1 9 ~ 2 9 세	1,199	0.6	99.4
	만 3 0 ~ 3 9 세	1,431	1.1	98.9
지역	서 울	560	0.3	99.7
	인 천 / 경 기	685	0.6	99.4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0.9	99.1
	광 주 / 전 라 / 제 주	449	0.4	99.6
	부 산 / 울 산 / 경 남	495	1.1	98.9
	대 구 / 경 북	467	2.3	97.7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0.5	99.5
	대 학생 / 대 학 원 생	447	0.9	99.1
	고 졸 이 하	623	0.6	99.4
	대 졸 이 상	1,571	0.9	99.1
주거	동 거	1,898	0.8	99.2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235	0.7	99.3

119)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으로 ‘마른 편이다’라는 응답이 23.8%(매우 마른 편이다 2.2% +약간 마른 편이다 21.6%)로 ‘비만이다’라는 응답이 22.0%(매우 비만이다 1.3% + 약간 비만이다 20.7%)보다 높음
- 2017년 대비 ‘비만이다’라는 응답은 2.7%p 하락한 반면, ‘마른 편이다’ 응답은 2.9%p 상승함
- 성별로 여자의 ‘마른 편이다’라는 비율이 25.4%로 남자(22.4%)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만19-29세에서(28.3%) ‘마른 편이다’라는 응답 비율이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마른 편이다’(30.6%)와 ‘비만이다’(29.7%)의 응답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II-119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매우 마른 편이다	약간 마른 편이다	보통이다	약간 비만이다	매우 비만이다
2016	2,534	1.4	14.6	61.1	20.4	2.5
2017	2,714	2.8	18.1	54.4	20.8	3.9
2018	3,133	2.2	21.6	54.1	20.7	1.3

표 II-119-1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마른 편이다	약간 마른 편이다	보통이다	약간 비만이다	매우 비만이다
전 체		3,133	2.2	21.6	54.1	20.7	1.3
성별	남 자	1,613	2.0	20.4	55.7	20.6	1.3
	여 자	1,520	2.5	22.9	52.3	20.9	1.4
연령	만 15 ~ 18 세	503	4.1	19.1	55.8	20.0	1.0
	만 19 ~ 29 세	1,199	2.1	26.2	52.3	18.6	0.9
	만 30 ~ 39 세	1,431	1.8	18.5	55.1	22.8	1.8
지역	서울	560	2.4	20.8	58.2	18.4	0.2
	인천 / 경기	685	2.1	19.6	59.2	17.5	1.6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1.1	20.3	55.0	22.2	1.4
	광주/전라/제주	449	4.9	25.7	39.7	27.0	2.7
	부산/울산/경남	495	1.3	26.6	48.2	23.3	0.6
	대구 / 경북	467	2.4	19.6	51.7	24.0	2.3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4.2	19.0	55.6	20.2	1.0
	대학생/대학원생	447	2.1	25.5	55.9	16.3	0.3
	고 졸 이 하	623	2.3	22.2	48.8	23.8	3.0
	대 졸 이 상	1,571	1.7	20.8	55.3	21.1	1.1
주거 형태	동 거	1,898	2.8	24.5	52.6	18.9	1.1
	비 동 거 / 독 립	1,235	1.3	17.3	56.3	23.4	1.6

120)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

-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을 느끼고 있다는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에서 긍정 응답 비율인 ‘그렇다’가 48.4%(항상 그렇다 3.7% + 대부분 그렇다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가 28.9%로 조사됨
- 지난 2017년 대비 ‘그렇다’라는 응답은 10.6%p 상승한 반면,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응답은 2.4%p 하락함
- 성별로 여자의 ‘그렇다’는 긍정 응답 비율이 49.5%로 남자(47.2%)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만15-18세(51.8%)의 ‘그렇다’ 긍정 응답 비율이 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 서울 지역에서 ‘그렇다’(54.7%)의 응답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II-120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2017	2,714	1.2	16.4	13.2	31.3	34.4	3.4
2018	3,133	0.1	8.8	13.8	28.9	44.7	3.7

표 II-120-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3,133	0.1	8.8	13.8	28.9	44.7	3.7
성별	남	자	1,613	0.2	9.1	15.5	28.0	43.4	3.8	
	여	자	1,520	0.1	8.4	12.0	29.9	46.0	3.5	
연령	만 1 5 ~ 1 8 세		503	0.0	5.2	11.5	31.6	48.1	3.7	
	만 1 9 ~ 2 9 세		1,199	0.3	9.0	14.5	27.9	44.7	3.6	
	만 3 0 ~ 3 9 세		1,431	0.1	9.7	13.9	29.0	43.6	3.7	
지역	서		울	560	0.0	5.3	13.4	26.6	52.7	2.0
	인 천 / 경 기			685	0.2	9.8	10.6	29.6	46.7	3.1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0.2	13.7	19.1	22.6	41.7	2.7
	광주/전라/제주			449	0.0	0.0	11.6	36.7	43.2	8.5
	부산/울산/경남			495	0.3	10.5	18.6	31.3	35.1	4.2
	대 구 / 경 북			467	0.0	12.8	12.6	28.9	41.3	4.4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0.0	5.3	11.8	31.6	47.9	3.5
	대학생/대학원생			447	0.0	6.2	12.5	31.3	45.6	4.4
	고 졸 이 하			623	0.4	16.0	15.6	25.9	39.2	3.0
	대 졸 이 상			1,571	0.1	7.7	14.1	28.7	45.7	3.7
주거 형태	동 거			1,898	0.0	8.3	13.3	29.8	44.6	4.0
	비 동 거 / 독 립			1,235	0.3	9.5	14.6	27.7	44.7	3.2

12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에서 긍정 응답 비율인 ‘그렇다’가 41.1%(항상 그렇다 8.2% + 대부분 그렇다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가 33.4%로 조사됨
- 지난 2017년 대비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응답이 6.6%p 상승하였고, ‘그렇다’라는 응답 또한 0.3%p 상승함
- 성별로 여자의 ‘그렇다’는 긍정 응답 비율이 42.4%로 남자(39.9%)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에 따른 응답자 특성 간의 차이가 없음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그렇다’(52.2%)의 응답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II-12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2017	2,714	2.2	15.0	15.2	26.8	36.5	4.3
2018	3,133	0.3	7.5	17.7	33.4	32.9	8.2

표 II-121-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3,133	0.3	7.5	17.7	33.4	32.9	8.2
성별	남 자	1,613	0.4	6.9	18.1	34.7	32.5	7.4
	여 자	1,520	0.2	8.2	17.2	31.9	33.2	9.2
연령	만 1 5 ~ 1 8 세	503	0.3	6.9	17.2	34.3	34.8	6.6
	만 1 9 ~ 2 9 세	1,199	0.2	8.2	18.8	32.5	32.1	8.1
	만 3 0 ~ 3 9 세	1,431	0.4	7.1	16.9	33.8	32.9	8.8
지역	서 울	560	0.3	7.2	14.9	34.4	37.4	5.8
	인 천 / 경 기	685	0.4	6.8	14.3	39.1	33.7	5.7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0.3	12.3	21.4	26.9	31.1	8.0
	광주/전라/제주	449	0.0	2.0	13.6	32.2	32.0	20.2
	부산/울산/경남	495	0.7	9.9	25.4	29.5	27.8	6.6
	대 구 / 경 북	467	0.0	5.8	22.2	28.5	31.7	11.8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0.3	7.1	17.3	34.6	34.4	6.4
	대학생/대학원생	447	0.0	5.9	19.9	31.3	35.2	7.7
	고 졸 이 하	623	0.3	11.8	21.0	27.4	28.6	10.9
	대 졸 이 상	1,571	0.4	6.4	15.7	36.2	33.5	7.8
주거 형태	동 거	1,898	0.4	7.7	17.7	31.7	33.8	8.7
	비 동 거 / 독 립	1,235	0.1	7.3	17.7	35.8	31.6	7.6

122)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끼고 있다는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에서 긍정 응답 비율인 ‘그렇다’가 40.3%(항상 그렇다 7.9% + 대부분 그렇다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가 33.7%로 조사됨
- 지난 2017년 대비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응답이 4.2%p 상승하였고, ‘그렇다’라는 응답 또한 3.4%p 상승함
- 성별로 여자의 ‘그렇다’는 긍정 응답 비율이 41.3%로 남자(39.0%)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만15-18세(47.5%)에서 ‘그렇다’는 긍정 응답 비율이 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그렇다’(53.3%)의 응답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중·고등학생에서 ‘그렇다’(47.1%)의 긍정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22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2017	2,714	2.3	15.8	15.5	29.5	31.5	5.4
2018	3,133	0.7	9.6	15.7	33.7	32.4	7.9

표 II-122-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3,133	0.7	9.6	15.7	33.7	32.4	7.9
성별	남	자	1,613	0.7	9.6	15.5	32.8	32.6	8.7	
	여	자	1,520	0.7	9.6	15.9	34.7	32.1	6.9	
연령	만 1 5 ~ 1 8 세		503	0.5	7.0	11.4	33.6	37.7	9.8	
	만 1 9 ~ 2 9 세		1,199	0.8	10.1	14.7	35.1	31.4	7.8	
	만 3 0 ~ 3 9 세		1,431	0.7	10.0	17.8	32.6	31.6	7.3	
지역	서 울		560	0.6	5.8	15.3	36.3	36.4	5.7	
	인 천 / 경 기		685	0.7	9.2	13.7	37.4	33.7	5.2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0.1	17.5	17.9	29.4	27.1	7.9	
	광주/전라/제주		449	0.0	3.3	10.5	32.9	38.5	14.8	
	부산/울산/경남		495	2.0	13.2	20.3	27.5	29.2	7.8	
	대 구 / 경 북		467	0.6	9.3	18.4	32.7	25.0	14.1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0.5	7.0	11.8	33.6	37.6	9.5	
	대학생/대학원생		447	0.6	7.9	11.9	38.3	32.7	8.6	
	고 졸 이 하		623	1.3	13.7	18.0	29.1	31.6	6.3	
	대 졸 이 상		1,571	0.5	9.2	17.1	34.2	31.1	7.8	
주거 형태	동 거		1,898	0.6	9.3	15.1	33.8	32.7	8.5	
	비 동 거 / 독 립		1,235	0.9	10.2	16.6	33.6	31.9	6.9	

123)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하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정신 건강 수준에서 긍정 응답 비율인 ‘그렇다’가 38.0%(항상 그렇다 4.8% + 대부분 그렇다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가 30.2%로 조사됨
- 지난 2017년 대비 ‘그렇다’는 긍정 응답이 13.4%p 상승하였고,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는 응답 또한 4.0%p 상승함
- 성별에 따른 응답자 간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음
- 연령별로 만15-18세(43.7%)에서 ‘그렇다’는 긍정 응답 비율이 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그렇다’(52.6%)의 응답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중·고등학생(43.2%)과 대학생/대학원생(43.0%)에서 ‘그렇다’는 긍정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23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2017	2,714	9.8	21.9	17.5	26.2	21.9	2.7
2018	3,133	1.6	12.3	17.8	30.2	33.2	4.8

표 II-123-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성별	체	3,133	1.6	12.3	17.8	30.2	33.2	4.8
	남 자	1,613	1.0	13.2	18.2	30.1	33.0	4.6
	여 자	1,520	2.3	11.4	17.5	30.3	33.5	5.0
연령	만 15 ~ 18 세	503	1.1	9.2	15.8	30.4	38.3	5.4
	만 19 ~ 29 세	1,199	2.5	12.6	16.1	29.8	34.2	4.9
	만 30 ~ 39 세	1,431	1.1	13.1	19.9	30.5	31.0	4.5
지역	서 울	560	1.1	12.4	17.6	33.5	32.7	2.6
	인 천 / 경 기	685	1.2	10.2	16.7	33.5	36.0	2.4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2.0	23.1	15.2	22.8	34.4	2.5
	광주/전라/제주	449	0.0	3.7	18.5	28.6	36.8	12.4
	부산/울산/경남	495	3.5	15.0	23.6	33.1	18.1	6.8
	대 구 / 경 북	467	2.3	8.7	16.2	20.1	43.5	9.1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1.1	9.3	15.8	30.6	37.9	5.3
	대학생/대학원생	447	1.6	9.6	16.4	29.5	38.0	5.0
	고 졸 이 하	623	2.6	17.0	19.5	25.8	31.4	3.6
	대 졸 이 상	1,571	1.4	12.1	18.2	32.2	31.2	5.0
주거 형태	동 거	1,898	1.5	12.3	16.9	30.2	33.9	5.1
	비 동 거 / 독 립	1,235	1.8	12.3	19.2	30.2	32.3	4.2

124)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에서 긍정 응답 비율인 ‘그렇다’가 34.3%(항상 그렇다 3.2% + 대부분 그렇다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가 31.4%로 조사됨
- 지난 2017년 대비 ‘그렇다’는 긍정 응답이 12.1%p 상승하였고,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는 응답 또한 3.3%p 상승함
- 성별에 따른 응답자 특성에 차이가 없음
- 연령별로 만15-18세(35.1%)에서 ‘그렇다’는 긍정 응답 비율이 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광주/전라/제주 거주자에서 ‘그렇다’(46.7%)는 긍정 응답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대학생/대학원생(38.9%)에서 ‘그렇다’는 긍정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24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2017	2,714	6.1	26.3	17.4	28.1	19.7	2.5
2018	3,133	2.1	14.8	17.4	31.4	31.1	3.2

표 II-124-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3,133	2.1	14.8	17.4	31.4	31.1	3.2
성별	남	자	1,613	1.8	14.0	17.2	32.6	31.2	3.2	
	여	자	1,520	2.4	15.6	17.6	30.1	30.9	3.3	
연령	만 1 5 ~ 1 8 세		503	0.6	12.2	18.4	33.7	30.8	4.3	
	만 1 9 ~ 2 9 세		1,199	2.8	14.0	15.8	32.8	30.8	3.9	
	만 3 0 ~ 3 9 세		1,431	2.0	16.1	18.4	29.6	31.4	2.4	
지역	서	울	560	0.3	14.7	17.5	32.5	34.3	0.6	
	인 천 / 경 기		685	3.2	12.1	14.1	37.8	31.6	1.3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2.0	16.5	20.2	24.7	32.8	3.7	
	광주/전라/제주		449	0.0	7.9	9.2	36.3	38.2	8.5	
	부산/울산/경남		495	3.7	22.7	21.8	25.4	19.4	6.9	
	대 구 / 경 북		467	2.1	16.4	26.3	21.5	30.5	3.3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0.6	12.3	18.9	33.7	30.3	4.2	
	대학생/대학원생		447	1.6	9.6	15.6	34.2	33.6	5.3	
	고 졸 이 하		623	4.0	19.6	16.8	26.5	29.9	3.1	
	대 졸 이 상		1,571	1.9	15.1	17.8	31.9	31.0	2.4	
주거 형태	동	거	1,898	2.0	14.0	16.6	32.8	30.6	4.0	
	비 동 거 / 독 립		1,235	2.2	15.8	18.5	29.4	31.8	2.2	

125) 규칙적인 운동 여부

- 규칙적인 운동 여부에 대해 28.4%가 ‘예’라고 응답한 반면,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은 71.6%로 조사됨
- 지난 2017년 대비 ‘예’라는 긍정 응답이 8.5%p 하락하였고, ‘아니오’라는 응답은 8.5%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여자(23.9%)보다 남자(32.3%)가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규칙적인 운동 비율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125 규칙적인 운동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6	2,534	27.6	72.4
2017	2,714	36.9	63.1
2018	3,133	28.4	71.6

표 II-125-1 규칙적인 운동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3,133	28.4	71.6
성별	남 자	1,613	32.3	67.7
	여 자	1,520	23.9	76.1
연령	만 1 5 ~ 1 8 세	503	21.1	78.9
	만 1 9 ~ 2 9 세	1,199	26.8	73.2
	만 3 0 ~ 3 9 세	1,431	31.8	68.2
지역	서 울	560	22.2	77.8
	인 천 / 경 기	685	26.4	73.6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28.8	71.2
	광주/전라/제주	449	42.9	57.1
	부산/울산/경남	495	31.6	68.4
	대 구 / 경 북	467	26.9	73.1
	중 / 고 등 학 생	492	21.5	78.5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7	26.0	74.0
	고 졸 이 하	623	26.8	73.2
	대 졸 이 상	1,571	31.7	68.3
주거 형태	동 거	1,898	27.9	72.1
	비 동 거 / 독 립	1,235	29.0	71.0

126) 규칙적인 운동 빈도

-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 운동 빈도에서 ‘일주일에 3번’이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주일에 2번’(20.4%), ‘일주일에 5번’(1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난 2017년 대비 ‘일주일에 2번’ 응답은 6.7%p 상승한 반면, ‘매일’이라는 응답은 8.7%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자(38.4%)가 여자(34.3%)보다 ‘일주일에 3번’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만15-18세(30.8%)에서 ‘일주일에 2번’ 운동한다는 빈도의 응답이 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일주일에 5번’의 운동 빈도가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126 규칙적인 운동 빈도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일주일에 1번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	일주일에 4번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6번	매일
2016	699	7.3	20.0	27.9	17.3	15.4	2.9	9.2
2017	1,007	7.2	15.5	30.1	9.3	19.8	4.3	13.8
2018	918	7.7	20.4	36.8	12.1	15.8	2.2	5.1

* 주: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만 응답

표 II-126-1 규칙적인 운동 빈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주일 1번	일주일 2번	일주일 3번	일주일 4번	일주일 5번	일주일 6번	매일
전 체			918	7.7	20.4	36.8	12.1	15.8	2.2	5.1
성별	남	자	532	8.7	19.5	38.4	12.3	13.9	2.1	5.1
	여	자	386	6.2	21.6	34.3	11.7	18.7	2.4	5.1
연령	만 1 5 ~ 1 8 세		120	16.3	30.8	29.0	8.5	10.7	0.0	4.7
	만 1 9 ~ 2 9 세		337	5.3	22.0	38.8	12.9	12.0	3.2	5.9
	만 3 0 ~ 3 9 세		461	7.6	17.2	36.9	12.2	19.5	1.9	4.6
지역	서 울		127	6.8	22.6	43.4	12.0	11.1	1.2	2.8
	인 천 / 경 기		175	2.4	20.2	41.9	20.3	11.8	0.0	3.4
	대전/충청/세종/강원		135	15.9	18.9	38.1	11.4	13.0	0.0	2.7
	광주/전라/제주		204	5.4	21.4	40.1	8.6	10.1	5.8	8.6
	부산/울산/경남		157	6.5	14.4	19.8	4.7	36.9	6.8	11.0
	대 구 / 경 북		120	20.5	28.3	31.0	5.6	13.1	0.0	1.4
학력	중 / 고 등 학 생		120	16.3	30.8	29.0	8.5	10.7	0.0	4.7
	대학생/대학원생		124	6.8	18.2	36.8	18.9	11.1	2.0	6.2
	고 졸 이 하		163	8.4	26.2	32.4	13.2	15.7	1.4	2.6
	대 졸 이 상		511	6.0	16.9	39.8	10.5	18.1	2.9	5.7
주거 형태	동 거		551	8.1	22.1	36.4	11.1	15.0	2.5	4.9
	비 동 거 / 독 립		367	7.1	18.0	37.3	13.5	17.0	1.8	5.3

* 주: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만 응답

127) 인생에서 외모의 중요도

-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85.0%(매우 중요하다 25.7% + 어느 정도 중요하다 59.3%)로 ‘중요하지 않다’(2.1%)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 지난 2017년 대비 ‘중요하다’는 응답이 6.8%p 상승한 반면,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2%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여자(88.2%)가 남자(82.2%)보다 외모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만19-29세(86.4%)의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외모가 ‘중요하다’(89.5%)는 응답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II-127 인생에서 외모의 중요도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2016	2,534	0.3	2.4	15.7	66.8	14.7
2017	2,714	0.8	4.5	16.4	62.6	15.6
2018	3,133	0.1	2.0	12.8	59.3	25.7

표 II-127-1 인생에서 외모의 중요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	체	3,133	0.1	2.0	12.8	59.3	25.7
성별	남 자	1,613	0.1	2.6	15.2	60.8	21.4
	여 자	1,520	0.1	1.4	10.2	57.7	30.5
연령	만 15 ~ 18 세	503	0.1	2.2	12.9	54.1	30.7
	만 19 ~ 29 세	1,199	0.0	2.4	11.1	57.6	28.8
	만 30 ~ 39 세	1,431	0.1	1.7	14.2	62.3	21.7
지역	서 울	560	0.0	1.5	13.6	62.2	22.8
	인 천 / 경 기	685	0.0	1.8	12.1	60.1	26.0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0.4	3.7	14.7	65.1	16.1
	광주/전라/제주	449	0.0	0.8	9.7	53.9	35.6
	부산/울산/경남	495	0.1	3.8	13.4	51.2	31.5
	대 구 / 경 북	467	0.0	0.2	13.5	61.2	25.1
	중 / 고 등 학 생	492	0.1	2.0	12.9	53.9	31.0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7	0.0	4.1	10.1	55.6	30.3
	고 졸 이 하	623	0.1	3.0	15.0	59.8	22.1
	대 졸 이 상	1,571	0.1	1.0	12.8	61.9	24.2
주거 형태	동 거	1,898	0.0	2.0	10.7	58.0	29.3
	비 동 거 / 독 립	1,235	0.1	2.1	15.9	61.3	20.5

128) 성형수술 경험

- 성형수술 경험 여부에 대해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89.6%이며,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0.4%로 조사됨
- 지난 2017년 대비 성형수술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4%p 하락한 반면, '없다'는 응답은 1.4%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여자(19.1%)가 남자(2.5%)보다 성형수술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형수술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 성형수술 경험 비율이 14.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대졸이상(12.5%)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표 II-128 성형수술 경험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예	아니오
2016	2,534	12.7	87.3
2017	2,714	11.8	88.2
2018	3,133	10.4	89.6

표 II-128-1 성형수술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3,133	10.4	89.6
성별	남 자	1,613	2.5	97.5
	여 자	1,520	19.1	80.9
연령	만 1 5 ~ 1 8 세	503	3.0	97.0
	만 1 9 ~ 2 9 세	1,199	11.8	88.2
	만 3 0 ~ 3 9 세	1,431	11.5	88.5
지역	서 울	560	10.3	89.7
	인 천 / 경 기	685	9.6	90.4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9.9	90.1
	광주/전라/제주	449	14.9	85.1
	부산/울산/경남	495	8.7	91.3
	대 구 / 경 북	467	11.6	88.4
	중 / 고 등 학 생	492	3.0	97.0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7	10.5	89.5
	고 졸 이 하	623	10.1	89.9
	대 졸 이 상	1,571	12.5	87.5
주거	동 거	1,898	9.6	90.4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235	11.5	88.5

129) 성형수술 목적

- 성형수술 경험이 있는 경우, 성형수술 목적으로 ‘미용(쌍꺼풀, 보톡스, 지방제거 등)’이 97.7%로 ‘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2.3%)보다 높게 나타남
- 지난 2017년 대비 ‘미용’ 목적 성형수술 비율이 9.0%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여자의 대부분이 ‘미용’(99.0%)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였으며, 남자의 경우에는 ‘의료’의 목적이 11.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응답자 특성 간의 차이가 없음
- 지역별로 응답자 간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음
- 학력에 따른 응답자 특성 간의 차이가 없음

표 II-129 성형수술 목적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의료 (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미용 (쌍꺼풀, 보톡스, 지방제거 등)
2016	321	10.0	90.0
2017	316	11.3	88.7
2018	352	2.3	97.7

* 주: 성형수술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

표 II-129-1 성형수술 목적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의료 (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미용 (쌍꺼풀, 보톡스, 지방제거 등)
전	체	352	2.3	97.7
성별	남 자	33	11.6	88.4
	여 자	319	1.0	99.0
연령	만 1 5 ~ 1 8 세	15	0.0	100.0
	만 1 9 ~ 2 9 세	157	0.5	99.5
	만 3 0 ~ 3 9 세	180	4.0	96.0
지역	서 울	67	0.0	100.0
	인 천 / 경 기	69	4.0	96.0
	대전/충청/세종/강원	45	1.8	98.2
	광주/전라/제주	68	3.2	96.8
	부산/울산/경남	46	3.6	96.4
	대 구 / 경 북	57	0.0	100.0
	중 / 고 등 학 생	15	0.0	100.0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	0.0	100.0
	고 졸 이 하	71	0.0	100.0
	대 졸 이 상	222	3.9	96.1
주거 형태	동 거	190	3.4	96.6
	비 동 거 / 독 립	162	0.9	99.1

* 주: 성형수술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

130)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

-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에 대해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만족을 위해’ (30.3%),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15.5%) 등의 순임
- 지난 2017년 대비 ‘자기만족을 위해’라는 이유는 20.1%p 상승한 반면,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라는 이유는 8.8%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자에서 ‘취직에 도움이 되므로’라는 이유가 24.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만15-18세에서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54.4%), 만 19-29세에서는 ‘자기만족을 위해’(38.0%)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에서 ‘자기만족을 위해’(53.6%), 인천/경기 지역에서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23.7%), 서울 지역에서는 ‘취직에 도움이 되므로’(23.0%)라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30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취직에 도움이 되므로	결혼이나 연애에 도움이 되므로	자기 만족을 위해	기타
2016	289	53.8	31.4	9.1	3.2	-	1.6
2017	279	48.3	31.3	4.5	4.4	10.2	1.3
2018	345	39.5	15.5	10.8	4.0	30.3	0.0

* 주 1)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경우만 응답

2) 보기문항 중 ‘자기만족을 위해’는 2017년부터 추가되었음

3) 2016년 응답결과에는 ‘모름/무응답’이 0.9% 있었음(본 표에 미제시함)

표 II-130-1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취직에 도움이 되므로	결혼이나 연애에 도움이 되므로	자기 만족을 위해	기타
전	체	345	39.5	15.5	10.8	4.0	30.3	0.0
성별	남 자	31	25.9	22.9	24.4	0.0	26.8	0.0
	여 자	314	41.2	14.6	9.0	4.5	30.7	0.0
연령	만 15 ~ 18 세	15	54.4	12.0	18.7	0.0	14.9	0.0
	만 19 ~ 29 세	155	35.3	19.6	6.8	0.3	38.0	0.0
	만 30 ~ 39 세	175	42.0	12.2	13.6	7.5	24.7	0.0
지역	서울	67	38.7	19.8	23.0	5.9	12.5	0.0
	인천 / 경기	68	41.5	23.7	12.6	3.0	19.3	0.0
	대전/충청/세종/강원	44	36.7	6.2	1.3	2.2	53.6	0.0
	광주/전라/제주	65	42.1	3.2	3.4	4.4	46.9	0.0
	부산/울산/경남	44	34.9	16.0	7.0	2.1	39.9	0.0
	대구 / 경북	57	40.6	12.8	8.3	6.5	31.8	0.0
	중 / 고 등 학 생	15	54.4	12.0	18.7	0.0	14.9	0.0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	20.7	24.5	0.0	1.5	53.2	0.0
	고 졸 이 하	71	42.6	17.9	9.3	8.7	21.5	0.0
	대 졸 이 상	215	42.7	12.3	13.9	3.3	27.8	0.0
주거 형태	동 거	185	37.9	17.8	10.6	1.3	32.4	0.0
	비 동 거 / 독 립	160	41.4	12.8	11.0	7.2	27.7	0.0

* 주: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경우만 응답

131) 선호하는 가치_1) 일 중시 VS 여가 중시

- 일과 여가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조사 결과 여가를 중시한다는 응답이 45.6%(⑤+⑥+⑦)로 나타나 일을 중시한다는 응답(31.0%: ①+②+③) 대비 높게 나타남
- 전년 대비 여가를 중시한다는 응답이 2.1%p 상승한 반면 일을 중시한다는 응답은 1.0%p 하락함
- 성별로 남자는 일을 중시한다는 응답이 35.4%로 높은 반면 여자는 여가를 중시한다는 응답이 49.6%로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함
- 연령별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일을 중시한다는 응답이 높아지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여가를 중시하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 서울 지역 거주자는 여가를 중시한다는 응답이 51.2%로 타 지역 대비 높고 반대로 광주/전라/제주 지역 거주자는 일을 중시한다는 응답이 45.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임
- 학력별로는 전반적으로 연령대별 특성에 수렴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학교를 졸업한 성인 중에서 고졸이하와 대졸이상 간 큰 차이가 없음

표 II-131 선호하는 가치_1) 일 중시 VS 여가 중시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 일 여가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16	2,534	3.1	13.0	18.4	24.8	22.3	16.2	2.1
2017	2,714	3.4	13.4	15.2	24.6	19.5	19.5	4.5
2018	3,133	1.1	12.2	17.7	23.4	25.8	18.3	1.5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일 여가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 체			3,133	1.1	12.2	17.7	23.4	25.8	18.3	1.5
성별	남	자	1,613	1.1	14.8	19.5	22.7	23.6	17.5	0.8
	여	자	1,520	1.0	9.5	15.7	24.2	28.2	19.2	2.2
연령	만 1 5 ~ 1 8 세		503	0.7	9.3	13.3	20.6	31.2	23.8	1.1
	만 1 9 ~ 2 9 세		1,199	0.7	9.9	18.1	25.5	26.2	18.0	1.6
	만 3 0 ~ 3 9 세		1,431	1.5	15.1	18.8	22.5	23.8	16.9	1.5
지역	서 울		560	0.9	15.4	16.9	15.7	25.5	23.5	2.2
	인 천 / 경 기		685	1.2	11.9	18.4	25.0	24.8	17.6	1.0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1.4	5.6	13.5	33.2	29.0	16.1	1.2
	광주/전라/제주		449	1.8	18.7	25.1	12.7	26.1	14.5	1.0
	부산/울산/경남		495	0.8	13.5	17.2	25.8	23.8	17.1	1.8
	대 구 / 경 북		467	0.3	6.9	16.0	28.5	27.7	18.6	1.9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0.7	9.3	13.5	20.3	31.3	23.8	1.1
	대학생/대학원생		447	0.8	10.7	14.5	26.6	29.6	16.1	1.6
	고 졸 이 하		623	1.0	15.0	23.0	25.6	22.7	9.9	2.9
	대 졸 이 상		1,571	1.3	12.4	17.8	22.2	24.2	20.9	1.0
주거 형태	동 거		1,898	0.7	11.3	16.8	23.4	27.0	19.0	1.8
	비 동 거 / 독 립		1,235	1.6	13.7	19.2	23.4	23.9	17.3	0.9

132) 선호하는 가치_2) 현실 중시 VS 이상 중시

- 현실과 이상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조사 결과 현실을 중시한다는 응답이 61.4%(①+②+③)로 나타나 이상을 중시한다는 응답(16.4%: ⑤+⑥+⑦) 대비 높게 나타남
- 전년 대비 현실을 중시한다는 응답이 4.9%p 하락한 반면 이상을 중시한다는 응답은 1.3%p 상승함
- 성별에 따른 특징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연령별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현실을 중시한다는 응답이 높아지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상을 중시하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 서울 지역 거주자는 현실을 중시한다는 응답이 66.4%로 타 지역 대비 높고 반대로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 거주자는 이상을 중시한다는 응답이 19.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임
- 학력별로는 전반적으로 연령대별 특성에 수렴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학교를 졸업한 성인 중에서 고졸이하와 대졸이상 간 큰 차이가 없음

표 II-132 선호하는 가치_2) 현실 중시 VS 이상 중시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 현실							이상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16	2,534	12.4	28.8	26.8	18.0	9.6	4.0	0.4	
2017	2,714	11.6	30.8	23.9	18.6	7.8	5.9	1.4	
2018	3,133	6.5	20.7	34.2	22.2	11.8	4.4	0.2	

표 II-132-1 선호하는 가치_2) 현실 중시 VS 이상 중시

(단위: 명, %)

구분			← 현실							이상 →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	체	3,133	6.5	20.7	34.2	22.2	11.8	4.4	0.2	
		남 자	1,613	6.4	21.6	34.2	21.7	11.2	4.8	0.2
		여 자	1,520	6.7	19.8	34.2	22.7	12.4	4.0	0.2
연령	만 15 ~ 18 세		503	4.5	17.1	36.2	23.0	14.3	4.4	0.5
	만 19 ~ 29 세		1,199	5.5	22.6	33.0	21.1	13.9	3.9	0.1
	만 30 ~ 39 세		1,431	7.9	20.3	34.6	22.8	9.3	4.9	0.2
지역	서울		560	10.7	23.5	32.2	15.3	10.7	7.5	0.1
	인천 / 경기		685	5.6	18.8	37.1	23.1	11.6	3.9	0.0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6.0	15.4	36.6	22.3	14.3	5.1	0.2
	광주/전라/제주		449	5.0	28.1	31.5	18.1	12.5	4.2	0.5
	부산/울산/경남		495	5.8	21.2	29.2	26.6	13.7	2.9	0.6
	대구 / 경북		467	3.8	20.5	35.9	31.3	7.2	1.4	0.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4.3	16.9	36.6	22.7	14.4	4.5	0.6
	대학생/대학원생		447	7.0	18.6	33.6	22.8	13.1	5.0	0.0
	고 졸 이 하		623	8.8	18.8	34.9	25.1	10.8	1.4	0.2
	대 졸 이 상		1,571	6.0	23.3	33.5	20.6	11.0	5.5	0.2
주거 형태	동 거		1,898	6.2	20.6	35.0	21.3	12.7	4.0	0.2
	비 동 거 / 독 립		1,235	7.0	20.9	33.0	23.4	10.3	5.1	0.2

133) 선호하는 가치_3) 결과 중시 VS 과정 중시

- 결과와 과정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조사 결과 결과를 중시한다는 응답이 51.2%(①+②+③)로 나타나 과정을 중시한다는 응답(22.1%: ⑤+⑥+⑦) 대비 높게 나타남
- 전년 대비 결과를 중시한다는 응답이 0.5%p 하락하였고 과정을 중시한다는 응답은 1.5%p 상승함
- 성별에 따른 특징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연령별로 만19-29세는 결과를 중시한다는 응답(53.0%)이 비교적 높고 만 15-18세는 과정을 중시한다는 응답(24.8%)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지역 거주자는 결과를 중시한다는 응답이 54.6%로 타 지역 대비 높고 반대로 서울 지역 거주자는 과정을 중시한다는 응답이 26.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임
- 학력별로는 전반적으로 연령대별 특성에 수렴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학교를 졸업한 성인 중에서 고졸이하와 대졸이상 간 큰 차이가 없음

표 II-133 선호하는 가치_3) 결과 중시 VS 과정 중시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 결과					과정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16	2,534	9.7	21.1	22.8	25.3	14.5	5.4	1.2
2017	2,714	8.7	22.9	20.1	24.7	12.0	9.0	2.6
2018	3,133	4.0	17.4	29.8	26.7	17.6	4.3	0.2

표 II-133-1 선호하는 가치_3) 결과 중시 VS 과정 중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결과				과정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 체			3,133	4.0	17.4	29.8	26.7	17.6	4.3	0.2
성별	남 자	1,613	4.9	16.5	30.4	27.2	16.4	4.3	0.3	
	여 자	1,520	3.0	18.3	29.2	26.1	18.9	4.3	0.1	
연령	만 1 5 ~ 1 8 세		503	2.4	20.5	26.0	26.2	17.3	7.0	0.5
	만 1 9 ~ 2 9 세		1,199	4.7	16.9	31.4	25.3	16.6	4.8	0.2
	만 3 0 ~ 3 9 세		1,431	3.9	16.8	29.7	28.0	18.4	3.1	0.1
지역	서 울		560	4.5	17.9	31.1	20.3	21.8	4.4	0.1
	인 천 / 경 기		685	3.4	14.2	34.3	25.9	18.3	3.9	0.1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5.1	15.0	23.0	33.1	18.5	5.1	0.3
	광 주 / 전 라 / 제 주		449	1.9	23.5	27.6	22.7	17.1	6.6	0.6
	부 산 / 울 산 / 경 남		495	5.7	22.2	26.7	28.7	13.4	2.9	0.4
	대 구 / 경 북		467	3.1	16.2	29.6	35.1	11.5	4.3	0.2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2.2	20.3	26.3	26.1	17.3	7.1	0.6
	대학생/대학원생		447	4.3	16.1	34.4	25.1	14.0	5.8	0.4
	고 졸 이 하		623	3.7	16.2	31.8	28.5	17.0	2.4	0.3
	대 졸 이 상		1,571	4.5	17.5	28.5	26.6	19.0	3.9	0.0
주거 형태	동 거		1,898	3.2	18.2	30.7	26.3	16.4	4.9	0.3
	비 동 거 / 독 립		1,235	5.2	16.1	28.6	27.2	19.3	3.5	0.1

134) 선호하는 가치_4) 개인 중시 VS 집단 중시

- 개인과 집단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조사 결과 개인을 중시한다는 응답이 38.5%(①+②+③)로 나타나 집단을 중시한다는 응답(25.0%: ⑤+⑥+⑦) 대비 높게 나타남
- 전년 대비 개인을 중시한다는 응답이 0.2%p 상승하였고 집단을 중시한다는 응답은 0.2%p 하락함
- 성별에 따른 특징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연령별로 만15-18세는 개인을 중시한다는 응답(44.3%)이 비교적 높고 만 30-39세는 집단을 중시한다는 응답(25.8%)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역 거주자는 개인을 중시한다는 응답이 51.8%로 타 지역 대비 높고 반대로 인천/경기 지역 거주자는 집단을 중시한다는 응답이 28.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임
- 학력별로는 전반적으로 연령대별 특성에 수렴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학교를 졸업한 성인 중 대졸이상은 개인을 중시(39.8%)한다는 응답이, 고졸이하는 집단을 중시한다는 응답(29.0%)이 각각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34 선호하는 가치_4) 개인 중시 VS 집단 중시 연도별 차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 개인 집단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16	2,534	6.3	13.0	22.1	37.4	14.6	5.6	1.0
2017	2,714	4.0	14.0	20.3	36.5	13.3	9.5	2.4
2018	3,133	1.8	12.2	24.5	36.5	17.7	6.1	1.2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개인				집단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 체			3,133	1.8	12.2	24.5	36.5	17.7	6.1	1.2
성별	남	자	1,613	1.1	12.3	24.9	37.2	17.8	5.7	1.2
	여	자	1,520	2.7	12.2	24.1	35.7	17.6	6.5	1.1
연령	만 1 5 ~ 1 8 세		503	2.2	16.1	26.0	35.1	12.9	6.1	1.5
	만 1 9 ~ 2 9 세		1,199	1.4	11.2	24.6	37.2	18.4	6.1	1.1
	만 3 0 ~ 3 9 세		1,431	2.1	12.0	24.0	36.2	18.6	6.1	1.1
지역	서 울		560	1.8	15.2	29.8	24.7	18.8	7.8	1.8
	인 천 / 경 기		685	1.1	9.8	22.9	37.7	19.7	7.2	1.6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3.2	7.0	17.9	45.8	19.4	6.4	0.3
	광주/전라/제주		449	0.6	12.3	25.2	35.6	18.9	6.0	1.4
	부산/울산/경남		495	3.1	11.2	24.9	39.7	16.1	4.4	0.6
	대 구 / 경 북		467	2.0	23.2	26.6	40.1	7.2	0.6	0.2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2.2	16.0	26.5	35.1	12.6	6.2	1.3
	대학생/대학원생		447	1.7	9.0	27.7	36.9	18.1	6.3	0.3
	고 졸 이 하		623	2.2	9.5	20.1	39.2	19.7	7.6	1.7
	대 졸 이 상		1,571	1.7	13.4	24.7	35.5	18.2	5.4	1.1
주거 형태	동 거		1,898	1.7	12.7	25.5	35.8	16.7	6.4	1.2
	비 동 거 / 독 립		1,235	2.0	11.6	23.0	37.4	19.2	5.7	1.1

135)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 청년들은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으로 ‘재산·경제력’(36.5%)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화목한 가정’(17.6%), ‘건강’(1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재산·경제력’(+8.7%p), ‘직업·직장’(+4.5%p) 응답에 대한 결과는 상승한 반면 ‘화목한 가정’(-8.8%p), ‘건강’(-3.2%p)은 하락함
- 성별로 남자는 ‘재산·경제력’(40.0%), 여자는 ‘화목한 가정’(20.5%)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만19-29세와 만30-39세 등 성인들은 ‘재산·경제력’(만19-29세 37.6%, 만30-39세 37.2%)을 중시하고 특히 만30-39세는 ‘화목한 가정’(22.7%)도 중시하는 데 반해 만15-18세 청소년들은 ‘친구·대인관계’(11.7%)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임
- 학력별로는 전반적으로 연령대별 결과에 수렴하는 결과를 보이거나 이미 학교를 졸업한 성인들의 경우 고졸이하는 ‘재산·경제력’(42.0%)을, 대졸 이상은 ‘직업·직장’(11.4%)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음

표 II-135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재산· 경제력	화목한 가정	자아 성취	건강	감사 긍정적 태도	종교 생활	직업· 직장	연인 (이성 관계 등)	친구· 대인 관계	꿈· 목표 의식	기타
2016	2,534	24.3	27.1	12.3	8.0	4.9	0.6	11.4	1.4	5.0	4.9	0.0
2017	2,714	27.8	26.4	10.1	14.2	6.4	0.7	4.5	0.7	4.3	4.7	0.0
2018	3,133	36.5	17.6	10.4	11.0	4.9	0.6	9.0	1.5	5.3	3.3	0.0

표 II-135-1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재산 경제력	화목한 가정	자아 성취	건강	감사 긍정적 태도	종교 생활	직업 직장	연인 (이성 관계 등)	친구 대인 관계	꿈·목 표 의식	기타
전	체	3,133	36.5	17.6	10.4	11.0	4.9	0.6	9.0	1.5	5.3	3.3	0.0
	남	1,613	40.0	15.0	10.2	9.3	4.2	0.5	10.5	1.4	6.1	3.0	0.0
	여	1,520	32.7	20.5	10.6	13.0	5.7	0.7	7.3	1.6	4.5	3.5	0.0
연령	만 15 ~ 18 세	503	31.4	13.1	12.7	9.3	8.5	0.4	5.7	1.3	11.7	5.8	0.0
	만 19 ~ 29 세	1,199	37.6	13.0	11.8	10.3	4.0	0.8	10.9	1.8	6.0	3.8	0.0
	만 30 ~ 39 세	1,431	37.2	22.7	8.5	12.2	4.5	0.4	8.4	1.3	2.8	2.0	0.0
지역	서울	560	38.5	13.9	7.2	12.3	5.5	0.7	14.2	0.9	3.6	3.1	0.0
	인천 / 경기	685	40.5	17.8	12.9	10.0	4.3	0.7	7.0	1.5	3.5	1.6	0.0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24.9	20.0	13.8	13.1	5.5	0.4	7.3	0.4	6.1	8.5	0.0
	광주/전라/제주	449	33.7	21.6	6.8	10.8	5.4	0.5	6.5	1.7	11.7	1.3	0.0
	부산/울산/경남	495	26.1	19.7	11.3	11.5	5.8	0.5	10.9	3.5	7.5	3.1	0.0
	대구 / 경북	467	55.3	13.3	6.2	7.9	2.4	0.3	6.3	0.9	3.8	3.7	0.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31.8	13.0	13.0	9.0	8.5	0.4	5.3	1.3	11.8	5.9	0.0
	대학생/대학원생	447	36.3	13.8	12.2	10.0	2.4	1.0	8.6	1.5	7.5	6.8	0.0
	고 졸 이 하	623	42.0	19.2	9.0	11.7	4.7	0.4	6.0	1.5	3.2	2.2	0.0
	대 졸 이 상	1,571	35.7	19.4	9.6	11.7	4.7	0.5	11.4	1.6	3.7	1.8	0.0
주거 형태	동 거	1,898	36.7	12.1	11.8	10.1	5.4	0.6	9.6	2.1	7.1	4.5	0.0
	비 동 거 / 독 립	1,235	36.2	25.6	8.3	12.3	4.1	0.5	8.1	0.6	2.8	1.4	0.0

136)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

- 스스로 현재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청년들의 41.0%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20.1%) 대비 높게 나타남
- 전년 대비 ‘그렇다’는 응답이 0.2%p 상승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0.6%p 하락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전년과 유사한 결과 흐름을 보임
- 성별로 여자의 ‘그렇다’는 응답이 43.2%로 나타나 남자(39.1%) 대비 높음
- 연령별로 만30-39세의 ‘그렇다’는 응답이 43.9%로 타 연령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의 ‘그렇다’는 응답이 59.4%로 타 지역 대비 비교적 높은 반면 대구/경북 지역의 ‘그렇다’는 응답은 27.5%로 낮게 조사됨
- 학력별로 대졸 이상 응답자의 ‘그렇다’ 응답 비율이 46.1%로 비교적 높음
- 주거 형태별로 원 가구와 비동거/독립한 청년들의 ‘그렇다’ 응답 비율이 44.5%로 나타나 동거중인 청년의 응답 비율(38.6%) 대비 높게 나타남

표 II-136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3.2	17.7	44.6	32.3	2.1
2017	2,714	3.2	17.5	38.6	35.4	5.4
2018	3,133	2.9	17.2	39.0	38.9	2.1

표 II-136-1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133	2.9	17.2	39.0	38.9	2.1
성별	남 자	1,613	3.1	18.6	39.2	37.0	2.1
	여 자	1,520	2.6	15.6	38.7	41.1	2.1
연령	만 15 ~ 18 세	503	4.3	16.4	39.2	37.3	2.9
	만 19 ~ 29 세	1,199	3.2	19.1	40.0	35.8	2.0
	만 30 ~ 39 세	1,431	2.2	15.8	38.1	42.0	1.9
지역	서 울	560	1.2	17.6	38.9	42.1	0.1
	인 천 / 경 기	685	2.3	20.6	38.5	37.8	0.8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2.8	13.4	39.1	42.7	2.0
	광주/전라/제주	449	0.3	6.9	33.4	51.2	8.2
	부산/울산/경남	495	4.4	17.4	41.5	32.8	3.9
	대 구 / 경 북	467	8.9	21.2	42.4	26.2	1.3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4.4	16.1	39.3	37.5	2.8
	대학생/대학원생	447	1.5	17.9	44.7	34.2	1.7
	고 졸 이 하	623	4.4	25.9	36.3	32.1	1.2
	대 졸 이 상	1,571	2.3	13.6	38.1	43.7	2.4
주거 형태	동 거	1,898	3.4	18.2	39.8	36.3	2.3
	비 동 거 / 독 립	1,235	2.1	15.6	37.8	42.7	1.8

137)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 존재 여부

-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응답 비율은 92.1%로 나타났으며 평균 친구 수는 청년 1인당 4.7명이었음
- 친구가 있다는 응답 비율은 전년(96.1%) 대비 4.0%p 하락하였고 평균 친구 수 역시 0.3명 하락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여자(93.0%)가 남자(91.3%)보다 친구가 있는 비율이 높은 반면 1인당 친구 수는 남자가 소폭 많음(남자 4.8명, 여자 4.6명)
- 연령별 친구가 있는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고, 1인당 친구 수는 만19-29세(5.0명)가 타 연령 대비 많게 나타남
- 지역별 대구/경북 거주자들은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친구 보유 비율(90.0%)을 보이고 있으나 1인당 친구 수(5.8명)는 가장 높게 조사됨
- 학력별 고졸이하의 친구 보유 비율이 86.3%로 가장 낮음

표 II-137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 존재 여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없다	있다	
			%	평균(명)
2016	2,534	8.7	91.3	3.2
2017	2,714	3.9	96.1	5.0
2018	3,133	7.9	92.1	4.7

표 II-137-1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 존재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	평균(명)
전	체	3,133	7.9	92.1	4.7
	자	1,613	8.7	91.3	4.8
성별	여	1,520	7.0	93.0	4.6
	만 15 ~ 18 세	503	8.5	91.5	4.8
연령	만 19 ~ 29 세	1,199	7.1	92.9	5.0
	만 30 ~ 39 세	1,431	8.4	91.6	4.4
지역	서울	560	7.4	92.6	4.8
	인천 / 경기	685	8.6	91.4	4.3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7.9	92.1	4.9
	광주/전라/제주	449	6.9	93.1	4.2
	부산/울산/경남	495	6.6	93.4	4.8
	대구 / 경북	467	10.0	90.0	5.8
	중 · 고 등 학 생	492	8.7	91.3	4.8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7	4.6	95.4	5.2
	고 졸 이 하	623	13.7	86.3	4.9
	대 졸 이 상	1,571	6.4	93.6	4.4
주거 형태	동 거	1,898	7.3	92.7	5.0
	비 동 거 / 독 립	1,235	8.8	91.2	4.2

138)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 청년들이 기성세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견 중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67.8%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7.5%: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대비 높게 나타남
- 전년 대비 동의 비율이 10.2%p 상승한 반면 비동의 비율이 5.7%p 하락함
- 성별로 남자의 동의 비율이 68.7%로 나타나 여자(66.8%) 대비 높음
- 연령별로 만30-39세의 동의 비율이 68.6%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의 동의 비율이 82.7%로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대졸이상의 동의 비율이 71.2%로 타 학력 대비 높음
- 주거 형태별로 비동거/독립 중인 청년들의 동의 비율이 69.6%로 동거 중 청년의 동의 비율(66.5%) 대비 높게 나타남

표 II-138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0.6	9.7	31.9	50.3	7.5
2017	2,714	1.1	12.1	29.1	49.9	7.7
2018	3,133	0.2	7.3	24.7	61.1	6.7

표 II-138-1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133	0.2	7.3	24.7	61.1	6.7
성별	남 자	1,613	0.4	7.3	23.6	61.5	7.2
	여 자	1,520	0.0	7.4	25.8	60.7	6.1
연령	만 15 ~ 18 세	503	0.0	7.5	24.7	62.6	5.2
	만 19 ~ 29 세	1,199	0.4	6.6	26.0	59.2	7.7
	만 30 ~ 39 세	1,431	0.1	7.8	23.5	62.3	6.3
지역	서 울	560	0.0	9.6	19.0	65.5	5.8
	인 천 / 경 기	685	0.0	7.5	22.5	63.2	6.8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0.2	6.5	36.4	51.6	5.3
	광주/전라/제주	449	0.0	3.5	13.7	71.9	10.8
	부산/울산/경남	495	1.3	10.5	33.9	49.2	5.2
	대 구 / 경 북	467	0.1	2.2	24.7	65.1	7.8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0.0	7.6	25.2	62.0	5.2
	대학생/대학원생	447	0.0	6.6	23.7	62.3	7.4
	고 졸 이 하	623	0.3	9.1	32.2	54.1	4.4
	대 졸 이 상	1,571	0.3	6.7	21.7	63.4	7.8
주거 형태	동 거	1,898	0.3	8.1	25.1	59.5	7.0
	비 동 거 / 독 립	1,235	0.1	6.2	24.1	63.4	6.2

139)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 청년들이 기성세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견 중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34.5%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24.7%: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대비 높게 나타남
- 전년 대비 동의 비율이 12.0%p 상승한 반면 비동의 비율이 11.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진 것으로 파악됨
- 성별에 따른 특징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연령별로 만19-29세의 동의 비율이 38.0%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대구/경북 거주자들의 동의 비율이 46.4%로 타 지역 거주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대졸이상의 동의 비율이 37.3%로 타 학력 대비 높음

표 II-139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2.4	26.5	42.7	25.6	2.8
2017	2,714	3.8	32.3	41.5	20.8	1.7
2018	3,133	1.5	23.2	40.9	29.4	5.1

표 II-139-1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133	1.5	23.2	40.9	29.4	5.1
	자	1,613	1.7	22.1	41.7	29.6	5.0
성별	여	1,520	1.3	24.3	40.0	29.1	5.2
	만 15 ~ 18 세	503	2.2	22.9	44.8	26.5	3.5
연령	만 19 ~ 29 세	1,199	1.4	21.2	39.4	30.7	7.3
	만 30 ~ 39 세	1,431	1.4	24.9	40.9	29.1	3.7
지역	서울	560	0.7	28.9	38.9	27.9	3.6
	인천 / 경기	685	1.7	26.0	41.7	25.8	4.9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1.8	17.2	37.5	36.4	7.1
	광주/전라/제주	449	0.4	17.4	41.1	31.0	10.1
	부산/울산/경남	495	3.7	24.9	45.3	23.7	2.3
	대구 / 경북	467	0.2	13.1	40.4	41.4	5.0
	중 · 고 등 학 생	492	2.2	22.5	45.1	26.9	3.4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7	1.5	20.9	41.7	29.0	6.9
	고 졸 이 하	623	0.7	27.3	42.6	26.0	3.3
	대 졸 이 상	1,571	1.7	22.3	38.7	31.6	5.7
주거 형태	동 거	1,898	1.7	22.0	41.7	29.1	5.4
	비 동 거 / 독 립	1,235	1.2	24.8	39.7	29.7	4.6

140)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 청년들이 기성세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견 중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31.6%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25.8%: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대비 높게 나타남
- 전년 대비 동의 비율이 10.1%p 상승한 반면 비동의 비율이 9.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진 것으로 파악됨
- 성별에 따른 특징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연령별로 만19-29세의 동의 비율이 34.4%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 지역 거주자들의 동의 비율이 45.0%로 타 지역 거주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대졸 이상의 동의 비율이 34.0%로 타 학력 대비 높음

표 II-140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1.8	29.8	39.0	26.1	3.3
2017	2,714	3.1	32.2	43.3	18.7	2.8
2018	3,133	1.9	23.9	42.6	27.9	3.7

표 II-140-1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_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133	1.9	23.9	42.6	27.9	3.7
성별	남 자	1,613	2.1	21.5	43.6	29.1	3.7
	여 자	1,520	1.7	26.5	41.5	26.6	3.6
연령	만 1 5 ~ 1 8 세	503	0.7	24.4	49.9	22.4	2.7
	만 1 9 ~ 2 9 세	1,199	1.9	23.3	40.4	30.5	3.9
	만 3 0 ~ 3 9 세	1,431	2.3	24.2	42.3	27.4	3.8
지역	서 울	560	2.4	26.0	44.2	24.1	3.3
	인 천 / 경 기	685	2.4	22.3	41.5	29.9	3.8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2.0	21.3	31.8	38.9	6.1
	광 주/전라/제주	449	2.2	25.3	43.2	26.8	2.6
	부 산/울산/경남	495	0.7	30.8	47.5	20.4	0.7
	대 구 / 경 북	467	0.8	15.9	50.5	26.4	6.5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0.7	24.0	50.1	22.6	2.6
	대학생/대학원생	447	1.4	22.4	43.5	29.0	3.8
	고 졸 이 하	623	2.5	26.1	42.2	26.5	2.6
	대 졸 이 상	1,571	2.1	23.5	40.4	29.6	4.4
주거 형태	동 거	1,898	1.2	23.2	44.1	27.9	3.5
	비 동 거 / 독 립	1,235	2.9	24.9	40.5	27.9	3.9

141) 노인에 대한 생각_1)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 청년들이 노인 세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견 중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48.6%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16.1%: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대비 높게 나타남
- 전년 대비 동의 비율이 3.9%p 상승한 반면 비동의 비율이 2.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강해진 것으로 파악됨
- 성별에 따른 특징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연령별로 만30-39세의 동의 비율이 49.8%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 거주자들의 동의 비율이 71.4%로 타 지역 거주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대졸이상의 동의 비율이 49.8%로 타 학력 대비 높음

표 II-141 노인에 대한 생각_1)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2.2	18.5	41.0	33.4	5.0
2017	2,714	2.7	15.7	36.9	40.3	4.4
2018	3,133	0.8	15.3	35.4	43.6	5.0

표 II-141-1 노인에 대한 생각_1)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133	0.8	15.3	35.4	43.6	5.0
	자	1,613	1.0	15.3	35.1	43.1	5.5
성별	여	1,520	0.5	15.3	35.7	44.1	4.4
	만 15 ~ 18 세	503	0.5	15.9	36.8	42.2	4.6
연령	만 19 ~ 29 세	1,199	0.8	16.5	35.1	43.4	4.2
	만 30 ~ 39 세	1,431	0.9	14.1	35.2	44.1	5.7
지역	서울	560	0.5	18.0	34.8	43.9	2.8
	인천 / 경기	685	1.2	16.7	34.6	42.2	5.3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0.0	12.7	49.0	32.4	5.9
	광주/전라/제주	449	0.4	10.2	17.9	61.8	9.6
	부산/울산/경남	495	1.6	20.1	38.9	35.8	3.6
	대구 / 경북	467	0.1	6.5	33.4	55.8	4.2
	중 · 고 등 학 생	492	0.5	16.3	36.8	41.9	4.6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7	0.7	16.8	34.1	42.9	5.5
	고 졸 이 하	623	0.3	17.5	35.3	42.4	4.4
	대 졸 이 상	1,571	1.1	13.6	35.5	44.7	5.1
주거 형태	동 거	1,898	0.9	17.2	34.6	42.1	5.3
	비 동 거 / 독 립	1,235	0.7	12.5	36.6	45.7	4.5

142) 노인에 대한 생각_2)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 청년들이 노인 세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견 중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34.1%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21.3%: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대비 높게 나타남
- 전년 대비 동의 비율이 3.2%p 하락한 반면 비동의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성별에 따른 특징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연령별로 만19-29세의 동의 비율이 31.5%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은 반면 비동의 비율은 23.1%로 가장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 거주자들의 동의 비율이 45.0%로 타 지역 거주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대졸이상의 동의 비율이 36.2%로 타 학력 대비 높음

표 II-142 노인에 대한 생각_2)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1.1	20.0	38.5	36.7	3.7
2017	2,714	1.4	19.9	41.3	33.7	3.6
2018	3,133	0.7	20.6	44.6	31.8	2.3

표 II-142-1 노인에 대한 생각_2)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133	0.7	20.6	44.6	31.8	2.3
성별	남 자	1,613	0.7	19.7	44.5	32.4	2.7
	여 자	1,520	0.6	21.6	44.7	31.1	1.9
연령	만 15 ~ 18 세	503	0.4	17.6	46.4	32.1	3.5
	만 19 ~ 29 세	1,199	1.0	22.1	45.5	29.9	1.6
	만 30 ~ 39 세	1,431	0.5	20.2	43.4	33.3	2.6
지역	서 울	560	0.3	23.9	48.8	25.5	1.4
	인 천 / 경 기	685	0.1	21.3	40.7	35.4	2.5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0.0	16.9	48.9	31.8	2.4
	광주/전라/제주	449	1.7	15.6	37.8	39.7	5.3
	부 산/울 산/경 남	495	2.5	21.3	46.1	28.7	1.3
	대 구 / 경 북	467	0.2	20.7	47.6	29.5	2.0
	중 · 고 등 학 생	492	0.4	17.7	46.1	32.2	3.6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7	0.5	18.1	48.8	30.4	2.1
	고 졸 이 하	623	0.5	22.2	47.9	29.0	0.4
	대 졸 이 상	1,571	0.9	21.5	41.4	33.4	2.8
주거 형태	동 거	1,898	0.7	21.1	45.3	30.5	2.4
	비 동 거 / 독 립	1,235	0.6	19.9	43.7	33.8	2.1

143) 노인에 대한 생각_3)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 청년들이 노인 세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견 중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47.7%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15.9%: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대비 높게 나타남
- 전년 대비 동의 비율이 13.3%p 상승한 반면 비동의 비율이 5.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강해진 것으로 파악됨
- 성별, 연령별에 따른 특징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 거주자들의 동의 비율이 59.1%로 타 지역 거주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고졸이하의 동의 비율이 40.8%로 타 학력 대비 낮음

표 II-143 노인에 대한 생각_3)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1.3	21.5	42.5	31.1	3.6
2017	2,714	2.4	19.0	44.2	30.8	3.6
2018	3,133	1.3	14.6	36.4	41.0	6.7

표 II-143-1 노인에 대한 생각_3)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133	1.3	14.6	36.4	41.0	6.7
	자	1,613	1.1	14.6	36.8	41.3	6.2
성별	여	1,520	1.6	14.5	35.9	40.8	7.3
	만 15 ~ 18 세	503	0.7	12.2	38.0	40.5	8.6
연령	만 19 ~ 29 세	1,199	1.8	15.0	35.0	40.3	7.9
	만 30 ~ 39 세	1,431	1.0	14.9	37.0	41.9	5.2
지역	서울	560	0.6	14.3	39.8	41.8	3.4
	인천 / 경기	685	1.9	15.8	31.5	42.2	8.6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1.2	10.2	31.4	52.2	5.1
	광주/전라/제주	449	0.0	12.6	28.3	47.6	11.5
	부산/울산/경남	495	2.4	22.9	46.3	25.0	3.5
	대구 / 경북	467	0.6	6.0	45.9	37.3	10.1
	중 · 고 등 학 생	492	0.8	12.3	38.3	40.0	8.6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7	1.6	18.0	31.3	42.6	6.5
	고 졸 이 하	623	1.6	18.1	39.6	36.1	4.7
	대 졸 이 상	1,571	1.2	12.6	36.1	42.9	7.1
주거 형태	동 거	1,898	1.0	14.5	36.7	39.7	8.1
	비 동 거 / 독 립	1,235	1.7	14.6	35.9	43.0	4.8

144) 노인에 대한 생각_4)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 청년들이 노인 세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견 중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35.2%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15.5%: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대비 높게 나타남
- 전년 대비 동의 비율이 2.4%p 상승한 반면 비동의 비율이 4.6%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진 것으로 파악됨
- 성별, 연령별에 따른 특징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지역 거주자들의 동의 비율이 40.2%로 타 지역 거주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고졸이하의 동의 비율이 32.9%로 타 학력 대비 낮음

표 II-144 노인에 대한 생각_4)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2,534	4.0	23.3	43.5	24.6	4.5
2017	2,714	2.8	17.3	47.1	27.2	5.6
2018	3,133	0.9	14.6	49.2	31.9	3.3

표 II-144-1 노인에 대한 생각_4)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133	0.9	14.6	49.2	31.9	3.3
성별	남 자	1,613	1.0	13.6	51.1	31.5	2.8
	여 자	1,520	0.8	15.7	47.2	32.5	3.9
연령	만 15 ~ 18 세	503	0.8	13.5	49.8	34.0	1.8
	만 19 ~ 29 세	1,199	0.9	15.7	48.0	31.6	3.8
	만 30 ~ 39 세	1,431	1.0	14.0	50.1	31.6	3.3
지역	서 울	560	0.6	13.5	47.6	34.9	3.4
	인 천 / 경 기	685	0.7	10.4	48.6	36.0	4.2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1.1	14.2	52.9	26.9	5.0
	광주/전라/제주	449	1.1	26.6	39.8	31.1	1.4
	부산/울산/경남	495	1.9	21.6	52.8	21.5	2.2
	대 구 / 경 북	467	0.4	7.6	54.3	36.5	1.3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0.8	13.7	49.3	34.3	1.9
	대학생/대학원생	447	0.9	13.5	51.0	30.4	4.2
	고 졸 이 하	623	0.3	16.3	50.4	28.3	4.6
	대 졸 이 상	1,571	1.2	14.5	48.2	33.3	2.8
주거 형태	동 거	1,898	0.9	14.4	48.7	32.3	3.6
	비 동 거 / 독 립	1,235	1.0	14.8	50.0	31.4	2.8

145) 의견 표명 행동_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 청년들의 의견 표명 행동별 참여 의향 중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에 대한 참여 의향 응답 결과, 38.1%가 ‘참여 한다’(아마도+확실히)고 응답하여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33.1%: 아마도+절대로) 대비 높게 나타남
- 전년 대비 참여 의향 비율이 6.5%p 상승한 반면 비의향 비율이 7.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참여 의향이 강해진 것으로 파악됨
- 성별로 남자의 참여 의향이 39.4%로 여자(36.4%) 대비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참여 의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 거주자들의 참여 의향 비율이 44.3%로 타 지역 거주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전반적으로 연령별 결과에 수렴하고 있으며 이미 학교를 졸업한 성인 중에서는 대졸이상의 참여 의향(41.5%)이 비교적 높게 조사됨

표 II-145 의견 표명 행동_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2016	2,534	14.3	24.4	27.8	30.5	3.0
2017	2,714	12.9	27.5	28.0	28.1	3.5
2018	3,133	9.1	24.0	28.8	35.1	3.0

표 II-145-1 의견 표명 행동_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전 체		3,133	9.1	24.0	28.8	35.1	3.0
성별	남 자	1,613	9.1	22.9	28.6	36.4	3.0
	여 자	1,520	9.2	25.3	29.1	33.5	2.9
연령	만 1 5 ~ 1 8 세	503	8.2	20.2	28.9	39.3	3.3
	만 1 9 ~ 2 9 세	1,199	9.2	21.1	31.4	34.3	4.0
	만 3 0 ~ 3 9 세	1,431	9.3	27.6	26.7	34.4	2.0
지역	서 울	560	7.9	22.1	27.7	42.0	0.3
	인 천 / 경 기	685	8.2	21.4	29.8	36.4	4.2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8.3	34.3	32.4	22.4	2.6
	광주/전라/제주	449	10.8	12.0	32.9	40.2	4.1
	부산/울산/경남	495	13.4	28.9	26.4	29.8	1.6
	대 구 / 경 북	467	7.5	28.0	22.2	36.5	5.9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8.1	20.5	29.3	38.7	3.4
	대학생/대학원생	447	7.4	18.1	32.6	37.0	4.8
	고 졸 이 하	623	13.0	35.2	28.1	22.4	1.3
	대 졸 이 상	1,571	8.3	22.4	27.7	38.6	2.9
주거 형태	동 거	1,898	8.4	20.4	30.5	36.7	3.9
	비 동 거 / 독 립	1,235	10.1	29.3	26.5	32.6	1.5

146) 의견 표명 행동_2)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 팔찌, 리본 등을 착용/부착

- 청년들의 의견 표명 행동별 참여 의향 중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 팔찌, 리본 등을 착용/부착하는 행위에 대한 참여 의향 응답 결과, 36.5%가 ‘참여한다’(아마도+확실히)고 응답하여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33.6%: 아마도+절대로)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전년 대비 참여 의향 비율이 6.5%p 상승한 반면 비의향 비율이 7.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참여 의향이 강해진 것으로 파악됨
- 성별에 따른 특징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연령별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참여 의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 거주자들의 참여 의향 비율이 51.7%로 타 지역 거주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전반적으로 연령별 결과에 수렴하고 있으며 이미 학교를 졸업한 성인 중에서는 대졸이상의 참여 의향(39.6%)이 비교적 높게 조사됨

표 II-146 의견 표명 행동_2)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 팔찌, 리본 등을 착용/부착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2016	2,534	16.5	25.2	25.3	28.4	4.6
2017	2,714	13.0	28.0	29.0	25.9	4.1
2018	3,133	13.4	20.2	29.9	32.4	4.1

표 II-146-1 의견 표명 행동_2)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 팔찌, 리본 등을 착용/부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전 체		3,133	13.4	20.2	29.9	32.4	4.1
성별	남 자	1,613	13.7	18.5	31.1	33.3	3.6
	여 자	1,520	13.2	22.2	28.6	31.4	4.7
연령	만 1 5 ~ 1 8 세	503	13.6	18.9	27.8	35.5	4.2
	만 1 9 ~ 2 9 세	1,199	12.9	18.5	30.3	34.3	4.0
	만 3 0 ~ 3 9 세	1,431	13.8	22.0	30.2	29.8	4.2
지역	서 울	560	10.7	19.3	31.7	33.9	4.4
	인 천 / 경 기	685	11.9	20.9	29.8	32.6	4.8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19.6	27.8	31.2	15.6	5.8
	광주/전라/제주	449	7.8	8.4	32.1	48.8	2.9
	부산/울산/경남	495	16.8	20.0	25.7	34.0	3.5
	대 구 / 경 북	467	16.5	22.3	28.1	32.2	0.9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13.4	19.2	27.7	35.4	4.3
	대학생/대학원생	447	11.7	15.6	29.8	38.2	4.6
	고 졸 이 하	623	18.2	25.9	34.2	20.4	1.3
	대 졸 이 상	1,571	12.0	19.7	28.7	34.5	5.1
주거 형태	동 거	1,898	12.2	17.3	29.7	35.6	5.1
	비 동 거 / 독 립	1,235	15.2	24.5	30.1	27.6	2.6

147) 의견 표명 행동_3)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 청년들의 의견 표명 행동별 참여 의향 중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하기
에 대한 의향 응답 결과, 35.4%가 ‘참여 한다’(아마도+확실히)고 응답하여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34.9%: 아마도+절대로)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전년 대비 참여 의향 비율이 3.1%p 하락한 반면 비의향 비율이 1.8%p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참여 의향이 약해진 것으로 파악됨
- 성별에 따른 특징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연령별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참여 의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 거주자들의 참여 의향 비율이 48.4%로 타
지역 거주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전반적으로 연령별 결과에 수렴하고 있으며 이미 학교를 졸업한
성인 중에서는 대졸이상의 참여 의향(35.5%)이 비교적 높게 조사됨

표 II-147 의견 표명 행동_3)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2016	2,534	14.9	19.9	31.0	28.2	6.0
2017	2,714	10.4	22.7	28.4	32.9	5.6
2018	3,133	12.8	22.1	29.6	31.1	4.3

표 II-147-1 의견 표명 행동_3)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전 체		3,133	12.8	22.1	29.6	31.1	4.3
성별	남 자	1,613	12.6	21.1	30.4	31.5	4.4
	여 자	1,520	13.1	23.1	28.8	30.6	4.3
연령	만 1 5 ~ 1 8 세	503	10.6	19.2	28.0	37.8	4.4
	만 1 9 ~ 2 9 세	1,199	13.3	19.8	31.7	31.5	3.6
	만 3 0 ~ 3 9 세	1,431	13.1	24.8	28.4	28.7	4.9
지역	서 울	560	9.1	22.1	29.3	35.2	4.2
	인 천 / 경 기	685	9.6	21.6	31.0	33.2	4.5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17.0	32.0	29.8	16.5	4.7
	광주/전라/제주	449	11.0	13.0	27.6	47.3	1.1
	부산/울산/경남	495	17.6	18.8	26.3	30.1	7.2
	대 구 / 경 북	467	20.1	24.5	33.2	19.7	2.6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10.3	19.6	28.0	37.7	4.4
	대학생/대학원생	447	12.1	16.1	28.7	38.0	5.1
	고 졸 이 하	623	17.6	28.7	29.0	23.5	1.3
	대 졸 이 상	1,571	11.8	22.0	30.7	30.1	5.4
주거 형태	동 거	1,898	11.7	20.0	29.6	33.7	5.0
	비 동 거 / 독 립	1,235	14.5	25.2	29.6	27.3	3.4

148) 의견 표명 행동_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 청년들의 의견 표명 행동별 참여 의향 중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에 대한 의향 응답 결과, 21.8%가 ‘참여 한다’(아마도+확실히)고 응답하여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45.9%: 아마도+절대로) 대비 낮게 나타남
- 전년 대비 참여 의향 비율이 2.2%p 상승한 반면 비의향 비율이 5.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참여 의향이 강해진 것으로 파악됨
- 성별로 남자의 참여의향이 23.3%로 나타나 여자(20.1%) 대비 높음
- 연령별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참여 의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 인천/경기 지역 거주자들의 참여 의향 비율이 26.8%로 타 지역 거주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전반적으로 연령별 결과에 수렴하고 있으며 이미 학교를 졸업한 성인 중에서는 대졸이상의 참여 의향(22.2%)이 비교적 높게 조사됨

표 II-148 의견 표명 행동_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2016	2,534	24.4	33.5	29.5	11.2	1.5
2017	2,714	17.0	34.1	29.4	17.5	2.1
2018	3,133	18.3	27.6	32.4	20.0	1.8

표 II-148-1 의견 표명 행동_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전 체		3,133	18.3	27.6	32.4	20.0	1.8
성별	남 자	1,613	17.4	25.8	33.5	21.5	1.8
	여 자	1,520	19.2	29.6	31.1	18.3	1.8
연령	만 1 5 ~ 1 8 세	503	15.0	25.6	35.0	22.0	2.4
	만 1 9 ~ 2 9 세	1,199	17.5	26.8	33.2	20.7	1.8
	만 3 0 ~ 3 9 세	1,431	19.9	28.8	30.9	18.9	1.6
지역	서 울	560	12.1	26.7	35.6	24.1	1.4
	인 천 / 경 기	685	16.3	24.0	32.9	24.5	2.3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22.2	34.7	25.1	15.8	2.2
	광주/전라/제주	449	17.0	23.3	38.7	20.9	0.2
	부 산 / 울 산 / 경남	495	25.2	31.2	27.2	15.1	1.3
	대 구 / 경 북	467	23.3	30.1	35.4	8.7	2.5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14.6	25.9	35.0	22.1	2.5
	대학생/대학원생	447	16.3	22.3	34.5	24.5	2.5
	고 졸 이 하	623	26.3	32.1	26.9	13.9	0.8
	대 졸 이 상	1,571	16.6	27.9	33.2	20.5	1.7
주거 형태	동 거	1,898	16.0	25.6	33.7	22.6	2.0
	비 동 거 / 독 립	1,235	21.6	30.4	30.4	16.2	1.5

149) 의견 표명 행동_5) 항의 전화하기

- 청년들의 의견 표명 행동별 참여 의향 중 항의 전화하기에 대한 참여 의향 응답 결과, 17.1%가 ‘참여 한다’(아마도+확실히)고 응답하여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50.2%: 아마도+절대로) 대비 낮게 나타남
- 전년 대비 참여 의향 비율이 0.5%p 하락하였으나 비의향 비율은 이보다 큰 6.5%p의 하락폭을 보여 전반적으로 참여 의향이 강해진 것으로 파악됨
- 성별로 남자의 참여의향이 18.3%로 나타나 여자(15.9%) 대비 높음
- 연령에 따른 특징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지역별로 인천/경기 지역 거주자들의 참여 의향 비율이 23.8%로 타 지역 거주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 학력의 참여 의향이 11.4%로 나타나 타 학력 대비 비교적 낮은 의향을 보이고 있음

표 II-149 의견 표명 행동_5) 항의 전화하기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2017	2,714	22.2	34.5	25.7	14.8	2.8
2018	3,133	19.9	30.3	32.7	15.4	1.7

표 II-149-1 의견 표명 행동_5) 항의 전화하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전		체 3,133	19.9	30.3	32.7	15.4	1.7
성별	남 자	1,613	18.4	30.3	33.0	16.1	2.2
	여 자	1,520	21.6	30.2	32.3	14.8	1.1
연령	만 1 5 ~ 1 8 세	503	17.8	32.6	31.7	17.2	0.6
	만 1 9 ~ 2 9 세	1,199	18.4	29.9	34.2	15.5	2.1
	만 3 0 ~ 3 9 세	1,431	21.8	29.9	31.7	14.9	1.7
지역	서 울	560	14.7	30.3	38.1	16.0	0.9
	인 천 / 경 기	685	18.7	24.5	33.0	21.0	2.8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19.4	37.2	27.7	13.3	2.5
	광주/전라/제주	449	20.6	30.2	33.0	16.1	0.1
	부 산 / 울 산 / 경남	495	28.0	33.6	29.8	7.5	1.1
	대 구 / 경 북	467	22.9	34.6	31.2	10.0	1.4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17.7	32.4	31.9	17.4	0.6
	대학생/대학원생	447	17.6	26.9	36.5	15.6	3.4
	고 졸 이 하	623	27.6	33.9	27.2	10.9	0.5
	대 졸 이 상	1,571	18.2	29.3	33.9	16.7	2.0
주거 형태	동 거	1,898	17.3	31.0	32.9	16.8	1.9
	비 동 거 / 독 립	1,235	23.8	29.2	32.2	13.4	1.4

150) 정치적 효능감_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청년들이 인식하는 정치적 효능감 중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39.1%가 ‘그렇다’ (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25.2%: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대비 높게 나타남
- 전년 대비 동의 비율이 0.7%p 상승하였으나 비동의 비율 역시 5.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효능감 인식이 약해진 것으로 파악됨
- 성별로 남자의 동의 비율이 41.3%로 나타나 여자(36.7%) 대비 높음
- 연령별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동의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 거주자들의 동의 비율이 49.2%로 타 지역 거주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 결과는 연령별 결과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미 학교를 졸업한 성인 중에서는 대졸이상(48.8%)의 동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현재 원 가구로부터 비동거/독립 중인 청년들의 동의 비율(44.3%)이 동거 중 청년(35.5%) 대비 높음

표 II-150 정치적 효능감_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7	2,714	2.6	16.9	42.0	33.8	4.6
2018	3,133	4.4	20.8	35.8	37.4	1.7

표 II-150-1 정치적 효능감_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133	4.4	20.8	35.8	37.4	1.7
성별	남 자	1,613	4.2	19.8	34.7	39.0	2.3
	여 자	1,520	4.6	21.8	37.0	35.7	1.0
연령	만 15 ~ 18 세	503	8.1	28.5	39.1	24.1	0.2
	만 19 ~ 29 세	1,199	4.6	20.0	36.9	36.8	1.8
	만 30 ~ 39 세	1,431	3.0	19.1	33.9	42.0	2.0
지역	서 울	560	2.9	19.9	32.1	44.0	1.1
	인 천 / 경 기	685	3.4	18.5	36.3	39.0	2.8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9.9	29.3	31.6	28.6	0.6
	광주/전라/제주	449	1.4	16.1	42.9	39.0	0.7
	부산/울산/경남	495	7.7	25.6	39.1	26.4	1.2
	대 구 / 경 북	467	0.7	15.2	34.9	46.4	2.8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8.3	28.3	39.3	23.9	0.2
	대 학생/대 학원생	447	4.8	19.4	36.2	37.9	1.8
	고 졸 이 하	623	4.0	29.6	41.0	25.2	0.2
	대 졸 이 상	1,571	3.3	15.4	32.5	46.1	2.7
주거 형태	동 거	1,898	5.2	22.5	36.7	33.9	1.6
	비 동 거 / 독 립	1,235	3.2	18.1	34.4	42.5	1.8

151) 정치적 효능감_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 청년들이 인식하는 정치적 효능감 중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40.7%가 ‘그렇다’ (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19.1%: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대비 높게 나타남
- 전년 대비 동의 비율이 4.5%p 하락한 반면 비동의 비율이 5.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효능감 인식이 약해진 것으로 파악됨
- 성별로 남자의 동의 비율이 42.3%로 나타나 여자(38.9%) 대비 높음
- 연령별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동의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지역 거주자들의 동의 비율이 47.9%로 타 지역 거주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 결과는 연령별 결과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미 학교를 졸업한 성인 중에서는 대졸이상(44.8%)의 동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현재 원 가구로부터 비동거/독립 중인 청년들의 동의 비율(43.3%)이 동거 중 청년(38.9%) 대비 높음

표 II-151 정치적 효능감_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7	2,714	1.7	12.2	40.9	40.0	5.2
2018	3,133	3.8	15.3	40.3	38.0	2.7

표 II-151-1 정치적 효능감_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133	3.8	15.3	40.3	38.0	2.7
성별	남 자	1,613	3.8	14.0	39.9	39.4	2.9
	여 자	1,520	3.8	16.7	40.7	36.4	2.5
연령	만 1 5 ~ 1 8 세	503	4.4	16.9	43.2	33.0	2.5
	만 1 9 ~ 2 9 세	1,199	2.8	16.7	41.7	36.1	2.7
	만 3 0 ~ 3 9 세	1,431	4.4	13.6	38.2	41.1	2.7
지역	서 울	560	1.0	15.1	40.0	42.0	1.9
	인 천 / 경 기	685	1.6	13.8	36.7	46.0	1.9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13.4	20.3	34.5	29.3	2.4
	광주/전라/제주	449	1.4	8.7	53.7	29.4	6.7
	부산/울산/경남	495	6.7	20.2	39.6	30.9	2.6
	대 구 / 경 북	467	1.1	12.4	47.7	35.4	3.3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4.3	17.2	43.6	32.5	2.4
	대학생/대학원생	447	2.7	16.4	37.7	39.7	3.6
	고 졸 이 하	623	5.1	21.4	40.8	32.5	0.3
	대 졸 이 상	1,571	3.4	11.8	40.0	41.3	3.5
주거 형태	동 거	1,898	3.4	16.2	41.4	36.1	2.8
	비 동 거 / 독 립	1,235	4.3	13.8	38.6	40.7	2.6

152) 정치적 효능감_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청년들이 인식하는 정치적 효능감 중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31.0%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25.3%: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대비 높게 나타남
- 전년 대비 동의 비율이 2.0%p 하락한 반면 비동의 비율이 1.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효능감 인식이 약해진 것으로 파악됨
- 성별에 따른 특징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연령별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동의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 광주/전라/제주 지역 거주자들의 동의 비율이 42.7%로 타 지역 거주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 결과는 연령별 결과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미 학교를 졸업한 성인 중에서는 대졸 이상(36.7%)의 동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현재 원 가구로부터 비동거/독립 중인 청년들의 동의 비율(34.1%)이 동거 중 청년(29.0%) 대비 높음

표 II-152 정치적 효능감_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7	2,714	3.8	19.8	43.4	29.7	3.3
2018	3,133	4.7	20.6	43.7	27.3	3.7

표 II-152-1 정치적 효능감_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133	4.7	20.6	43.7	27.3	3.7
성별	남 자	1,613	4.6	19.5	43.9	27.8	4.1
	여 자	1,520	4.8	21.7	43.4	26.8	3.3
연령	만 15 ~ 18 세	503	6.4	22.3	48.3	21.5	1.5
	만 19 ~ 29 세	1,199	4.4	20.9	43.4	28.3	3.1
	만 30 ~ 39 세	1,431	4.5	19.8	42.5	28.3	4.9
지역	서울	560	1.3	23.8	44.4	24.2	6.2
	인천 / 경기	685	1.9	21.3	42.5	29.8	4.6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13.2	24.8	37.7	20.9	3.4
	광주/전라/제주	449	1.8	10.6	44.9	41.0	1.7
	부산/울산/경남	495	12.1	20.6	43.3	23.1	0.8
	대구 / 경북	467	0.9	15.8	54.1	26.4	2.7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6.3	22.7	48.8	20.7	1.6
	대학생/대학원생	447	4.1	18.9	45.1	29.2	2.7
	고 졸 이 하	623	5.5	27.5	44.3	21.6	1.1
	대 졸 이 상	1,571	4.1	17.7	41.5	30.9	5.8
주거 형태	동 거	1,898	4.6	21.6	44.8	25.9	3.1
	비 동 거 / 독 립	1,235	4.9	19.1	41.9	29.4	4.7

153)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경험 여부

- 청년들의 91.3%는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특징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연령별로는 근소하게 연령대가 낮음에 따라 따돌림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로 서울 지역 거주자들의 따돌림 경험 ‘있다’ 비율이 13.4%로 타 지역 거주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고졸이하 청년의 따돌림 경험 ‘있다’ 비율이 10.4%로 비교적 높음

표 II-153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전	체	3,133	91.3	8.7
	자	1,613	91.1	8.9
성별	남	1,520	91.5	8.5
	여			
연령	만 15 ~ 18 세	503	92.7	7.3
	만 19 ~ 29 세	1,199	91.3	8.7
	만 30 ~ 39 세	1,431	90.9	9.1
지역	서울	560	86.6	13.4
	인천 / 경기	685	88.5	11.5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95.9	4.1
	광주/전라/제주	449	96.6	3.4
	부산/울산/경남	495	96.2	3.8
	대구 / 경북	467	90.9	9.1
	충 / 고 등 학 생	492	92.7	7.3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7	92.2	7.8
	고 졸 이 하	623	89.6	10.4
	대 졸 이 상	1,571	91.4	8.6
주거	동 거	1,898	92.1	7.9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235	90.2	9.8

154) 평소 외출 정도

- 평소 외출 정도를 파악한 결과 청년들의 84.8%는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7.2%),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는 응답은 전년(77.4%) 대비 7.4%p 상승한 반면 그 외 대부분의 응답은 전년 대비 하락한 결과를 보임
- 성별로 남자의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는 응답 비율이 90.0%로 여자(78.6%) 대비 높게 나타남
- 연령대가 낮을수록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학력별로는 전반적으로 연령대별 결과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이미 학교를 졸업한 성인 중에서 대졸이상의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는 응답 비율(84.4%)이 고졸이하 대비 높게 나타남

표 II-154 평소 외출 정도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 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2017	2,321	77.4	4.2	5.2	8.8	1.6	2.5	0.1	0.0
2018	3,133	84.8	2.5	4.1	7.2	0.5	0.9	0.0	0.0

표 II-154-1 평소 외출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		체	3,133	84.8	2.5	4.1	7.2	0.5	0.9	0.0
성별	남	자	1,613	90.4	2.0	2.9	3.7	0.4	0.6	0.1
	여	자	1,520	78.6	3.0	5.4	11.1	0.6	1.2	0.0
연령	만 15 ~ 18 세		503	97.8	0.1	0.4	1.7	0.0	0.0	0.0
	만 19 ~ 29 세		1,199	85.3	4.0	3.7	5.5	0.5	0.9	0.1
	만 30 ~ 39 세		1,431	80.4	2.0	5.5	10.3	0.6	1.1	0.0
지역	서울		560	83.9	1.1	3.8	9.4	0.4	1.4	0.0
	인천 / 경기		685	85.2	3.0	3.2	7.5	0.2	0.7	0.0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83.0	2.5	5.2	7.7	0.3	1.0	0.4
	광주/전라/제주		449	84.2	3.6	7.1	4.5	0.2	0.5	0.0
	부산/울산/경남		495	85.1	3.3	3.3	6.2	1.3	0.6	0.0
	대구 / 경북		467	88.2	1.2	3.6	5.3	0.5	1.2	0.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492	98.2	0.0	0.4	1.3	0.0	0.0	0.0
	대학생/대학원생		447	87.4	7.5	1.7	2.4	0.4	0.7	0.0
	고 졸 이 하		623	74.7	1.9	6.5	15.2	0.4	1.4	0.0
	대 졸 이 상		1,571	84.4	1.8	4.9	7.2	0.7	1.0	0.1
주거 형태	동 거		1,898	89.8	3.1	2.7	3.6	0.2	0.5	0.1
	비 동 거 / 독 립		1,235	77.4	1.6	6.1	12.6	0.8	1.5	0.0

* 주) 보기: ①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②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③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④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⑥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⑦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⑧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155)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의 지속 기간 정도

- 평소 외출을 잘 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의 지속 기간을 확인한 결과 ‘3년 이상-5년 미만’이 25.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6개월 이상-1년 미만’(23.8%), ‘6개월 미만’(2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1년 이상-3년 미만’의 비율이 27.4%p 하락한 반면 그 외 모든 경우의 응답 비율이 상승함
- 성, 연령, 지역, 학력, 주거형태별 결과는 각 변인별 응답 사례수가 과소하여 통계적 의미를 가지기 어려우므로 참고적으로만 확인할 것을 권장함
- 성별로 남자는 ‘6개월 미만’, 여자는 ‘6개월 이상-1년 미만’과 ‘5년 이상-7년 미만’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 만19-29세는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등 단기간 비율이 높은 반면 만30-39세는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7년 미만’ 등 장기간 비율이 높음

표 II-155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의 지속 기간 정도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7년 미만	7년 이상
2017	98	18.4	17.9	36.5	16.6	6.0	4.7
2018	41	23.5	23.8	9.1	25.5	11.3	6.9

* 주: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하거나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하는 경우,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밖으로 나가지 않거나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만 응답

표 II-155-1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의 지속 기간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7년 미만	7년 이상
전	체	41	23.5	23.8	9.1	25.5	11.3	6.9
성별	남 자	16	39.2	13.9	8.9	29.3	0.0	8.6
	여 자	25	13.6	29.9	9.1	23.2	18.4	5.8
연령	만 19 ~ 29 세	15	35.1	53.2	8.0	0.0	0.0	3.7
	만 30 ~ 39 세	26	14.7	1.6	9.8	44.7	19.8	9.3
지역	서 울	9	9.7	35.6	7.4	29.7	12.0	5.6
	인 천 / 경 기	5	38.2	35.4	0.0	8.2	18.2	0.0
	대전/충청/세종/강원	7	28.6	30.1	0.0	41.3	0.0	0.0
	광주/전라/제주	3	0.0	0.0	31.6	25.7	42.7	0.0
	부산/울산/경남	10	20.2	5.0	27.5	26.4	10.4	10.4
	대 구 / 경 북	7	35.3	8.6	0.0	25.4	0.0	30.7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	73.7	0.0	15.8	10.5	0.0	0.0
	고 졸 이 하	14	6.6	0.0	13.7	35.3	23.5	20.9
	대 졸 이 상	23	20.9	38.2	5.8	24.4	8.4	2.3
주거 형태	동 거	11	24.5	53.8	11.4	10.3	0.0	0.0
	비 동 거 / 독 립	30	23.0	8.3	7.8	33.4	17.1	10.4

* 주: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하거나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하는 경우,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밖으로 나가지 않거나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만 응답

156)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

- 평소 외출을 잘 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를 확인한 결과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가 37.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33.0%), ‘인간 관계가 잘 되지 않아서’(1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학업 중단이나 대학 진학 실패로’ 응답이 55.5%p 하락하는 등 큰 폭의 응답 경향 변동이 있으나 각 조사년도별 사례수가 적으므로 해석상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음
- 성, 연령, 지역, 학력, 주거형태별 결과는 각 변인별 응답 사례수가 과소하여 통계적 의미를 가지기 어려우므로 참고적으로만 확인할 것을 권장함
- 성별로 남자는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응답이 높고 여자는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응답이 비교적 높음
- 연령별 만19-29세는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만30-39세는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56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학업중단이나 대학 진학 실패로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인간 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기타
2017	98	61.3	17.9	10.1	4.6	3.8	2.2
2018	41	5.8	33.0	17.7	4.3	37.2	1.9

* 주: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하거나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하는 경우,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밖으로 나가지 않거나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만 응답

표 II-156-1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학업중단 이나 대학진학 실패로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인간 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기타
전 체		41	5.8	33.0	17.7	4.3	37.2	1.9
성별	남 자	16	15.2	47.1	24.3	8.6	0.0	4.9
	여 자	25	0.0	24.3	13.6	1.7	60.4	0.0
연령	만 19 ~ 29 세	15	13.6	64.1	3.6	3.7	10.6	4.4
	만 30 ~ 39 세	26	0.0	9.6	28.3	4.8	57.2	0.0
지역	서 울	9	0.0	45.3	13.6	4.1	29.6	7.4
	인 천 / 경 기	5	0.0	25.6	38.2	0.0	36.2	0.0
	대전/충청/세종/강원	7	0.0	50.3	26.2	0.0	23.5	0.0
	광주/전라/제주	3	0.0	0.0	31.6	0.0	68.4	0.0
	부산/울산/경남	10	20.2	18.5	0.0	0.0	61.3	0.0
	대 구 / 경 북	7	15.9	35.4	0.0	30.7	18.1	0.0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	34.6	39.1	0.0	0.0	10.5	15.8
	고 졸 이 하	14	6.6	21.2	14.2	16.8	41.3	0.0
	대 졸 이 상	23	0.0	36.8	22.6	0.0	40.6	0.0
주거 형태	동 거	11	17.2	77.3	0.0	0.0	0.0	5.5
	비 동 거 / 독 립	30	0.0	10.2	26.8	6.6	56.3	0.0

* 주: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하거나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하는 경우,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밖으로 나가지 않거나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만 응답

157) 지난 주 혼자 밥을 먹은 경험 여부(점심기준)

- 지난 주 혼자 밥을 먹은 경험 비율은 43.5%이고 주간 평균 취식 횟수는 2.2회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경험 비율 기준 6.7%p, 횟수 기준 0.9회 감소한 결과임
- 성별로 여자의 혼자 밥을 먹은 경험 비율이 46.8%로 남자(40.4%) 대비 높음
- 연령별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혼자 밥을 먹은 경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 대전/충청/세종/강원 거주자의 혼자 밥을 먹은 경험 비율이 49.8%로 타 지역 대비 높은 가운데 횟수는 지역별 편차가 크지 않음
- 학력별 대학생/대학원생 청년들의 혼자 밥을 먹은 경험 비율이 52.0%로 타 학력 대비 높게 나타남

표 II-157 지난 주 혼자 밥을 먹은 경험 여부(점심기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없다	있다	
			%	횟수
2017	2,321	49.8	50.2	3.1
2018	2,641	56.5	43.5	2.2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표 II-157-1 지난 주 혼자 밥을 먹은 경험 여부(점심기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	횟수
전	체		2,641	56.5	43.5	2.2
성별	남	자	1,315	59.6	40.4	2.2
	여	자	1,326	53.2	46.8	2.2
연령	만 15 ~ 18 세		12	44.9	55.1	2.4
	만 19 ~ 29 세		1,198	53.9	46.1	2.2
	만 30 ~ 39 세		1,431	58.7	41.3	2.2
지역	서	울	475	62.2	37.8	2.2
	인	천 / 경 기	577	51.2	48.8	2.2
	대전/충청/세종/강원		397	50.2	49.8	2.1
	광주/전라/제주		383	73.3	26.7	2.2
	부산/울산/경남		414	54.1	45.9	2.4
	대 구 / 경 북		395	57.4	42.6	2.1
	대학생/대학원생		447	48.0	52.0	2.1
학력	고 졸 이 하		623	52.8	47.2	2.3
	대 졸 이 상		1,571	60.9	39.1	2.2
주거 형태	동	거	1,409	56.7	43.3	2.1
	비 동 거 / 독 립		1,232	56.4	43.6	2.3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158) 지난 주 혼자 술을 마신 경험 여부(저녁기준)

- 지난 주 혼자 술을 마신 경험 비율은 14.6%이고 주간 평균 음주 횟수는 1.5회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경험 비율 기준 3.4%p, 횟수 기준 0.5회 감소한 결과임
- 성별 남자의 혼자 술을 마신 경험 비율이 17.8%로 여자(11.0%) 대비 높음
- 연령별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혼자 술을 마신 경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 대전/충청/세종/강원 거주자의 혼자 술을 마신 경험 비율이 19.9%로 타 지역 대비 높은 가운데 횟수는 지역별 편차가 크지 않음

표 II-158 지난 주 혼자 술을 마신 경험 여부(저녁기준)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연도	사례수	없다	있다	
			%	횟수
2017	2,321	82.0	18.0	2.0
2018	2,641	85.4	14.6	1.5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표 II-158-1 지난 주 혼자 술을 마신 경험 여부(저녁기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	횟수
전	체	2,641	85.4	14.6	1.5
	남 자	1,315	82.2	17.8	1.5
	여 자	1,326	89.0	11.0	1.5
연령	만 15 ~ 18 세	12	100.0	0.0	-
	만 19 ~ 29 세	1,198	87.3	12.7	1.4
	만 30 ~ 39 세	1,431	83.8	16.2	1.6
지역	서울	475	86.7	13.3	1.4
	인천 / 경기	577	81.4	18.6	1.6
	대전/충청/세종/강원	397	80.1	19.9	1.5
	광주/전라/제주	383	93.1	6.9	1.2
	부산/울산/경남	414	92.5	7.5	1.5
	대구 / 경북	395	85.0	15.0	1.6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7	89.4	10.6	1.3
	고졸 이하	623	84.1	15.9	1.7
	대졸 이상	1,571	84.7	15.3	1.5
주거 형태	동거	1,409	87.2	12.8	1.5
	비동거 / 독립	1,232	83.4	16.6	1.6

* 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음

159)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 여부

- 전체 응답 청년 중 2017년 2월-2018년 2월 사이 졸업한 신규 졸업자의 비율은 5.3%, 2018년 8월-2019년 8월에 졸업할 예정인 신규졸업예정자는 6.8%였으며 나머지 87.8%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졸업자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특징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연령별 만15-18세는 신규졸업예정자의 비율이 34.4%로 높고 만19-29세는 신규졸업자(13.0%)의 비율이 비교적 높음

표 II-159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신규졸업자	신규졸업예정자	
전	체	3,133	5.3	6.8	87.8
성별	남	1,613	5.1	6.4	88.5
	여	1,520	5.6	7.3	87.1
연령	만 15 ~ 18 세	503	1.8	34.4	63.9
	만 19 ~ 29 세	1,199	13.0	5.0	82.0
	만 30 ~ 39 세	1,431	0.1	0.0	99.9
지역	서울	560	3.9	6.8	89.3
	인천 / 경기	685	4.8	8.0	87.3
	대전/충청/세종/강원	477	6.3	4.2	89.4
	광주/전라/제주	449	6.4	7.9	85.7
	부산/울산/경남	495	6.8	7.4	85.8
	대구 / 경북	467	5.7	4.7	89.6
	충 / 고 등 학 생	492	0.0	35.2	64.8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447	13.6	9.1	77.3
	고 졸 이 하	623	2.4	0.0	97.6
	대 졸 이 상	1,571	5.3	0.9	93.7
주거	동 거	1,898	8.4	10.9	80.7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235	0.8	0.9	98.3

160) 학교 또는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경험 여부 및 도움이 되는 정도_1) 학교에서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적이 있다

- 학교에서 취업 정보를 제공 받은 경험 비율은 50.1%이며, 이들의 55.7%는 받은 서비스 내용에 대해 만족(그렇다+매우 그렇다)한다고 응답함
- 남성, 연령대가 높을수록, 서울지역 및 대구/경북 지역, 학력이 높을수록 학교 취업정보 제공 서비스 수혜 경험비율이 높음
- 여성, 만19-29세,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의 만족 비율이 높음

표 II-160 학교 또는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경험 여부 및 도움이 되는 정도_1) 학교에서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적이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80	50.1	0.0	7.3	37.0	55.0	0.7	49.9	
성별	남	202	54.0	0.0	5.9	39.4	54.0	0.6	46.0	
	여	178	46.2	0.0	9.0	34.2	56.1	0.7	53.8	
연령	만 1 5 ~ 1 8 세	176	33.9	0.0	17.4	41.4	41.2	0.0	66.1	
	만 1 9 ~ 2 9 세	202	61.6	0.0	3.4	34.8	60.9	0.9	38.4	
	만 3 0 ~ 3 9 세	2	100.0	0.0	0.0	74.8	25.2	0.0	0.0	
지역	서 울	66	56.2	0.0	6.5	35.1	58.4	0.0	43.8	
	인 천 / 경 기	83	49.7	0.0	6.7	39.4	52.8	1.0	50.3	
	대전/충청/세종/강원	63	43.8	0.0	0.0	39.5	57.4	3.1	56.2	
	광 주 / 전라 / 제 주	56	38.4	0.0	8.8	41.2	50.1	0.0	61.6	
	부 산 / 울 산 / 경 남	66	52.4	0.0	16.7	28.0	55.3	0.0	47.6	
	대 구 / 경 북	46	60.3	0.0	0.0	43.1	56.9	0.0	39.7	
학력	중 / 고 등 학 생	168	32.5	0.0	16.6	45.2	38.2	0.0	67.5	
	대학생/대학원생	113	38.9	0.0	7.8	29.8	62.4	0.0	61.1	
	고 졸 이 하	16	54.2	0.0	0.0	19.1	80.9	0.0	45.8	
	대 졸 이 상	83	90.6	0.0	2.5	37.8	58.3	1.4	9.4	
주거	동 거	362	49.2	0.0	7.9	35.4	56.0	0.7	50.8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8	65.0	0.0	0.0	57.8	42.2	0.0	35.0	

161) 학교 또는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경험 여부 및 도움이 되는 정도_2) 학교에서 진로에 대한 상담을 제공 받은 적이 있다

- 학교에서 진로 상담을 제공 받은 경험 비율은 76.5%이며, 이들의 62.2%는 받은 서비스 내용에 대해 만족(그렇다+매우 그렇다)한다고 응답함
- 여성, 연령대가 낮을수록, 서울지역, 중·고등학생과 고졸이하에서 학교 진로 상담 서비스 수혜 경험비율이 높음
- 여성, 만15-18세, 서울 지역의 만족 비율이 높음

표 II-161 학교 또는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경험 여부 및 도움이 되는 정도
_2) 학교에서 진로에 대한 상담을 제공 받은 적이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80	76.5	0.4	2.4	35.0	56.7	5.5	23.5
	남	202	74.1	0.8	3.5	39.6	48.3	7.8	25.9
	여	178	78.9	0.0	1.4	30.7	64.6	3.3	21.1
연령	만 1 5 ~ 1 8 세	176	88.2	0.8	1.3	31.4	63.9	2.7	11.8
	만 1 9 ~ 2 9 세	202	68.4	0.0	3.5	38.5	49.8	8.2	31.6
	만 3 0 ~ 3 9 세	2	25.2	0.0	0.0	0.0	100.0	0.0	74.8
지역	서 울	66	83.1	1.9	0.0	30.3	65.2	2.5	16.9
	인 천 / 경 기	83	74.4	0.0	2.0	34.8	55.9	7.3	25.6
	대전/충청/세종/강원	63	85.0	0.0	3.1	40.9	52.0	4.0	15.0
	광주/전라/제주	56	76.7	0.0	1.5	37.9	57.4	3.3	23.3
	부산/울산/경남	66	68.3	0.0	6.4	32.7	49.6	11.4	31.7
	대 구 / 경 북	46	75.7	0.0	2.8	37.6	59.6	0.0	24.3
학력	중 / 고 등 학 생	168	87.7	0.8	1.4	31.2	64.4	2.2	12.3
	대학생/대학원생	113	79.7	0.0	3.1	35.5	52.8	8.6	20.3
	고 졸 이 하	16	87.8	0.0	0.0	70.8	29.2	0.0	12.2
	대 졸 이 상	83	53.4	0.0	4.5	34.6	50.9	10.0	46.6
주거 형태	동 거	362	77.3	0.4	2.5	35.4	56.6	5.0	22.7
	비 동 거 / 독 립	18	63.9	0.0	0.0	26.2	57.6	16.2	36.1

162) 학교 또는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경험 여부 및 도움이 되는 정도_3)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적이 있다

- 취·창업 기관에서 취업 정보를 제공 받은 경험 비율은 36.5%이며 이들의 58.0%는 받은 서비스 내용에 대해 만족(그렇다+매우 그렇다)한다고 응답함
- 남성, 만19-29세, 대구/경북 지역, 학력이 높아질수록 취·창업 기관의 취업 정보 제공 서비스 수혜 경험비율이 높음
- 여성, 만19-29세, 인천/경기 지역의 만족 비율이 높음

표 II-162 학교 또는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경험 여부 및 도움이 되는 정도_3)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적이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80	36.5	1.3	2.3	38.4	54.2	3.8	63.5
성별	남	202	34.2	1.7	2.7	39.4	53.1	3.0	65.8
	여	178	38.7	0.9	1.9	37.5	55.2	4.6	61.3
연령	만 1 5 ~ 1 8 세	176	21.3	1.5	3.5	45.8	42.2	7.0	78.7
	만 1 9 ~ 2 9 세	202	47.1	1.2	1.9	35.4	59.1	2.5	52.9
	만 3 0 ~ 3 9 세	2	100.0	0.0	0.0	74.8	0.0	25.2	0.0
지역	서 울	66	43.4	1.8	0.0	39.4	54.4	4.5	56.6
	인 천 / 경 기	83	36.4	0.0	0.0	29.8	67.0	3.2	63.6
	대전/충청/세종/강원	63	39.1	0.0	0.0	61.7	34.3	4.0	60.9
	광주/전라/제주	56	25.6	0.0	0.0	42.7	54.2	3.1	74.4
	부산/울산/경남	66	31.2	2.9	9.9	38.7	43.2	5.3	68.8
	대 구 / 경 북	46	45.4	4.6	8.3	31.2	52.9	3.0	54.6
학력	중 / 고 등 학 생	168	19.3	1.8	0.0	50.2	42.6	5.4	80.7
	대학생/대학원생	113	35.3	1.5	5.0	31.5	60.1	2.0	64.7
	고 졸 이 하	16	48.3	0.0	15.0	32.0	32.8	20.2	51.7
	대 졸 이 상	83	63.0	1.0	0.0	38.1	58.6	2.3	37.0
주거	동 거	362	35.9	1.4	2.4	39.0	53.1	4.1	64.1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8	45.3	0.0	0.0	31.2	68.8	0.0	54.7

163) 학교 또는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경험 여부 및 도움이 되는
정도_4)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진로에 대한 상담을 제공 받은 적이 있다

- 취·창업 기관에서 진로 상담을 제공 받은 경험 비율은 30.6%이며 이들의 47.4%는 받은 서비스 내용에 대해 만족(그렇다+매우 그렇다)하고 있었음
- 여성, 만19-29세, 대구/경북 지역, 학력이 높을수록 취·창업 기관의 진로상담 서비스 수혜 경험비율이 높음
- 남성, 만19-29세, 인천/경기 지역의 만족 비율이 높음

표 II-163 학교 또는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경험 여부 및 도움이 되는
정도_4)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진로에 대한 상담을 제공 받은 적이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80	30.6	0.0	4.3	48.3	46.8	0.6	69.4	
성별	남	202	26.7	0.0	5.7	45.3	47.7	1.3	73.3	
	여	178	34.6	0.0	3.2	50.7	46.1	0.0	65.4	
연령	만 1 5 ~ 1 8 세	176	22.2	0.0	4.8	60.2	35.0	0.0	77.8	
	만 1 9 ~ 2 9 세	202	36.8	0.0	4.1	43.3	51.8	0.8	63.2	
	만 3 0 ~ 3 9 세	2	25.2	0.0	0.0	0.0	100.0	0.0	74.8	
지역	서 울	66	37.8	0.0	2.0	58.2	39.8	0.0	62.2	
	인 천 / 경 기	83	29.0	0.0	0.0	45.1	53.1	1.8	71.0	
	대전/충청/세종/강원	63	38.0	0.0	0.0	58.7	41.3	0.0	62.0	
	광주/전라/제주	56	18.4	0.0	0.0	53.7	46.3	0.0	81.6	
	부산/울산/경남	66	24.2	0.0	16.5	34.4	49.1	0.0	75.8	
	대 구 / 경 북	46	42.8	0.0	14.7	37.5	47.8	0.0	57.2	
학력	중 / 고 등 학 생	168	20.3	0.0	1.7	66.6	31.7	0.0	79.7	
	대학생/대학원생	113	32.6	0.0	8.6	36.7	54.7	0.0	67.4	
	고 졸 이 하	16	42.5	0.0	0.0	27.1	72.9	0.0	57.5	
	대 졸 이 상	83	42.8	0.0	3.1	48.5	46.8	1.6	57.2	
주거	동 거	362	30.3	0.0	4.6	49.6	45.2	0.6	69.7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8	35.5	0.0	0.0	30.2	69.8	0.0	64.5	

164) 졸업 후 계획

- 신규 졸업자들은 졸업 후 ‘상위 교육기관으로 진학’(50.7%)할 계획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취업’(43.1%)할 계획이 그 뒤를 이음
- 성별에 따른 특징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연령별 만15-18세는 대부분 ‘상위 교육기관으로 진학’(86.0%), 만19-29세의 다수는 ‘취업’ (67.0%)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됨
-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 거주자는 ‘상위 교육기관으로 진학’(65.3%), 대구/경북 지역 거주자는 ‘취업’(54.4%)할 계획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I-164 졸업 후 계획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상위 교육 기관으 로 진학	취업	창업	취·창업 준비	문화 및 여가 생활	아무 계획 없음	기타
전	체	380	50.7	43.1	0.3	2.0	1.0	2.6	0.2
성별	남	202	49.9	41.6	0.0	1.8	1.1	5.3	0.3
	여	178	51.6	44.7	0.6	2.2	1.0	0.0	0.0
연령	만 1 5 ~ 1 8 세	176	86.0	9.9	0.0	0.9	1.0	1.9	0.4
	만 1 9 ~ 2 9 세	202	25.3	67.0	0.5	2.9	1.1	3.2	0.0
	만 3 0 ~ 3 9 세	2	0.0	100.0	0.0	0.0	0.0	0.0	0.0
지역	서 울	66	49.4	41.6	0.0	0.0	1.6	7.4	0.0
	인 천 / 경 기	83	49.0	47.0	0.0	2.7	0.0	1.4	0.0
	대전/충청/세종/강원	63	65.3	29.6	1.3	0.0	2.2	1.5	0.0
	광주/전라/제주	56	59.6	27.8	1.0	7.5	4.2	0.0	0.0
	부산/울산/경남	66	43.1	52.2	0.0	1.4	0.0	2.4	0.9
	대 구 / 경 북	46	42.5	54.4	0.0	0.0	0.0	3.1	0.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168	88.6	7.2	0.0	1.0	1.0	2.0	0.4
	대학생/대학원생	113	45.8	47.9	0.0	3.6	1.7	1.0	0.0
	고 졸 이 하	16	20.4	62.2	3.0	0.0	0.0	14.5	0.0
	대 졸 이 상	83	1.7	91.2	0.6	2.1	0.6	3.8	0.0
주거 형태	동 거	362	51.7	42.8	0.3	1.5	1.1	2.5	0.2
	비 동 거 / 독 립	18	35.0	49.5	0.0	11.3	0.0	4.2	0.0

165) 신규졸업(예정)자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

- 신규 졸업자(예정)자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로 ‘진로 탐색을 위한 상담’이 49.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취·창업 관련 정보 제공’(24.5%), ‘인턴사원제 등 즉각적인 일자리 연계’(1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특징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연령별 만15-18세는 ‘진로 탐색을 위한 상담’(74.5%), 만19-29세는 ‘취·창업 관련 정보 제공’(38.0%), 만30-39세는 ‘인턴사원제 등 즉각적인 일자리 연계’(74.8%)를 각각 가장 높게 응답하여 연령에 따라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책, 서비스가 상이하게 나타남

표 II-165 신규졸업(예정)자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진로 탐색 을 위한 상담	취·창업 관련 정보 제공	면접 실습 등 취업준 비 지원	인턴사원제 등 즉각적 일자리 연계	기타
전	체	380	49.7	24.5	11.3	14.5	0.0
	남	202	50.2	25.3	9.9	14.5	0.0
	여	178	49.2	23.8	12.6	14.5	0.0
연령	만 1 5 ~ 1 8 세	176	74.5	6.1	11.6	7.8	0.0
	만 1 9 ~ 2 9 세	202	32.0	38.0	11.1	19.0	0.0
	만 3 0 ~ 3 9 세	2	0.0	25.2	0.0	74.8	0.0
지역	서 울	66	52.6	21.2	10.6	15.6	0.0
	인 천 / 경 기	83	42.6	26.6	15.1	15.7	0.0
	대전/충청/세종/강원	63	59.0	20.7	3.6	16.7	0.0
	광 주 / 전 라 / 제 주	56	65.3	25.5	3.1	6.1	0.0
	부 산 / 울 산 / 경 남	66	46.2	27.2	12.4	14.2	0.0
	대 구 / 경 북	46	42.9	21.8	18.1	17.2	0.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168	76.3	6.4	11.7	5.7	0.0
	대 학생 / 대 학원 생	113	47.7	24.2	11.9	16.3	0.0
	고 졸 이 하	16	54.6	13.9	12.6	18.9	0.0
	대 졸 이 상	83	9.3	55.3	9.8	25.6	0.0
주거	동 거	362	50.6	23.7	11.2	14.5	0.0
형태	비 동 거 / 독 립	18	35.0	38.8	12.4	13.8	0.0

166) 졸업 후 학교소재지(지역) 이탈 예정 여부

- 신규 졸업(예정)자의 23.7%는 졸업 후 학교소재지(지역)를 이탈할 예정이라고 응답하였고 이탈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응답은 50.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6.3%로 나타남
- 성별로 여자의 ‘이탈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응답이 59.8%로 나타나 남자(40.2%) 대비 높은 반면 남자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5.4%로 비교적 높음
- 연령별 만15-18세는 타 연령 대비 ‘잘 모르겠다’는 응답(33.0%)이 높고 만 19-29세는 ‘이탈할 예정’이라는 응답(26.1%)이 높음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이탈하지 않을 예정’(64.1%) 비율이 높음

표 II-166 졸업 후 학교소재지(지역) 이탈 예정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잘 모르겠음
전	체	380	23.7	50.0	26.3
	남	202	24.4	40.2	35.4
	여	178	22.9	59.8	17.3
연령	만 15 ~ 18 세	176	20.6	46.5	33.0
	만 19 ~ 29 세	202	26.1	52.2	21.6
	만 30 ~ 39 세	2	0.0	100.0	0.0
지역	서울	66	9.1	64.1	26.7
	인천 / 경기	83	37.3	45.5	17.3
	대전/충청/세종/강원	63	19.9	36.7	43.4
	광주/전라/제주	56	32.2	52.4	15.4
	부산/울산/경남	66	9.6	46.3	44.0
	대구 / 경북	46	22.9	61.4	15.8
	중 / 고 등 학 생	168	21.2	45.5	33.3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113	24.4	48.5	27.1
	고 졸 이 하	16	16.5	56.0	27.5
	대 졸 이 상	83	28.0	57.9	14.1
주거	동거	362	22.1	51.2	26.7
형태	비동거 / 독립	18	50.7	30.2	19.1

167)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후 현실에 대한 인식_1) 졸업 이후 취업을 할 때, 성별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 졸업 이후 취업을 할 때 성별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45.6%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17.4%: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대비 높게 나타남
- 여성(49.1%), 서울 지역 거주자(60.0%), 대졸이상 학력(49.4%)에서 차별 인식이 보다 강하게 나타남

표 II-167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후 현실에 대한 인식_1) 졸업 이후 취업을 할 때, 성별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전체		380	0.7	16.7	37.0	44.8	0.8
	남자		202	1.2	20.7	36.2	41.6	0.4
	여자		178	0.3	12.7	37.9	47.9	1.2
연령	만 15 ~ 18세		176	0.3	17.1	36.0	46.6	0.0
	만 19 ~ 29세		202	1.0	16.5	37.3	43.8	1.4
	만 30 ~ 39세		2	0.0	0.0	100.0	0.0	0.0
지역	서울		66	0.0	10.8	29.2	59.0	1.0
	인천 / 경기		83	0.9	21.7	30.5	46.9	0.0
	대전/충청/세종/강원		63	1.2	13.6	30.9	54.2	0.0
	광주/전라/제주		56	0.0	13.1	45.1	41.8	0.0
	부산/울산/경남		66	1.8	17.4	49.9	29.7	1.2
	대구 / 경북		46	0.0	17.6	50.6	26.7	5.0
학력	중 · 고 등 학 생		168	0.0	17.9	35.7	46.4	0.0
	대학생/대학원생		113	1.5	14.6	41.5	41.0	1.4
	고 졸 이 하		16	0.0	12.8	50.3	36.9	0.0
	대 졸 이 상		83	1.1	18.0	31.5	47.9	1.5
주거 형태	동거		362	0.8	16.7	38.0	43.9	0.6
	비 동 거 / 독 립		18	0.0	16.0	20.6	59.3	4.1

168)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후 현실에 대한 인식_2) 졸업 이후 취업을 할 때, 학벌(어느 학교를 졸업하였는지)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 졸업 이후 취업을 할 때 학벌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66.1%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3.6%: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대비 높게 나타남
- 여성(70.9%), 만15-18세(68.4%), 인천/경기 지역 거주자(70.6%), 대학생/대학원생 학력(69.6%)에서 차별 인식이 보다 강하게 나타남

표 II-168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후 현실에 대한 인식_2) 졸업 이후 취업을 할 때, 학벌 (어느 학교를 졸업하였는지)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전체		380	0.0	3.6	30.3	53.6	12.5
	남자		202	0.0	4.2	34.5	48.7	12.6
	여자		178	0.0	2.9	26.2	58.4	12.5
연령	만 15 ~ 18 세		176	0.0	3.7	27.8	57.1	11.3
	만 19 ~ 29 세		202	0.0	3.5	32.1	50.8	13.5
	만 30 ~ 39 세		2	0.0	0.0	25.2	74.8	0.0
지역	서울		66	0.0	4.4	27.4	48.6	19.6
	인천 / 경기		83	0.0	0.3	29.0	54.0	16.6
	대전/충청/세종/강원		63	0.0	2.5	33.2	63.3	1.1
	광주/전라/제주		56	0.0	4.9	30.1	59.5	5.5
	부산/울산/경남		66	0.0	3.7	33.4	48.9	13.9
	대구 / 경북		46	0.0	14.5	31.5	49.7	4.2
	중 · 고 등 학 생		168	0.0	3.5	28.1	56.6	11.8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113	0.0	2.9	27.5	58.3	11.3
	고 졸 이 하		16	0.0	0.0	42.7	57.3	0.0
	대 졸 이 상		83	0.0	5.0	35.2	42.6	17.2
주거 형태	동거		362	0.0	3.8	30.7	53.9	11.6
	비 동 거 / 독 립		18	0.0	0.0	24.1	48.0	27.9

169)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후 현실에 대한 인식_3) 졸업 이후 취업을 할 때, 학력(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 졸업 이후 취업을 할 때 학력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74.8%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2.8%: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대비 높게 나타남
- 만15-18세(81.6%), 인천/경기 지역 거주자(80.4%), 중·고등학생 학력(83.0%)에서 차별 인식이 보다 강하게 나타남

표 II-169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후 현실에 대한 인식_3) 졸업 이후 취업을 할 때, 학력(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전체		380	0.2	2.6	22.4	64.0	10.8
	남자		202	0.1	3.0	22.4	61.8	12.7
	여자		178	0.3	2.2	22.5	66.1	8.9
연령	만 15 ~ 18 세		176	0.5	0.4	17.4	71.4	10.2
	만 19 ~ 29 세		202	0.0	4.3	26.1	58.4	11.3
	만 30 ~ 39 세		2	0.0	0.0	25.2	74.8	0.0
지역	서울		66	0.0	4.0	24.3	51.9	19.7
	인천 / 경기		83	0.0	0.0	19.6	66.0	14.4
	대전/충청/세종/강원		63	0.0	0.0	29.4	67.6	3.1
	광주/전라/제주		56	1.9	1.0	28.3	63.5	5.2
	부산/울산/경남		66	0.0	8.5	16.5	69.2	5.8
	대구 / 경북		46	0.0	4.0	23.3	66.5	6.1
학력	중 · 고 등 학 생		168	0.6	0.4	16.0	72.7	10.3
	대학생/대학원생		113	0.0	1.9	24.1	59.1	14.8
	고 졸 이 하		16	0.0	7.4	13.9	74.2	4.6
	대 졸 이 상		83	0.0	6.2	31.9	54.2	7.6
주거 형태	동거		362	0.2	2.8	23.1	63.4	10.6
	비 동 거 / 독 립		18	0.0	0.0	11.8	73.8	14.4

170)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후 현실에 대한 인식_4) 나는 졸업을 한 후에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졸업 후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조사 결과 36.3%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12.2%: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대비 높게 나타남
- 만15-18세(38.7%), 서울 지역 거주자(41.0%), 중·고등학생 학력(39.6%)에서 경제적 풍족함에 대한 긍정 예상이 보다 강하게 나타남

표 II-170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후 현실에 대한 인식_4) 나는 졸업을 한 후에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전체	380	0.4	11.8	51.6	35.3	1.0
	남자	202	0.3	9.5	54.2	35.3	0.7
	여자	178	0.5	14.0	49.0	35.3	1.2
연령	만 15 ~ 18 세	176	0.0	13.6	47.7	38.4	0.3
	만 19 ~ 29 세	202	0.7	10.3	54.9	32.7	1.4
	만 30 ~ 39 세	2	0.0	25.2	0.0	74.8	0.0
지역	서울	66	0.0	8.2	50.8	40.2	0.8
	인천 / 경기	83	0.0	12.3	50.1	37.6	0.0
	대전/충청/세종/강원	63	0.0	10.8	65.0	22.9	1.3
	광주/전라/제주	56	0.0	7.4	57.8	34.8	0.0
	부산/울산/경남	66	1.4	18.4	40.7	37.1	2.5
	대구 / 경북	46	2.0	11.7	54.0	29.4	2.9
학력	중·고 등 학 생	168	0.0	12.7	47.6	39.3	0.3
	대학생/대학원생	113	1.3	13.9	50.5	33.5	0.8
	고 졸 이 하	16	0.0	11.6	62.0	26.4	0.0
	대 졸 이 상	83	0.0	7.8	57.6	32.3	2.3
주거 형태	동거	362	0.4	12.1	51.5	35.3	0.8
	비 동 거 / 독 립	18	0.0	6.3	54.1	35.5	4.1

○ ————— **부록**

- 1.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항목
- 2.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표
 _청년용
- 3.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표
 _중·고등학생용
- 4.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지침서

부록

1.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항목

표 부록-1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항목

	조사내용 (*는 2018년 신규문항)	문항번호		비고
		만15~18세용	만19~39세용	
1. 인구와 가족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문1	문1	2016년 신규문항
	원가정으로부터 독립 필요성 및 적정 독립 시기	문2	문2	2016년 신규문항
	결혼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시기	문3	문3	2016년 신규문항
	자녀 필요성 및 적정 자녀 계획 시기	문4	문4	2016년 신규문항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	-	문5	2015년 신규문항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육아 대책	-	문6	2015년 신규문항
	결혼 준비 경험 여부	-	문7	2016년 신규문항
	결혼 준비 시 망설임 경험	-	문7-1	2016년 신규문항
	결혼을 망설임 이유	-	문7-2	2017년 신규문항
	맞벌이 유무	-	문8	2016년 신규문항
	현재 자녀 존재 유무	-	문9	2013년 개발문항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	-	문10	2016년 신규문항
	2025년 출산율 전망	-	문11	2016년 신규문항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	문5	문12	2016년 신규문항
	해외이주를 고려한 이유	문5-1	문12-1	2016년 신규문항
2. 교육과 훈련	2025년 입시경쟁 전망	문6	문13	2015년 신규문항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	문7(1)~(3)	문14(1)~(3)	2013년 개발문항
	대학(교) 진학 경험 여부*		문15	2018년 신규문항 (연구진 개발)
	졸업 요건 이수 후 유예 경험	-	문16	2016년 신규문항
	졸업 유예 위해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	문17	2016년 신규문항
	졸업 유예 사유*	-	문18	2018년 신규문항 (연구진 개발)

	조사내용 (*는 2018년 신규문항)	문항번호		비고
		만15-18세용	만19-39세용	
3. 경제와 고용	고교교육 및 대학교육 만족도*	문11	문19	2018년 신규문항 (연구진 개발)
	대학 미진학 사유	-	문20	2013년 개발문항
	향후 대학 진학 의향	문8	문21	2013년 개발문항
	취업 준비 여부	문9	문22	2016년 신규문항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문10	문23	2013년 개발문항 2015년 문항수정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	-	문24	2015년 신규문항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문12	문25	2013년 개발문항
	2020년 적정 최저 임금	문13	문26	2016년 신규문항 (2018년 연도수정)
	2025년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 전망	문14	문27	2015년 신규문항
	미취업 청년 대상 급여(수당, 배당) 지급에 대한 생각	문15	문28	2016년 신규문항
	한달 본인 생활비(용돈) 정도	문16	문29	2017년 신규문항
	한달 본인 생활비(용돈) 중 부모님이 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	문16-1	문29-1	2017년 신규문항
	갚아야 할 채무 여부	-	문30	2013년 개발문항
	채무 발생 사유*	-	문30-1	2018년 신규문항 (연구진 개발)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	문17	문31	2017년 신규문항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	문18	문32	2018년 신규문항 (연구진 개발)
	중소기업 취업 의향	문19	문33	2013년 개발문항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문19-1	문33-1	2013년 개발문항
	창업 고려 또는 경험 여부	-	문34	2013년 개발문항 2017년 문항수정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더 중요한 정책 분야	-	문35	2015년 신규문항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	문35-1	2015년 신규문항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	문35-2	2015년 신규문항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	문36	2016년 신규문항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여부	-	문37	2016년 신규문항 (2017년 문항수정)
	지난 주 정규교육기관(학교) 재학 여부	-	문38	2016년 신규문항

조사내용 (*는 2018년 신규문항)		문항번호		비고
		만15-18세용	만19-39세용	
	지난 주 입시학원, 취업 관련 학원 재학 경험	-	문39	2016년 신규문항
	니트 관련_지난주에 주로 한 일	-	문40	2017년 신규문항
	니트 관련_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상태 기간	-	문41(1)~(3)	2017년 신규문항
	니트 관련_학업, 취업, 직업훈련도 받지 못하는 이유*	-	문42(1)~(13)	2018년 신규문항 (연구진 개발)
	니트 관련_니트 청년의 고민거리*	-	문43	2018년 신규문항 (연구진 개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	-	문44	2013년 개발문항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한 월 평균 소득	-	문45	2013년 개발문항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	-	문46	2013년 개발문항
	이직 의향	-	문47	2013년 개발문항
	이직 희망 사유	-	문47-1	2013년 개발문항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경험 여부*	-	문48	2018년 신규문항 (연구진 개발)
	정부의 청년고용대책 사업 참여 경험 여부*	-	문49	2018년 신규문항 (연구진 개발)
	지방자치단체 청년지원 사업 참여 경험 여부*	-	문50	2018년 신규문항 (연구진 개발)
	이전 취업 여부	-	문51	2018년 신규문항 (연구진 개발)
	취업 후 퇴사 및 해고 경험 여부*	-	문52	2018년 신규문항 (연구진 개발)
	실업급여 인지 여부*	-	문53	2018년 신규문항 (연구진 개발)
	실업급여 수급 여부*	-	문54	2018년 신규문항 (연구진 개발)
	실업급여 미수급 이유*	-	문54-1	2018년 신규문항 (연구진 개발)
4. 주거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	문20	문55	2013년 개발문항
	집에 대한 생각	문21(1)~(3)	문56(1)~(3)	2013년 개발문항
	공동주거 경험 여부	문22	문57	2015년 신규문항
	공동주거 거주 의향	문23	문58	2015년 신규문항
	부모 동거 여부	문24	문59	2013년 개발문항
	향후 부모 동거 계획	문25	-	2016년 신규문항
	미혼 혼자 거주 여부	-	문60	2015년 신규문항
	현재 주거 형태	-	문60-1	2015년 신규문항

조사내용 (*는 2018년 신규문항)		문항번호		비고
		만15-18세용	만19-39세용	
5. 건강	주관적인 신체건강에 대한 인식*	문26	문61	2018년 신규문항 (연구진 개발)
	건강검진 수검 여부*	문27	문62	2018년 신규문항 (연구진 개발)
	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	문28	문63	2018년 신규문항 (연구진 개발)
	질환 발생 후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문29	문64	2018년 신규문항 (연구진 개발)
	정신과 치료 및 심리상담 경험 여부*	문30	문65	2018년 신규문항 (연구진 개발)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문31	문66	2016년 신규문항
	주관적인 정신적 건강수준	문32(1)~(5)	문67(1)~(5)	2017년 신규문항
	규칙적인 운동 여부	문33	문68	2016년 신규문항
	규칙적인 운동 빈도	문33-1	문68-1	2016년 신규문항
	인생에서 외모의 중요도	문34	문69	2016년 신규문항
	성형수술 경험	문35	문70	2016년 신규문항
	성형수술 목적	문35-1	문70-1	2016년 신규문항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	문35-2	문70-2	2016년 신규문항
6. 문화와 가치관	가치 항목별 선호도	문36(1)~(4)	문71(1)~(4)	2016년 신규문항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문37	문72	2013년 개발문항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	문38	문73	2013년 개발문항
7. 관계와 참여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 수	문39	문74	2016년 신규문항
	기성세대 및 노인에 대한 생각	문40(1)~(7)	문75(1)~(7)	2016년 신규문항
	의견 표명 행동	문41(1)~(4)	문76(1)~(4)	2016년 신규문항
	정치적 효능감	문42(1)~(3)	문77(1)~(3)	2017년 신규문항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경험 여부*	문43	문78	2018년 신규문항 (연구진 개발)
	평소 외출 정도	문44	문79	2017년 신규문항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의 지속 기간 정도	문44-1	문79-1	2017년 신규문항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	문44-2	문79-2	2017년 신규문항
	지난 주 혼자 밥을 먹은 경험 여부(점심기준)	-	문80	2017년 신규문항
	지난 주 혼자 술을 마신 경험 여부(저녁 기준)	-	문81	2017년 신규문항
8. 신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 여부*	문45	문82	2018년 신규문항 (연구진 개발)

조사내용 (*는 2018년 신규문항)		문항번호		비고
		만15~18세용	만19~39세용	
졸업 (예정) 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연월*	문45-1	문82-1	2018년 신규문항 (연구진 개발)
	학교 또는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취·창업이나 진로 등의 서비스를 받은 경험 여부*	문46(1)~(4)	문83(1)~(4)	2018년 신규문항 (연구진 개발)
	학교 또는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취·창업이나 진로 등의 서비스의 도움 정도*	문46-1 (1)~(4)	문83-1 (1)~(4)	2018년 신규문항 (연구진 개발)
	졸업 후 계획*	문47	문84	2018년 신규문항 (연구진 개발)
	신규졸업(예정)자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	문48	문85	2018년 신규문항 (연구진 개발)
	졸업 후 학교소재지(지역) 이탈 여부*	문49	문86	2018년 신규문항 (연구진 개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후 현실에 대한 인식*	문50(1)~(4)	문87(1)~(4)	2018년 신규문항 (연구진 개발)

2.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표_청년용



--	--	--	--

2018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청년용)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년들의 일과 삶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청년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2018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개인정보도 철저히 보호됩니다. 또한,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의 의무)에 따라 응답 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은 절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각각의 조사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활실태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문항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지는 만19세~만39세(1978년 7월 1일~1999년 6월 30일)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15~18세인 가운데 중·고등학생이 아닌 경우(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 검정고시 준비, 재수생, 대학(교)에 입학하신 분, 현재 취업 중이신 분 등)에는 본 설문지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항은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면접원 ID		면접원 이름		S.V 검증	
조사구 일련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주소(구/동)	시/도 구/시/군 동/읍/면				
응답자 연락처	() - () - ()		생년월일	년 월 일	
주택 유형	1. 단독 주택 2. 아파트 3. 연립/다세대주택 4. 기타(적을 것 :)				

구 분	남 성	여 성	합 계
총 가구원 수			
만 15세 이상 18세 이하 가구원 수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가구원 수			
가구당 조사표 부수	해당 가구원 수 총 ()부 중 ()부 진행		

※ 조사원: 동일 가구인 경우라도 모든 설문지 표지에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미진행 가구원 사유	
------------	--

동 의 서

1. 조사동의

-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동의

비동의

2.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내 및 동의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케이스탯리서치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케이스탯리서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및 제 22조와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사응답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응답내용 활용 및 처리에 대해 설명 드리고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은 아래의 통계법 제 33조 및 제 34조에 의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기재해 주신 **개인 정보(연락처)**는 조사기간에 따라 최대 1년 간 내부적으로 보관된 후 전 문기관에 의해 즉각 일괄 폐기됩니다. 또한 선생님의 개인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일체 다른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설문참여 사실과 내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만 기재해 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릴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케이스탯리서치는 설문조사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깁니다.

본인은 위의 조사 목적과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동의

비동의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귀하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귀하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면접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하는 방법1

대부분은 주된 응답 한 가지만 고르는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응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표로 구성된 질문은 ①에서 ⑤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렇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표시하는 방법2

숫자를 기입해야 할 때는 박스 안에 한 자리씩 기입해 주세요.

〈보기2〉

문A.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명)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3〉과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3〉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4〉

문B.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 B-1로 이동** ② 없다 ➡ **문 C로 이동**

☞ 나는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B-1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설명문 반드시 참고

질문 아래 설명문(응답 기준, 용어 설명 등)이 있는 경우, 설명문을 읽고 응답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보기5〉

문C.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 **문 C-1로 이동** ② 없다 ➡ **문 D로 이동**

1. 먼저 「인구와 가족」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는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 동 : 만 세 ~ 만 세
 ■ 청 소 년 : 만 세 ~ 만 세
 ■ 청 년 : 만 세 ~ 만 세

문2) 귀하는 몇 세부터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 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독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③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3) 귀하는 몇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③ 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4) 귀하는 몇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③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5) 귀하는 다음의 출산 대책 중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출산장려금 확대 | ② 출산 휴가 장려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
| ③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 ④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
| ⑤ 가구의 소득 증대 | ⑥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
| ⑦ 여성의 경력단절 부담 완화 | ⑧ 기타(적을 것 : _____) |

문6) 귀하는 다음의 육아 대책 중 정부가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아동수당이란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함

- | | |
|--------------------|--------------------|
| ① 무상보육교육비 확대 | ② 육아 휴직 장려 및 급여 확대 |
| ③ 방과후 서비스 확대 | ④ 아동수당 대상자 확대 |
| ⑤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 ⑥ 가구의 소득 증대 |
| ⑦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 ⑧ 여성의 경력단절 부담 완화 |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 |

문7) 귀하는 결혼을 준비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문 8로 이동

문7-1)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혼을 망설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문 8로 이동

문7-2) 결혼을 망설인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결혼비용 때문에(주택마련, 혼수비용) | ②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때문에 |
| ③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 ④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
| ⑤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 ⑥ 기타() |

문8) 귀하의 가정은 맞벌이를 하고 계십니까?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있는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맞벌이)

② 아니오(외벌이)

문9)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있다면 자녀가 몇 명입니까? 명) ② 아니오

문10) 귀하는 자녀를 가지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미 자녀가 있으신 경우, 향후에 추가로 자녀를 가지실 의향 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

② 아니오

문11) 귀하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다 ② 출산율이 유지될 것이다 ③ 출산율이 내려갈 것이다

문12)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교육 및 훈련 영역(문13)으로 이동

문12-1) 해외이주를 고려하셨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자기계발을 위해서 | ②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
| ③ 행복한 삶을 위해서 | ④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
| ⑤ 취업이 어려워서 | ⑥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
| ⑦ 빈부격차가 커서 | ⑧ 집값이 너무 비싸서 |
| ⑨ 안보가 불안해서 | ⑩ 기타(적을 것 : _____) |

II. 다음은 「교육과 훈련」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3) 귀하는 우리나라 입시경쟁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 ②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 ③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문14) 귀하는 다음 우리 사회의 교육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15) 귀하는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 16으로 이동
- ② 없다 → 문 20으로 이동

※ 다음(문16~문19)은 대학을 다닌 경험이 있거나 다니시는 분들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16) 대학 시절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고도 졸업을 늦춘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17) 대학 시절 졸업을 늦추기 위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18) (문16에 ① 또는 문17에 ① 응답자만) 대학 시절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고도 졸업을 늦추거나 졸업을 늦추기 위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
- ②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 ③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
- ④ 경제적으로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 ⑤ 문화 및 여가생활을 누리기 위해
- ⑥ 기타(적을 것: _____)

문19)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대학교육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대학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선택한 대학에서의 학과(전공)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응답 후 문22로 이동

※ 다음(문20~문21)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분(고졸 이하 및 재수생 등 비진학자)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20) 귀하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 ②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 ③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 ④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 ⑤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 ⑥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문21) 귀하는 추후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다음(문22~문24)은 모든 대상자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22) 귀하는 지난주에 주로 취업준비를 하셨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23) 귀하는 현재까지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교원 임용 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습니까?

 시험 준비는 학교 재학 시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의 시험 준비를 의미하며, 공단(공사) 내부의 진급 시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있다
- ② 없다

문24) 귀하는 향후 직업 훈련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③ 이미 받고 있다

III. 다음은 「경제와 고용」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25)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은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분위기 좋은 회사 | ② 급여가 높은 회사 |
| ③ 유명한 회사 | ④ 안정적인 회사 |
| ⑤ 퇴근이 빠른 회사 | ⑥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 |
| ⑦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 ⑧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 |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 |

문26) 귀하는 2020년도 최저 임금으로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2016년 6,030원, 2017년은 6,470원, 2018년은 7,530원, 2019년은 8,350원입니다.

시간급 원

문27) 귀하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쟁이 약화된 것이다 ②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③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문28)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이나 배당,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문29) 한 달 생활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가족을 제외한 본인 생활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생활비 포함 내용: 식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오락, 문화생활, 도서구입 등), 학원수강비, 시험응시료, 취업을 위한 도서 등 자료 구입비, 주거비 등

약 만원

문29-1) 생활비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약 %

문30) 귀하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학자금 대출 포함)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문30-1) 귀하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채무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학자금 마련

② 주거비 마련(전·월세자금 대출 등)

③ 생활비 마련(식비, 의료비 등)

④ 창업 자금 마련

⑤ 기타(적을 것 : _____)

문31) 귀하는 지난 1년간(2017년 7월~2018년 6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현재 부모님 및 친척 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주거비용 및 냉/난방비 지출에 대해 본인은 모를 경우만 1), 2)에 '⑨ 모름'에 체크)

구 분	예	아니오	잘 모름
(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①	②	⑨
(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①	②	⑨
(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①	②	
(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①	②	
(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①	②	
(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문32)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사회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사회는 대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기성세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기성세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35-2) 노동수요(일자리, 경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대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
- ② 공공부문 채용 확대
- ③ 청년 창업/창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 ④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 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확대
- ⑥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 ⑦ 해외취업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 ⑧ 기타(적을 것 : _____)

문36) 귀하는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셨습니까?

☞ *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 한 경우도 '일을 하였음'입니다.

- ① 일을 하였음 ➡ 문 44로 이동
- ② 휴가 및 일시 휴직 ➡ 문 44로 이동
- ③ 일을 하지 않았음

문37) 귀하는 지난 4주 내에 직장을 구해 보았습니까?

- ① 직장을 구해보았고,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 ② 직장을 구해보았지만,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 ③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

문38) 귀하는 지난주에 정규교육기관(학교)을 다니셨습니까?

☞ 방학 중인 경우에는 재학 중이므로 '① 예' 로 응답,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고 휴학이나 중퇴인 경우에는 '② 아니오' 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 ➡ 문 48로 이동
- ② 아니오

문39) (문38에서 ② 응답자만) 귀하는 지난주에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에 통학을 하셨습니까?

☞ 취업준비를 했지만 고시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등에 다니지 않은 경우에는 '② 아니오' 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 ➡ 문 41로 이동
- ② 아니오

문40) (문39에서 ② 응답자만) 귀하는 지난주에 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 ① 여행이나 문화예술 및 취미 활동을 했다
- ②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냈다
- ③ 질병이나 지병 때문에 휴식을 취하였다
- ④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 ⑤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그냥 쉬었다
- ⑥ 직장을 구하거나 학교, 훈련기관을 찾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져 그냥 쉬었다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문41) (문38에서 ② 응답자와 문39 응답자) 귀하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항목 한 가지만 선택 후, 응답해 주십시오)

선택 (V)	비교육 및 미취업 기간
(1) 1개월 미만 ()	()일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5일)
(2) 1개월 이상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3개월)
(3) 1년 이상 ()	()년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년 6개월)

문42) (문38에서 ② 응답자와 문39 응답자) 다음 항목들이 귀하가 교육이나 취업, 직업훈련을 받는데 어느 정도 걸림돌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없는 것과 같이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사항 없음
(1) 업무 경험의 부족	①	②	③	④	⑤	
(2) 요구되는 기술이나 자격의 부족	①	②	③	④	⑤	
(3) 자신감의 결여	①	②	③	④	⑤	
(4) 금전적인 이유(학원비, 생활비 부족 등)	①	②	③	④	⑤	
(5) 학습이나 훈련, 자격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름	①	②	③	④	⑤	
(6) 학습이나 일을 하는데 신체적인 어려움이나 장애가 있음	①	②	③	④	⑤	
(7) 정신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음	①	②	③	④	⑤	
(8) 사회의 편견이나 차별	①	②	③	④	⑤	
(9) 가족이나 친구들이 내가 일하는 것을 원치 않음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사는 지역에 나에게 맞는 직장이 없음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유와 시간적 여유를 잃고 싶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 중 보육이나 육아를 맡아줄 수 없음	①	②	③	④	⑤	⑥
(13) 나의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이 걱정됨	①	②	③	④	⑤	⑥

문43) (문38에서 ② 응답자와 문39 응답자) 귀하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무엇입니까?

- ① 심리, 정신 건강 문제

③ 가족 관계의 어려움

⑤ 대인관계의 어려움

⑦ 취업 문제

⑨ 특별한 고민거리 없음
- ② 신체 건강 문제

④ 결혼문제

⑥ 학업이나 진학문제

⑧ 경제적인 어려움

⑩ 기타(적을 것 : _____)

➡ 응답 후 (문48)로 이동

문48) 귀하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 문49) 귀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이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고용대책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 문50) 귀하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청년지원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 문51) 귀하는 이전에 취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 문52) (문51에서 ① 응답자만) 귀하는 취업 후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 문53) (문52에서 ①,②,③ 응답자만) 직장을 그만두었을 당시,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 문54) (문52에서 ①,②,③ 응답자만) 귀하는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문54-1)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IV. 다음은 「주거」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55) 귀하는 본인 명의의 집을 언제쯤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체				
--	----	--	--	--	--

문항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공도조거라 가쪽이 아니 **다습**가 한 집에 살면서 **밖**에 따른 **쓰고** 거식과 **욕식** 들은 **공도**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를 의미함(고시원 및 하숙 거주 경험은 포함하지 않음)

④ [두기] 현재 가치 참고 이디 = [두기] 연연(무성)으로 읽음

- ③ [독립]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상태이다(결혼, 장성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 ① 예 ② 아니오 → 「건강」 영역(문61)으로 이동

문60-1) 귀하의 현재 주거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다세대/빌라 : 공동주택의 일종, 개별 방마다 소유주가 다른 경우
② 원룸(다가구) : 단독주택의 일종, 전체 집이 1인 개인 명의로 된 집으로 방 하나가 침실, 거실, 부엌을 겸하도록 설계된 집
③ 오피스텔 : 세탁기, TV, 냉장고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관리인이 있는 경우
④ 하숙
⑤ 기숙사
⑥ 고시원
⑦ 아파트
⑧ 기타 : 일반주택의 방 하나만 임대, 지역운영회사 등

V. 다음은 「건강」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61) 귀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문62) 귀하는 지난 1년간(2017년 7월~2018년 6월) 건강검진(종합건강검진 혹은 일반건강검진 모두 해당)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63) 귀하는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 ①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 → 문65로 이동
- ②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 문64로 이동
- ③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 문64로 이동
- ④ 기타(적을 것 : _____) → 문64로 이동

문64) (문63에서 ②,③,④ 응답자만) 귀하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 ②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 ③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 ④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 ⑤ 기타(적을 것 : _____)

문65)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예	아니오
1)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2) 심리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문66) 귀하는 현재 본인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마른 편이다
- ② 약간 마른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비만이다
- ⑤ 매우 비만이다

문67) 귀하는 지난 2주 간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다음 각 문항들에 대해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나는 집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68)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문69로 이동**

문68-1)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 | | |
|-----------|-----------|
| ① 일주일에 1번 | ② 일주일에 2번 |
| ③ 일주일에 3번 | ④ 일주일에 4번 |
| ⑤ 일주일에 5번 | ⑥ 일주일에 6번 |
| ⑦ 매일 | |

문69) 귀하는 우리 인생에서 외모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문70) 귀하는 성형 수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목적과 미용(보톡스 등) 목적을 모두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 「가치관」 영역(문71)으로 이동

문70-1) 귀하가 하신 성형수술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 「가치관」 영역(문71)으로 이동

② 미용(쌍꺼풀, 보톡스, 지방제거 등)

→ 문70-2로 이동

문70-2) (문70-1에서 ② 응답자만)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②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③ 취직에 도움이 되므로

④ 결혼이나 연애에 도움이 되므로

⑤ 자기만족을 위해

⑥ 기타(적을 것 : _____)

VI. 다음은 「가치관」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71) 다음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양 쪽의 표현을 보고, 귀하가 더 선호하는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 선호 정도 →							항 목
(1) 일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여가 중시
(2) 현실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상 중시
(3) 결과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과정 중시
(4) 개인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집단 중시

문72)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재산·경제력

② 화목한 가정

③ 자아성취

④ 건강

⑤ 감사·긍정적 태도

⑥ 종교생활

⑦ 직업·직장

⑧ 연인(이성관계 등)

⑨ 친구·대인관계

⑩ 꿈·목표의식

⑪ 기타(적을 것 : _____)

문73)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VII. 다음은 「관계와 참여」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74)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및 친지, 지인,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① 없다

② 있다 (명)

문75) 다음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성세대는 40대, 50대 / 노인은 70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가성세대 (40,50대)	(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노인 (70세 이상)	(4)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①	②	③	④	⑤
	(5)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①	②	③	④	⑤

문76) 시민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항목에 대해 귀하가 앞으로 참여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 항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①	②	③	④	⑤
(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배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①	②	③	④	⑤
(3)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5) 항의 선화하기	①	②	③	④	⑤

문77)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VIII. 다음은 「신규졸업(예정)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82) 귀하는 지난 2017년 2월에서 2018년 2월에 졸업하였거나, 2018년 8월에서 2019년 8월에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졸업할 예정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매경문항 1)로 이동**

문82-1) 귀하의 졸업연월 또는 졸업예정연월을 기입해주시시오.

■ 졸업자 졸업연월 : 년 월

■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연월 : 년 월

☞ 문83)~문87)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신규졸업(예정)자*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졸업자는 2017년 2월~2018년 2월에 고등학교 및 대학(교)을 졸업한 자.

신규졸업예정자는 2018년 8월~2019년 8월 고등학교 및 대학(교)을 졸업할 예정인 자를 의미합니다.

문83) 귀하는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학교 또는 취·창업 관련 기관(일자리센터 등)으로부터 취업이나 진로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문83-1) 학교 또는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받은 서비스는 귀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셨습니까?

문항	문83) 서비스를 받은 경험	문83-1)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에서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적이 있다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2) 학교에서 진로에 대한 상담을 제공 받은 적이 있다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3)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적이 있다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4)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진로에 대한 상담을 제공 받은 적이 있다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문84) 귀하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① 상위교육기관으로 진학

② 취업

③ 창업

④ 취·창업 준비

⑤ 문화 및 여가생활

⑥ 아무 계획 없음

⑦ 기타(적을 것 : _____)

문85) 귀하는 신규졸업(예정)자를 위해 어떠한 정책이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진로 탐색을 위한 상담

② 취·창업 관련 정보 제공

③ 면접 실습 등 취업준비 지원

④ 인턴사원제 등 즉각적인 일자리 연계

⑤ 기타(적을 것 : _____)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경문항 1) [성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배경문항 2) [혼인] 귀하는 결혼하셨습니다?

- ① 배우자 있음
② 사별·이혼
③ 결혼하지 않음

배경문항 3) [가족배경] 귀하의 부모님 소득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배경문항 4) [교육]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 이 아닙니다)

구분	학교 안 다니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본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응답자(본인 기준)(※ 문15에 ① 응답자만)는 아래의 문항에도 응답해 주십시오.

학교소재지 (※ 보기1 참조)	전공계열 (※ 보기2 참조)	입학년월	졸업여부	졸업년월 (졸업한 경우 응답)
		____년 ____월	① 졸업 ② 졸업안함(재학, 중퇴, 휴학 등)	____년 ____월

※ 보기1 (소재지)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 보기2(전공계열)

- ①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경상계열 제외) ③ 경상계열 ④ 자연계열 ⑤ 공학계열
⑥ 의/약학계열 ⑦ 교육계열 ⑧ 예체능계열 ⑨ 사관학교, 경찰대 ⑩ 기타

※ 취업자: 지난 한 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가족사업체 및 농장에서 무급으로 18시간 이상 근무, 휴가, 휴직 등의 사유로 직장은 있었지만 일을 하지 않은 경우가 취업자에 포함됩니다.

구분	내용	
(1) 종사상 지위	① 임금 근로자	② 비임금 근로자
(2) 고용형태	① 정규직(상용근로자) ②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용역 등)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3) 근로시간 유형	① 전일제 ② 시간제	
(4) 직장유형	①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② 외국인회사 ③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기업 ④ (재단, 사단)법인단체 ⑤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⑥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⑦ 기타 ()	
(5) 종사자 수 (사업체 기준)	① 1-4인 ② 5-9인 ③ 10-29인 ④ 30-99인 ⑤ 100-299인 ⑥ 300-499인 ⑦ 500인 이상	
(6) 근속년수 (현 직장을 기준으로 응답)	년 개월	

예) 우리은행 삼성동 지점에 근무하는 경우, 기업체인 우리은행 전 사원 수 15,000명 기준이 아닌 삼성동 지점의 인원 수 20명을 기준으로 응답해야 함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청년용) :: 24/24

별첨. 직업분류표

구분	직업분류 예시	구분	직업분류 예시	구분	직업분류 예시	구분	직업분류 예시	구분	직업분류 예시
1 관리자		225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2452	행사사	2714	컨서사	2881	경기감독 및 코치
공공 및 기업 관리(1)		2226	컴퓨터 보안 전문가	2453	지파기공사	2715	경영 및 전략 전문가	2882	직업 운동선수
1110	외국인 고용주인 및 공공기관원	2227	웹 및 멀티미디어 개발자	2454	지파기공사	2721	특수 및 신용 분야	2883	경기심판 및 경기기록원
1120	기업관리원	2228	웹 개발자	2455	외보조기사	2723	보험 및 금융 신용 개발자	288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강사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2)		2230	정보 시스템 운영자	2456	출판 및 작업 치료사	2724	증권 및 보험 관리	2885	가터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1201	정부행정 관리자	2231	통신 및 방송송출 장비 기사	2459	임상 심사 및 기타 치료사	2725	서비스생인	2889	연예인 및 스포츠 마거
1202	경영지원 관리자		공공 전문가 및 기술직(2)	2461	음식구조사	2729	가죽공예 및 보철 관련 전문가	2890	미술사 및 기타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1209	가터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	2311	건축기 및 건축공학 기술자	2462	위생사	2731	심동맥기 전문가		3 사무 종사자
전문서비스 관리(3)		2312	토목공학 기술자	2463	인양사	2732	이형상용 개발자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3)
1311	연구 관리자	2313	조경 기술자	2464	외국기공사	2733	광고 및 홍보 전문가	3111	조세행정 사무원
1312	교육 관리자	2314	도시 및 교통설계 전문가	2465	건축조사	2734	조사 전문가	3112	관세행정 사무원
1313	보철 기술소장 및 고도 관리자	2315	측량 및 지리정보 전문가	2466	연행사	2735	행사기획자	3121	관세행정 사무원
1320	보철 및 금융 관리자	2316	건설공학 기술원	2471	사회복지사	2741	검정평가 전문가	3122	관세행정 사무원
1331	보안관리 관련 관리자	2321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472	반목 교사	2742	세화 작업원	3123	관세행정 사무원
1332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2322	화학공학 기술원	2473	정식업원 및 호텔 알선원	2743	기술 작업원	3124	관세행정 사무원
1340	문화예술 디자인 및 영상 관련 관리자	2331	건축 제로공학 연구원 및 기술자	2474	성인전문가 및 청소년 지도사	2744	심동맥기 및 경쟁사	3125	관세행정 사무원
1350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2332	건축 제로공학 기술원	2475	사이 언더 활동가	2745	수출입 컨설턴트 및 중개인	3126	관세행정 사무원
1350	가터 전문서비스 관리자	2341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479	가터사회복지 관련 종사원	2749	가터 기술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건설 전문가 및 생산 관련 관리(4)		2342	환경공학 기술원	2481	성직자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2)		경쟁 및 회계 관련 사무직(3)
1411	건설 및 건설 관련 관리자	2351	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489	가터 종교 관련 종사자	2811	작가 및 관련 전문가	3113	조세행정 사무원
1412	전기 기술 및 수도 관련 관리자	2362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교육전문가 및 관련직(2)	2812	번역가	3114	조세행정 사무원
1413	제품 생산 관련 관리자	2363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811	대학 교수	2813	문학자	3115	조세행정 사무원
1420	가터 건설 전문가 및 생산 관련 관리자	2364	전기 전자 및 기계공학 기술원	2812	대학 시간강사	2814	가터 및 논설위원	3116	조세행정 사무원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5)		2361	인공지능 및 웹 관련 전문가	2821	고등학교 교사	2815	문화활동가	3117	조세행정 사무원
1511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	2362	반도체 설계 및 회로 설계	2822	초등학교 교사	2821	뮤지컬 및 문화재 보존원	3118	조세행정 사무원
1512	음식서비스 관련 관리자	2363	반도체 설계 및 회로 설계	2823	특수교육 교사	2822	사이버 및 기록물관리사	3119	조세행정 사무원
1521	숙박 여행 예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2371	항공기 조종사	2830	유치원 교사	2831	감독 및 기술감독	3120	조세행정 사무원
1522	음식서비스 관련 관리자	2372	항공기 정비사 및 도색사	2841	관리 및 이력 관리자	2832	배우 및 모델	3121	조세행정 사무원
1530	호텔 객실 및 관리 관련 관리자	2373	관리사	2842	컴퓨터 기사	2833	아나운서 및 리포터	3122	조세행정 사무원
1540	가터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	2381	식물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843	기술 및 능력자 검사	2834	촬영기사		법률 및 감사 사무직(3)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382	식물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844	예술가	2835	영화 및 음향 기사	3123	조세행정 사무원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2)		2383	가스-액체 기술자 및 연구원	2845	학술지 및 정보 교사	2836	영상 제작 및 편집 기사	3124	조세행정 사무원
2111	생물과학 연구원	2394	소형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849	가터 관리 기술 및 예술 검사	2837	조각가 및 양상가		상업 인사 통제 및 기타 사무직(2)
2112	자연과학 연구원	2395	식물 생물공학 및 에너지 기술원	2851	정밀안전 연구원 및 교육 관련 전문가	2839	가터연구 영화 및 영상 관련 종사자	3125	조세행정 사무원
2121	인문학 연구원	2396	지도원	2852	교육공학	2841	회기 및 조각가	3126	조세행정 사무원
2122	사회과학 연구원	2399	가터공학 관련 기술자 및 기술원	2859	보조 교사 및 기타 교사	2842	시간관리 및 관리자	3127	조세행정 사무원
2131	생물과학 기술원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2)		법률 및 행정 전문직(2)	2843	언론기 및 인쇄영화 작가	3128	조세행정 사무원
2132	농림어업 관련 기술원	2411	전문 의사	2811	변사 및 검사	2844	국악 및 전통예술인	3129	조세행정 사무원
2133	자연과학 기술원	2412	일반 의사	2812	변호사	2845	지휘자 작곡가 및 연주자		4 서비스 종사자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2)		2413	현직사	2813	법률 및 정책관	2846	가터 및 음악가		경쟁 및 회계 관련 사무직(3)
2211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및 연구원	2414	피부 의사	2814	변리사	2847	무용가 및 연주자	4111	경쟁사
2212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415	수위사	2820	정부 및 공공 행정 전문가	2851	제품 디자이너	4112	소형관
2221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2420	약사 및 한약사		경영 금융전문가 및 관련직(2)	2852	패션 디자이너	4121	경쟁사
2222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2430	간호사	2711	인사 및 노사 관련 전문가	2853	살생학 디자이너	4122	경쟁사
2223	금융 소프트웨어 개발자	2440	영양사	2712	회계사	2854	사각 디자이너	4123	경쟁사
2224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2451	임상심사	2713	세무사	2855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4124	경쟁사

별첨. 직업분류표

구분	직업분류 예시	구분	직업분류 예시	구분	직업분류 예시	구분	직업분류 예시	구분	직업분류 예시	
6 농림어업 속원 종사자		7401	음료원	기타 기능 관리직		8434	광석 및 석제품 가공기 조작원	8222		박제원
농축산 숙직(6)		음식 및 기계 관리 기능직(7)		7911	금세원	8439	기타 비금속 제품 관련 생산기 조작원	8223		음식 배달원
6111	곡식작물 재배원	7510	자동차 정비원	7912	귀금속 및 보석 세공원	기계조립 및 관리 기능 직종(8)		제조 관련 단순-무예(9)		제조 관련 단순 종업원
6112	채소 및 특용작물 재배원	7521	항공기 정비원	7921	건설 배관공	8510	금속공업기기 조작원	9301		제조 관련 단순 종업원
6113	과수작물 재배원	7522	선박 정비원	7922	공업 배관공	8520	방수용 관련 설치 조작원	제조 및 관리 관련 단순-무예(9)		제조 및 관리 관련 단순 종업원
6121	원예작물 재배원	7523	철도/전차 및 자동차 정비원	7929	기타 배관공	8530	자동차조립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9411	장식물	장식물 조종원
6122	조경원	7529	기타 운송장비 정비원	7931	배관 세정원 및 방수원	8541	자동차 조립원	9412	화장품	화장품 조종원
6131	농림업 관련 종사원	7531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7999	기타 기능 관련 종사원	8542	자동차 부품 조립원	9421	장비류	장비류 조종원
6132	기후 시설 종사원	7532	승강기 설치 및 정비원	8 장차 기계 조립 및 조립 종사자		8543	운송장비 조립원	기계 및 운송 관련 단순-무예(9)		기계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업원
6139	기타 운송 관련 종사원	7533	물품 이동 장비 설치 및 정비원	4품 기능 관리 기능 직종(8)		8544	일반기계 조립원	9511	기계 도우미	기계 도우미
임업 숙직(6)		7534	농동 생산 공작기 설치 및 정비원	8111	제분 및 도정 관련 기계 조작원	8550	공업기계 부품 조립원	9521	패스트푸드점	패스트푸드점 종업원
6201	정원 조성 및 관리원	7535	보일러 설치 및 정비원	8112	국립/공립을 기조로 조작원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 직종(8)		9522	주말 편의점	주말 편의점 종업원
6209	임산물채취 및 기타 임업 관련 종사원	7536	건설 및 공작기계 설치 및 정비원	8113	목욕 여비주 및 농림업 기구 기구조작원	8610	발전 및 변전장치 조작원	9529	기타 편의점 관련 단순 종업원	기타 편의점 관련 단순 종업원
어업 숙직(6)		7539	어업용 및 기타 기구/장비 설치 및 정비원	8114	과실 및 채소 관련 기계조작원	8620	전기 및 전자 설치 조작원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무예(9)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업원
6301	어선원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7)		8120	음료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8621	전기부품 및 제품제조 기계조작원	9910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업원
6302	어부 및 배너	7611	PC 및 사무기기 설치 및 수리원	8130	기타 4품 기능 관리 기능 직종(8)	8630	전자부품 및 제품제조 기계조작원	9911		제조관련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업원
7 기술인력 관련 기능 종사자		7612	기타 전자/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섬유 및 신발 관련 기능 직종(8)		8640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 조립원	9921		제조관련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업원
4품 기능 관리 기능직(7)		7619	기타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8211	섬유제조 기계조작원	운전 및 운송 관리직(8)		9922		수급원
7101	비행원 및 조종원	7621	선박조종원	8212	편직 및 염색 관련 조작원	8710	철도 및 자동차 기사	9923		주차관리원 및 안내원
7102	택시운전	7622	내선조종원	8221	직조 및 편직기 조작원	8720	화물자동차 차량 및 관련 종사원	9924		구두 도매원
7103	항공운 및 조종원	7623	선박조종원	8222	신발 제조 조작원 및 조립원	8731	택시 운전원	9925		세탁원 및 다림질원
7104	식물 및 동물 등원	건설 및 제조 관련 기능직(7)		8223	기타 직물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732	버스 운전원	9929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업원
7105	건설 및 일반제조 종사원	7711	항공작물 기동원 및 조립원	8229	기타 직물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733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	10 전문직		10 전문직
7109	기타 식물/동물 관련 종사원	7712	항공 불꽃공	8230	세탁 관련 기계조작원	8739	기타 자동차 운전원	A111		영리교사 이상
임업·어업 및 기타 기능 관리 직종(7)		7721	철도공	화학 관련 기능 직종(8)		8740	화물자동차 정비 조작원	A112		원예원
7211	비행사	7722	항공기 조종원	8301	석유 및 화학산업 관련 화학장치 조작원	8750	건설 및 제조 기계 운전원	A121		장기 관리 및 조종
7212	제단사	7723	건축 석공	8312	화학물질 가공 장치 조작원	8760	선박 관련 승무원 및 관련 종사원	상하수도 및 생활용 처리 관련 기능 직종(8)		상하수도 및 생활용 처리 관련 기능 직종(8)
7213	제분사	7724	건축 목공	8319	기타 석유 및 화학물질 가공장치 조작원	8801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8810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7214	제분원	7725	조각공 및 석재 부설원	8321	화학제품 생산기 조작원	8820	지열을 처리 및 수송 조작원	8821		지열을 처리 및 수송 조작원
7219	기타 석유 및 기타 관련 기능 종사원	7729	기타 건설 관련 기능 종사원	8322	타이어 및 고무제품 생산기 조작원	목재산업 및 기타 기능 직종(8)		8811		목재 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7221	화학제조원	7731	미장공	8323	플라스틱제품 생산기 조작원	8910		목재 산업 관련 단순 종사원		목재 산업 관련 단순 종사원
7222	화학 및 공작제조원	7732	방수공	832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조립원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능 직종(8)		8911		금속 산업 관련 단순 종사원
7223	도금 및 금속제품 제조원	7733	단열공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능 직종(8)		8411	주조기 조작원	8913		철로 및 중기 제조장치 조작원
7224	외국 기구 및 모피 수선원	7734	배터리 시공원	8412	단조기 조작원	8413	공작기 조작원	8914		철기 제품 생산기 조작원
7229	기타 외국 제조원	7735	도색공 및 유채 부채원	8419	공작기 조작원	8419	금속기구 관련 화학장치 조작원	8921		인쇄기 조작원
목재·기구·전기 및 관련 기능 직종(7)		7736	나무 도장공	8421	단조기 조작원	8419	금속기구 관련 화학장치 조작원	8922		시간인력 및 행정기 조작원
7301	목제품 제조 관련 종사원	7737	나무 조립 및 설치원	8422	도금 및 금속분무기 조작원	8419	금속기구 관련 화학장치 조작원	8923		시간인력 및 행정기 조작원
7302	기구 제조 및 수리원	7739	기타 건축 마감 관련 기능 종사원	8431	리프팅 및 기구기 조작원	8419	금속기구 관련 화학장치 조작원	8924		기타 제조 관련 기계조작원
7303	기계제조 및 조종사	7741	관련 제조원 및 석재 절단원	8432	전동기 조작원	8 단순노동 종사자		건설 및 관리 관련 단순-무예(9)		건설 및 관리 관련 단순 종업원
7304	건설 제작 및 설치원	7742	철도 설치 및 보수원	8433	시멘트 및 콘크리트 제조기 조작원	8910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운송 관련 단순-무예(9)		운송 관련 단순 종업원
금속·제조 관련 기능직(7)		7749	기타 제조 및 도색 관련 종사자	8417	연삭기 조작원	8911	선박 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9021		무연탄 채취원
7411	광업원	광업 및 광산 장비 관리 기능직(7)		8421	도금기 조작원	건설 및 관리 관련 단순-무예(9)		9101		건설 및 관리 관련 단순 종업원
7412	주조원	7801	광업 및 광산 장비 설치 및 수리원	8422	도금 및 금속분무기 조작원	운송 관련 단순-무예(9)		9210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업원
7413	단조원	7802	광산 및 광산 장비 설치 및 수리원	8431	리프팅 및 기구기 조작원	9210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업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업원
7421	제분원	7803	광산 광물 및 안전장비 제조 및 수리원	8432	전동기 조작원	9221		무연탄 채취원		무연탄 채취원
7422	광업원	7803	광산 광물 및 안전장비 제조 및 수리원	8433	시멘트 및 콘크리트 제조기 조작원	9221		무연탄 채취원		무연탄 채취원

3.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표_중·고등학생용



--	--	--	--

2018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중·고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년들의 일과 삶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청년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2018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개인정보도 철저히 보호됩니다. 또한, 통계법 제34조(통계중사자의 의무)에 따라 응답 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은 절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각각의 조사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활실태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문항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지는 만15세~만18세(1999년 7월 1일~2003년 6월 30일 출생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령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중·고등학생이 아닌 경우(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 검정고시 준비, 재수생, 대학(교)에 입학하신 분, 현재 취업 중이신 분 등)에는 청년층 설문지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항은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면접원 ID		면접원 이름		S.V 검증	
조사구 일련번호		가처번호		가구번호	
주소(구/동)	시/도 구/시/군 동/읍/면				
응답자 연락처	() - () - ()	생년월일		년 월 일	
주택 유형	1. 단독 주택 2. 아파트 3. 연립/다세대주택 4. 기타(적을 것 :)				

구 분	남 성	여 성	합 계
총 가구원 수			
만 15세 이상 18세 이하 가구원 수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가구원 수			
가구당 조사표 부수	해당 가구원 수 총 ()부 중 ()부 진행		

※ 조사원: 동일 가구인 경우라도 모든 설문지 표지에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미진행 가구원 사유	
------------	--

동 의 서

1. 조사동의

-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동의

비동의

2.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내 및 동의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케이스탯리서치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케이스탯리서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및 제 22조와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사응답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응답내용 활용 및 처리에 대해 설명 드리고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은 아래의 통계법 제 33조 및 제 34조에 의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기재해 주신 개인 정보(연락처)는 조사기간에 따라 최대 1년 간 내부적으로 보관된 후 전문기관에 의해 즉각 일괄 폐기됩니다. 또한 선생님의 개인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일체 다른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설문참여 사실과 내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만 기재해 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릴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케이스탯리서치는 설문조사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깁니다.

본인은 위의 조사 목적과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동의

비동의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귀하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귀하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면접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하는 방법1

대부분은 주된 응답 한 가지만 고르는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응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표로 구성된 질문은 ①에서 ⑤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렇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표시하는 방법2

숫자를 기입해야 할 때는 박스 안에 한 자리씩 기입해 주세요.

〈보기2〉

문A.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명)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3〉과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3〉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4〉

문B.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 B-1로 이동** ② 없다 ➡ **문 C로 이동**

☞ 나는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B-1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설명문 반드시 참고

질문 아래 설명문(응답 기준, 용어 설명 등)이 있는 경우, 설명문을 읽고 응답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보기5〉

문C.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 **문 C-1로 이동** ② 없다 ➡ **문 D로 이동**

1. 먼저 「인구와 가족」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는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 동 : 만 세 ~ 만 세
- 청소년 : 만 세 ~ 만 세
- 청 년 : 만 세 ~ 만 세

문2) 귀하는 몇 세부터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 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독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③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3) 귀하는 몇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	--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③ 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4) 귀하는 몇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③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5)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특수영역(문6)**」으로 이동

문5-1) 해외이주를 고려하셨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자기계발을 위해서 ②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③ 행복한 삶을 위해서 ④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⑤ 취업이 어려워져서 ⑥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⑦ 빈부격차가 커져서 ⑧ 집값이 너무 비싸서
⑨ 안보가 불안해서 ⑩ 기타(적을 것 : _____)

II. 다음은 「교육과 훈련」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6) 귀하는 우리나라 입시경쟁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 ②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 ③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문7) 귀하는 다음 우리 사회의 교육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8) 귀하는 추후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9) 귀하는 지난주에 주로 취업준비를 하셨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10) 귀하는 현재까지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교원 임용 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문11)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고교교육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고교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고교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선택한 문/이과 혹은 전공선택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III. 다음은 「경제와 고용」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2)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은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분위기 좋은 회사 | ② 급여가 높은 회사 |
| ③ 유명한 회사 | ④ 안정적인 회사 |
| ⑤ 퇴근이 빠른 회사 | ⑥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 |
| ⑦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 ⑧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 |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 |

문13) 귀하는 2020년도 최저 임금으로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2016년 6,030원, 2017년은 6,470원, 2018년은 7,530원, 2019년은 8,350원입니다.

시간급 원

문14) 귀하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②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③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문15)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이나 배당,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문16) 한 달 용돈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가족을 제외한 본인 생활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용돈 포함 내용: 식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오락, 문화생활, 도서구입 등), 학원수강비, 시험응시료, 취업을 위한 도서 등 자료 구입비, 주거비 등

약 만원

문16-1) 용돈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약 %

구 분	예	아니오	잘 모름
(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①	②	③
(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①	②	③
(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①	②	
(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①	②	
(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①	②	
(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①	②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사회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사회는 대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기성세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기성세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예 → 「주거」영역(문20)으로 이동 ② 아니오

①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 ② 관련된 여러 업무 경험이 부재
③ 고용 불안정 ④ 사회적으로 낮은 인지도
⑤ 낮은 급여 수준 ⑥ 대기업으로의 이직이 불가능
⑦ 개인의 발전가능성이 없음 ⑧ 대기업보다 낮은 복지 수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IV. 다음은 「주거」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20) 귀하는 본인 명의의 집을 언제쯤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 문21) 다음은 평소 집에 대해 귀하가 갖고 계신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22) 귀하는 공동주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24)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 문25) (문24에서 ① 응답자만) 귀하는 부모님과 언제까지 함께 살 생각입니까?

-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중·고등학생용) :: 8/16

V. 다음은 「건강」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26) 귀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문27) 귀하는 지난 1년간(2017년 7월~2018년 6월) 건강검진(종합건강검진 혹은 일반건강검진 모두 해당)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28) 귀하는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 ①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 → 문30으로 이동
- ②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 문29로 이동
- ③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 문29로 이동
- ④ 기타(적을 것 : _____) → 문29로 이동

문29) (문28에서 ②,③,④ 응답자만) 귀하가 건강검진을 받으려 가지 않거나 혹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 ②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 ③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 ④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 ⑤ 기타(적을 것 : _____)

문30)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예	아니오
1)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2) 심리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문31) 귀하는 현재 본인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마른 편이다
- ② 약간 마른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비만이다
- ⑤ 매우 비만이다

문32) 귀하는 지난 2주 간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다음 각 문항들에 대해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33)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 ① 예
- ② 아니오 → **문34로 이동**

문33-1)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 ① 일주일에 1번
- ② 일주일에 2번
- ③ 일주일에 3번
- ④ 일주일에 4번
- ⑤ 일주일에 5번
- ⑥ 일주일에 6번
- ⑦ 매일

문34) 귀하는 우리 인생에서 외모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어느 정도 중요하다
- ⑤ 매우 중요하다

문35) 귀하는 성형 수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목적과 미용(보톡스 등) 목적을 모두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 「가치관」 영역(문36)으로 이동

문35-1) 귀하가 하신 성형수술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 「가치관」 영역(문36)으로 이동

② 미용(쌍꺼풀, 보톡스, 지방제거 등)

→ 문35-2로 이동

문35-2) (문35-1에서 ② 응답자만)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②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③ 취직에 도움이 되므로

④ 결혼이나 연애에 도움이 되므로

⑤ 자기만족을 위해

⑥ 기타(적을 것 : _____)

VI. 다음은 「가치관」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36) 다음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양 쪽의 표현을 보고, 귀하가 더 선호하는 정도를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 주십시오.

항 목	선호 정도							항 목
(1) 일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여가 중시
(2) 현실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상 중시
(3) 결과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과정 중시
(4) 개인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집단 중시

문37)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재산·경제력

② 화목한 가정

③ 자아성취

④ 건강

⑤ 감사·긍정적 태도

⑥ 종교생활

⑦ 직업·직장

⑧ 연인(이성관계 등)

⑨ 친구·대인관계

⑩ 꿈·목표의식

⑪ 기타(적을 것 : _____)

문38)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VII. 다음은 「관계와 참여」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39)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및 친지, 지인,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① 없다

② 있다 (명)

문40) 다음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세대는 40대, 50대 / 노인은 70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성 세대 (40, 50대)	(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노인 (70세 이상)	(4)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①	②	③	④	⑤
	(5)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①	②	③	④	⑤

문41) 시민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의견 항목에 대해 귀하가 앞으로 참여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 항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①	②	③	④	⑤
(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배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①	②	③	④	⑤
(3)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5) 항의 전화하기	①	②	③	④	⑤

문42)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43) 귀하는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문44) 귀하는 평소 얼마나 외출하십니까?

- ①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 문45로 이동
- ②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 문45로 이동
- ③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 문45로 이동
- ④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 문45로 이동
- 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 ⑥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 ⑦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 ⑧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문44-1) (문44에서 ⑤,⑥,⑦,⑧ 응답자만)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 ① 6개월 미만
-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③ 1년 이상 ~ 3년 미만
- ④ 3년 이상 ~ 5년 미만
- ⑤ 5년 이상 ~ 7년 미만
- ⑥ 7년 이상

문44-2) (문44에서 ⑤,⑥,⑦,⑧ 응답자만) 현재의 상태가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① 학업중단이나 대학진학 실패로
- ②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 ③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 ④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 ⑤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 ⑥ 기타()

Ⅷ. 다음은 「신규졸업(예정)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45) 귀하는 2018년 8월에서 2019년 8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배경문항 1)로 이동**

문45-1) 귀하의 졸업예정연월을 기입해주시시오.

■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연월 : 년 월

☞ 문46)~문50)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졸업예정자는 2018년 8월~2019년 8월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자를 의미합니다.

문46) 귀하는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학교 또는 취·창업 관련 기관(일자리센터 등)으로부터 취업이나 진로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문46-1) 학교 또는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받은 서비스는 귀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 항	문46) 서비스를 받은 경험	문46-1)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에서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적이 있다	① 예 →	①	②	③	④	⑤
	② 아니오					
(2) 학교에서 진로에 대한 상담을 제공 받은 적이 있다	① 예 →	①	②	③	④	⑤
	② 아니오					
(3)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적이 있다	① 예 →	①	②	③	④	⑤
	② 아니오					
(4) 취·창업 관련 기관에서 진로에 대한 상담을 제공 받은 적이 있다	① 예 →	①	②	③	④	⑤
	② 아니오					

문47) 귀하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① 상위교육기관으로 진학

② 취업

③ 창업

④ 취·창업 준비

⑤ 문화 및 여가생활

⑥ 아무 계획 없음

⑦ 기타(적을 것 : _____)

VIII. 다음은 귀하의 기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배경문항 1) [성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배경문항 2) [가족배경] 귀하의 부모님 소득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배경문항 3) [교육]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 이 아닙니다)

구분	중학교 재학	고등학교 재학
(1) 본인	①	②

구분	학교 안 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2)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지침서



청년 사회 · 경제 실태조사 조사지침서



목 차

I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2. 조사연혁
3. 조사기준 및 기간
4. 조사주기
5. 조사대상
6. 조사표 구성
7. 조사항목
8. 조사방법
9. 조사체계

II 조사 진행 요령

1. 면접원의 기본자세
2. 조사대상 선정 요령
3. 현장조사 요령

III 조사표 작성 요령

1.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2. 조사관련 기본개념 및 설명
3.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I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2. 조사연혁
3. 조사기준 및 기간
4. 조사주기
5. 조사대상
6. 조사표 구성
7. 조사항목
8. 조사방법
9. 조사체계



I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 현재 청년 고용 및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 최근 확대되고 있는 청년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만이 갖는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들이 급변하고 이러한 환경 변화가 청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청년 실태를 분석할 자료들은 많지 않음
- 현재 청년들의 생활실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조사를 수행하고 청년관련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함

2. 조사연혁

- 2013년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연구용역 과제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연구 수행
- 2015년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연구용역 과제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연구 수행
- 2016년 : 본원 5개년(2016-2020)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청년들의 생활 전반에 대한 핵심지표개발 및 2016년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실시(조사 1차년도)
- 2017년 : 1차 년도에 개발한 핵심지표 토대 심층 분석 및 조사 고도화(통계청 국가승인통계 제402004호 지정),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실시(조사 2차년도)

3. 조사기준 및 기간

- 조사기준 : 2018년 6월
- 조사 실시기간 : 2018년 7월~9월

4. 조사주기

- 작성주기 : 1년
- 통계작성 기준시점 : 조사기준년도 6월

5. 조사대상

- 조사대상: 전국 조사구 내 선정 가구에 거주하는 만 15~39세의 남녀 가구원

6. 조사표 구성

- 중·고등학생용 조사표(만 15세~18세)
→ 해당 연령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중·고등학생이 아닌 경우,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 검정고시 준비, 재수생,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취업중인 경우는 만 19~39세용 조사표에 응답함
- 청년용 조사표(만 19세~39세)
→ 해당 연령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중·고등학생인 경우 만 15~18세용 조사표에 응답함

7. 조사항목

- 중고등학생용 조사표(만 15세~18세용)

대분류	기본 조사항목
I. 「인구와 가족」	● 아동/청소년/청년 연령 범위 ● 독립/결혼/첫 자녀를 가지는 적정한 연령 ● 해외이주 고려 경험과 이유
II. 「교육과 훈련」	● 현재 대비 2025년 우리나라 입시경쟁에 대한 생각 ● 우리 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인식 ● 추후 대학 진학 의사 ● 취업준비/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 현 고교 교육에 대한 인식
III. 「경제와 고용」	● 선호 일자리 유형 ●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2020년 최저임금 ● 현재 대비 2025년 청년 취업경쟁에 대한 생각 ● 미취업 청년 대상 수당/배당/급여 지급에 대한 의견 ● 한 달 본인 용돈 액수 및 부모님, 친지 지원 비율 ● 물질적 발달감 정도 ● 청년에 대한 사회전반의 배려/지원 인식 ● 중소기업 취업 의향 및 비의향 이유
IV. 「주거」	● 본인 명의의 집 마련 기대 시기 ● 집 소유 등에 대한 인식 ● 공동주거 경험 여부 및 의향 ● 부모 동거여부 및 향후 부모 동거 기간
V. 「건강」	● 본인 건강에 대한 평가 ● 지난 1년 내 건강검진 수검 여부 ● 아프거나 다쳤을 때의 조치 및 병원 비이용 이유 ● 정신/심리 상담 및 치료경험 여부 ● 본인 체형에 대한 평가 ● 일상생활 행복정도 ● 규칙적 운동 여부 및 빈도 ● 외모 중요성에 대한 생각 ● 성형수술 여부 및 목적, 미용 목적 성형 이유
VI. 「가치관」	● 가치항목별 선호도 ●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 및 본인의 조건 충족정도 인식
VII. 「관계와 참여」	● 곤경에 처할 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지인 ● 기성세대 및 노인에 대한 인식 ● 반대의견 제시 방법별 참여의향 ● 정치적 참여에 대한 인식 ● 집단 따돌림 경험 ● 평소 외출 정도 ● 외출을 하지 않게 된 상태 지속 기간 및 계기
VIII. 「신규졸업(예정)자」	● 고교 졸업예정 여부 및 졸업예정연월 ● 졸업 전 취업/진로 서비스 이용경험 및 도움정도 ● 졸업 후 계획 ● 신규졸업(예정)자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 의견 ● 졸업 후 고교소재지(지역) 이탈 예정 여부 ● 취업 시 성/학벌/학력 차별 및 경제적 여유 인식

배경문항	● 성별 ● 부모의 경제적 수준 ● 본인 및 부모 최종학력
------	--

● 청년용 조사표(만 19세~39세용)

대분류	기본 조사항목
I. 「인구와 가족」	● 아동/청소년/청년 연령 범위 ● 독립/결혼/첫 자녀를 가지는 적정한 연령 ●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육아대책 ● 결혼준비/준비 도중 망설임 경험 및 망설임 이유 ● 맞벌이 여부 ● 자녀 유무 및 자녀수 ● 향후 자녀 계획 ● 현재 대비 2025년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한 생각 ● 해외이주 고려 경험과 이유
II. 「교육 및 훈련」	● 현재 대비 2025년 우리나라 입시경쟁에 대한 생각 ● 우리 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인식 ● [대학 진학자] 졸업유예/졸업 요건 미이수 경험 및 이유 ● [대학 진학자] 대학교육에 대한 인식 ● [대학 비진학자] 대학 비진학 이유, 추후 대학 진학 의사 ● 취업준비/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 향후 직업훈련 참여의향
III. 「경제와 고용」	● 선호 일자리 유형 ●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2020년 최저임금 ● 현재 대비 2025년 청년 취업경쟁에 대한 생각 ● 미취업 청년 대상 수당/배당/급여 지급에 대한 의견 ● 한 달 본인 생활비 액수 및 부모님, 친지 지원 비율 ● 채무 여부 및 채무 발생 이유 ● 물질적 박탈감 정도 ● 청년에 대한 사회전반의 배려/지원 인식 ● 중소기업 취업 의향 및 비의향 이유 ● 창업에 대한 생각 ●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노동공급, 노동수요) 인식 ● 현재 경제활동 상태(수입 목적 일, 구직 경험 유무) ● 정규교육기관(학교) 재학 여부 ● 입시 및 취업 등 기관 통학 여부 ● [비경활자 및 비교육자] 비교육 및 미취업 기간 중 활동 ● [비경활자 및 비교육자] 비교육 및 미취업 기간 ● [비경활자 및 비교육자] 취업, 직업훈련 저해요인 ● [비경활자 및 비교육자] 비교육 및 미취업 시 고민요인 ● [취업자] 직업, 월평균 소득, 조건에 맞는 직장 대우 정도, 이직 의향 및 이유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현황

대분류	기본 조사항목
	● 취업성공패키지 외 정부추진 청년고용대책 참여 현황 ● 지자체 추진 청년지원 사업 참여 현황 ● 취업/취업 후 퇴사/해고 경험 여부 ● 실직 당시 실업급여 인지여부 ● 실업급여 수령 여부 및 비수령 이유
IV. 「주거」	● 본인 명의의 집 마련 기대 시기 ● 집 소유 등에 대한 인식 ● 공동주거 경험 여부 및 의향 ● 부모 동거여부 ● [비동거 및 독립한 경우] 미혼 독거 여부 및 주거형태
V. 「건강」	● 본인 건강에 대한 평가 ● 지난 1년 내 건강검진 수검 여부 ● 아프거나 다쳤을 때의 조치 및 병원 비용 이유 ● 정신/심리 상담 및 치료경험 여부 ● 본인 체형에 대한 평가 ● 일상생활 행복정도 ● 규칙적 운동 여부 및 빈도 ● 의도 중요성에 대한 생각 ● 성형수술 여부 및 목적, 미용 목적 성형 이유
VI. 「가치관」	● 가치항목별 선호도 ●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 및 본인의 조건 충족정도 인식
VII. 「관계와 참여」	● 곤경에 처할 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지인 ● 기성세대 및 노인에 대한 인식 ● 반대 의견 제시 방법별 참여의향 ● 정치적 참여에 대한 인식 ● 집단 따돌림 경험 ● 평소 외출 정도 ● 외출을 하지 않게 된 상태 지속 기간 및 계기 ● '혼술', '혼밥' 경험 및 빈도
VIII. 「신규졸업(예정)자」	● 고교/대학교 졸업예정 여부 및 졸업(예정)연월 ● 졸업 전 취업/진로 서비스 이용경험 및 도움정도 ● 졸업 후 계획 ● 신규졸업(예정)자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 의견 ● 졸업 후 대학(고교)소재지(지역) 이탈 예정 여부 ● 취업 시 성/학벌/학력 차별 및 경제적 여유 인식
배경문항	● 성별 ● 결혼 여부 ● 부모의 경제적 수준 ● 본인 및 부모 최종학력 ● [대학 진학자] 학교 소재지, 전공, 입학 및 졸업시기 ● [취업자] 종사상 지위, 고용형태, 근로시간 유형, 직장유형, 종사자 수, 근속년수

8. 조사방법

-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을 활용하는 대면면접조사 PI(Personal Interview)로 진행함
- 대면면접 시 태블릿 PC 기반 조사(TAPI: 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유치가 필요할 경우, 혹은 응답자가 희망하는 경우 인쇄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유치/조사를 진행함

9. 조사체계

담당 역할	기관명
조사기획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현장조사	케이스탯리서치
자료처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케이스탯리서치
결과분석 및 공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Ⅱ 현장조사

1. 면접원의 기본자세
2. 조사대상 선정 요령
3. 현장조사 요령
 - 가. 면접조사 요령
 - 나. 조사불응, 장기부재 등에 대한 대응방법
 - 다. 예상 질문과 응답 방법



II 현장조사

1 면접원의 기본자세

가. 면접원의 마음가짐

- 면접원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및 조사회사의 대표자로서 공손하고, 유쾌하며 자신감 있어야 하고 잘 준비되어야 함
- 조사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할 뿐 아니라 응답자에게 그들의 참여가 가치있고 필수적임을 인식시켜야 함

나. 면접원의 태도

- 단정한 복장과 겸손한 태도로 응답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조사 지침을 반드시 숙지함으로써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응답자에게 신뢰감을 주도록 함
- 면접과정에서 편향된 질문으로 응답을 유도하거나 상식 등 주관적인 판단으로 조사표를 작성해서는 안 됨
- 자신이 직접 판단하기 어렵거나 애매한 사례는 조사표에 구체적으로 메모 해 두고, 반드시 조사관리자나 담당직원과 상의한 후 기입하도록 함

다. 면접원의 의무

- 조사기간 중에는 반드시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조사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함
- 조사가구의 일련번호(조사구, 거처, 가구번호), 주소, 연락처, 가구원 일반현황 등을 완성해야 함
- 조사는 반드시 교육받은 당사자가 해야 하며, 가족이나 친구에게 대리 조사하게 해서는 안 됨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구에 대한 모든 내용은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됨(통계법 제33조, 제34조)
 -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됨(통계법 제39조)
- 실사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조사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 완성된 조사표는 그때그때 조사관리자나 담당직원에게 내용을 확인받아야 함
- 특별한 사유(질병 등)로 조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실사연구원에게 알려야 함

☞ 통계법(법률 제14467호 2016.12.27.일부개정) 관련 조문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4.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5.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경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 절차 또는 통계작성기법에 따라 조사 오류 또는 입력 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한 자를 제외한다.

라. 면접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

- 조사기간 중, 판매 등 영업활동은 절대 금지됨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구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됨. 이를 위반할 시에는 통계법(제33조)에 의하여 처벌받게 됨
- 조사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설문지 응답을 표기해서는 안 됨
검증과정을 통해 밝혀질 경우 해당 면접원의 설문지는 전량 폐기되며 폐기된 설문지의 보수는 지급되지 않음
- 조사원으로 채용된 자가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위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로 조사원 활동이 정지되는 경우, 수당은 도급계약서 산정 기준에 의해 처리됨

바. 면접원 안전수칙

- 조사 중 불의의 사고로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함
- 부득이 야간에 조사해야 할 경우, 면접원 2인이 함께 다니거나 가족, 친지, 실사연구원 등과 연락하여 동행하도록 함
- 조사 당일의 일정을 가족에게 알림
- 조사 수행 시 사고나 부상 시는 즉시 가족, 실사연구원에 연락함

2 조사대상 선정 요령

가. 조사구 경계 확인

- 조사구란 조사대상 지역에 대하여 식별이 확실한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지도상에서 일정한 가구 수가 포함되도록 분할한 조사담당구역임(보통 1조사구에 40가구 해당).
- 표본으로 선정된 조사구를 직접 방문, 배부된 명부의 거처와 일치하는지 파악하여 제공된 조사구 요도와 명부를 토대로 조사 가능한 상황인지를 점검함

<참고. 조사구 요도 및 명부 형태 예시>

<조사구 요도>		<조사구 명부>											
행정 구역	조사구, 가차, 가구	주소	가차	가구	주소	가차	가구	주소	가차	가구	주소	가차	가구
시정 읍면동	보도번호	구	동명	도로명	건물	층수	층수	가구명	가차	가구	가차	가구	가구
1. 보행자단구 건물지물	7901111	0271	004	001	1	1	1	1	1	1	1	1	1
2. 보행자단구 건물지물	7901111	0271	004	001	1	1	1	1	1	1	1	1	1
3. 보행자단구 건물지물	7901111	0271	001	001	1	1	1	1	1	1	1	1	1
4. 보행자단구 건물지물	7901111	0271	001	001	1	1	1	1	1	1	1	1	1
5. 보행자단구 건물지물	7901111	0271	001	001	1	1	1	1	1	1	1	1	1
6. 보행자단구 건물지물	7901111	0271	001	001	1	1	1	1	1	1	1	1	1
7. 보행자단구 건물지물	7901111	0271	004	001	1	1	1	1	1	1	1	1	1
8. 보행자단구 건물지물	7901111	0271	001	001	1	1	1	1	1	1	1	1	1
9. 보행자단구 건물지물	7901111	0271	001	001	1	1	1	1	1	1	1	1	1
10. 보행자단구 건물지물	7901111	0271	001	001	1	1	1	1	1	1	1	1	1
11. 보행자단구 건물지물	7901111	0271	001	001	1	1	1	1	1	1	1	1	1
12. 보행자단구 건물지물	7901111	0271	001	001	1	1	1	1	1	1	1	1	1
13. 보행자단구 건물지물	7901111	0271	001	001	1	1	1	1	1	1	1	1	1
14. 보행자단구 건물지물	7901111	0271	001	001	1	1	1	1	1	1	1	1	1
15. 보행자단구 건물지물	7901111	0271	001	001	1	1	1	1	1	1	1	1	1
16. 보행자단구 건물지물	7901111	0271	001	001	1	1	1	1	1	1	1	1	1
17. 보행자단구 건물지물	7901111	0271	001	001	1	1	1	1	1	1	1	1	1
18. 보행자단구 건물지물	7901111	0271	001	001	1	1	1	1	1	1	1	1	1
19. 보행자단구 건물지물	7901111	0271	001	001	1	1	1	1	1	1	1	1	1
20. 보행자단구 건물지물	7901111	0271	001	001	1	1	1	1	1	1	1	1	1
21. 보행자단구 건물지물	7901111	0271	001	001	1	1	1	1	1	1	1	1	1
22. 보행자단구 건물지물	7901111	0271	001	001	1	1	1	1	1	1	1	1	1
23. 보행자단구 건물지물	7901111	0271	001	001	1	1	1	1	1	1	1	1	1
24. 보행자단구 건물지물	7901111	0271	001	001	1	1	1	1	1	1	1	1	1
25. 보행자단구 건물지물	7901111	0271	001	001	1	1	1	1	1	1	1	1	1
26. 보행자단구 건물지물	7901111	0271	001	001	1	1	1	1	1	1	1	1	1
27. 보행자단구 건물지물	7901111	0271	001	001	1	1	1	1	1	1	1	1	1
28. 보행자단구 건물지물	7901111	0271	001	001	1	1	1	1	1	1	1	1	1

나. 조사구 교체

-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조사구 내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조사구 교체를 요청, 새롭게 지정된 조사구에서 조사를 실시함
 - ① 조사구 내 50% 이상이 다른 주택형태로 변경된 경우(예: 보통←아파트)
 - ② 조사구 내 가구가 이미 철거 또는 철거중인 경우(철거, 용도변경, 공사중 등)
 - ③ 행정구역 변동에 의해 조사구 관할이 달라진 경우
 - ④ 지형지물의 심한 변동으로 조사구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 ⑤ 조사구내 위험이나 조사 장애가 생겨 조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우범지역, 빈집 많은 지역)
 - ⑥ 해당 조사구 내에서 타 기관 등이 주관하는 조사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경우
- 정해진 방법에 의해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구 전체를 조사하여도 10부 미만의 샘플이 확보될 경우 새로운 대체 조사구를 지정받아 이어서 진행함

다. 표본조사가구 확인 및 조사

- 본 조사에서 활용할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가구명부는 조사구 확정 후 조사원에게 제공됨
- 표본가구명부는 인구총조사 가구명부에서 거처번호를 기준으로 10개 추출된 가구의 명부리스트와 예비가구 리스트로 구성됨
- 조사원은 제공받은 표본가구명부 상의 거처번호와 조사구 요도상의 거처번호 일치 여부를 재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해당 조사구 요도 상의 거처를 조사함
- 추출된 10개의 표본가구 리스트에서 빈집, 조사불능 등의 이유로 예비가구로 대체시에는 예비가구명부상 등재순으로 표본가구를 대체하며, 이 경우 표본가구 명부 하단에 사용한 대체가구를 기재함(비고란에 대체사유 기재 필수)

라. 표본조사가구 대체

- 조사대상 가구가 빈집, 장기부재(불능), 응답거부(불응)에 해당하는 경우
- 조사대상 가구 내에 적격 연령대(만15~39세) 가구원이 아예 없는 경우
(예: 고연령 부부 가구, 만15세 미만 가구 등)
- 조사대상 가구 내 적격 연령대 응답 대상자의 불응 또는 불능 시
 - ① 조사항목 중 일부 부문에 불응한 응답자(불응)
 - ② 조사기간 중 선박승무, 항공기탑승, 병원입원, 친척방문, 출장·사업상 여행, 장기여행 등으로 부재중인 가구원(불능)
 - ③ 정신박약아, 중환자, 고령 등으로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한 가구원(불능)
 - * 단, 고령에 의한 불가는 자기 스스로 분별 인식이 불가능하여 조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연령이 많다고 하여 불능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족'의 개념과 조사구 조사 시 활용되는 '가구' 개념 간 일부 상이함에 유의해야 함(후면 별표 참조)

□ 가구의원의 정의

- 가구원이란 한 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을 의미
 -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더라도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
 - 가족이라도 군복무, 취업, 교육 때문에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
 - 주민등록은 함께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이 살고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
 - ※ 먼 친척, 친구, 가정부, 종업원 등 가족이 아닌 사람도 함께 살고 있으면 가구원
- 조사기간 중 대상 가구에 전출입 가구원이 있을 경우, 조사 기준일(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판단함
 - 기준일 전 전입한 가구원은 조사하고, 전출한 가구원은 조사하지 않음
 - 기준일 후 전출·입한 가구원은 모두 조사하지 않음

□ 가구의원의 구분

구 분	내 용
가구원에 포함되는 사람	- 출장, 친지 방문, 여행, 행사, 입원, 환자 간호 등으로 잠시(3개월 미만) 집을 떠나 외지(국내, 국외)에 있는 사람
	- 선박, 항공기, 철도, 시외·관광버스 등의 탑승 공무원
	- 예비군 훈련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
	-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직업군인
	- 구직이나 무단가출 등으로 집을 떠나 정착여부를 알 수 없는, 떠난 지 1개월이 되지 않는 가족
	- 숙식을 함께 하는 가사도우미와 하숙인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 군인 및 전투경찰, 의무경찰 등으로 입대함 가족
	- 취업 또는 직장 때문에 외지에서 살고 있는 가족
	- 보육원, 노인요양시설, 특수병원, 부녀보호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가족
	- 외국인

3 현장조사 요령

가. 면접조사 요령

1) 가구를 방문하기 전

- 조사표의 구성 및 순서, 항목별 지침을 충분히 숙지함
-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함
 - 조사원증, 가구명부, 조사구요도, 조사용 태블릿PC, 조사표, 방문안내장, 조사안 내팔플렛, 지침서, 답례품 및 지급명부 사무용품 등 휴대

2) 가구를 방문할 때

- ① 조사지역에 도착하면 누구에게나 공손히 대함
 - 조사대상자가 조사지역에서 생업에 종사는 경우가 있고 빈번히 왕래하기 때문에 거리에서 만난 사람이 조사대상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
 - 단정한 복장과 바른 언행은 지역주민들에게 신뢰감과 좋은 인상을 줌
- ② 방문시간은 언제라도 좋으나 이른 아침이나 한밤중은 가급적 피하도록 함
- ③ 대문을 두세 번 두드리거나 벨이 있을 때는 약간 동안만 놀러야 함
 - 수차례 대문을 두드리거나 벨을 오랫동안 누를 경우 실내 거주자에게 불필요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특히, 아파트는 복도나 문 앞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다른 가구에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선 현관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은 뒤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음

3) 가구원을 만났을 때

- ① 먼저 방문목적과 자신에 대해 소개함
- ② 이 조사는 통계청에서 승인한 공식통계조사이며, 응답내용은 통계 작성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고, 법으로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함
- ③ 조사 목적(청년 생활실태 전반 파악)에 따라 조사대상 연령이 제한(만 15세-39세)됨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적격 연령대 가구원 거주여부 및 현재 응답 가능여부를 확인함

- ④ 조사 내용 상 개인의 주관적 의식 상태를 묻는 항목이 많으므로 어느 특정 가구원이 대신하여 일괄 응답할 수 없는 조사임에 유의(예: 만15세 이상 청소년의 응답을 부모가 대신 응답 불가)하고 이 같은 상황 발생 시 대상 가구원에게 정중히 양해를 구함
- ⑤ 조사표를 가지고 면접을 시작함. 소득, 결혼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감한 성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모든 질문을 할 때 같은 어조로 물음으로써 응답자가 편안하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 말할 수 있게 함
- ⑥ 응답자가 직접 회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집 사람이 있는 곳, 특히 많은 사람이 운집·이동하는 공용공간에서의 조사는 지양함
- ⑦ 응답자가 그 자리에서 당장 답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 우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나머지 응답을 모두 완료한 후 미비된 항목의 보완을 위한 재방문/재연락 일시를 약속하고, 만약 종이설문을 사용한 경우 해당 항목에 표시해 주고, 시간을 두고 보완하도록 요청한 뒤 조사표를 회수할 재방문일시를 약속함
- ⑧ 종이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를 진행한 경우, 면접을 끝내기 전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기입내용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게 작성되었는지, 항목 간에 상충된 내용은 없는지 그 자리에서 꼼꼼히 확인함
- ⑨ 조사표를 완성한 가구에 답례품을 지급하고, 가구를 떠날 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정중히 인사하며, 추후 응답내용 보완, 조사검증을 위해 1·2차례 전화 연락이 갈 수 있음에 대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조사종료

나. 조사불응, 장기부재 등에 대한 대응 방법

- 조사 불응 :
 - 면접 거부나 응답기피 등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불응 정도(강한 거부 vs 약한 거부)에 따라 대응함
 - 강한 거부 시엔 상황을 조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계속 진행하고(부족 표본은 대체 조사가구에서 진행) 약한 거부 시엔 필요에 따라 조사 관리자의 동행으로 설득하여 진행함
- 장기 부재 : 가구원 모두 부재중인 경우, 3일 이상(하루 1회 이상) 방문

• 조사 대상자(적격 연령대 응답자) 부재 :

- 거주 가구원의 협조를 얻었음에도 조사 적격 연령대 가구원의 부재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협조를 얻은 거주 가구원을 통해 재방문 일시를 정함
- 재방문 시간은 적격 가구원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면 언제라도 좋으나 너무 이른 새벽, 한밤중은 가급적 피하도록 함

다. 예상 질문과 응답 방법

①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는 무엇입니까?

- 현재 청년들의 생활실태와 경제적 상태 및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청년 관련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입니다.

② 어디서 조사합니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케이스탯리서치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③ 이 조사에 꼭 참여해야 합니까?

-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대표하여 응답하는 것으로 대상가구가 응답하지 않으면 전체 조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게 되어 결국 자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모든 국민은 통계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통계법 제32조)
※ 단, 법적 의무 설명 시 강압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응대

④ 조사대상 가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를 조사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 가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뽑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정렬하고, 컴퓨터에 의해 무작위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표본으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가구가 표본으로 뽑힐지 모릅니다.
- 응답자의 가구가 이 통계에서 전국 가구를 대표하도록 선정된 것입니다.

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으로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연구 및 과학적 분석을 통해 국가의 청소년 정책 수립의 기초 및 근거자료를 생산하는 연구기관입니다.

⑥ 케이스탯리서치는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 케이스탯리서치는 여론조사 전문회사입니다. 정부관련 기관에서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여론의 생각을 수집하여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⑦ 개인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 조사 내용은 엄격하게 법으로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남에게 누설되지 않으니 안심하십시오.
- 조사된 내용은 이름을 제외하고 모두 전산 처리되어 어느 집의 누구에 관한 내용인지 식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름을 작성하는 이유는 나중에 조사가 정확하지 않을 때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⑧ 조사된 자료가 과세자료 등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아요?

- 본 조사는 통계승인을 받은 정부공식 통계로써 통계 목적 이외에는 과세자료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통계법으로 엄격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통계법 제33조).
- 위 사항을 어길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통계법 제39조).

Ⅲ 조사표 작성 요령

1.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2. 조사관련 기본개념 및 설명
3.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조사표 작성 요령

1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1) 조사표 작성 대상 및 기준

- 본 조사의 조사대상은 '개인'이며, 해당 가구 내 만 15~39세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응답을 받음
- 따라서 기본적으로 조사문항에 대한 응답은 '본인(개인)'을 기준으로 함
- 단, '가구소득' 등 가구에 대한 질문의 경우 가구를 기준으로 응답 받음

2) 조사표 작성 방법

- 조사단위 금액은 만원으로 하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함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에 "0"으로 표시하지 말고, 공란으로 남겨 둠
 - "0"으로 표시하는 경우 예시 : 실제 용돈이 없어서 0원인 경우, 가족 지인으로부터의 용돈 지원금액이 없어서 0%인 경우 등
- 종이설문에 의한 조사표 작성 시 검정색 또는 청색펜을 사용할
- 종이설문에 의한 조사표 작성 중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정사항은 수정액이나 테이프를 사용하지 말고 빨간펜으로 두 줄을 그은 후 아래에 기입함

2 조사관련 기본개념 및 설명

□ 가구

가구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를 말함

- ▶ 주민등록상 세대 : 주민등록상 세대는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과 다르게 등록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 포함하는 가구와 개념이 다름
- ▶ 가족 : 가족은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이나, 가구는 혈연관계와는 상관없이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임

□ 가구주

가구주란 호주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가구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함

□ 가구원

가구원이란 한 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을 의미하며,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더라도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됨. 즉 가족이라도 군복무, 취업, 교육 때문에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됨. 또한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이 살고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되므로 먼 친척, 친구, 가정부, 종업원 등 가족이 아닌 사람도 함께 살고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함. 임시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상시거주자로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되었고 현재도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구원으로 포함함

□ 직업교육훈련

직업교육훈련이란 직업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계획된 과정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받는 과정을 의미함

□ 경제활동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수입이 있는 일을 행함을 의미함

☞ 수입이 있더라도 다음의 활동은 경제활동으로 보지 않음

- ① 법률에 위배되는 비생산적인 활동(예: 도박, 매춘 등)
- ② 법률에 의한 강제노역 및 봉사활동
- ③ 경매, 경륜, 증권, 선물 등 투자활동

□ 일하였음

임금이나 이윤을 목적으로 일한 사람과 가족(동일 가구에 거주하는 배우자, 혈연, 혼인 또는 양자에 의한 친·인척)이 경영하는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한 사람

☞ 무급으로 동일 가구내 비혈연 가구원의 일 또는 혈연관계라 하더라도 생활근거를 달리하는 가족의 일을 돕는 것은 무급가족종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함

- 일한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식사, 주거 또는곡물제공)을 받는 경우 : 현금급여나 봉급을 받고 하는 일, 현물급여(주거제공과 식사제공 및 곡류포함)를 받고 하는 일과 팁을 받고 하는 일도 포함
- 원재료를 제공한 사업체가 마련한 장소에서 작업을 행하여 일한 분량대로 돈을 받는 일의 경우
- 원재료를 제공받아 개인의 가정에서 가공활동을 하고 완료한 일의 분량에 따라 돈을 받는 일의 경우
- 자기 자신의 사업장이나 농장을 가지고 이윤을 목적으로 일을 한 경우 또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경우
예) 식당 운영, 미장원 운영, 법률사무소 운영, 농사짓는 일, 양계장 운영 등
- 소득의 적자 여부를 불문하고 조사대상주간에 실질적인 소득을 올리지 못했으나 계속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시간을 보낸 경우
- 농림어업 사업체를 가진 사람이 파종, 비료살포, 살균, 어획활동 등 실질적인 농림어업활동을 하지 못했으나 농기구 손질, 수선 등으로 시간을 보낸 경우
- 서로 노동력을 교환하는 형식의 활동인 품앗이(주로 농가에서 이루어짐)

□ 취업자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실업자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 비경제활동인구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인 자, 즉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 등을 말함

□ 자기사업장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자기 영업소를 유지하고 있거나, 상당한 가치를 가진 자기소유의 기계 장비를 가진 경우를 말하며, 소속이 없더라도 개별 활동을 하는 경우도 해당

예) 작가, 화가, 배우 등

☞ 자기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

- 사무실, 상점 또는 자기 영업장소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전화서비스, 광고물 설치 등을 통해 사업광고를 하는 경우
- 자기 장비를 가지고 가내수공업을 하는 경우
- 성수기(해당계절)에 경작지, 스키임대 매장, 물놀이 시설 등이 있는 경우

◇ 자기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집에서 하는 가사서비스 활동을 하는 경우
- 사업장비가 없이 가구를 상대로 단순노동을 제공하고 일당을 받는 경우
- 목수 등이 가구를 상대로 하는 소규모 수리활동

□ 구직단념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아래의 사유(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

- ① 적당한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전공, 경력, 임금수준, 근로조건, 주변)
- ② 지난4주간 이전에 구직하여 보았지만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
- ③ 자격이 부족하여(교육, 기술 경험 부족,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 소득

근로소득(일을 해서 얻은 소득) + 사업소득(자영자나 고용주의 지위에서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총수입에서 재료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익중 가계에 들어온 금액) + 이전소득(국가에서 연금형태로 지급해 준 일체의 지원금과 생활비로 타 가구원, 부모, 자녀 등으로부터 받는 소득)

□ 종사상지위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상태를 말하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구분

□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및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합친 개념임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신만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분류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의 파트너(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사장이라 하더라도 개인기업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이나, 법인기업이면 임금근로자로 분류

□ 무급가족종사자

자기가족(동일가구 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정상근로시간의 1/3이상) 일한 가족이라도 일정한 봉급을 받는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분류함. 가구를 달리하는 가족 또는 친척의 사업체에서 무보수로 일할 경우는 무급가족종사자가 아니며,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분류함

□ 임금근로자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통상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로 구분됨

□ 정규직(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함. 여기에서의 분류는 직업의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계약기간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고용계약기간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함

-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

☐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용역 등)

임금근로자 중 상용이 아닌 자로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일당계 급여를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됨

- 일정한 사업완료의 필요에 의하여 고용된 자(사업완료가 1년 미만)
- 단순 업무 보조원으로서 상여금 등 제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 등

☐ 비임금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형태의 근로자에 해당

☐ 직업훈련

직업훈련은 취업, 창업 또는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말함. 직업훈련에는 직장연수, 학원 수강, 직업훈련 등을 포함

- 통신강좌와 교양 강좌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것이라면 포함되지만 단순한 취미 활동은 제외됨
- 정규학교교육이나 학업과 관련한 학원수강 및 과외도 제외됨

☐ 주택(주거형태) 형태

주택이란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①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
- ②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음
- ③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지 않는 독립된 출입구를 갖춘

☐ 다세대주택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동당 건물 연면적이 660㎡(200평) 이하인 경우

☐ 오피스텔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된 건축물로 주거시설을 갖춘 사무실

☐ 다가구단독주택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

◇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기가 불가능한 주택

◇ 전체 층이 3층 이하이고, 전체층(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연면적)이 660㎡(200평) 이하인 경우

☐ 아파트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 4층 이하라도 아파트로 허가 받은 건물, 주상복합아파트는 아파트에 해당

☐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로 보통 청년층 사이의 취업인구 가운데 미혼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가사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킴

3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중·고등학생용 조사표(만 15세~18세)]

(시작 전) 응답 적격자 및 적격 설문지 구분

이 설문지는 만15세~만18세(1999년 7월 1일~2003년 6월 30일 출생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령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중·고등학생이 아닌 경우(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 검정고시 준비, 재수생, 대학(교)에 입학하신 분, 현재 취업 중이신 분 등)에는 청년층 설문지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이 절대적
기준이 아님

- 2018년 6월 달을 기준으로 1999년 7월~2003년 6월 달까지 출생자 중 현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함
- 해당 연령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중고등학생이 아닌 경우,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 검정고시 준비, 재수생,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취업중인 경우는 만 19~39세용 조사표에 응답함

I. 인구와 가족

문1) 귀하는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동 : 만 세 ~ 만 세
- 청소년 : 만 세 ~ 만 세
- 청년 : 만 세 ~ 만 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 범위

-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각각 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생각하는 지 응답
- 각 응답 간 연령 범위가 중복되지 않아야 함

문2) 귀하는 몇 세부터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 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3) 귀하는 몇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4) 귀하는 몇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정으로부터의
분가 및 독립

- 가정으로부터 분가 독립의 의미는 학업, 군대 등의 이유로 일시적 비동거인 상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모와 친지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경제독립체로서의 독립을 의미함

분가, 결혼,
첫 자녀 출산
연령

- 분가, 결혼, 첫 자녀 출산에 대한 응답 연령이 너무 낮거나 첫 자녀 출산 연령이 분가 및 결혼 연령보다 낮은 경우에는 응답자에게 다시 한 번 올바른 값인지를 확인

✓ 예) 문2) 가정 분가 연령을 10세로 응답한 경우

문3) 결혼 연령을 20세로 응답하고 문4) 출산 연령을 15세로 응답한 경우

II. 교육과 훈련

문10) 귀하는 현재까지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공무원, 공단 및
국가전문자격시험
예시

- 공무원, 공단(공사) 및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예는 다음과 같음
 - ✓ 공무원 : 5급, 7급, 8급(국회직, 간호직) 9급 공무원 등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경찰, 소방, 사회복지, 군무원, 기상직, 연구직 등 직렬이 포함됨
 - ✓ 공단(공사) : 도로교통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기관 산하 특정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을 의미함
 - ✓ 국가전문자격시험 :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행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의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보육교사, 경비지도사 등
- 국가전문자격시험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와 같은 국가 기술자격시험과는 다른 자격시험이므로 주의해야 함

Ⅲ. 경 제 와 고 용

문13) 귀하는 2020년도 최저 임금으로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2016년 6,030원, 2017년은 6,470원, 2018년은 7,530원, 2019년은 8,350원입니다.

시간급 원

최저 임금

- 최저 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하며 '원' 단위로 응답
-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결과(8,350원)보다 작은 금액을 응답한 경우 응답자에게 다시 한 번 올바른 값인지를 확인

문16) 한 달 용돈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가족을 제외한 본인의 용돈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용돈 포함 내용: 식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오락, 문화생활, 도서구입 등), 학원수강비, 시험응시료, 취업을 위한 도서 등 자료 구입비, 주거비 등

약 만원

한 달 용돈

- 가구 기준이 아니라 본인 용돈을 기준으로 응답 받아야 함
- 한 달 용돈은 한 달 평균 금액으로 '만원' 단위로 응답(문13 최저 임금 문항과 금액 단위가 다르므로 주의)
- 정해진 월/주/일별 용돈 금액 없이 필요시 수시로 받는 응답자(특히 문화생활비)의 경우 대략적인 월 총액을 환산하여 응답 받음

문16-1) 용돈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약 %

한 달 용돈 중
부모,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

- 한 달 용돈 총액을 100%로 보았을 때 지원 받는 비율을 기재
- "0"은 가능하나(용돈 전액을 본인이 벌어서 쓰는 경우 해당) "100"을 초과할 수는 없음

IV. 주거

문22) 귀하는 공동주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동주거란 가족이 아닌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방은 따로 쓰고 거실과 욕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를 의미함(고시원 및 하숙 거주 경험은 포함하지 않음)

① 예

② 아니오

공동 주거

- 본 조사에서 다루는 '공동주거'란 집의 출입구(대문, 현관 등)는 하나인 공간에서 여러 가족 및 개인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의미함
 - ✓ 대문과 현관이 별도인 단독주택 형태인 경우, 대문이 하나이면서 거주공간에 출입하는 현관도 하나이고, 하나의 거주공간 내의 각 방에 각각의 가족 및 개인이 거주하며 이들이 거실과 욕실 등 공용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
(대문은 하나이나 현관이 여럿이고 각 현관을 통해 독립된 거주공간, 거실, 욕실을 소유하는 경우는 공동주거가 아님)
 - ✓ 대문이 곧 현관인 형태의 주택인 경우, 현관이 하나이면서 각 방에 각각의 가족 및 개인이 거주하고 이들이 거실과 욕실 등 공용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

문24)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① [동거] 현재 같이 살고 있다 ▶ **문25로 이동**

② [비동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취업, 직장 등의 이유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

③ [독립]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상태이다(결혼, 장성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부모 동거 및 독립

- '② 비동거'와 '③ 독립'을 혼동하여 오응답 받지 않도록 주의
 - ✓ ② 비동거 예시 : 지방 거주자가 대학 재학을 위해 '부모의 경제적 도움' 하에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는 경우
 - ✓ ③ 독립 예시 : 지방 거주자가 서울로 취업, 서울에 거주하며 '부모의 경제적 도움' 없이 생활 대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V. 건강

문33)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문 34로 이동

문33-1)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① 일주일에 1번

② 일주일에 2번

③ 일주일에 3번

④ 일주일에 4번

⑤ 일주일에 5번

⑥ 일주일에 6번

⑦ 매일

규칙적인 운동 횟수

-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 하루에 여러 번 했더라도 1일 1회를 기준으로 응답함

- ✓ 응답자가 보통 월, 수, 금요일에 아침에는 조깅, 저녁에는 수영을 규칙적으로 하는 경우 횟수로는 3일간 아침 저녁으로 총 6회이나, 일 수를 기준으로하는 주당 3회이므로 "③ 일주일에 3번"으로 응답함

문35) 귀하는 성형 수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목적과 미용(보톡스 등) 목적을 모두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 「가치관」 영역(문36)로 이동

문35-1) 귀하가 하신 성형수술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 「가치관」 영역(문36)으로 이동

② 미용(쌍꺼풀, 보톡스, 지방제거 등)

- 문35-2로 이동

용어 설명

- 안검하수 :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위쪽 눈꺼풀을 올렸다 아래로 내렸다 하는 근육의 힘이 약해서 위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으로, 수술적 치료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임

성형수술 목적

- 의료목적의 수술을 하면서 '이왕 하느' 미용 수술을 겸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된 수술의 목적과 계기가 '의료' 목적인 경우 "① 의료"로 응답 받음

VII. 관계와 참여

문39)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및 친지, 지인,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① 없다

② 있다 (명)

친구의 범위

-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가족 및 친지, 지인,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을 포함

VIII. 신규 졸업(예정)자

문45) 귀하는 2018년 8월에서 2019년 8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정답항 1】로 이동**

문45-1) 귀하의 졸업예정연월을 기입해주시시오.

■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연월 : 년 월

졸업예정 연월

- 응답 가능한 연도는 2018, 2019 등 2개이므로 둘 중 하나만 응답 받아야 함

문47) 귀하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① 상위교육기관으로 진학

② 취업

③ 창업

④ 취·창업 준비

⑤ 문화 및 여가생활

⑥ 아무 계획 없음

⑦ 기타(적용 것 : _____)

상위교육기관 정의

- '① 상위교육기관으로 진학'
 - ✓ 고등학교→대학교, 대학교→대학원 등 상위기관으로의 진학을 의미. 동일 수준으로 진학하는 경우(대학→대학 편입, 재입학 등)는 해당이 안 됨
- '② 취업', '③ 창업'과 '④ 취·창업 준비'간의 구분
 - ✓ '② 취업', '③ 창업'은 졸업 후 취업할 곳, 창업할 업소가 확정된 상태를 의미하며 그 외 취업, 창업을 위해 준비를 시작(또는 진행 중)하는 단계는 모두 '④ 취·창업 준비'에 해당

'취업', '창업'과
'취·창업 준비'

기본 사항

배경문항 3) [교육]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 이 아닙니다)

구분	학교 안 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2)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최종학력

- 부모님이 비동거 중이거나 돌아가신 경우라도 최종 학력을 응답하도록 함
- 현재 재학 중이거나 중간에 학교를 그만둔 경우는 졸업이 아님
 - ✓ 예) 아버지가 2-3년제 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을 중퇴한 경우
"④ 고등학교 졸업"으로 응답
- 대학을 두 개 이상 졸업한 경우는 고학력을 기준으로 응답
 - ✓ 예) 어머니가 2-3년제와 4년제 대학을 모두 다니고 졸업한 경우
"⑥ 4년제 대학 졸업"으로 응답

조사 항목별 작성요령

[청년용 조사표(만 19세~39세)]

(시작 전) 응답 적격자 및 적격 설문지 구분

이 설문지는 만19세~만39세(1978년 7월 1일~1999년 6월 30일)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15~18세인 가운데 중·고등학생이 아닌 경우(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 검정고시 준비, 재수생, 대학(교)에 입학하신 분, 현재 취업 중이신 분 등)에는 본 설문지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이 절대적
기준이 아님

- 2018년 6월 달을 기준으로 1978년 7월~1999년 6월 말까지 출생자 중 현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년을 대상으로 함
- 해당 연령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중고교에 재학중인 경우(재입학, 복학 등), 만 15~18세용 조사표에 응답해야 함
- 반대로, 만 15~18세 학생이나 하더라도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 검정고시 준비, 재수생,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취업중인 경우는 본 조사표에 응답해야 함

I. 인구와 가족

문1) 귀하는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 동 : 만 세 ~ 만 세
 ■ 청 소 년 : 만 세 ~ 만 세
 ■ 청 년 : 만 세 ~ 만 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 범위

-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각각 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생각하는 지 응답
- 각 응답 간 연령 범위가 중복되지 않아야 함

문2) 귀하는 몇 세부터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 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3) 귀하는 몇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4) 귀하는 몇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정으로부터의
분가 및 독립

- 가정으로부터 분가 독립의 의미는 학업, 군대 등의 이유로 일시적 비동거인 상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모와 친지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경제독립체로서의 독립을 의미함

분가, 결혼,
첫 자녀 출산
연령

- 분가, 결혼, 첫 자녀 출산에 대한 응답 연령이 너무 낮거나 첫 자녀 출산 연령이 분가 및 결혼 연령보다 낮은 경우에는 응답자에게 다시 한 번 올바른 값인지를 확인

✓ 예) 문2) 가정 분가 연령을 10세로 응답한 경우

문3) 결혼 연령을 20세로 응답하고 문4) 출산 연령을 15세로 응답한 경우

문8) 귀하의 가정은 맞벌이를 하고 계십니까?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있는 분만 기입해 주십시오.

① 예(맞벌이)

② 아니오(외벌이)

맞벌이 기준

- 부부가 모두 6월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소득이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경우 “① 예(맞벌이)”로 응답함
- 6월 달 현재 임시 휴직, 장기휴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일자리로 출근을 하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더라도 일자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II. 교육과 훈련

문16) 대학 시절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고도 졸업을 늦춘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학교에 졸업 유예 제도가 없었음

문17) 대학 시절 졸업을 늦추기 위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졸업 유예 구분

- 졸업 유예 제도는 졸업에 필요한 요건(정규 학기 이수, 전공 학점, 토익 및 토플, 졸업논문심사 등)을 모두 만족한 상태에서 학생이 별도로 학교 측에 신청, 졸업을 연기하는 제도를 말함
- 학점 미충족(일부러 일부 학점을 남겨놓고 이수하지 않는 경우), 졸업인증 미제출(영어성적, 논문 등) 등, 본인 의도 하에 요건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문16) '② 아니오' → 문17) '① 예' 로 응답해야 함

문23) 귀하는 현재까지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공무원, 공단 및 국가전문자격시험 예시

- 공무원, 공단(공사) 및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예는 다음과 같음
 - ✓ 공무원 : 5급, 7급, 8급(국회직, 간호직) 9급 공무원 등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경찰, 소방, 사회복지, 군무원, 기상직, 연구직 등 직렬이 포함됨
 - ✓ 공단(공사) : 도로교통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기관 산하 특정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을 의미함
 - ✓ 국가전문자격시험 :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행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의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보육교사, 경비지도사 등
- 국가전문자격시험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와 같은 국가 기술자격시험과는 다른 자격시험이므로 주의해야 함

Ⅲ. 경 제 와 고 용

문26) 귀하는 2020년도 최저 임금으로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2016년 6,030원, 2017년은 6,470원, 2018년은 7,530원, 2019년은 8,350원입니다.

시간급 원

최저 임금

- 최저 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하며 '원' 단위로 응답
-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결과(8,350원)보다 작은 금액을 응답한 경우 응답자에게 다시 한번 올바른 값인지를 확인

문29) 한 달 생활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가족을 제외한 본인 생활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생활비 포함 내용: 식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오락, 문화생활, 도서구입 등), 학원수강비, 시험응시료, 취업을 위한 도서 등 자료 구입비, 주거비 등

약 만원

한 달 생활비

- 가구 기준이 아니라 본인 생활비를 기준으로 응답 받아야 함
- 한 달 생활비는 한 달 평균 금액으로 '만원' 단위로 응답(문26 최저 임금 문항과 금액 단위가 다르므로 주의)
- 특히, 응답자 본인이 가구 경제권을 가진 응답자의 경우(예: 맞벌이 가정의 아내(또는 남편)가 부부합산 소득 전체를 관리, 전업주부가 남편의 소득으로 가구 경제를 관리) 가족을 위한 전체 생활비가 아닌, 본인을 위한 생활비(식비, 여가비 등) 개념으로 응답 받아야 함
 - ✓ 예를 들어 전업주부 응답자인 경우, 가족 생활을 위한 지출(장 보기, 남편/아이 옷 구매, 자녀 학비 등)이 아닌, 본인을 위한 지출 비용(자녀를 등원/등교 시킨 후 친구와 식사 등)으로 응답 받아야 함
- 경제권 월/주/일별 용돈 금액 없이 필요시 수시로 지출하는 응답자(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대략적인 월 총액을 환산하여 응답 받음

문29-1) 생활비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약 %

한 달 생활비 중
부모,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

- 한 달 생활비 총액을 100%로 보았을 때 지원 받는 비율을 기재
- 본 응답도 문29)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가족 생활비 전체가 아닌, 본인을 위한 생활비(용돈, 여가비 개념) 총액을 100%로 삼고 응답해야 함
- 경제권을 공유하는 부부 사이는 본 질문에서 언급한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에 해당하지 않음
 - ✓ 남편(또는 아내)인 응답자가 한달 생활비(용돈)로 50만원을 전액 아내(또는 남편)로부터 받는 경우, "0%"로 응답함
 - ✓ 남편(또는 아내)인 응답자가 한달 생활비(용돈)로 100만원을 사용, 이 중 아내(또는 남편)로부터 50만원, 부모님으로부터 50만원을 받는다면 "50%"로 응답함
- "0"은 가능하나(용돈 전액을 본인이 벌어서 쓰는 경우 해당) "100"을 초과할 수는 없음

문30) 귀하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학자금 대출 포함)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문30-1) 귀하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채무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자금 마련
- ② 주거비 마련(전·월세자금 대출 등)
- ③ 생활비 마련(식비, 의료비 등)
- ④ 창업 자금 마련
- ⑤ 기타(적용 것 : _____)

채무 발생 이유

- 채무 발생 이유가 여럿인 경우(예: 전월세 자금 대출과 창업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가장 비용이 큰 한 가지를 기준으로 응답 받음

문32)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사회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사회는 대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기성세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기성세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청년 지원 주제

- 각 세부문항별 주제에 주의요망
- ✓ (1), (2)는 '우리사회 전반'이, (3), (4)는 '기성세대'가, (5), (6)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청년 세대에게 행하는 대우와 배려에 대해 평가 받는 문항임

문35-1) 노동공급(개인, 교육)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② 독일이나 스위스식의 일과 학습 병행제도 활성화

문35-2) 노동수요(일자리, 경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④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관공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 ⑥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고용위기 해법
용어 설명**

- '독일, 스위스식의 일·학습 병행제도'는 주당 1~2일은 학교에서 이론 교육을, 나머지 3~4일은 기업에서 실무교육 및 고숙련 훈련과정을 거친 후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임
- '경제민주화'란 대기업 등에 편중된 부를 공정거래법 등의 법안, 소득 분배, 제벌개혁 등을 통해 평등하게 조정하자는 취지의 내용임
-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제도임

문41) 귀하가 학교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하지도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개월수를 고려하여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선택(V)	비교육 및 미취업 기간
(1) 1개월 미만 ()	()일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5일)
(2) 1개월 이상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3개월)
(3) 1년 이상 ()	()년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년 6개월)

비경제활동 기간

- (1), (2), (3) 모두에 응답하는 문항이 아님
- “(1) 1개월 미만”, “(2) 1개월 이상”, “(3) 1년 이상” 중 응답자가 응답하기 편한 기간 하나를 고르고 해당되는 단위(일, 개월, 년)로 응답함

문45)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얻는 세후 기준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약 만원

세후 소득

- 세후 소득은 정해진 소득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직장인 4대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공제한 후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을 의미함
 - ✓ 급여소득자(직장인)의 경우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급여액’이 ‘세후 소득’임
- 자영업자의 경우,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님. 비용(원가, 인건비, 월세 등)과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제외한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응답 받아야 함

IV. 주거

문57) 귀하는 공동주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동주거란 가족이 아닌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방은 따로 쓰고 거실과 욕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를 의미함(고시원 및 하숙 거주 경험은 포함하지 않음)

① 예

② 아니오

공동 주거

- 본 조사에서 다루는 '공동주거'란 집의 출입구(대문, 현관 등)는 하나인 공간에서 여러 가족 및 개인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의미함
 - ✓ 대문과 현관이 별도인 단독주택 형태인 경우, 대문이 하나이면서 거주공간에 출입하는 현관도 하나이고, 하나의 거주공간 내의 각 방에 각각의 가족 및 개인이 거주하며 이들이 거실과 욕실 등 공용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
(대문은 하나이나 현관이 여럿이고 각 현관을 통해 독립된 거주공간, 거실, 욕실을 소유하는 경우는 공동주거가 아님)
 - ✓ 대문이 곧 현관인 형태의 주택인 경우, 현관이 하나이면서 각 방에 각각의 가족 및 개인이 거주하고 이들이 거실과 욕실 등 공용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

문59)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① [동거] 현재 같이 살고 있다 ➡ **「건강」 영역(문61)으로 이동**

② [비동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학업, 직장 등의 이유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

③ [독립]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상태이다(결혼, 장성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부모 동거 및 독립

- '② 비동거'와 '③ 독립'을 혼동하여 오 응답 받지 않도록 주의
 - ✓ ② 비동거 예시 : 지방 거주자가 대학 재학을 위해 '부모의 경제적 도움' 하에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는 경우
 - ✓ ③ 독립 예시 : 지방 거주자가 서울로 취업, 서울에 거주하며 '부모의 경제적 도움' 없이 생활 대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문60) 귀하는 현재 미혼으로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건강」 영역(문61)으로 이동**

미혼자 주거형태

- "기혼" 독립자 중 불가피하게 혼자 거주하는 경우는 본 질문에서 "② 아니오"로 응답

V. 건강

문68)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문69로 이동

문68-1)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① 일주일에 1번

② 일주일에 2번

③ 일주일에 3번

④ 일주일에 4번

⑤ 일주일에 5번

⑥ 일주일에 6번

⑦ 매일

규칙적인 운동 횟수

-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 하루에 여러 번 했더라도 1일 1회를 기준으로 응답함

- ✓ 응답자가 보통 월, 수, 금요일에 아침에는 조깅, 저녁에는 수영을 규칙적으로 하는 경우 횟수로는 3일간 아침 저녁으로 총 6회이나, 일 수를 기준으로하는 주당 3회이므로 "③ 일주일에 3번"으로 응답함

문70) 귀하는 성형 수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목적과 미용(보톡스 등) 목적을 모두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 「가치관」 영역(문71)로 이동

문70-1) 귀하가 하신 성형수술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 「가치관」 영역(문71)으로 이동

② 미용(쌍꺼풀, 보톡스, 지방제거 등)

- 문70-2로 이동

용어 설명

- 안검하수 :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위쪽 눈꺼풀을 올렸다 아래로 내렸다 하는 근육의 힘이 약해서 위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으로, 수술적 치료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임

성형수술 목적

- 의료목적의 수술을 하면서 '이왕 하느' 미용 수술을 겸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된 수술의 목적과 계기가 '의료'목적인 경우 "① 의료"로 응답 받음

VII. 관 계 와 참 여

문74)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및 친지, 지인,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① 없다

② 있다 (명)

친구의 범위

-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가족 및 친지, 지인,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을 포함

VIII. 신규 졸업(예정)자

문82) 귀하는 지난 2017년 2월에서 2018년 2월에 졸업하였거나, 2018년 8월에서 2019년 8월에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졸업할 예정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필경문항 1)로 이동**

문82-1) 귀하의 졸업연월 또는 졸업예정연월을 기입해주시시오.

■ 졸업자 졸업연월 : 년 월

■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연월 : 년 월

졸업자 졸업연월

- 응답 가능한 연도는 2017, 2018 등 2개이므로 둘 중 하나만 응답 받아야 함

졸업예정 연월

- 응답 가능한 연도는 2018, 2019 등 2개이므로 둘 중 하나만 응답 받아야 함

문84) 귀하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① 상위교육기관으로 진학

② 취업

③ 창업

④ 취·창업 준비

⑤ 문화 및 여가생활

⑥ 아무 계획 없음

⑦ 기타(적을 것 : _____)

상위교육기관 정의

- '① 상위교육기관으로 진학'
 - ✓ 고등학교→대학교, 대학교→대학원 등 상위기관으로의 진학을 의미. 동일 수준으로 진학하는 경우(대학→대학 편입, 재입학 등)는 해당이 안됨

'취업', '창업'과
'취·창업 준비'

- '② 취업', '③ 창업'과 '④ 취·창업 준비'간의 구분
 - ✓ '② 취업', '③ 창업'은 졸업 후 취업할 곳, 창업할 업소가 확정된 상태를 의미하며 그 외 취업, 창업을 위해 준비를 시작(또는 진행 중)하는 단계는 모두 '④ 취·창업 준비'에 해당

기본 사항

배경문항 2) [혼인] 귀하는 결혼하십니까?

- ① 배우자 있음
- ② 사별·이혼
- ③ 결혼하지 않음

혼인상태

- 결혼 준비 중으로 곧 결혼을 앞둔 경우라도 "③ 결혼하지 않음"으로 응답
- 결혼식 또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으면 "① 배우자 있음"으로 응답

배경문항 3) [가족배경] 귀하의 부모님 소득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소득 수준 =
경제적 수준

- 부모님의 소득 수준 응답 시에는 근로소득, 임대료 등 정기적인 소득 외에도 부동산 소유 등 전체적인 부의 수준을 고려하여 응답함.
- ✓ 예) 부모님이 은퇴하셔서 정기적인 소득은 없으나 건물 소유 등으로 인해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본인의 판단 하에 상위 수준으로 분류 할 수 있음

배경문항 4 [교육]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 이 아닙니다)

구분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본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응답자(본인 기준)는 아래의 문항에도 응답해 주십시오.

학교소재 (17개 시도 기준)	학교명	전공계열 (※아래표 참조)	입학년월	졸업여부	졸업년월 (졸업한 경우 응답)
			____년 ____월	① 졸업 ② 졸업안함(재학, 중퇴, 휴학 등)	____년 ____월

최종학력

- 중간에 학교를 그만둔 경우는 졸업이 아님
✓ 예) 아버지가 2-3년제 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을 중퇴한 경우 "④ 고등학교 졸업"으로 응답
- 대학을 두 개 이상 졸업한 경우는 고학력을 기준으로 응답
✓ 예) 어머니가 2-3년제와 4년제 대학을 모두 다니고 졸업한 경우 "⑥ 4년제 대학 졸업"으로 응답

대학교육

- 동일 대학을 두 개 이상 다닌 경우는 마지막 학교를 기준으로 응답
✓ 예) 2-3년제 대학을 두 개 이상 다닌 경우 더 최근에 다닌 대학을 기준으로 응답
- 캠퍼스가 나누어져 있는 대학에서 캠퍼스 소재 학과를 다닌 경우 소재지는 본교가 아니라 실제 출신학과가 소재한 캠퍼스 기준 소재지로 응답

입학년도/졸업년도

- 응답자의 만 연령을 고려하여 대학입학년도가 너무 빠른 경우 재확인 필요
- 2018년 6월이 조사 기준년도이므로 졸업시기는 "2018년 6월" 이후일 수 없음
- 해외에서 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제외하고 졸업월은 대부분 2월 또는 8월로 응답되어야 함. 이외 경우는 재확인 필요
- 최종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입학년도와 졸업년도를 비교, 학기(6개월을 한 학기로 봄)를 모두 이수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4년제 대학을 3년 만에 졸업한 경우 조기졸업 등을 한 경우인지를 면접원이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정규직(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여기에서의 분류는 직업의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계약기간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고용계약기간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함 ✓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 ✓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하여 입사하여 소속회사의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직원. 단,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하여 입사한 사람이라도 일정한 사업 완료의 필요기간동안 또는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자는 제외 ✓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퇴직금 및 상여금 등 각종 수당 수혜자. 단, 몇 년을 동일사업체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할지라도 계약이 일시 또는 일용인 자는 제외
비정규직 (기간제, 파견, 용역 등)	- 임금근로자 중 상용이 아닌 자로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일당제 급여를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포함 - 일정한 사업완료의 필요에 의하여 고용된 자(사업완료가 1년 미만) - 단순 업무 보조원으로서 상여금 등 계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 등
근로시간 유형	- 다음의 시간제 근로조건에 1개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일제'임 ✓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정규 시간동안 일하거나 ✓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종사자수	- 종사자수 응답은 사업체를 기준으로 함. - 사업체란 기업체보다 작은 단위의 개념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부여하여 조사대상자가 직접 일하고 있는 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예) 우리은행 삼성동 지점에 근무하는 경우, 기업체인 우리은행 전 사원 수15,000명 기준이 아닌 삼성동 지점의 인원 수 20명을 기준으로 응답해야 함 ✓ 본인을 포함하며, 정규직 및 비정규직 종사자를 모두 합친 수임 - 고용주는 자신을 포함한 사업체내의 전 종사자수를, 자영업자는 가족종사자가 있는 경우 자신을 포함한 전 종사자수를 기입. 작은 개인 사업체의 경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

201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8-R01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청소년활동정책 전략 연구 / 이경상 · 이창호 · 김민
- 18-R02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김희진 · 백혜정 · 김은정
- 18-R02-1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기초분석 보고서 / 김희진 · 백혜정
- 18-R03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 / 최정원 · 강경균 · 강소영 · 김혁
- 18-R04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황여정 · 김승경
- 18-R05 20대 청년 심리 · 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 김지경 · 이윤주
- 18-R06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 김형주 · 임지연 · 유설희
- 18-R06-1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 김형주 · 임지연 · 유설희
- 18-R06-2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 · 임지연 · 유설희
- 18-R07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V / 임희진 · 문호영 · 정정호
- 18-R07-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V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 · 문호영
- 18-R08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김지연 · 이유진 · 정소연 · 박선영
- 18-R08-1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기초분석 보고서 / 김지연 · 정소연
- 18-R09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 / 정은주 · 김정숙
- 18-R10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 · 청소년 · 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 / 최용환 · 성운숙 · 박상현
- 18-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VI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 및 청소년동아리활동과 마을공동체 지원 방안 / 오해섭 · 최인재 · 염유식
- 18-R12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2018 총괄보고서 / 최창욱 · 황세영 · 유민상 · 이민희 · 김진호
- 18-R12-1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2018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 · 황세영 · 유민상
- 18-R13 한국 아동 · 청소년패널조사IX : 사업보고서 / 하형석 · 이종원 · 정은진 · 김성은 · 한지형
- 18-R14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2018 : 총괄보고서 / 양계민 · 황진구 · 연보라 · 정윤미
- 18-R14-1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2018 - 신규패널설계보고서 / 양계민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V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장근영·성은모·모상현·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8-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V : IEA ICCS 2016 -
ICCS 결과 보고서 / 장근영 (자체번호 18-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V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 김태준·홍영란·김미란·김홍민 (자체번호 18-R15-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8-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자원모델 개발연구Ⅰ :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이동훈 (자체번호 18-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8-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자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
조아미·임장아·이지연·김남은 (자체번호 18-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9-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자원방안 연구Ⅰ :
청년 니트(NEET) / 김기현·배상률·성재민 (자체번호 18-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9-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자원방안 연구Ⅰ :
청년 니트(NEET) - 해외사례 조사 / 채창균·양정승·김민경·송선혜 (자체번호 18-R17-1)

수 시 과 제

- 18-R18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 김정숙·연보라
- 18-R19 청소년우대정책 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 연구 / 김경준·모상현·송태진
- 18-R20 경찰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조치 개선 방안 :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희진
- 18-R21 학교폭력 피·가해학생간 효율적 화해·분쟁조정을 위한 연구 / 이경상·김승혜
- 18-R22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도화 방안 / 유민상
- 18-R23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연구 / 최창욱·김기현·김민규
- 18-R24 청소년 통일인식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 / 이창호
- 18-R25 청소년의 장래 및 유학의식에 관한 조사 / 이창호

수탁과제

- 18-R26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성과분석 / 김이성·오해섭·윤철경·정윤미
- 18-R27 2018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모상현·정은주·이유진
- 18-R28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보호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서정아·박선영
- 18-R29 제3차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연·백혜정
- 18-R30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윤철경·최인재·김승경·김성은
- 18-R31 성남시청소년재단 제3차중장기 발전계획(2019~2023) 수립 연구 / 최창욱·성은모·남화성·이선근·정은옥·장미희·김미영
- 18-R31-1 2018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 최창욱·성은모·남화성·이선근·정은옥·장미희·김미영
- 18-R32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중국 출신 청소년을 중심으로 / 배상률·이경상·임지연
- 18-R3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8 / 김희진·황진구·임희진·정윤미·정선욱
- 18-R34 2018 청소년수련시설 유형 개편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연구 / 최창욱·장근영
- 18-R35 2018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 / 김지경·정은진·연보라·정윤미·유설희
- 18-R35-1 2018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 - 통계결과표 / 김지경·정은진·연보라·정윤미·유설희
- 18-R36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심사원 직무분석 및 운용 개선방안 연구 / 김형주·김정주
- 18-R37 내일이룸학교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 김기현·김태성
- 18-R38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 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 18-R38-1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 가이드북 / 강경균
- 18-R39 대구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최용환·박윤수·김기영
- 18-R39-1 대구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요약본 / 최용환·박윤수·김기영
- 18-R40 201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양계민
- 18-R41 지역사회 협력망 운영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개발연구 / 이윤주·오해섭·백승주·성지은·강지원·탁현우
- 18-R42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 18-R42-1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의회 교육과정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 18-R42-2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의회 가이드북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 18-R43 아동·청소년의 걱정 등급 게임물 이용을 위한 기초연구 / 배상률
- 18-R44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 김기현·이윤주·최정원·유설희
- 18-R45 입법 상 연령 기준과 정책 연계성을 확보를 위한 연구 / 김기현·하형석·유민상·조성호
- 18-R46 금천구 청년정책 연구 / 이윤주·문호영

- 18-R47 청소년 비행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 연구 / 김지연
- 18-R48 미래인개발과 교육혁신 / 장근영
- 18-R49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Ⅱ -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및 평가 / 김정숙 · 황여정
- 18-R50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 연구(중등용) / 황세영 · 한지형
- 18-R50-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 꿈지락(중등용) / 황세영 · 한지형
- 18-R5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인증기준 및 성과평가 방안 연구 / 김성기 · 정제영
- 18-R52 2018년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사업 모니터링 I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 및 기관 모니터링 결과 / 김소영 · 오해섭 · 윤철경 · 임하린 · 윤혜지
- 18-R53 2018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실태조사 연구 / 박지영 · 서보람 · 윤철경 · 양수빈 · 이지혜
- 18-R54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 / 이종태 · 박상진 · 하태욱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8-S01 청소년 범죄의 이해와 대응방안(4/4)
- 18-S02 2018 제1차 WARDY 세미나 - Korean American Identity & the LA Riots(1/22)
- 18-S03 2018 제2차 WARDY 세미나 - 재외동포청소년 한민족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국어교육 현황과 발전 방안(1/23)
- 18-S04 제1차 NYPI Lunch Bag Seminar - National Youth policy as practiced in helping nigerian youth to move forward(1/29)
- 18-S05 제3차 WARDY 세미나 - 인터넷시대의 부모와 자녀관계 및 건강실태(3/5)
- 18-S06 제2회 청소년정책포럼 : 아동 · 청소년 · 청년의 연령개념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정책과제 (2/28)
- 18-S07 제3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사회참여,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3/16)
- 18-S08 제4회 청소년정책포럼 : 저출산 시대,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청소년정책의 과제(4/20)
- 18-S09 제2차 NYPI Lunch Bag Seminar - Digital disturbances in school : Experiences with restrictions on students use of mobile phones(5/4)
- 18-S10 대안학교(특성화 중 · 고 및 각종학교) 관리자 및 담당교원 연수(5/18)
- 18-S11 제5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토크콘서트(5/25)
- 18-S12 2018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안)(5/23)
- 18-S13 Inclusive Korea 2018 국가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특별세션] 미래세대가 꿈꾸는 대한민국(5/24)
- 18-S14 2018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지원기관 모니터링 워크숍(6/5)
- 18-S15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을 위한 1차 워크숍(6/1)
- 18-S16 201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정체성 및 정책 발전 방향(6/15)

- 18-S17 제6회 청소년정책포럼 :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업사회공헌활동
'기업-청소년NPO-학교-정부의 다자간 협력방안 모색' (6/15)
- 18-S18 제4차 WARDY 세미나 - 몽골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투표의향(6/18)
- 18-S19 2018년 시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업무 담당자 워크숍(7/5~6)
- 18-S20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집필진 워크숍(6/29)
- 18-S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29주년 세미나 :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어떻게 할요?
(7/18)
- 18-S22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8/3)
- 18-S23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신규 담당자 연수(초등)(8/1)
- 18-S24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신규 담당자 연수(중등)(8/2)
- 18-S25 제7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통일의식 함양 및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8/17)
- 18-S26 제8회 청소년정책포럼 : 해외의 소년 범죄 대응 전략과 시사점(8/24)
- 18-S27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업무담당자 워크숍(9/7)
- 18-S28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학교 워크숍(초등)(9/28~29)
- 18-S29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학교 워크숍(중등)(10/5~6)
- 18-S30 2018년 교육과정기반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활용방안 교사연수(10/1~2)
- 18-S31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워크숍(10/2)
- 18-S32 제9회 청소년정책포럼 : 4차 산업혁명시대, 청소년활동정책의 길찾기(9/28)
- 18-S33 제10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수련시설 유형개편 및 기능개선 방향(11/16)
- 18-S34 제11회 청소년정책포럼 : 「2018 포용사회 조성을 위한 진로교육활성화 포럼」 (11/19)
- 18-S35 제12회 청소년정책포럼 :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모색(12/12)
- 18-S36 2018 학업중단예방 국제포럼 - 학업중단예방의 국제적 동향과 전망 : 학교 안과 밖의
소통과 연계(11/26)
- 18-S37 지역사회 협력망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모델 개발(12/10)
- 18-S38 국회 정책 토론회 : 교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교육제도 개선 방안(12/18)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1호(통권 제8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2호(통권 제89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3호(통권 제9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4호(통권 제91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5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사례조사 및 특성화 요인 분석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6호 :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7호 :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8호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I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9호 :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0호 :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1호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2호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간 효율적 화해·분쟁조정을 위한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3호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4호 :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도화 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5호 : 청소년의 통일 의식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6호 : 단 1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포용적 교육사회를 실현하려면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7호 : 청소년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국내외 정책 현황 및 시사점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8호 :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 III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9호 : 아동·청소년·가족 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운영 모형 개발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0호 : 청소년의 장래 및 유학의식에 관한 조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1호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2018: 추진 현황 및 정책 기여
-
- NYPI Bluenote 통계 39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V
- NYPI Bluenote 통계 40호 : 다문화청소년 발달 추이 분석-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NYPI Bluenote 통계 41호 :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NYPI Bluenote 통계 42호 :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NYPI Bluenote 통계 43호 :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조사
- NYPI Bluenote 통계 44호 : 제2차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연구(ICCIS 2016) 결과
- NYPI Bluenote 통계 45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유지조사

연구보고 18-R06-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Ⅲ - 기초분석보고서

인 쇄 2018년 12월 23일

발 행 2018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44)863-093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195-0 94330

979-11-5654-192-9 (세트)



연구보고 18-R06-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 791156 541950 94330

ISBN 979-11-5654-195-0
ISBN 979-11-5654-192-9 (세트)